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 학위논문

다카라즈카[宝塚]  
재일조선인 공동체의 변화와  
지역사회 재정착운동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정 계 향

다카라즈카[宝塚]  
재일조선인 공동체의 변화와  
지역사회 재정착운동

지도교수 허 영 란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8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정 계 향

## 정계향의 문학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 두 현 인

심사위원 양 상 현 인

심사위원 허 영 란 인

심사위원 이 신 철 인

심사위원 차 철 욱 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9년 8월

## <국문초록>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이후, 자의로 또는 타의로 일본으로 이주했던 조선인 중에는 해방이 된 이후에도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일본에 남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과 그 후손들은 오늘날 재일조선인으로 불리고 있다. 식민지 시기의 이주로부터 시작하면 재일조선인의 역사는 이제 100여 년이 지났다. 재일조선인은 거주국인 일본에서는 소수민족으로, 고국인 한국에서는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겨졌지만, 한일양국의 공식 역사서술에서는 배제되면서 오랫동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많은 연구자들은 재일조선인을 ‘차별 받으면서 동시에 저항하는 소수자’라는 관점에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재일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면서 차별과 저항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컸던 도쿄, 오사카, 교토 등의 대도시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구성된 재일조선인의 역사는, 보통의 재일조선인에게 공통의 기억이나 경험이 될 수는 없었다. 재일조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그들의 생활에 매우 많은 변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재일조선인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과정에서 ‘지역’에 주목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연구는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공동체의 변화와 지역사회 재정착운동에 대한 것이다. 식민지 시기 다카라즈카로 이주한 조선인은 자신들을 둘러싼 내외부의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기의 위치와 역할에 다른 인식을 하게 되었다. 재일조선인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안에 대응하면서 스스로가 역사 기록의 주체가 되어 유무형의 역사를 남겼다. 본 연구에서는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생활세계와 네트워크, 기억과 실천, 다원적 경험에 주목했다.

1920년 무코가와 개수공사를 계기로 다카라즈카로 이주한 조선인은 해방 이후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기원이 되었다. 이들은 제국과 식민지의 경계위에 있었지만, 일본에서의 정주화 진전에 따라 영주의 의사를 가지기도 했다. 다카라즈카 조선인은 윤코바를 비롯해, 코하마, 나마제 등 공사장 인근에 밀집해서 거주했다. 거주지에서 퇴거될 때에도 집단퇴거였기 때문에 집단거주지는 계속 유지되었다. 식민지 시기 이주는 체인이주의 형태를 하고 있어서 조선인 사이에 이미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윤코바 조선인의 경우 동향출신자들이 많아서 그 네트워크는 매우 촘촘했다. 그러나 다카라즈카 조선인은 사회운동의 역량이 약했기 때문에 내선융화단체처럼 일제의 행정적 지도를 받은 후에야 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고, 노동조합이나 동업자 조직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다. 이런 양상은 해방 후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사회 형성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은 일본사회의 외국인이 되면서 지역사회의 현안으로부터 유리되었고, 고국과 일시적으로 왕래가 끊어지면서 섬처럼 고립되었다.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은 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재일조선인 마을에 그대로 거주했다. 이들은 조련지부(총련지부)와 민단지부를 결성하고, 각 조직의 민족학교로 조선학교와

한국소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했다. 두 조직은 교류를 단절한 채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했다. 민단지부는 공산화교육을 막는 것을 민족교육이라고 생각했고, 총련지부는 일본의 차별에 맞서 조선학교를 지킴으로서 민족교육을 수호할 수 있다고 여겼다. 각 조직과 학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억과 역사는 서로 공유할 수 없는 것이었다.

1970~80년대 다카라즈카에서는 신경환 사건, 니시다가와 홍수피해 보상문제, 고령자연금 특별급부금 지급 문제 등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현안이 발생했다. 여기에 대응하면서 개인적으로 사회운동 역량을 축적하는 사람도 있었고, 조직 차원에서 다카라즈카의 일본인 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현안에 대응하며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했다. 다카라즈카의 여러 시민단체들은 재일조선인과 다카라즈카 행정당국을 매개해주는 동시에 재일조선인 조직 사이의 연결 고리의 역할을 했다. 민단지부와 총련지부 사이에도 처음으로 조직 차원의 교류관계가 만들어졌다. 이 때의 교류를 계기로 다카라즈카 민족마르치가 개최되었고, 이후 재일조선인이 직접 기획한 민족축제로 원코리아 다카라즈카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런 축제를 통해 다카라즈카 지역사회에 재일조선인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재일조선인 내부의 차이가 제거되고 매우 정형화된 재일조선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카라즈카 시가 만든 다문화공생 정책은 대부분 뉴커머 외국인 중심이었고, 올드커머인 재일조선인은 자신들의 역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카라즈카와 오사카의 재일조선인, 일본인이 중심이 되어 외국인시민문화교류협회를 결성하고,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문화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 식민지시기 다카라즈카 지역개발 공사에서 희생된 조선인을 위한 추도비 건립운동을 추진했다. 추도비는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존재에 대한 변호인 동시에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시도이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은 일본 주민들과 함께 지역개발을 주도해 온 사람들로, 지역주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개발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뉴커머가 배제되는 것은,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은 지역사회의 역사문화를 공유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고, 이것은 모두 재정착운동의 결과물이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은 공식역사에서 소외되어 왔지만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주체들과 관계를 맺고 현안에 대응하면서 자기 역사를 만들어왔다. 지역사회의 사안에 따라, 각 주체의 경험과 입장에 따라 대립하고 협력하고, 갈등하고 교류하는 등 관계의 양상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재일조선인 간의 관계도 그러했고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지역에서의 이런 다층적이고 다원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재일조선인을 차별받고 저항하는 소수자로만 정의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사안에 따라 일본인, 조선인과 적극적으로 대립, 협력의 관계를

만들면서 자기 역사를 구축해 온 존재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일본사회의 소수자로서, 피차별민족으로서 역사 속에 자신들을 위치시키던 재일조선인은 이제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으로서 자기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정주지에서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은 재정착운동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귀화를 하거나 폐쇄적인 민족공동체를 유지하는 대신, 실천적 행위를 통해 지역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단위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국가 사이에서 외교·문화적 가교 역할을 담당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재일조선인은, 혼종적 존재로서의 자기를 받아들이고, 지역사회 안에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고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주제어 : 재일조선인, 다카라즈카, 지역사회, 민족공동체, 재정착운동

## <목 차>

|  |    |
|--|----|
| I. 서론 .....                                | 1  |
| 1. 연구사 정리 및 문제의식 .....                     | 3  |
|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                        | 9  |
| 3. 연구방법 .....                              | 13 |
| II.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다카라즈카 이주와 생활세계 .....       | 16 |
| 1. 다카라즈카 개발과 조선인 마을 .....                  | 16 |
| 1) 도시개발공사와 조선인 이주 .....                    | 16 |
| 2) 1930년대 정주화의 진전과 조선인 마을의 특징 .....        | 22 |
| 2. 내선융화(內鮮融和)단체의 결성과 조선인의 동향 .....         | 27 |
| 1) 다카라즈카의 주요 산업과 조선인 노동자 .....             | 27 |
| 2) 내선융화단체의 결성과 다카라즈카 친향회 .....             | 30 |
| 3) 다카라즈카 협화회의 결성과 전쟁 동원 .....              | 36 |
| 3.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류와 갈등 .....                  | 38 |
| 1) 조선인의 등장과 문화적 충돌 .....                   | 38 |
| 2) 조선인의 정착과 지역주민의 조선인관 .....               | 41 |
| III. 해방 후 분단체제하의 이원화된 조직 활동과 공동체의 분할 ..... | 46 |
| 1. 다카라즈카 시의 탄생과 재일조선인의 외국인화 .....          | 46 |
| 1) 해방 직후 다카라즈카의 현안과 시민의 참여 .....           | 46 |
| 2) 조련 다카라즈카지부의 결성과 고국 귀환 .....             | 50 |
| 2. 민단 다카라즈카지부의 결성과 한국소학교 운영 .....          | 57 |
| 1) 민단지부의 설립과 학교 소유권 분쟁 .....               | 57 |
| 2) 한국소학교의 재정 문제와 민단지부의 활동 .....            | 62 |
| 3) 한국소학교 폐교 이후 민단지부의 조직 정비 .....           | 67 |
| 3. 총련 다카라즈카지부의 결성과 조선학교의 운영 .....          | 70 |
| 1) 조선초급학교의 설립과 한신교육대투쟁 .....               | 70 |
| 2) 초급학교의 재정문제와 총련지부의 활동 .....              | 74 |
| 3) 다카라즈카 조선초급학교의 역할과 의미 .....              | 78 |
| 4. 민족학교의 역할과 재일조선인 공동체의 분할 .....           | 82 |
| 1) 민단지부와 총련지부의 경쟁과 대립 .....                | 82 |
| 2) 일본에 대한 인식 차이와 당면과제 .....                | 84 |



|                                      |     |
|--------------------------------------|-----|
| IV. 현안을 통한 지역사회 교류와 재일조선인의 재발견 ..... | 87  |
| 1. 지역사회의 변화와 신경환 사건 .....            | 87  |
| 1) 1970년대 이후 다카라즈카의 인구사회적 변화 .....   | 87  |
| 2) 신경환 사건과 재일조선인의 지역사회 출현 .....      | 93  |
| 2. 지역현안과 재일조선인·일본인의 공동대응 .....       | 98  |
| 1) 니시다가와 마을 홍수와 피해보상 협상 .....        | 99  |
| 2) 국민연금법 개정과 특별급부금 지급 운동 .....       | 104 |
| 3. 민족마쓰리(民族まつり)의 개최와 재일조선인의 참여 ..... | 107 |
| 1) 다카라즈카 민족마쓰리의 기획과 운영 .....         | 107 |
| 2) 축제를 통한 문화교류와 재일조선인의 재발견 .....     | 112 |
| 4. 원코리아 다카라즈카와 재일조선인 공동체의 통합 .....   | 116 |
| 1) 남북 관계의 개선과 민단지부·총련지부의 관계 변화 ..... | 116 |
| 2) 축제의 실행과 공동체의 통합의 의미 .....         | 120 |
| V. 다문화공생과 재일조선인의 지역사회 재정착운동 .....    | 127 |
| 1. 지역주민으로서의 재일조선인 .....              | 127 |
| 1) 자치회의 가입과 활동 .....                 | 127 |
| 2) 지역사회의 차별개선과 생활권 획득 운동 .....       | 132 |
| 2. 다문화공생 정책과 외국인 시민문화교류협회 .....      | 139 |
| 1) 다카라즈카 시의 다문화공생 정책 .....           | 139 |
| 2) 외국인시민문화교류협회의 활동 .....             | 145 |
| 3. 추도비건립운동과 지역사회 재정착화 .....          | 153 |
| 1) 조선인에 대한 추도제와 추도비건립운동 .....        | 153 |
| 2) 이주의 역사 재해석과 지역사회 재정착의 근거 .....    | 159 |
| VI. 결론 .....                         | 165 |
| 참고문헌 .....                           | 169 |
| 부록 .....                             | 176 |
| abstract .....                       | 185 |

## [표목차]

- <표1> 다카라즈카 조선인의 성별 인구수
- <표2> 다카라즈카 조선인의 연령별 인구 수
- <표3> 다카라즈카 조선인(세대주)의 거주기간
- <표4> 다카라즈카 조선인의 주거 현황
- <표5>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인구수 및 비율
- <표6> 니시타니촌의 귀환희망자 조사 과정
- <표7> 한국소학교 연혁(1946~1948)
- <표8> 한국소학교 재학생의 학비부담상황
- <표9> 한국정부의 한국소학교 재정지원 상황
- <표10> 학교지원 취지서 중 학생 모집 상황
- <표11> 한국소학교의 이전(移轉) 계획
- <표12> 재일조선인 학생의 학교별 분포
- <표13> 다카라즈카 한국·조선적외국인의 인구
- <표14> 민족진영 500여명의 생활상황
- <표15>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직업분포
- <표16> 원코리아宝塚의 준비 및 실행의 과정
- <표17> 다카라즈카 시 당국의 외국인 정책
- <표18> 『우리고장 다카라즈카』의 구성내용

## [그림목차]

- <그림1> 식민지 시기 다카라즈카 구역
- <그림2> 2019년 현재 다카라즈카 지역
- <그림3> 조선인 매장인허증
- <그림4> 무코가와 개수공사 전후의 지형도 변화
- <그림5> 다카라즈카 친향회 창립기념회
- <그림6> 다카라즈카 지역의 변화 과정
- <그림7> 해방 직후 다카라즈카 국어강습소의 위치
- <그림8> 이타미조선초급학교 게시판 (2016년 5월 15일)
- <그림9> 학교창립40주년기념행사(1986)
- <그림10> 8.15모임(1999)
- <그림11> 외국인과 한국·조선적 보유자 중 귀화자 수
- <그림12> 다카라즈카교회 창립1주년 기념
- <그림13> 지원모임 주최 강연회

- <그림14> 니시다가와 지형 단면도
- <그림15> 제17회 민족마츠리 행사장 안내도
- <그림16> 제7회 민족마츠리 무대공연
- <그림17> 민족마츠리 공예품 판매
- <그림18> 원코리아宝塚 전단지
- <그림19> 원코리아宝塚 방명록 표지
- <그림20> 원코리아宝塚 - 무대공연
- <그림21> 원코리아宝塚 - 무대 밑
- <그림22> 총인구 및 외국인 대비 재일조선인 비율
- <그림23> 『우리고장 다카라즈카』 - 표지와 내용
- <그림24> 다카라즈카 이문화상호이해사업 ‘계발전(啓發展)’
- <그림25> 시민문화교류협회의 출판사업 - 단행본 및 회보
- <그림26> 조선인 함바부지
- <그림27> 제사의 준비
- <그림28> 추도 제사 - 2016년 3월 26일

## I. 서론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체결 이후, 자의로 또는 타의로 일본으로 이주했던 조선인 중에는 해방이 된 이후에도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일본에 남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과 그 후손들은 재일조선인으로 불리며, 일본사회에서 마이너리티 즉 소수자로 살아오고 있다.<sup>1)</sup>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조선인은 일본 제국의 국민이 되었다. 1910년 이후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은 제국의 국민으로서 일본 사회에 정착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자 조선인은 GHQ(General Headquarters, 연합군 총사령부)에 의해, ‘해방민족’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의 신민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적국민(敵國民)으로 취급’해도 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sup>2)</sup> 해방민족이라는 지위 자체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법적지위가 아니었고, 경우에 따라서 일본인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재일조선인의 취약한 위치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조선인을 적극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해, 조선인을 일본국민이라고 주장하고 SCAP(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연합군 최고사령관)을 통해 일본 거주 조선인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 1947년에는 외국인등록령을 시행하며 조선인의 귀환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외국인등록령과 함께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보유한 외국

1)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명칭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재일한인, 재일동포,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 자이니치(在日) 등이 있다. 실제로 재일조선인 혹은 재일한인의 구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연구자가 이들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 사용이 나타난다. 재일동포나 재일한인이라는 표현은 과거 한국 학계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에는 다양한 사정으로 외부로 이산되었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일본정부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의 국적표기에 따라 재일한국·조선인이라는 명칭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의 연구자들 중에도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다수 있다. ‘자이니치(在日)’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는데, 이 말 속에는 재일조선인들이 현재 ‘일본에서 살아오고 있다’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1970년대 이후 재일조선인 2세대들이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고국 귀환 실현의 어려움을 수용하고 자신의 위치를 일본사회 내부로 위치시켰던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재일조선인 당사자들이 일본어로 자신을 지칭할 때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재일코리안이라는 용어도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코리아가 남북한을 모두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고, 기존의 ‘조선’이라는 용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연상시킴으로써 재일조선인 인식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또 코리안은 울드커머뿐만 아니라 뉴커머도 포함할 수 있다. 2010년 일본에서 재일조선인 관련 연구자 111명이 참가해서 공동으로 『재일코리안사전(在日コリアン辞典)』을 편찬하는 등 그 사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재일코리안이라는 말이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로 실제 식민지 시기 재일조선인의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학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재일조선인’이다. 이 명칭에는 재일조선인의 기원이 식민지 조선에서 비롯되었다는 역사성이 반영되어 있다. 현재의 2세, 3세, 4세로 재일조선인의 명맥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식민지인으로서의 직간접적인 경험은, 재일조선인의 자기 인식 혹은 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을 고려한다면 이들을 가리킬 때 ‘재일조선인’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재일조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일본정부의 통계자료를 인용할 때는, 일본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재일한국·조선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일부 재일조선인이 자신을 특정한 용어로 지칭할 경우에도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 ; 재일조선인에 대한 여러 용어와 그 용어사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바란다. 정진성, 「‘재일동포’의 호칭의 역사성과 현재성」, 『일본비평』 7, 2012

2) 김태기, 「GHQ/SCAP의 對 재일한국인정책」, 『國際政治論叢』 38(3), 1999, 250쪽

인’이라는 매우 모순적인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sup>3)</sup>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자,<sup>4)</sup> 일본 정부는 조선인의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했고, 조선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재일조선인’이 되었다.

해방 후 몇 년에 걸쳐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동안 많은 조선인이 고국으로 귀환했지만, 정치·경제적 이유, 언어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귀환을 포기한 조선인도 약 60만 명이었다. 1944년 무렵 재일조선인 총인구는 1,936,843명이었다.<sup>5)</sup> 대략 200만 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약 30% 정도가 일본에 남은 셈이다. 상당히 많은 수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에 정부가 수립되고 일본과 국교가 체결되기 전까지 긴 시간 동안 재일조선인은 고국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었다. 일본사회에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겪었다. 고국과 거주국 양쪽 모두로부터 고립된 상황 속에서 재일조선인은 자기 조직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지역의 축제, 자치회 등에 참여하며 스스로 살 길을 도모했다.

식민지 시기 처음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주했던 재일조선인 1세대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일본에서 출생한 2세대들 역시 세상을 떠나고 있고 남아 있는 이들도 고령자가 되었다. 3세, 4세를 지나서 이제는 재일조선인 5세, 6세대들이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다.<sup>6)</sup> 한일병합으로부터 100여 년이 지나면서 재일조선인 사회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일본으로 귀화하는 사람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과의 통혼과 그에 따른 혼혈아도 증가하고 있다. 정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

3) 김태기, 앞의 논문, 253~258쪽

4)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평화조약으로, 1951년 9월 8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국이 참여해 조약에 서명을 했고,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조약의 발효와 함께 GHQ에 의한 일본의 군정기는 막을 내리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다.

5) 森田芳夫, 『数字が語る在日韓国・朝鮮人の歴史』, 明石書店, 1996, 33쪽

6) ‘재일조선인’의 범주를 정하는 문제도 매우 까다롭다. 서경식은 ‘재일조선인’을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일본에 거주하게 된 조선인과 그 자손이라고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부모 중 한 명이 일본인이거나, 일본으로 귀환을 했더라도 그 자신의 정체성이 ‘조선’에 있다면 그는 재일조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의 조선은 분단 이전 국가로서의 조선과 민족공동체로서의 조선을 가리킨다(서경식/형진의 역,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 반비, 2012, 16쪽). 서경식은 국적 보다는 재일조선인 당사자의 정체성을 중시했는데, 실제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체성은 재일조선인의 범주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나 민족을 기준으로 재일조선인을 정의하게 되면, 재일조선인을 매우 경직된 형태로 정의하게 되고,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존재형태를 전혀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일조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려고 한다. 식민지 시기 노동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일본에 이주하거나, 1940년대 강제징용 및 징병으로 강제적으로 일본에 이주해서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장기간 거주하게 된 사람과 그 자손 중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 제주4.3사건이나 한국전쟁 등의 이유로 해방 이후 일본에 건너와서 장기간 거주하게 된 사람과 그들의 자손 중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도 포함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결혼이나 유학, 취직 등의 이유로 일본에 이주했던 한국인 뉴커머(ニューカマー, new-comer)의 존재이다.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는 식민지 시기에 이주의 연원을 갖고 있는 이들을 올드커머(オールドカマー, old-comer)로 부르면서, 뉴커머와 올드커머를 구분하기도 한다. 국적상으로는 양자의 대부분이 한국인이지만, 올드커머는 해방직후 일본에서 계속 성장했고, 뉴커머는 한국식 반공교육과 민족교육을 받은 후 성인이 되고 나서 일본으로 이주했다. 올드커머와 뉴커머는 서로 다른 역사·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동일집단으로 인식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뉴커머를 재일조선인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만, 뉴커머 중에서도 70년대 후반에 이주하거나 올드커머 가정의 남성 혹은 여성과 결혼을 하면서 지역의 재일조선인사회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뉴커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논문에 반영했지만, 뉴커머의 이주과정이나 생활상의 특징, 올드커머와의 갈등관계 등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뉴커머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 문화로의 동화도 상당부분 진행되었고, 가족 내에서는 세대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재일조선인의 양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민단과 총련 역시 최근에는 그 세력이 매우 약화되었다. 한쪽에서는 재일조선인으로서의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해 지방자치정부를 대상으로 법적소송과 집회, 서명운동을 등을 전개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역 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권리획득 차원에서 ‘재일외국인기본권획득운동’도 전개되고 있다.<sup>7)</sup> 오사카 등지에서는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문화운동을 시도하고 있다.<sup>8)</sup>

## 1. 연구사 정리 및 문제의식

재일조선인에 관한 연구는 한일 양국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의 주요 주체는 재일조선인, 일본인, 한국인 등이다. 양국의 재일조선인 연구는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일본 도항 과정과 민족적 차별, 저항을 중심 주제로 다룬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재일조선인 인식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이것은 연구 시작 시기, 문제의식, 연구 주제 등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를 만들어냈다. 일본의 경우 재일조선인이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회의 어디쯤 이들을 위치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이것은 재일조선인의 기원, 일본도항, 강제연행 연구로 이어졌다. 반면 한국에서는 재일조선인을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의 관심은 대체로 재일조선인이 일본에서 민족정체성이나 민족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전개한 각종 사회 운동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일본과 한국으로 나누어 각국의 연구경향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일본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재일조선인 연구자에 의해서 재일조선인의 도항 및 정착의 과정, 강제동원의 양상과 영향에 대한 연구가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sup>9)</sup> 주요 연구 소재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간토대지진(關東大地震), 조선인 노동자의 현황과 사회운동단체의 결성과 활동, 강제연행의 피해 등이었다. 재일조선인 당사자로서, 자신을 비롯한 선조들이 일본에 오게 된 계기와 해방 이후 일본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연유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해방 후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

7) 1998년부터 일본의 재일조선인 교회, 일본 교회, 성공회 등의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모여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며 단체를 결성했다. 2012년부터는 단체명칭을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外國人住民基本法の制定を求める全國キリスト教連絡協議會)’로 변경하고 현재까지도 매년 세미나, 집회, 축제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外國人住民基本法の制定を求める全國キリスト教連絡協議會, 「沿革(2012年1月作成)」, 『全國キリスト者1·30集會』(30), 2016, 78쪽).

8) 젊은 세대의 새로운 형식의 문화운동 중에는 재일조선인 3세, 4세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재일코리아청년연합(Korean Youth, KEY)의 활동이 가장 대표적이다. KEY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바란다. 박수경·문재원, 「재일코리아 디아스포라 공간과 정체성의 정치-KEY의 문화적 실천 활동을 중심으로 -」, 『일본문화연구』 40, 2011

9) 朝鮮歴史編纂委員會, 『朝鮮民族解放闘争史』, 三一書房, 1952 ; 朴慶植·姜在彦, 『朝鮮の歴史』, 三一書房, 1957 ; 李羅英, 『朝鮮民族解放闘争史』, 新日本出版社, 1960 ; 朴慶植,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來事, 1965 ; 朴慶植, 『日本帝國主義の朝鮮支配』 上下, 青木書店, 1973 ; 姜在彦, “在日朝鮮人渡航史”, 『朝鮮月報』 별책, 1975

위는 계속 변경되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고국으로의 귀환 역시 불투명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존재의 기원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당사자로서 재일조선인의 입장은 연구에도 영향을 주었다. 초기 연구에서는 피식민지인으로서 조선인의 억압적 상황과 이주의 불가피성 및 강제성을 강조하면서, 민족 차별에 맞선 저항운동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 관점은 가해자인 일본제국주의와 피해자인 재일조선인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만들어냈고, 소수자이면서도 차별에 저항하는 재일조선인 상(像)을 구축했다.

이런 경향은 1980년대 전후 일본에서 출판된 재일조선인 통사(通史)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sup>10)</sup> 이 시기의 통사들은 대부분 한일병합을 전후한 시기부터 다루며 조선의 역사와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도항 이후 재일조선인의 생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만, 역시 재일조선인유학생의 활동, 노동단체의 이념과 조직 등 일본에 대한 저항을 설명하는 데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 출판된 통사들도 비슷한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의 일본사회 정주 과정에 대한 서술이 대폭 늘어났다는 특징이 있다.<sup>11)</sup> 주로 민단과 총련 같은 재일조선인 조직의 결성과 대립, 조선학교의 운영, 히타치취업차별, 귀화 문제, 정체성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재일조선인의 형성과정에 덧붙여서 교토와 가와사키 등 지역에 정주하는 과정에서 재일조선인이 중심이 되어 전개했던 권리획득 투쟁을 담은 책이 나오기도 했다.<sup>12)</sup>

2000년대 이후에는 재일조선인 역사 서술에서 새로운 시도가 있었는데, 재일조선인을 피해자로 묘사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그 존재 양상을 좀 더 객관적·적극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다. 소니아 량(ソニア・リャン)은 젠더적 관점에서 재일조선인 여성의 생활체험을 분석하는 한편 디아스포라로서 정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회심리적 변화에 대해서 분석했다.<sup>13)</sup>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는 지금까지의 재일조선인 연구가 정치사·운동사 중심이었다고 비판하고, 재일조선인 민중의 일상과 관련된 사료와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사를 중심으로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다.<sup>14)</sup> 윤건차(尹健次)는 남북한의 사회변화와 재일조선인 조직의 변화, 재일조선인 문학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서술했다. 특히 200여명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것을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매우 생생한 역사 서술을 하고 있다.<sup>15)</sup> 문경수(文京洙)와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는 신문·잡지·사진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해방 후 재일조선인을 한국사와 일본사를 넘나드는 역사의

10) 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 三一書房, 1979 ; Richard Hanks Mitchell/金容權 譯, 『在日朝鮮人の歴史』, 彩流社, 1981 ; 佐藤明·山田照美 編, 『在日朝鮮人-歴史と現状』, 明石書店, 1986 ; 姜在彦·金東勳, 『在日韓國·朝鮮人歴史と展望』, 勞動經濟社, 1989  
 11) 原尻英樹, 『「在日」としてのコリアン』, 講談社, 1998 ; 文道平, 『在日朝鮮人の歴史と展望-近現代の朝鮮と日本の關係史』, 大板經濟法科大學出版部, 1998 ; 朴一, 『<在日>という生き方』, 講談社, 1999 ; 金英達, 『(金英達著作集Ⅲ)在日朝鮮人の歴史』, 明石書店, 2003  
 12) 李進熙 編, 『在日』はいま、在日韓国・朝鮮人の戦後五〇年』, 青丘文化社, 1996  
 13) ソニア・リャン, 『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在日朝鮮人とアイデンティティ』, 明石書店, 2005  
 14) 外村大, 『在日朝鮮人社会の歴史学的研究-形成・構造・変容』, 緑蔭書房, 2009  
 15) 尹健次, 『「在日」の精神史1~3』, 岩波書店, 2015

주체로서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sup>16)</sup>

일본의 재일조선인 연구는 재일조선인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가 연구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재일조선인 당사자가 초기부터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기의 도항과정과 강제동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일조선인의 형성과정을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정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활 속에서 부딪치게 되는 사회적 문제의 기원에 대한 연구로 옮겨갔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일본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재일조선인의 현실과 향후 역할에 대한 고민이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연구 자체가 재일조선인이 처한 현실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사, 운동사, 정책사가 중심이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연구의 소재 및 주제가 확장되었으나, 재일조선인은 여전히 일본사회에서 외국인이자 소수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연구에서 형성된 ‘차별과 저항’이라는 공식은 그 이후의 연구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했다. 다만, 이전 연구에서 재일조선인의 저항이 ‘민족적 항거’로 묘사되었다면, 최근 연구에서의 저항은 생활상의 불평등 개선이라는 면이 강조된다는 차이점은 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은 여전히 일본사회 내의 이질적이고 특수한 존재로 다뤄지고 있고, 오늘날 재일조선인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다.

한국의 재일조선인 연구는 일본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은 시기부터 시작되었는데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90년대 이후였다.<sup>17)</sup> 한국의 학계에서 식민지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는데, 재일조선인의 역사도 식민지 역사 연구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일조선인은 다른 재외동포와 달리 식민지시기 일본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하에서 형성되었고, 해방 후에도 일본에서 민족적 차별을 겪으면서도 거기에 저항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재일조선인 역사 연구는 재일조선인의 특별한 지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1990년대 후반 식민지 시기 재일조선인의 생활과 일본에서의 민족적 저항운동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sup>18)</sup> 2000년대 이후에도 ‘식민지, 민족, 사회운동’은 여전히 연구의 핵심 키워드였다. 정혜경은 1910~1920년대 오사카에 결성된 재일조선인의 여러 운동단체의 결성과 활동에 대해서 분석하는 한편, 강제동원피해조사 지원위원회에서의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사료 분석 및 현장 조사를 통해 강제동원의 양상을 연구했다.<sup>19)</sup> 김인덕은 1920년대 일본에서 활동했던 김천해, 김두용,

16) 水野直樹·文京洙, 『在日朝鮮人-歴史と現在』, 岩波書店, 2015

17) 재일조선인과 관련한 최초의 연구는 1966년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배재식의 연구이다(배재식, 「기본적인권과 국제법 -특히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의 본질을 구명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法學』 8(1), 1966). 그 이후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재외동포 조사만 일부 이루어졌을 뿐 별다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이후 동국대 일본학 연구소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재일조선인에 대한 연구를 국내에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徐龍達, 「在日韓國·朝鮮人の現狀と課題」, 『일본학』 3, 1984 ; 徐龍達, 「在日韓國·朝鮮人の地方自治體參政權」, 『일본학』 8, 1989)

18) 전기호, 「일제하 재일조선인의 차가난(借家難)에 대한 연구:1920~30년대를 중심으로」, 『경제연구』 12, 1996 ; 김인덕, 「신간회 동경지회와 재일조선인 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7, 1997 ; 정혜준, 「1920년대 일본지역 조선인노동동맹회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8, 1998



정남국 등 조선인운동가의 활동을 통해 식민지 시기 재일조선인의 민족해방운동의 동향을 분석하거나, 해방 후 일본 각지의 국어강습소 및 조련의 민족학교 설립운동, 한신교육대투쟁 등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운동 추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sup>20)</sup> 정희선 역시 1945년 이후 일본정부의 탄압 속에서 전개된 학교설립 등의 교육운동을 민족교육투쟁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sup>21)</sup> 이 외에도 연합군과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 민단과 총련 같은 재일조선인 조직의 결성과 대립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sup>22)</sup> 또 식민지 시기부터 최근까지 재일조선인의 이주와 정주, 생활문화상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를 책으로 발간하기도 했다.<sup>23)</sup>

한국의 재일조선인 역사 연구경향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압축된다. 하나는 식민지 시기 일본으로의 이주와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로 이주 양상, 도항정책, 법적지위, 강제동원, 내선융화단체 등을 다룬다. 다른 하나는 일제의 민족차별에 대한 저항에 관한 연구로, 주로 노동운동, 생활상의 권리획득운동, 민족교육 수호운동, 재일조선인 조직 결성 과정을 다룬다. 한국의 재일조선인 연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한민족의 일원’인 재일조선인이 일본에서 ‘타자’로 살아가고 있는 양상과 ‘민족성(民族性)’을 수호(守護)하는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차별과 저항’이라는 관점은 한국의 재일조선인 연구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일본과의 차이는, 최근에 일본 학계에서 ‘저항’이 생활상 권리 획득을 위한 활동이라는 면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 저항을 여전히 ‘민족성(민족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재일조선인을 일본사회의 소수자로 인식하든, 아니면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든, 한일 양국에서 재일조선인은 특수한 존재로 여겨졌다. 식민지 지배로부터 배태되었고, 민족적·사회적 차별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일조선인은 당연히 내셔널(national)한 존재로 묘사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일조선인에 대한 연구는 이런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식민지시기 재일조선인의 역사로 호명되는 것은 1920~30년대 도쿄, 오사카 등에서 결성된 유학생조직, 노동운동 및 사회주의 계열 단체들의 활동이다. 해방 후 재일조선인의 역사로 언급되는 주요 사건은 1948년 한신교육투쟁, 1968년 김희로 사건, 1970년 재일동포 2세 박종석(朴鐘碩)의 히타치(日立) 취업차별 투쟁, 1977년 김경득의 외국적으로 일본의 사범연수생으로의 채용 투쟁, 1980년 한종석(韓鐘碩)

19) 정혜경, 『일제시대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연구』, 국학자료원, 2001 ; 정혜경,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 경인문화사, 2003 ; 정혜경, 『징용 공출 강제연행 강제동원』, 선인, 2013

20) 김인덕, 『일제시대 민족해방운동가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김인덕,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연구』, 국학자료원, 2016

21) 정희선,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운동』, 선인, 2014

22) 김광열, 「전후 일본의 재일조선인 법적지위에 대한 정책-1991년 “특별영주”체도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7, 2004 ; 김태기, 「미국무성의 대일점령정책안과 재일조선인 정책-일본통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33, 2004 ; 정진성, 「조총련조직연구」, 『국제지역연구』 14(4), 2005 ; 김태기, 「GHQ의 반공정책과 재일한인의 민족교육 : 제2차 조선인학교 폐쇄조치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1, 2009

23)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 편, 『재일코리아 디아스포라의 형성 - 이주와 정주를 중심으로』, 선인, 2013 ;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 편, 『재일코리아의 생활문화와 변용』, 선인, 2014

의 지문날인거부운동 등이다.<sup>24)</sup> 여러 조직 혹은 사건들은 모두 민족적 차별에 대한 저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역으로 보면 대부분 도쿄, 오사카, 교토, 고베 등 일본의 대도시가 중심이다. 이 지역은 재일조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재일조선인 조직이 결성될 수 있었고, 이들의 활동을 기록할 매체가 많았다. 한국에서 서울의 역사가 중앙(국가)의 역사가 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일조선인의 역사에서는 도쿄와 오사카 등의 역사가 재일조선인의 공식 역사가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재일조선인의 역사로 선택된 사건, 조직의 활동 등은 특정 지역에서 전개된 것인데, 다른 지역의 재일조선인에게도 공통의 역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사실 재일조선인은 국민국가의 국민처럼 공식적인 역사를 구성하기에 어려운 조건 하에 놓여 있다. 일본의 공교육이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가르치지도 않을뿐더러 모든 재일조선인이 조선학교에 다니면서 같은 교과서로 자기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아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역사를 재교육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공식화하는 일도 거의 없다. 물론 민단이나 총련과 같은 재일조선인 조직이 있고, 여러 명목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남북한 정부의 공식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재일조선인의 역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일조선인 일반에게 공유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결국 ‘재일조선인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국가사, 민족주의, 중앙중심주의 등 획일적 역사서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분위기 속에서 역사 연구의 대상을 확대하고 관점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했다. 전통적 역사학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개인적·지역적 경험이나 매체, 담론, 표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런 연구경향들은 생활사, 일상사, 민중사, 지방사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sup>25)</sup> 최근에는 국가와 중앙에 종속된 지방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생활사, 일상사, 민중사가 재현되는 구체적인 시공간으로서의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지역사 연구가 대두했다. 지역사는 혼종적 장소에서 혼종적 사람이 만들어내는 혼종적 문화에 주목하면서, 거시적이고 단일한 역사서사 대신 다원적 역사 서술을 시도한다.<sup>26)</sup> 지역사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재일조선인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4) 1948년 GHQ와 일본정부가 조선학교가 미인가 상태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학교를 폐쇄하고자 했고, 여기에 맞서 오사카 고베 등지에서 민족학교를 지키기 위해 격렬한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를 한신교육투쟁이라고 한다. 김희로 사건은, 김희로가 야쿠자 2명을 살해하고 도주해 인근 여관에서 인질극을 벌인 사건으로 살해의 동기가 민족차별이라고 증언하면서 그를 구명하려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일본 매스컴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다. 히타치 취업차별투쟁은 통명어로 히타치 회사에 취업한 박종석이 입사 결정 후 분명이 적힌 호적을 제출하자 회사에서 서류를 위조했다며 취업을 취소했던 사건으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취업차별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었던 사건이다. 김경득은 사법 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려던 일본으로 귀화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서 법률 소송을 벌였다. 한중석은 일본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그것을 갱신할 때마다 열손가락 지문을 모두 찍는 것은 차별적 조치라고 하면서 외국인등록 갱신을 거부했고, 이 일로 체포되면서 전국적으로 지문날인 거부운동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25) 허영란, 「한국근대사연구의 ‘문화사적 전환’-역사대중화, 식민지 근대성, 경험세계의 역사화」, 『민족문화연구』 53, 2010, 70쪽

26) 허영란, 「지방사를 넘어, 지역사로의 전환-한국 근대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 20(2), 2017, 368~371쪽

재일조선인은 혼종적인 존재로, 한일양국의 국가사에서 소외되어 왔다. 식민지에 기원을 두고 일본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존재론적 특징은 그동안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차별과 저항’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차별과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운 일상의 역사는 극히 일부만 다뤄지거나 때로는 배제되었다. 전체사, 보편사로 수렴되지 않는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의 관점이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 하에서 한일 양국에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재일조선인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하라지리 히데키(原尻英樹)와 스기하라 도루(杉原薫)가 오사카의 제주도 출신 재일조선인의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sup>27)</sup> 타카노 아키오(高野昭雄)는 식민지 시기 교토로 이주한 재일조선인 노동자의 거주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고, 교토의 근대적 도시변화 과정에서 재일조선인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분석했다.<sup>28)</sup> 도노무라 마사루는 전남 완도군 소안도의 조선인과 도쿄, 오사카의 소안도 출신 조선인의 협력관계 연구를 예로 들면서, 지역에 방점을 둔 재일조선인 역사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29)</sup>

1990년대 이후 서구의 디아스포라(Diaspora) 논의가 한국에 전해졌다.<sup>30)</sup> 디아스포라가 가진 탈근대·탈중심의 경향이 로컬리티의 담론과 공통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로컬 중심주의 재일조선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sup>31)</sup> 구체적인 연구로는 오사카 코리안타운의 조성 과정에서 형성된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주민들의 관계를 해석하거나, 오사카 이카이노 출신 작가들의 문학 작품을 통해 기억되고 재현되는 디아스포라 공간의 특징을 제시하기도 했다.<sup>32)</sup> 이 외에 문화변용이라는 관점에서, 오사카 이쿠노구와 도쿄 신오쿠보의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의 문화적 갈등 및 통합의 과정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sup>33)</sup>

‘차별과 저항’의 관점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주목한 연구들은 재일조선인의 일상, 일본인 주민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의 재일조선인 역사 서술과는 차이가 있고, 재일조선인의 역사 서술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27) 原尻英樹, 『日本定住コリアンの日常と生活』, 明石書店, 1997 ; 杉原薫, 『越境する民: 近代大阪の朝鮮人史』, 新幹社, 1998

28) 高野昭雄, 『近代都市の形成と在日朝鮮人』, 仏教大学, 2009

29) 外村大, 「在日朝鮮人の歴史を地域から見る-可能性と意義」,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 2011(2), 2011

30) 디아스포라는 본래 고대 유대민족의 이산을 가리키는 용어였으나, 점차 고국에서 추방된 소수민족집단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디아스포라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특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특수한 형태의 이산과 집단적 트라우마의 경험, 고국과의 연대의식 등이다(신기영, 「디아스포라론과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안」, 『일본비평』 14, 2016, 28쪽).

31) 이상봉, 「디아스포라와 로컬리티 연구 - 재일코리안을 보는 새로운 시각」, 『한일민족문제연구』 18, 2010

32) 이상봉, 「디아스포라적 空間으로서의 大阪 코리안타운의 로컬리티」, 『한일민족문제연구』 22, 2012 ; 문채원·박수경, 「‘이카이노(猪飼野)’의 재현을 통해 본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공간의 로컬리티」, 『로컬리티인문학』 5, 2011 ; 한중완·임영언, 「오사카지역 코리안 커뮤니티의 형성과 문화적 변용 연구」, 『일어일문학』 64, 2014

33) 임채완·선봉규, 「디아스포라적 문화접변과 동반성장에 관한 연구 -일본 오사카지역 재일코리안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연구논집』 60, 2014 ; 선봉규,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문화변용 연구 -중국조선족과 재일코리안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56, 2014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가 오사카 그 중에서도 코리안타운과 츠루하시 국제시장이 있는 이쿠노구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우선, 새로운 관점의 연구라고 하지만 오사카 지역에 연구가 집중됨에 따라 또 다른 재일조선인 역사의 전형(典型)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다. 중앙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오사카는 식민지 시기부터 조선인의 이주가 두드러졌고, 현재는 가장 많은 수의 재일조선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일종의 중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사카 중심의 연구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획일적 역사서술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지역사의 문제 의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또 대부분의 연구는 1980년대 코리안타운의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해결 과정을 분석하거나 오늘날의 혼종적 공간으로서의 현황을 밝히는 것이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이주와 정주과정은 간략하게 언급되는 것에 그치면서, 재일조선인의 생활세계의 변천과정이나 다원적 경험의 역사적 변화의 양상이 상세히 규명되지 못했다.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오사카가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재일조선인의 오늘을 만들어온 역사적 과정 즉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일상과 그 일상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 행위와 기억 등을 분석하고, 재일조선인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변화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일본 이주로부터 시작된 재일조선인의 역사는 이제 100년 이상이 경과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 내에서 충실하게 기록되지는 못했지만, 재일조선인의 역사로 불리거나 인식되는 사건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이 재일조선인 일반의 공통된 기억인가, 라고 반문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답이 따라온다.<sup>34)</sup> 앞서 연구사 정리에서도 확인했듯이 오히려 오사카, 도쿄, 교토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한 사안이 재일조선인의 역사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었다.<sup>35)</sup> 중

34) 다카라즈카 지역의 재일조선인을 만날 때면, 소위 재일조선인의 역사로 알려진 주요 사건들에 대해 물어보았다. 개인적으로 영향 받은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사건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특히 히타치 취업차별문제는 오늘날 재일조선인 역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고, 박종석과 동시대를 살고 있던 재일조선인 2세들이 비슷한 취업차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예외적으로 김희로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일본 마스크를 통해 계속해서 방송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마스크가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뤘던 것은 재일조선인에 의한 인질극이라는 극단적인 범죄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카라즈카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슈의 중심에 섰던 적이 거의 없었고, 연구자나 활동가의 수가 매우 적어서 여타 차별사건의 전국네트워크가 결성될 때도 소외되는 면이 있었다. 김희로 사건처럼 일본의 매스미디어가 집중적인 보도를 할 때 비로소 그런 사건들을 인지하는 것이 가능했다.

35) 오사카, 도쿄, 교토는 식민지 시기부터 조선인의 이주가 많았던 지역이다. 게다가 일본 내에서도 주요 대도시로 인식되는 곳으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기록도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해방 이후에도 이 지역은

소도시나 농촌 등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의 경우 자기 기록을 남길 기회나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일조선인의 역사’에서 아예 배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중소도시나 농촌의 재일조선인도 지역에서 생활세계를 구축하며 역사를 만들어왔다.

재일조선인의 일상에서 지역은 많은 변수를 만들어냈다. 수도였던 도쿄, 광산 마을이었던 치쿠호(筑穂), 항구도시 고베 등 지역에 따라서, 재일조선인의 이주 시기, 이주의 목적, 이주 후의 직업 등이 모두 달랐고, 거주 방식도 차이가 있었으며, 조선인 마을의 형성 과정과 일본인 지역사회와의 관계 역시 지역에 따라 상이했다. 해방 후 대한민국거류민단(大韓民國居留民團, 이하 ‘민단’)이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이하 ‘총련’)과 같은 재일조선인 전국 조직이 만들어지는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네트워크의 긴밀성은 약화되었고, 지역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각 지부의 운영도 달라졌다.

지역은 구체적인 생활의 장이자,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차별과 저항만이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 주체들이 만들어낸 교류, 갈등, 동화, 통합 등 다양한 형태의 관계들이 있었다. 이 관계는 시기에 따라, 여러 조건의 변화에 따라 소멸하고, 생성되고, 중첩되고 재구성되었다. 재일조선인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에서 지역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고현 다카라즈카에 주목했다. 다카라즈카를 연구지역으로 삼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다카라즈카는 상당히 작은 지역이다. 다카라즈카는 효고현에 위치하고 있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시(市)이지만, 인근의 오사카시나 교토시, 고베시와 비교하면, 땅의 면적도 좁고 인구도 적은 편이다. 재일조선인의 경우 구료젠촌(舊良元村)과 구코하마촌(舊小浜村)에 밀집해서 거주했기 때문에, 조선인 거주 지역으로만 따지면 오사카시의 구(區) 단위와 그 면적이 비슷하다. 재일조선인의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네트워크 역시 매우 촘촘한 편이다. 말단행정구역인 정(町)과 시(市)를 매개하는 구(區)가 없어서 행정당국과 재일조선인의 거리 역시 가까운 편이다.

둘째, 재일조선인 조직이 단순하다. 오사카나 교토 등 대도시에는 여러 재일조선인 단체, 뉴커머 조직이 존재하고 있지만, 다카라즈카는 민단과 총련을 제외하면 재일조선인 조직이 전무하다시피 한 곳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일조선인의 주요 현안들은 대부분 민단과 총련에서 처리하곤 했다. 인적 네트워크가 매우 촘촘하기 때문에 민단과 총련의 실무자들 역시 조직 이외의 다양한 인간관계로 묶여 있어서, 국가단위의 현안들이 실제 지역에서 집행되는 방식을 미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한 곳이다.

셋째,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대체로 왜곡 없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해방, 분단, 냉전 등 재일조선인을 둘러싼 국내외의 정세가 변화하면 그것은 다카라즈

---

여전히 재일조선인의 인구 비율이 높았고, 다수의 연구자와 활동가가 존재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역사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민족적 차별에 대한 저항 등도 중소도시나 농촌과 비교해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된 곳이다.

카에 그대로 영향을 주었다. 중간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오사카처럼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거나 일본 중앙 정부에서 특별히 주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도 아니었다. 동시에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외부 세력이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

넷째, 민단과 총련에서 각각 운영하던 두 개의 민족학교가 있었다. 한 지역 안에 조선학교와 한국학교가 모두 존재했던 지역은 도쿄, 오사카, 교토 즉 대도시로 재일 조선인의 숫자가 특히 많은 곳이었다. 다카라즈카는 이 지역들과 비교하면 조선인의 수도 적고, 조직의 힘도 약했지만 한국학교가 설립되었다. 해방 직후 고베에도 건국소학교가 만들어졌으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문을 닫으면서, 다카라즈카 한국소학교는 효고현 내 유일의 민단계 학교였다. 무코가와(武庫川)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던 한국소학교와 다카라즈카 초급학교는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몇 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7년 다카라즈카의 향토연구자 정홍영(鄭鴻永)은 『가극의 길의 또 하나의 역사-다카라즈카와 재일조선인』을 출판했다.<sup>36)</sup> 식민지 시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조선인의 다카라즈카 이주와 정착, 마을 형성, 민족학교의 설립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신문자료를 많이 활용했고, 다카라즈카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주요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감이 매우 뛰어난 책이다. 이 책은 다카라즈카 향토연구자에 의해 처음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식민지 시기 서술이 중심이고, 연구자 본인이 총련계 재일조선인이기 때문인지 민단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연구사적 문제의식 하에 쓴 책은 아니다. 주요 논조는 다카라즈카의 민족적 차별에 대한 비판이다.

2013년 와타나베 마사에(渡邊正恵)는 박사논문 『재일코리안의 정착-다카라즈카 지역을 중심으로』을 발표했다.<sup>37)</sup> 와타나베는 민단 다카라즈카지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한국소학교 문서를 바탕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까지 윤코바(사공장) 재일조선인의 학교 운영 과정을 분석했다. 그러나 논문의 절반 정도는 재일조선인의 일반적 상황에 대한 내용이고, 한국소학교의 운영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지만 민단계 재일조선인의 생활문화 분석으로 내용이 확장되지 못했다.

이 외에 효고조선관계연구회(兵庫朝鮮關係研究會)나 무쿠게회(むくげ會)에서 출판한 책에 식민지시기 다카라즈카의 조선인 노동자의 현황 및 정착 과정에 대한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sup>38)</sup> 현재까지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에 관한 연구는 식민지시기가 중심이거나 민단 혹은 총련 중 한쪽만을 다루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

36) 鄭鴻永, 『歌劇の町のもうひとつの歴史-宝塚と朝鮮人』, 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出版部, 1997

37) 渡邊正恵, 『在日コリアンの定着-宝塚地域を中心に』, 追手門学院大学 経営学研究科 経営学専攻 博士論文, 2013

38) 兵庫朝鮮關係研究會, 『在日朝鮮人90年の軌跡』, 神戸學生・青年センター出版部, 1993 ; 堀内稔, 『兵庫朝鮮人労働運動史 8・15解放前』, むくげ叢書, 1998

어졌다. 지역사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지만 결론은 모두 민족차별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되는 한계도 있었다.

본 연구는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공동체의 변화와 지역사회 재정착운동에 관한 것이다. 식민지 시기 다카라즈카로 이주한 조선인은 제국의 국민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했다. 해방 이후 일본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되면서 지역사회로부터 유리되었다. 일본사회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정주화가 진전되고, 다카라즈카 지역사회 그리고 일본인 주민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고 최근에는 식민지 시기의 정착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정착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일조선인 공동체는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재일조선인을 둘러싼 내외부의 조건이 변화될 때 재일조선인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지역의 현안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지역사회 안에 자기 자리를 만들어 왔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지역의 재일조선인을 역사 기록의 주체로서 재조명하고, 그들의 생활세계와 네트워크, 기억, 실천적 행위, 다원적 경험의 역사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경우 문헌기록을 충분히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천적 행위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지역은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고 서로 경합을 벌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안이 발생하는 곳이다. 재일조선인 역시 생활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마주친 지역의 현안에 대응하며 신문기사, 공문서, 일기, 사진 같은 유형의 자료와 증언, 기억, 이념, 관계처럼 무형의 기록을 남겼다. 주요 현안에 대한 유무형의 자료를 조사, 발굴,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했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주요 현안으로는, 재일조선인 조직의 결성과 분할, 지역 축제 참여, 조선인 추도비 건립운동을 다루려고 한다. 이 현안들은 남북한과 일본이라는 국제관계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재일조선인 사회의 일반적인 변화 양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다카라즈카의 경우 오사카의 위성도시로서 기능하면서 오사카로부터 일부 영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다카라즈카의 지역적 특징을 드러낸다. 네 가지 사안은 모두 재일조선인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촉발한 것들이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다카라즈카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개괄하고, 이 때의 정주과정이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 사회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기원이 되는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sup>39)</sup> 3장, 4장, 5장에서는 앞서 언급했

39) 식민지시기 조선인의 이주와 정착 과정에 대한 연구는 현안을 중심으로 다루지 않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시기는 조선과의 왕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해방 후의 재일조선인과 같은 조건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 최영호는 식민지 병합 이전의 재일조선은 개별적·산발적으로 일본 각지에 흩어져서 거주했고, 조선인들만의 사회를 구성하기에는 그 수도 적었기 때문에, 정치적 주체로서의 민족이 될 수 없고 그 때문에 오늘날 재일교포 커뮤니티의 원형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말한다(최영호, 「재일교포사회의 형성과 민족 정체성 변화의 역사」, 『한국사연구』 140, 2008, 78~79쪽). 소니아 랑(ソニア・リャン) 역시 재일조선인 1세대들이 식민지 시기에 노동이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주를 강제동원과 관련지어서 기억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기억은 해방 이후 대규모의 재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하면서 재일조선인 디아스포라의 실질적인 시작을 해방 이후로 보고 있다(소니아 랑, 앞의 책, 141~142쪽). 그러나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원이 되는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

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재일조선인의 대응과 지역 내 여러 주체들 사이의 관계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민단지부와 총련지부가 각각의 민족학교를 통해서 다른 역사적 경험을 축적하면서 재일조선인 사회가 분할되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4장에서는 지역축제를 통해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이 지역사회에서 재발견되고, 민족공동체로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5장에서는 최근 다카라즈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도비건립운동을 중심으로,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면서 재정착을 시도하는 과정을 규명하고, 재정착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각 현안은 특별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면서 다층적인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작동했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은 때로는 외국인으로, 때로는 한국인으로, 또 때로는 다카라즈카 지역주민으로 스스로를 인지하면서 역사 속에서 자리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자신이 가진 자원을 동원하고 기존의 인적 관계를 재구성하며 자기 역사를 만들었다. 자기 역사를 만드는 과정은 지역사회에 자기의 자리를 찾아내고 안정적인 정착, 즉 재정착을 시도하는 일종의 사회운동과도 동일하다.

### 3. 연구방법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가장 처음 만나는 문제가 사료의 존재 여부이다. 재일조선인 자체가 일본의 소수자였기 때문에 문자기록을 충분히 남기지 못했는데, 소도시 재일조선인의 경우 이런 양상은 더욱 심각했다. 다카라즈카도 마찬가지였다.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다. 재일조선인의 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 발행된 문헌자료와 여러 논문을 검토하면서도, 다카라즈카를 직접 방문해서 각종 문헌자료를 조사하고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는 일에 매진했다.

식민지 시기의 경우 특히 관련 사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신문 기사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다카라즈카의 경우 중앙지에는 그 소식이 거의 실리지 않았다. 효고현립 도서관과 니시노미야 공립도서관을 방문해서 아사히신문의 고베부록·한신판, 오사카 마이니치, 고베신문, 고베우신일보 등 지역신문의 마이크로필름을 조사했고, 다카라즈카 및 효고현 관련 신문 기사를 모아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식민지 시기 재일조선인의 다카라즈카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해방 이후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신문 기사 역시 가능한 모두 수집했다.

다카라즈카 시립도서관의 향토자료관에서 다카라즈카 시사(市史)를 비롯하여 무코

---

다. 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조선인 집단거주지, 재일조선인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 일본인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이 해방 이후의 재일조선인 사회 형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식민지와 해방 이후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의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의 2장에서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정착과 그 특징을 분석했다.



군지(武庫郡誌)와 카와베군지(川辺郡誌) 등 시군지 자료와 다카라즈카의 향토사학자들의 지역조사보고서, 관련 문헌을 모두 조사했다. 다카라즈카에 대한 조사로만 제한하지 않고, 효고현 내 다른 지역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했다. 또 지역의 다른 연구자로부터 다카라즈카 관련 자료를 제공받기도 했다. 다카라즈카시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있는 다카라즈카의 각종 행정문서에 대해서도 내용을 확인하고, 인권조사 결과보고서나 인권정책, 재일외국인정책과 관련된 여러 문서 자료를 확보했다.

다음으로 민단지부 사무실에 보관중인 『민단50년사』와 효고현 민단지부 사이의 교류 책자, 한국소학교 관련 문서, 민단지부 운영 자료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민단지부 사무실에는 한국소학교의 운영과 관련해서 1958년부터 1967년 사이에 생산된 각종 공문과 조사자료, 사진 등이 보관되어 있었고, 민단지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했던 총회 자료 역시 14회(1970년)부터 58회(2018년)까지 모두 보관되어 있었다. 이 자료들을 통해 민단 다카라즈카지부의 운영과정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다. 다만, 총련지부의 경우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한국인 연구자로서 총련지부의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총련지부의 활동가들과 접촉해서 자료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았다. 총련지부에서 발생하는 소식지나 책자, 다카라즈카 조선학교 관련 신문기사, 조선학교 창립기념책자 등을 통해 다카라즈카 총련지부의 운영 양상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양도 충분하지 않고 내용 역시 제한적이어서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직접 지역으로 들어가서 참여관찰 및 인터뷰를 통한 현지조사와 주요 인물에 대해 구술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지조사는 본래 인류학에서 사용하던 대표적인 질적연구방법론이다. 서구학계에서는 20세기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질적연구방법론이 부각되기 시작했고,<sup>40)</sup> 한국의 사회학분야에서도 점차 질적연구방법론을 도입하는 경우가 증대했다. 질적연구방법이란 연구대상이 행위하고 생각하는 일상에 참여하거나 그 일상을 관찰하면서 연구 대상이 갖고 있는 경험 세계와 가치관을 당사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연구방식을 말한다.<sup>41)</sup> 즉,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접촉하면서 생산한, 다양한 자료의 맥락을 해석하고 심층적 분석을 하는 것이다.

역사학에서도 질적연구방법론 중 구술사를 활용하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구술사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역사서술에 참여시켜 왔다는 측면에서 아래로부터의 역사, 대항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sup>42)</sup> 역사학은

40) 객관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둔 통계자료는 인간과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주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일군의 학자들은 인간의 내면, 주관 등이 사회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런 내면과 주관은 수치만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질적연구방법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41) 질적연구방법에는 구체적으로 현지조사(fieldwork), 문화기술키(文化記述誌), 민속학, 구술사, 현상학, 텍스트 분석, 초점집단연구(focus group interview) 등이 있다(윤택림,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2004, 16~19쪽).

42) 한국구술사연구회, 『구술사 방법과 사례』, 선인, 2005, 19~20쪽

문헌고증을 기반으로 하는 해석의 학문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실증사학이 중심이었다.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소외되는 이들이 발생했다. 텍스트로 된 사료가 없는 상태에서 미시사, 지역사, 여성사, 소수민족사 등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구술사는 매우 중요한 연구방법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sup>43)</sup>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경우 일본 내 소수민족으로 자기 역사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를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와 구술생애사연구가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필자는 2015년부터 다카라즈카를 방문했다. 2015년에 4회에 걸쳐 약 25일간 다카라즈카를 방문했고, 현지의 재일조선인을 만나 구술인터뷰를 진행하고 문헌자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2016년에는 6회에 걸쳐 약 30일간 다카라즈카를 방문해서 향토사료관과 민단지부 사무실의 자료를 조사하고, 현지의 재일조선인에 대해 구술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교토에서 거주하며 일주일에 2~3회 다카라즈카를 방문했고,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다카라즈카에서 거주하며 현지조사 및 구술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카라즈카 혹은 이타미 조선학교에서 진행된 여러 행사에도 직접 참여했다. 전시회, 강연, 영화상영회 등 다카라즈카의 시민단체에서 준비한 행사와 이타미조선학교에서 진행된 운동회와 강연회, 수업참관회 등에도 참석했다. 매번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현장의 분위기, 참석한 사람들, 행사의 내용, 사람들의 반응 등을 관찰하고, 몇몇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친분관계가 만들어지면 재일조선인의 집을 방문하거나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면서, 가능한 한 가까운 위치에서 관찰을 시도했다. 다카라즈카에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거주한 적이 있는 재일조선인, 일본인, 뉴커머 한국인에 대해 구술인터뷰도 진행했다.<sup>44)</sup> 자료수집부터 참여관찰, 구술생애사 인터뷰의 과정은 연구자로서 끊임없이 한계를 노출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축적한 자료들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연구에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43) 물론 구술 자료가 가진 주관성 문제나 오류의 가능성과 같은 한계는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개인의 경험은 사적이지만 그것은 시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경험세계 위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동시에 매우 집합적이고 동시에 객관적이기도 하다(허영란, 「구술과 문헌의 경계를 넘어서」, 『한국사연구지원보고자료집8』현황과 방법 : 구술·구술자료·구술사』, 국사편찬위원회, 2004, 7쪽). 오류의 가능성 역시 구술 자료를 텍스트로 인지하고 사료비판을 하듯 문헌자료 및 여러 사람의 구술을 교차 점검하고 사회적 맥락을 따짐으로써 오류의 가능성 역시 최대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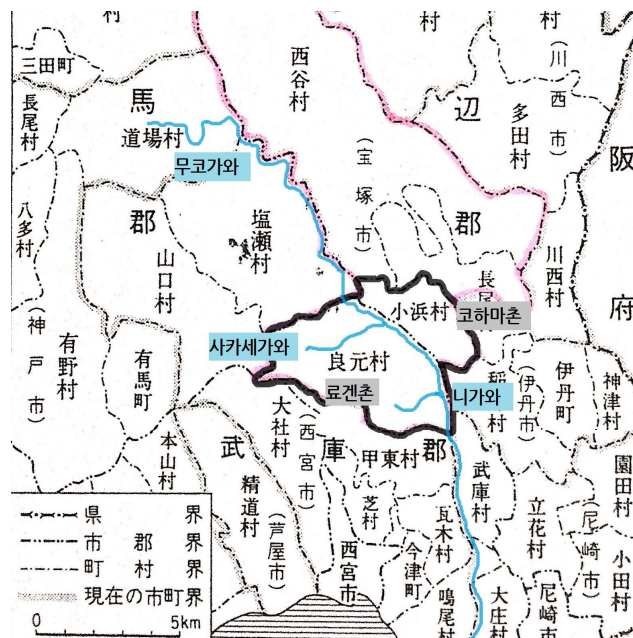
44) 2015년부터 지금까지 다카라즈카와 인근 도시의 재일조선인, 일본인, 뉴커머 한국인 35명과 구술인터뷰를 진행했고, 적게는 1~2회 많게는 6회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다. 재일조선인의 경우 여전히 남북분단이라는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일상생활 속에서 갈등을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구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문에서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때 모두 가명을 사용했다. 가명의 경우 일본이름은 일본식 이름으로, 한국이름은 한국식 이름으로 대체했다. 구술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논문 마지막에 [부록1]에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했다. 이름만 가명을 사용했고, 나머지 정보는 각 구술자에 대한 것이다. 다만, 이미 사망했고 책이나 자료 등에 이름이 직접 제시되는 경우 해당 이름을 그대로 인용했다.

## II.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다카라즈카 이주와 생활세계

### 1. 다카라즈카 개발과 조선인 마을

#### 1) 도시개발공사와 조선인 이주

오늘날 ‘다카라즈카(宝塚)’라고 하면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市)를 가리킨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의 다카라즈카는, 현재 다카라즈카 지역의 일부 지역만을 의미했다. 다카라즈카라는 명칭은 인근의 군집분(群集墳)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sup>45)</sup> 에도시대 몇 개 마을의 이름에 다카라즈카란 말이 사용되었는데, 1887년 료겐촌에 다카라즈카 온천이 개장하면서부터 온천 인근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14년 한큐전철회사가 온천 인근에 다카라즈카 소녀가극단 및 가극학교를 세우면서 전국적으로 다카라즈카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다카라즈카는 이 지역의 명칭으로 굳어졌다. 1929년에는 료겐촌과 코하마촌을 관할하는 다카라즈카 경찰서가 료겐촌에 설립되었다. 다카라즈카는 정식행정구역은 아니었지만, 당시 신문에서도 료겐촌과 코하마촌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곤 했다. 료겐촌과 코하마촌의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한 것이 <그림1>이다.<sup>4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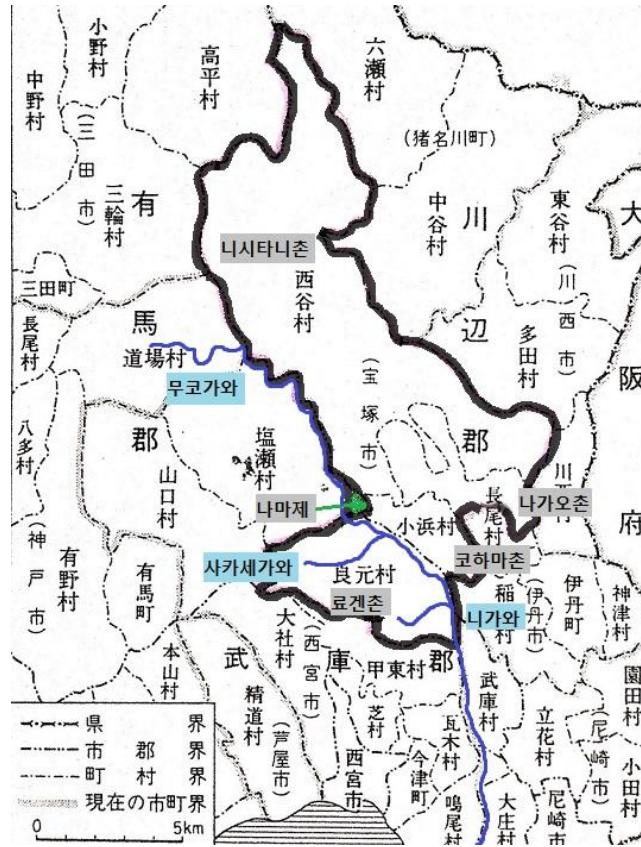


<그림1> 식민지 시기 다카라즈카 구역

45) 宝塚市篇, 『宝塚市史 III.近現代』, 宝塚市, 1977, 243쪽

46) 다카라즈카 시는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2장에서 ‘다카라즈카’라고 하면 료겐촌과 코하마촌을 가리킨다.

해방 이후 료겐촌과 코하마촌, 그리고 인근의 니시타니촌과 나가오촌이 통폐합되면서 현재의 다카라즈카 시가 탄생했는데, 2019년 현재의 시역은 <그림2>와 같다.<sup>47)</sup>



<그림2> 2019년 현재 다카라즈카 시역

코하마촌은 본래 진종사원(眞宗寺院) 호섭사(毫摂寺)의 경내 마을로, 목수들이 많이 살았고, 마을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위한 숙박시설도 많았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생존수단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었다. 료겐촌은 지형적으로 암반 지층으로 농사를 지을 토지가 많지 않았지만, 가능한 땅에서는 농사를 지었고 그 외에도 과수재배지로 유명했다.<sup>4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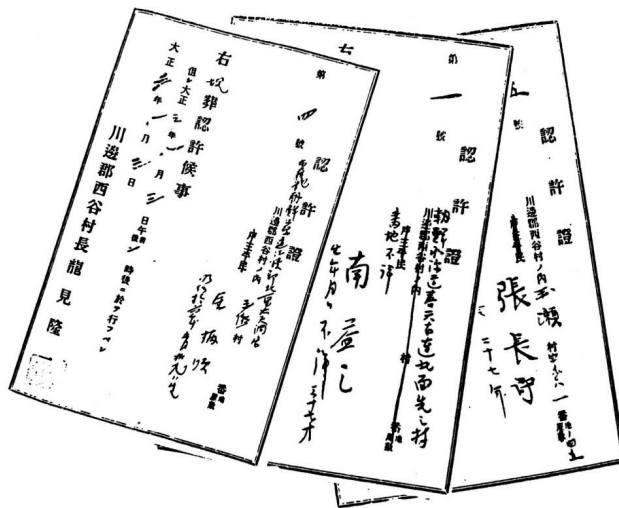
작은 농촌마을이었던 다카라즈카가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말기부터였다. 시작은 1887년 다카라즈카 온천의 개장이었다. 많은 관광객들이 다카라즈카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10년 후인 1897년 한카쿠(阪鶴) 철도가 개통되면서 다카라즈카역

47) <그림2>의 지도에 표시된 지역 중 나마제는 행정구역상 다카라즈카 시가 아닌 니시노미야 시에 속한다. 그러나 나마제 제일조선인의 생활권역은 코하마촌에 속해 있다. 코하마촌에 있는 조선학교에 다녔고, 총련다카라즈카지부 소속으로 분회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구역과는 별개로 나마제의 제일조선인은 자신을 다카라즈카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48) 宝塚市篇, 앞의 책, 321쪽

이 만들어졌고, 1910년에는 다카라즈카를 중심으로 하는 아리마(有馬) 전기궤도가 부설되면서 접근성은 더욱 높아졌다. 철도의 부설은 도시의 풍경도 바꿔놓았다. 철도부설 이후 은행지점이 생겼고, 우체국이 옮겨왔으며, 상점가와 여관 거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철도공사를 통해 자본을 축적한 한큐철도회사(阪急鐵道會社)가 다카라즈카 지역개발에 뛰어들었고, 민간업자들도 여기에 가세했다. 료겐촌의 구온천장 인근에는 다카라즈카 호텔, 다카라즈카 대극장, 골프장 등이 건설되었고, 코하마촌에는 신온천장이 문을 열었다. 가극학교, 루나파크(가족 테마파크), 식물원, 운동장 등 각종 관광 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들어섰다.<sup>49)</sup> 관광지로 성장하는 것과 궤를 함께 해 다카라즈카의 시가지도 정비되기 시작했다.<sup>50)</sup>

철도공사, 도로공사, 하천 개수공사 등 대규모 공사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다카라즈카에는 일본 각지에서 노동자들이 몰려왔고, 조선인도 새로운 일을 찾아서 다카라즈카로 이주했다. 다카라즈카에 조선인이 최초로 유입된 것은 1914년 무렵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 근거는 1914년과 1915년 2년에 걸쳐 발행된 니시타니촌장(西谷村長) 명의의 매장인허증(埋葬認許證)으로, <그림3>과 같다.



<그림3> 조선인 매장인허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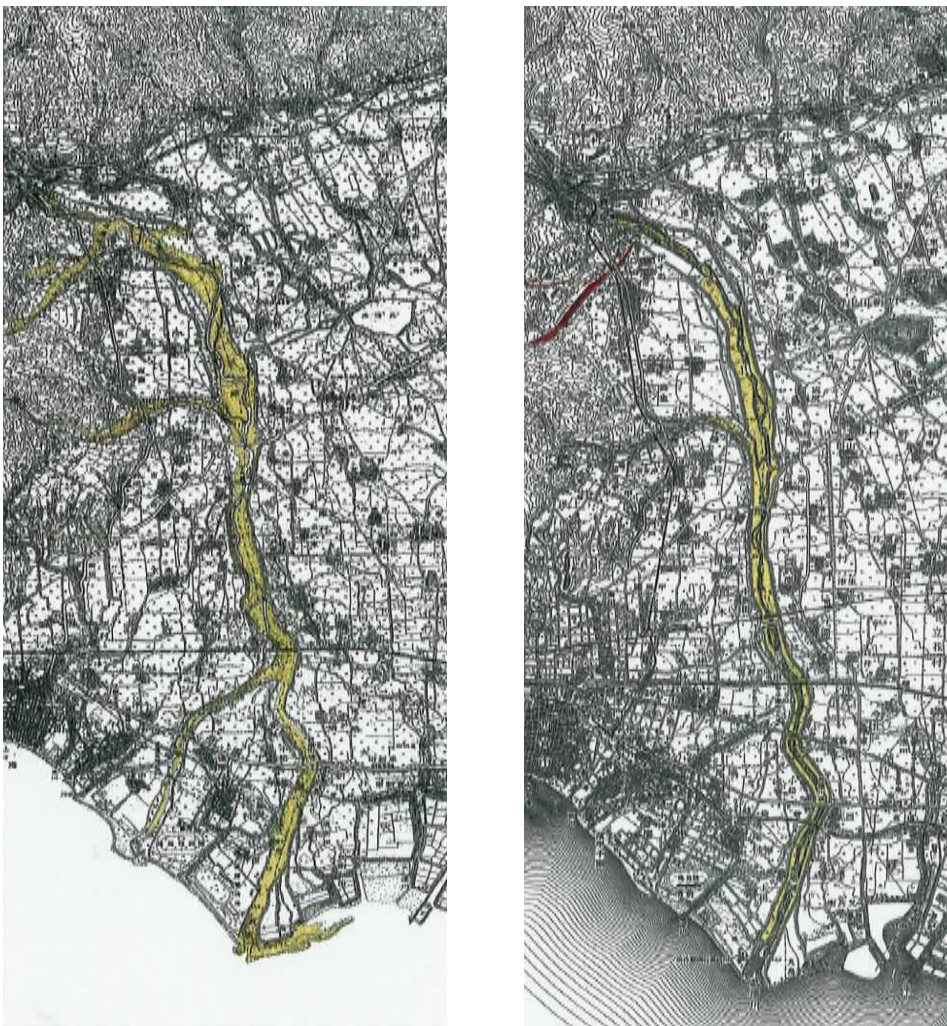
당시 무코가와(武庫川)의 상류인 센가리(千刈) 수원지에서는 고배수도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사망자들의 거주지가 공사현장 인근이었던 니시타니촌의 타마세(玉瀬) 지역인 것으로 보아, 이 공사에서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인 3인은 김

49) 宝塚市篇, 앞의 책, 358쪽

50) 다카라즈카의 도시 정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일본 정부가 국토계획의 일환으로 각 도시를 관통하는 철도망과 도로망을 정비함에 따라, 다카라즈카의 주요 지역에도 철도역, 선로, 도로 등이 만들어졌다. 다음은 잦은 범람으로 지역민의 고민거리였던 무코가와(武庫川), 사카세가와(逆瀬川), 니가와(仁川) 등 주요 하천에 대한 개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개수공사의 목적은 물길을 직선화하고 강 옆에 제방을 쌓아 홍수를 방지하는 한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천부지(廢川敷地)에 주택 및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것이었다(宝塚市篇, 앞의 책, 318~330쪽)

병순(金炳順, 32세), 장장수(張長守, 27세), 남익삼(南益三, 37세)으로, 청장년 남성으로 추정된다.<sup>51)</sup> 이 외에도 1919년나마제의 유리공장에 조선인 소년공이 고용돼 있었다는 사실이 담긴 신문기사도 있다.<sup>52)</sup> 매장인허증과 신문 기사를 통해 1910년대 조선인의 다카라즈카 유입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이주경로나 몇 명이 이주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

조선인의 다카라즈카 이주 경로와 인원이 대략적이거나 드러나는 것은 1920년 무코가와 개수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무코가와 개수공사 전과 후의 지형도를 비교하면 <그림4>와 같다.<sup>53)</sup>



<그림4> 무코가와 개수공사 전후의 지형도 변화

51) 鄭鴻永, 앞의 책, 19~21쪽. 매장인허증(埋葬認許證)에는 조선인 사망자 3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인허증의 발행 날짜가 쓰여 있고 사망원인에 대한 기록은 없다.

52) 『神戸又新日報』 1919.3.10, ‘朝鮮職工脫走’. ; 유리공장의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2장 2절에서 그 동향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뤘으니 참조바란다(본 논문 28쪽).

53) 왼쪽이 1913년, 오른쪽이 1932년의 모습이다(宝塚市, 『宝塚大事典』, 2005, 180~181쪽).

무코가와 개수공사는 1기와 2기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 1기 공사는 1920년 8월부터 1923년 3월까지였다. 무코가와 주변 지천(支川)의 일부를 폐천(廢川)으로 만들어 불규칙한 지형을 직선화하고, 강폭을 넓히는 작업이 중심이었다. 2기 공사는 1923년 12월부터 1928년 4월까지 진행되었다. 무코가와와 사카세가와 합류지점에 정수로 및 홍수로를 설치해서 활류(活流)를 방지하고 저수를 정리하는 공사였다.<sup>54)</sup> 앞의 <그림4> 무코가와 개수공사 전후의 지형도 변화를 보면, 개수공사 이후 넓었던 강폭이 좁아지고, 지류가 정리되었으며 제방이 설립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무코가와 정비가 완료되고 나면 약 33만 평의 불용 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효고현은 여기에 주택 및 공공시설을 건립하거나 일부 토지를 판매해서 현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공사를 계기로 조선인이 본격적으로 다카라즈카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1920년 1기 공사의 상황을 살펴보자. 8월에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 시기는 홍수의 위험성 때문에 공사 준비 기간으로 활용했다. 11월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인부의 추가모집이 이루어졌다. 신문기사에 실린 당시의 공사 모습은 다음과 같다.

이 공사[무코가와 개수공사]를 관리하는 니시노미야 공영소에서는 이 공사에서 일할 인부를 일절 청부업자의 손에 맡기지 않고, 직영의 방법을 찾고 있고, 현재 고용 중인 약 300명(대부분은 조선인)에게는 숙소로 무코가와 양안(兩岸) 제방에 가건물을 설치해 자취를 하도록 하고, 이번에 다시 300명을 모집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방침인데(...중략...) <sup>55)</sup>

1기 공사의 경우 공사 준비 단계부터 이미 조선인이 고용되어 있었는데, 심지어 그 수는 공사 참여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였다. 의도적으로 조선인을 고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조선인을 고용했을까?

사실 한일병합 이전부터 조선인이 일본으로 이주해 임금노동자가 되는 일은 종종 있었다. 이를 매개한 사람들이 러일전쟁 당시 조선의 철도부설에 참여한 일본인 토건업자들이었다. 이들은 일본으로 돌아간 이후 조선에서의 경험을 살려 일본의 철도공사에 참여했다. 이 때 조선인을 노동자로 고용한 것이다. 철도부설과 관련해서 최초로 조선인 노동자를 채용했던 공사는 1906년 구마모토의 히사쓰선(肥薩線) 공사였다. 여기에 참여했던 카시마구미(鹿島組)는, 히토요시(人吉) 구간의 공사를 진행할 때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카시마구미 조선지점을 통해 조선인 약 150명

54) 『大阪朝日』 神戸附録 1922.10.5, ‘明年度より着工する武庫川上流改修’

55) 기사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同工事を管理する西宮工營所にては同工事に使役する工夫を一切請負業者の手に委せず直營の方法を探り現在使用せる約三百名(大部分は朝鮮人)には宿舎として同川兩岸の堤防に假納屋を設置して自炊せしめつつあり今般更に三百名を募集〇〇の方法を探らしむる方針なるが(…)”(『大阪朝日』神戸附録 1920.11.16, ‘武庫川 改修工事, 目下募集中’)

을 모집했다.<sup>56)</sup>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임금상승의 문제와 인력 부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

무코가와 공사에서도 공사비 절감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인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신문기사에 따르면 효고현의 경우 청부업자를 통하지 않고, 현에서 설치한 공영소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모집 단계부터 현이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록이 없어서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이 노동자 모집 단계부터 개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단기간에 많은 수의 ‘조선인 노동자’를 모집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곤란함은 더욱 커지게 된다. 앞선 카시마구미의 인원 동원 방식을 참고로 하면, 효고현 역시 모집 단계에서는 청부업자를 활용하고, 실제 공사에 노동자를 투입하면서부터는 현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미 300여명의 조선인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향후 300여명을 추가로 모집하려는 것을 보면 공사 진행에 있어서 조선인 노동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효고현에서는 무코가와 양쪽 제방에 자취가 가능한 가건물을 마련해서 조선인을 살게 했다. 즉 조선인은 공사장 인근의 함바(飯場)에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니시노미야 공영소에서는 이곳을 가리켜 ‘기숙사’라고 지칭하기도 했다.<sup>57)</sup> 1기 공사, 2기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사구역이 확대되었고, 함바 역시 추가로 계속 만들어졌다.<sup>58)</sup> 조선인들이 거주하던 함바의 상태는 어땠을까? 기록의 부재로 1기 개수공사 당시 함바의 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2기 개수공사가 진행되던 당시 은코바 함바에서 살았던 최늬이(崔廩伊)의 다음의 증언을 통해 함바에서의 생활을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19살에 은코바에 왔습니다. 가족끼리 사는 것은 없었고 큰 함바가 3채 있었습니다. 제가 온 뒤에 1채가 더 생겨서 함바는 모두 4채였습니다. 함바 우두머리는 모두 조선인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에는 200명 정도. 모두 독신남성으로 은코바에는 여성이라고는 저를 포함해서 3명뿐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에는 아직 길도 제방도 없었고, 함바가 강 안에 세워져 있었어요. 비가 와서 강의 물이 불어나면 집 안으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닥을 1미터 정도 올려서 만들었어요. 새로 공사를 하고 물이 흐르는 곳과 함바 사이에 흙을 쌓아서 제방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왔을 때는 은코바 부근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였고, 강 쪽의 제방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강물에서 세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마시거나 쌀을 씻기도 했습니

56) 菅野忠郎 編, 『鹿島組資料』, 鹿島建設株式會社, 1963, 64쪽 ; 金贊汀, 『韓国併合百年と‘在日’』, 新潮選書, 2010, 20쪽 재인용

57) 『神戸又新日報』1920.12.4, ‘西宮署で三日未明から活動を始め檢舉に努む’

58) 지금도 다카라즈카에는 산코바(三工場), 은코바(四工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는데, 무코가와 개수공사 당시 3구역, 4구역 공사장 혹은 함바가 있던 곳이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명칭을 통해 당시 공사구역 확대에 따라 함바가 계속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2기공사 시작과 함께 주요 공사구역이었던 은코바로 조선인들이 집단 이주했고, 현재는 위치가 이전되었지만 ‘은코바’라는 명칭은 여전히 다카라즈카의 대표적인 조선인집단 거주지의 명칭으로 남아 있다.



다.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냄새가 나는 지금의 수도물보다 맛있었습니다. 제방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집에 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어졌지만, 강까지 물을 뜨러 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중략...) 쌀은 모두 가마니에 담겨 있었고, 함바 사람 수에 맞게 매일 몇 두(斗)씩 밥을 해서 말(馬)로 옮겼습니다. 밥이 다 되면 삽으로 커다란 금속 대야에 옮기고, 가끔은 호루몬(ホルモン, 내장)을 사서 야채를 가득 넣고 국을 끓여서 먹기도 했는데, 나중에 온 사람은 건더기가 없어서 국물만 먹기도 했습니다. (...중략...) 함바는 함석지붕의 판잣집이었습니다. 벽이라고 해도 (짚으로 만든) 자리를 못으로 간단하게 고정시킨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썼는데, 옛날은 지금과는 달리 추워서 진짜 눈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에는 방 안에까지 눈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함바가 칸막이가 없는 큰 방으로 되어 있었고, 우리들 같은 부부는 달랐지만, 인부들은 모두 얇은 이불도 없이 서로 뒤섞여서 잤습니다. 다다미도 없었고, 그냥 마루 같은 것이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sup>59)</sup>

1926년 당시 윤코바에는 조선인 함바가 총 4개 있었다. 함바에 거주하는 조선인 인부의 대부분이 독신 남성이었고, 여성은 매우 적었다. 취사는 공동이었다. 가끔 내장국을 끓여서 먹는 것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는데, 그마저도 양은 부족했다. 무코가와와 물을 식수와 생활용수로 쓴 것을 보면 함바에는 따로 수도시설이 없었던 것 같다. 하수시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함바 건물도 매우 열악해서, 지붕만 있었을 뿐 제대로 된 벽이 없어서 더위나 추위에 매우 취약했다. 방도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큰 방의 마룻바닥에서 인부들이 서로 뒤섞여서 잠을 잤다.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구조였다. 집단생활과 세탁·목욕의 불편은 필연적으로 위생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 함바가 1926년 무렵의 것임을 고려하면, 1920년 효고현에서 만든 함바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을 것이다.

무코가와 개수공사 현장의 노동조건은 어떠했을까? 최능이의 증언에 따르면 아침 6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마치는 것은 보통 해가 질 무렵이었다고 한다.<sup>60)</sup> 저녁 5시나 6시에 일을 마친다고 보면, 노동시간이 11~12시간 정도가 된다. 현장에는 안전장비도 제대로 없어서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잠재되어 있었다. 노동조건과 주거조건이 모두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공사는 지속되었다. 1920년에 시작한 무코가와 개수 공사는 1928년까지 이어졌다. 2기 공사가 끝난 후에도 폐천부지 매립 공사와 사카세가와 개수공사 등 후속작업이 시작되었다. 계속된 공사로 조선인은 새로운 일 자리를 찾아 다른 곳으로 이주할 필요가 없었고, 공사현장 부근에 조성되어 있던 조선인 집단거주지 공사 기간 내내 유지되었다.

59) 최능이는 1907년 경북 의성에서 출생했다. 남편은 1923년부터 무코가와 개수공사에 참여했는데, 1926년 최능이가 남편을 찾아 윤코바에 오면서 함바에서 함께 거주했다. 최능이는 1996년 사망했다. 여기에서는 1986년에 진행되었던 인터뷰를 참조했는데, 일본어로 정리된 것 중 일부를 번역했다(鄭鴻永, 앞의 책, 178~181쪽).

60) 鄭鴻永, 앞의 책, 180쪽

## 2) 1930년대 정주화의 진전과 조선인 마을의 특징

1929년 다카라즈카의 하천개수공사와 관련해서 공무원 비리사건이 터졌다. 효고현 하천과장들이 폐천부지에 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체포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의 여파로, 무코가와 폐천부지 매립공사와 사가세가와 개수공사가 갑자기 중단되었다. 이와 함께 조선인 인부 360명 중 240명에게 해고 통보가 내려졌다. 조선인 노동자를 관리하고 있던 청부업자인 기수조(旗手組)에서는 해고자의 숫자가 많아서 구제의 방도가 없다며 손을 놓아버렸고, 조선인들은 전달의 월급과 해고수당도 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sup>61)</sup>

설상가상으로 거주지에서의 퇴거 조치가 이어졌다. 대다수의 조선인들은 일본인 마을이 아닌 공사장 인근에 무허가로 함바와 바라크를 지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거주지는 관유지였고, 이곳에 주택단지와 도로 건설 등의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거주는 불가능했다. 1932년부터 무코가와 인근의 함바와 바라크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되기 시작했다.<sup>62)</sup> 1933년에 오키나와 사람들이 강제퇴거되었고, 다음은 윤코바 조선인의 차례였다.<sup>63)</sup> 조선인들은 인근의 이소시(伊予志)로 집단이주했다. 퇴거와 집단이주 이전에,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의 경우 공사가 끝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다카라즈카에서는 해고자 240명 중 단 30명이 다른 일을 찾아서 떠났을 뿐 대부분은 윤코바에 그대로 남았고,<sup>64)</sup> 집단퇴거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왜 이들은 해고 직후에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다카라즈카에 남았을까?

토목공사에서 해고된 조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코가와와 자갈과 모래를 채집하거나 이를 운반하는 일이었다.<sup>65)</sup> 당시 일본 각지에서는 철도, 도로 부설 등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자갈, 모래, 돌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료겐촌은 지형적으로 큰 돌이 많아서 채석(採石) 사업에 좋은 곳이었다. 많은 조선인이 이 일에 뛰어들었다.<sup>66)</sup> 그런데 자갈을 채집하는 일은 효고현에 정식으로 등록된 청부업자만이 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채취 활동은 당국의 단속 대상이었다. 직업으로 삼기에는 안정성이 매우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선택한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곳으로 이주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실마리는 1937년 효고현에서 발행한 『조선인의 생활상태(朝鮮人の生活状態)』(이하 『생활상태』)에 수록된 사회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sup>67)</sup>

61) 『大阪毎日』 1929.10.18, ‘仕事に離れた鮮人三百名-武庫川埋立の終了と逆瀬川の改修中止で’

62) 『神戸又新日報』 1932.11.1, ‘小屋かけ鮮人に強制立退命令 けふ西宮署が斷行’

63) 『神戸新聞』 1933.8.2, ‘武庫の琉球人全部退去す-武庫川廢川地のスラム, 良元村はまだだ’

64) 『大阪朝日』 阪神版 1929.10.17, ‘武庫川埋立の土工 二百四十名を解雇’

65) 『神戸又新日報』 1933.9.21, ‘武庫川砂利採集に-舉兩得の陳述 田近村長が縣へ’

66) 堀内稔, 『兵庫朝鮮人勞動運動史 八一五解放前』, 木原印刷, 1998, 223쪽; 1933년 무코손 모리베(守部)를 중심으로 윤코바를 포함해서 인근의 정촌(町村) 사람들까지 거의 2천명의 사람들이 이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생활상태』에 따르면 1937년 당시 효고현에는 약 6만 3천명의 조선인이 있었다. 이 중 아мага사키(尼崎), 니시노미야(西宮), 카와베군(川辺郡), 무코군(武庫郡)의 조선인이 2만 2,280명으로 효고현 전체 조선인의 37%를 점하고 있었다. 아мага사키에는 1,140세대, 6,061명의 조선인이 살고 있었고, 니시노미야에는 1,369세대 7,241명이 살고 있었다. 료겐촌에는 149세대 705명, 코하마촌에는 69세대 302명의 조선인이 살고 있었다.<sup>68)</sup> 다카라즈카에는 총 1,007명의 조선인이있었던 것이다. 아мага사키나 니시노미야에 비하면 전체 인구수는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일본인 인구 100명당 조선인의 인구를 보면, 효고현이 2.0명, 고베시가 1.8명, 니시노미야시가 2.4명, 아мага사키시가 3.7명인 것에 비해 료겐촌은 7.8명이었다.<sup>69)</sup> 료겐촌의 경우 조사가 이루어진 28개의 시정촌 중 6번째로 일본인 대비 조선인의 거주 비율이 높았다.

다카라즈카 조선인의 성별·연령별인구는 어떠했을까? 성별 인구수와 연령별 인구수를 정리하면 각각 <표1>, <표2>와 같다.

<표1> 다카라즈카 조선인의 성별 인구수

| 마을   | 구분 | 세대원(명) |     |     | 독신자(명) |   |    |
|------|----|--------|-----|-----|--------|---|----|
|      |    | 남      | 여   | 합   | 남      | 여 | 합  |
| 료겐촌  |    | 334    | 309 | 643 | 61     | 1 | 62 |
| 코하마촌 |    | 154    | 133 | 287 | 11     | 4 | 15 |
| 합계   |    | 488    | 442 | 930 | 72     | 5 | 77 |

※ 출처 : 兵庫縣社會課, 『朝鮮人の生活状態』, 兵庫縣, 1937, 12쪽, 16쪽

<표2> 다카라즈카 조선인의 연령별 인구 수

| 구분     | 연령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60~ | 합  |
|--------|----|--------|-----|-----|-----|-----|-----|-----|-----|-----|-----|-----|-----|-----|----|
|        |    | 세대원(명) | 195 | 157 | 71  | 61  | 64  | 98  | 84  | 90  | 47  | 21  | 18  | 15  | 9  |
| 독신자(명) |    | 0      | 0   | 0   | 5   | 26  | 18  | 9   | 5   | 7   | 5   | 1   | 1   | 0   | 77 |

※ 출처 : 兵庫縣社會課, 『朝鮮人の生活状態』, 兵庫縣, 1937, 12쪽, 16쪽

<표1>의 성별 인구수를 보면, 전체 조사 인구 1007명 중 세대원은 930명, 독신자의 숫자는 77명이다. 세대원의 경우 여성의 숫자가 남성에 비해 좀 적긴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수를 차지하고 있다. 독신자의 경우 여성의 수가 매우 적은데, 이것은 다카라즈카에 살고 있던 여성의 대부분은 아내이거나 딸이었음을 의미한다.

67) 兵庫縣社會課, 『朝鮮人の生活状態』, 兵庫縣, 1937 ; 이 책은 효고현 내에서도 조선인이 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мага사키시, 니시노미야시, 카와베군, 무코군 등 7개 지역의 28개의 시군정촌(市郡町村)을 대상으로 조선인의 인구, 생계, 거주, 고용, 사회활동 등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카라즈카경찰서 관할이었던 료겐촌과 코하마촌 자료를 주로 참고했다.

68) 兵庫縣社會課, 앞의 책, 5~6쪽

69) 兵庫縣社會課, 앞의 책, 부록([도표IV人口百人に対する朝鮮人數])

1926년 함바에 거주했던 최늬이는 당시 대부분의 노동자가 독신자였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937년의 조사에 따르면 세대원이 크게 증가해서 독신자의 숫자를 압도하고 있다. 가족단위의 정주가 진전된 것이다.

<표2>의 연령별 인구수를 보면, 세대원의 경우 15세 미만의 아동이 423명, 노동가능연령인 15세부터 50세 미만의 조선인은 465명이다. 10세 미만의 아동이 352명인데, 이 중 276명이 일본에서 출생했다.<sup>70)</sup> 향후 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언어문제, 교육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과 관련해서 가족전체가 일본에서의 영주를 고민하게 될 소지가 높다. 노년층의 숫자는 아동에 비해 적은 편인데 일본으로의 이주가 청장년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신자의 경우 5세 미만의 아동과 60세 이상의 노년층은 없고, 20대~50대까지의 숫자가 75명으로, 노동가능연령대에 몰려있다.

이들이 다카라즈카에 이주한 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다카라즈카 조선인의 거주기간을 정리한 것이 <표3>이다.<sup>71)</sup>

<표3> 다카라즈카 조선인(세대주)의 거주기간

|     | 15년 이상 | 15년 미만 | 10년 미만 | 5년 미만 | 3년 미만 | 2년 미만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개월 미만 | 불명  | 합계   |
|-----|--------|--------|--------|-------|-------|-------|-------|--------|--------|-----|------|
| 세대원 | 3      | 13     | 65     | 33    | 10    | 23    | 36    | 29     | 5      | 1   | 218명 |
| 독신자 |        | 2      | 3      | 6     | 6     | 21    | 15    | 21     | 3      |     | 77명  |
| 합계  | 3      | 15     | 68     | 39    | 16    | 44    | 51    | 50     | 8      | 1   | 295명 |
| 비율  | 1.0    | 5.1    | 23.2   | 13.2  | 5.4   | 14.9  | 17.3  | 16.9   | 2.7    | 0.3 | 100% |

※ 출처 : 兵庫縣社會課, 『朝鮮人の生活狀態』, 兵庫縣, 1937, 45~47쪽

<표3>에서 다카라즈카 조선인 중 세대원과 독신자의 거주기간을 보면, 거주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원의 경우 5년 이상의 거주자가 81명, 2년 미만이 88명으로, 장기간 거주와 단기간 거주가 비슷한 비율을 하고 있다. 독신자의 경우 2년 미만이 60명, 2년 이상은 17명에 불과하다. 독신자의 경우 일본으로 이주한 목적이 장기적 생활보다는 단기적인 노동활동 때문이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옮겨 다니는 경우도 많았다, 반대로 가족이 있는 세대원은 일본에서의 노동이 장기적인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다카라즈카의 세대원 중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의 비율이 37.1%였는데, 이는 조사 지역 전체의 평균인 23.4% 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인근 지역의 5년 이상 거주 재일조선인의 비율을 보면 아마가사키 16.5%, 니시노미야 25%, 이타미 30%이다.<sup>72)</sup> 다카라즈카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

70) 兵庫縣社會課, 앞의 책, 37쪽 ; 연령별 출생지 조사를 보면 5세 미만 아동 195명 중 177명이, 5세~10세 미만 아동 157명 중 99명이 일본에서 출생했다. 10~15세 미만의 경우 71명 중 단 12명이 일본에서 출생했다. 나이가 어릴수록 일본에서 출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71) <표1>, <표2>에서 조사 조선인의 수 1007명은 다카라즈카의 전체 조선인의 숫자이다. <표3>의 295명은 전체 조선인이 아니라 세대주만을 표기한 것이다. 세대원 중 세대주 218명과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 독신자 77명을 합한 수이다.

그 중에서도 세대원은 다른 지역보다 장기 거주자의 양상을 더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당시 다카라즈카 조선인들이 살았던 거주공간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주거의 형태와 가옥의 시설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표4> 다카라즈카 조선인의 주거 현황

|          | 주거 형태 |      | 주택 시설 상황 |       |       |       |       |        |       |
|----------|-------|------|----------|-------|-------|-------|-------|--------|-------|
|          | 자가    | 차가   | 가내 부엌    | 채광 양호 | 통풍 양호 | 배수 시설 | 급수 시설 | 화장실 전용 | 위생 양호 |
| 다카라즈카(%) | 56    | 44   | 92.5     | 81    | 78.5  | 53    | 21    | 15.5   | 41    |
| 전체평균(%)  | 21.7  | 88.3 | 81.5     | 73.2  | 74    | 63    | 37.5  | 41.2   | 64.5  |

※ 출처 : 兵庫縣社會課, 『朝鮮人の生活狀態』, 兵庫縣, 1937, 102~103쪽, 107~108쪽

다카라즈카 인근의 아мага사키와 니시노미야의 경우 자가(自家)보다는 차가(借家)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sup>73)</sup> 조사가 실시된 지역의 평균을 보더라도 자가 비율은 21.7%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카라즈카의 경우, 세대주 200명 중 113명이 자가, 87명이 차가로, 자가 비율이 56%에 이른다. 주택의 시설은 어땠을까? 전용부엌, 채광, 통풍은 모두 조사지역의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수, 급수시설의 설치 정도는 평균보다 낮았고, 화장실 역시 전용 비율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배수, 급수시설 및 화장실의 미비는 위생 상태에 악영향을 미쳤다. 위생양호도를 보면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 급수시설이나 배수시설은 어느 정도 시설이 완비된 주택가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개인의 힘으로 완비하기는 어렵다. 즉, 자가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급수·배수시설이 부족한 것을 보면 기존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통풍이나 채광이 좋은 것을 보면 주변에 큰 건물이 많이 없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 결국 원래 주택부지가 아닌 비어 있던 땅 위에 재일조선인들이 새로 집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시설은 열악했지만 자기 집이 있다는 것은 정주의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또 이웃 주민의 거의 대부분은 조선인이었다. 처음 공사 인부를 모집할 때부터 집단적인 모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공사 기간 동안 거주했던 곳도 공사현장의 함바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선인만의 집단거주지가 만들어졌다. 그 이후 친인척이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다카라즈카로 이주하는 조선인이 증가했다. 식민지 시기 다카라즈카 이주 조선인의 출신지에 대한 조사는 따로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지 재일조선인의 증언에 따르면, 다카라즈카에는 경북 의성군 봉양면 출신들이 매우 많았다고 한다.<sup>74)</sup> 고향에

72) 兵庫縣社會課, 앞의 책, 46쪽

73) 아мага사키 재일조선인의 자가 비율은 22.3%이고, 니시노미야 재일조선인의 자가 비율은 22.2%이다(兵庫縣社會課, 앞의 책, 102~103쪽).

보낸 편지의 봉투 겉면에 쓰여 있던 윤코바(四工場)라는 주소를 보고, 큰 공장이 있다고 생각한 조선인들이 앞서 떠난 고향 친인척을 의지해 다카라즈카로 이주하는 일도 많았다.<sup>75)</sup> 혈연, 지연에 중심을 둔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강화되었다.

비록 공사는 중단되고 일자리를 잃어버렸지만, 다카라즈카에는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고, 자기 집이 있었으며, 친척 혹은 지인이 이웃주민으로 함께 살고 있었다. 이주 당시에는 낯선 곳이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삶의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일자리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조선인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는 대신, 불법으로 강에서 자갈채취를 하는 일을 선택했다. 이전보다 직업은 불안정해졌지만, 다카라즈카에 남는 쪽이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것보다 삶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 2. 내선융화(內鮮融和) 단체의 결성과 조선인의 동향

### 1) 다카라즈카의 주요 산업과 조선인 노동자

효고현으로 이주해 온 조선인들 중 약 63%는 ‘공업’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토목건축업의 비중이 특히 높았다.<sup>76)</sup> 비록 식민지 시기 다카라즈카 조선인의 직업 상황에 대한 조사는 없었지만, 당시의 신문기사와 관련자들의 증언을 보면, 다카라즈카의 조선인 역시 대부분 토목공사와 자갈채취 일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앞에서 1914년 고베수도공사에 조선인이 종사하고 있었고, 이들이 다카라즈카로 최초로 이주한 조선인임을 밝혔다. 1919년나마제의 유리공장에 있던 조선인 노동자의 생활은 어땠을까.

1919년 3월 8일 나마제유리제조회사(生瀬硝子製造會社)에서 일하던 조선인 노동자 10명이 단체로 공장에서 ‘탈주’한 사건이 있었다.<sup>77)</sup> 당시 신문기사에는 10명의 조선인 직공의 이름과 나이가 모두 실려 있었는데, 22살이 1명, 16살이 5명, 17살이 3명, 19살이 1명이었다. 대부분이 10대 소년이었는데, 이들은 미리 협의 후에 함께 공장을 탈주해서 고베역으로 이동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탈주의 이유는 불명(不明)이라고 한다. 이 회사는 1920년에도 유소년 직공을 많이 고용하고 가혹한 노동으로 이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유로

74) 현재 다카라즈카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의 증언에 따르면, 다카라즈카에는 의성 출신들이 특히 많았다고 한다. 해방 직후 윤코바의 한국소학교에서 학부모의 출신을 조사한 자료에서도, 조사학생의 약 절반 정도가 본적을 의성군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3장 2절 2항을 참조 바란다.

75) 오다 마리코(1949년생), 2017년 6월 26일, 민단 사무실

76) 兵庫縣社會課, 앞의 책, 51~55쪽 ; 효고현 전체를 대상으로 조선인의 직업상황을 조사했지만, 지역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조사에서는 제조업, 토목건설업, 광공업 등 2차 산업을 공업으로 분류했다.

77) 『神戸又新日報』 1919.3.10, ‘朝鮮職工脫走’

‘주의’라는 행정 처분을 받았다.<sup>78)</sup> 1919년 조선인 직공들 역시 가혹한 노동을 견디지 못해 공장에서 집단으로 도망을 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나이도 어렸고, 이들을 보호해 줄만한 노동자 조직도 없었기 때문에 도망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 공장은 1923년에 결국 폐쇄되었다.<sup>79)</sup> 이 유리제조회사를 제외하면 식민지 시기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이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되어 공장 혹은 회사에서 노동을 했다는 기록이나 증언은 없다.

1920년 무코가와 개수공사를 계기로 다카라즈카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대부분 지역의 토목공사에 종사했다. 무코가와 개수공사 외에도 1927년 2차 고베수도공사를 비롯해, 1929년 후쿠치야마(福知山) 선로의 터널을 새로 뚫는 공사에도 조선인이 참여했다.<sup>80)</sup> 나마제(生瀬) 인근의 고압송전선철탑공사, 호우라이(蓬萊) 협곡 일대의 사방공사에도 조선인 노동자가 있었다.<sup>81)</sup> 대부분의 조선인이 노동자였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무코가와 2차 개수공사나 나마제의 각종 토목공사에 종사했던 조선인의 증언을 참고로 하면 조선인 노동자를 관리했던 조선인 청부업자(함바의 주인)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청부업자 외에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조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미 1920년대 초부터 전국 각지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있었다. 1922년 11월 도쿄에서 조선노동동맹회(朝鮮労働同盟會)가, 12월에 오사카조선노동동맹회(大阪朝鮮労働同盟會)가 만들어졌다. 효고현에서는 고베 지역이 중심이었는데, 1925년 3월 29일 고베조선노동동맹회(神戸朝鮮労働同盟會, 이하 ‘고베동맹’)가 설립되었다. 고베동맹은 고베를 중심으로 조직을 확장하면서, 고베 인근의 무코군이나 아мага사키의 여러 공장에서 노동쟁의를 조직하고, 조선인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강연 및 교육, 조직 강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sup>82)</sup> 1929년에는 효고현조선노동조합(兵庫縣朝鮮労働組合, 이하 ‘효고현조합’)이 결성되었다. 역시 고베가 중심이 되었고, 니시고베(西神戸)와 아мага사키에 지부가 설치되었다.<sup>83)</sup> 효고현조합에서 지원했던 노동쟁의를 보면 지역으로는 고베, 아мага사키, 니시노미야가 중심이었고, 업종으로는 제분소(製粉所), 고무공장, 면직물공장, 제정공장(製釘工場) 등 제조업 공장이 중심이었다. 내용적으로는 주로 임금인상과 해고반대투쟁을 하고, 식당이나 탈의장 설치 같은 노동환경 개선투쟁도 전개했다.<sup>84)</sup> 효고현조합은 활동의 기반이 고베에 있고, 노동운동을 주변으로 확대시킬 때에도 조선인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아мага사키, 니시노미야가 중심이었고, 제조업 분야에 지원이 집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다카라즈카는 1880년대 후반부터 온천을 활용한 관광지로 개발이 진행되던 곳이

78) 『神戸又新日報』 1920.2.25, ‘規則を破る工場-盛に年少職工を使用する’

79) 鄭鴻永, 앞의 책, 30쪽

80) 『大阪朝日』 阪神版 1927.10.11, ‘賭博の怨恨から-土方十七名暴れ込む 神戸水道工事の朝鮮人’; 『神戸又新日報』, 1929.3.28, ‘ダイナマイトが爆発し四名その場で死傷 雷管を焚火で乾燥させた長尾山トンネル入口の樁事’

81) 鄭鴻永, 앞의 책, 46쪽

82) 堀内稔, 앞의 책, 57~60쪽

83) 『大阪朝日』 阪神版 1929.4.1, ‘朝鮮團體合同-七日に發會式’

84) 堀内稔, 앞의 책, 72쪽

다. 1900년대 이후에도 주로 관광 시설을 확장하거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교통개선 및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 고베가 성냥산업, 고무산업 등 제조업 중심의 도시이고, 아마가사키 역시 공단 조성과 함께 공업도시로 발전한 것과는 달리, 다카라즈카는 제조업 중심의 도시가 아니었다. 이 지역의 산업은 서비스업 아니면 토목건설업이었고, 조선인은 대부분 토목건설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효고현의 노동조합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결성되고 있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효고현 조합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노조를 만들기에 어려운 구조였다. 무코가와 개수공사의 경우 현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에서도 조선인 혹은 일본인 청부업자의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내부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했다는 기록이 없다. 무코가와 개수공사의 중단으로 많은 노동자가 갑자기 해고되고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노동조합 등을 결성해 청부업자를 압박하는 대신에 다카라즈카 경찰서의 야마모토(山本) 서장의 중재를 통해 월급의 일부를 받을 수 있었다.<sup>85)</sup> 다카라즈카의 조선인이 노동쟁의 형식의 활동을 하는 것은 몇 년 후의 일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다카라즈카에 남아 무코가와에서 모래와 자갈과 채취하는 일에 종사했다. 자갈채취는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했다. 조선인 중에는 합법적 조합의 인부로 취직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자갈채취를 하고 그것을 운반 혹은 판매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갔다. 1933년 8월 효고현 당국은 무단으로 자갈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동안 허가 없이 개별적으로 작업을 하던 조선인들을 대거 체포했다.<sup>86)</sup> 무코가와 인근의 농민들이 조선인의 무분별한 자갈채취 때문에 강바닥이 낮아져서 관개용수 사용에 문제가 생겼다면, 당국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 결과였다.

조선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코촌(武庫村) 역장을 만나서 자갈채취를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농민들의 반대도 극심했다. 양측이 계속 대립하자, 타지카(田近) 촌장은 무코가와와 바닥침식을 막는 공사를 제안했다. 공사에 조선인을 활용하면 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농민들의 관개용수 걱정도 덜 수 있다는 것이다.<sup>87)</sup> 그러나 실제로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조선인의 자갈채취에 대한 별도의 허가 조치도 없었다. 조선인의 무단 자갈채취는 계속 되었고, 경찰의 조선인 체포도 반복되었다.<sup>88)</sup> 한차례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에,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한 조선인의 추가적인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갈채집업자의 경우 자영업자와 다름없었기 때문에, 작업 내용이 저마다 달랐고 업자들 사이에 경쟁관계도 형성되어 있었는데, 당국에 대항하기 위해 상호협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1920년대 그런 조직을 결성했었던 경험도 전무한 상태였다.

85) 『大阪朝日』 阪神版 1929.10.17, ‘賃金は貰ったが失業を出すか-武庫川埋立事件で朝鮮土工の運命’

86) 『大阪朝日』 阪神版 1933.8.31, ‘武庫川の砂利を許可なく採取-三十名の朝鮮人うち二人捕はる’

87) 『大阪毎日』 1933.9.21, ‘饑餓線から一千名數はる-武庫川の砂利採取問題, 床止め施工で解決’

88) 『大阪朝日』 阪神版 1933.8.31, ‘無斷で砂利採り二十名を捕ふ-宝塚署の活動’



1937년 2월 말에는 자갈채집조합 소속의 조선인 인부들이 임금인하에 불만을 품고,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했다. 청부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sup>89)</sup> 그 이전에도 조선인 인부와 일본인 청부업자가 트럭적재량을 놓고 싸우다가 부근의 조선인 수명이 삼을 들고 청부업자를 구타한 사건이 있었는데,<sup>90)</sup> 일본인 청부업자와 조선인 인부 사이에 존재하던 갈등관계가 임금인하를 계기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남아 있는 자료만 보면 식민지 시기 다카라즈카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는, 1937년에 일어난 자갈채집조합 소속 노동자들의 파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혹시 다른 노동쟁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관련된 기록을 찾지 못했다. 1937년의 노동쟁의 역시 외부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고, 내부에서도 치밀하게 준비되지 못했다. 충돌이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몸싸움으로 넘어가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포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면, 쟁의의 목표도 뚜렷하지 않았고 파업의 과정 역시 조직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운동역량은 상당히 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1920년대에 술 혹은 도박 문제로 일본인들과 충돌했던 것 외에 집단행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1930년대에 존장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진정서 제출’이라는 나름의 행정적 절차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우발적인 몸싸움으로 번지기는 했지만, 파업을 단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1920년대 다른 지역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노동쟁의를 비롯한 사회운동을 전개할 때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은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었다. 바깥으로부터의 지도나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운동역량을 키우지도 못했다. 운동역량의 취약성은 1930년대 내선융화단체를 제외하면 지역에서 재일조선인의 자발적인 단체가 결성되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 2) 내선융화단체의 결성과 다카라즈카 친향회

1910년대부터 오사카 등지에서는 조선인의 주도로, 혹은 관의 관여 속에서 조선인에 대한 ‘구제’ 및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졌다. 이들 단체의 주요활동은, 노동소개소와 숙박소 설치, 자선활동, 언어교육, 품성 향상, 내선인(內鮮人) 융화 등이었다. 1910년대이긴 했지만 피식민지민이었던 조선인을 대상으로 결성된 단체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선융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사회사업적인 성격도 강했다.<sup>91)</sup> 조선인의 일본 정착을 돕고 현지에서의

89) 『大阪毎日』 1937.2.23, ‘武庫川筋の砂利人夫が罷業-建築業者ら大困り’; 『神戸新聞』 1937.2.24, ‘土工数十名の大乱闘-武庫川堤の椿事’; 『大阪毎日』 1937.2.24, ‘武庫川畔の大乱闘-人夫数名殴打されて重傷’; 『大阪朝日』 阪神版 1937.2.25, ‘乱闘事件で依然怠業’

90) 『大阪朝日』 阪神版 1936.3.22, ‘砂利人夫と請負人の喧嘩-重傷者を出す’

91) 木村健二, 「‘협화회(協和會)’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일민족문제연구』 34, 2018, 352쪽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20년대부터는 내선융화 단체가 결성된 지역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1923년 간토대지진(關東大地震) 이후에 조선인학살 등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관에 의해 융화단체 설립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24년 5월 오사카부에서 관민합동으로 ‘내선협화회(內鮮協和會)’가 설립되었다.<sup>92)</sup> 뒤이어 1925년 11월에 효고현(兵庫縣) 내선협회가, 1926년에는 카나가와현(神奈川縣) 내선협회가 설치되었다. 효고현 내선협회의 경우 현지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효고현 사회과가 내선협회 결성에 깊이 관여했다. 행정기관의 주도였기 때문에, 주요 활동 역시 조선인에 대한 통제 보다는 구제와 복지가 중심이었다. 반면에 카나가와 내선협회는 현의 사회과와 경찰이 운영에 관여하면서 구제와 함께 조선인에 대한 감시·통제가 좀 더 강화되었다.<sup>93)</sup>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1930년대 초반까지 내선융화단체는 대체로 사회사업단체로서의 위상을 일부 가지고 있었다.<sup>94)</sup> 그러나 1936년 이후 각 부현에 협화회가 만들어지면서, ‘사회사업’은 점차 축소되고, 조선인에 대한 감시·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갔다.

다카라즈카 최초의 내선융화 단체는, 1930년 9월 4일에 결성된 일선교화회(日鮮交和會)이다. 사카세가와 개수공사에 종사하고 있던 조선인 인부 30명이 중심이 되어, 무코가와시의 이소시(伊予志)에서 이 단체를 만들었다. 회칙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회비 납부, 회무(會務) 보고 등이었다. 회칙의 조항 중에는 ‘거주지 이외라고 해도 농작물을 망치지 말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sup>95)</sup> 1920년에 조선인이 다카라즈카로 이주한 직후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샀던 행동 중 하나가 남의 농작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면서 밭을 망치는 것이었다. 1930년 시점에서 이런 조항이 다시 강조된 것을 보면, 조선인이 여전히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선교화회는 조선인의 부정적 행동을 내부적 단속을 통해 스스로 규제하려 했다. 공개되지 않은 다른 조항들 역시 이와 유사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보통 내선융화단체의 결성에는 경찰 혹은 행정당국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선교화회의 경우 당국 관계자의 개입 여부가 신문에 따로 기록된 내용은 없다. 그러나 일선교화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내선간의 화합을 강조하거나 주요 규칙이 조선인 생활의 규제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보면 당국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도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에 대한 계몽이나 내선융화, 지역주민과의 갈등 감소 등은 모두 행정당국에서 추진하던 정책의 주요 방향이었다. 또 일선교화회가 만들어진 시기는 사카세가와 공사 중단과 함께 제일조선인 실업자가 다수

92) 金贊汀, 앞의 책, 60~61쪽

93) 木村健二, 앞의 논문, 353~354쪽

94) 조정희, 「관동대지진 전후 제국일본의 조선인 대책과 사회사업 사상 -‘내선융화’ 사업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128, 2017, 95쪽

95) 『大阪朝日』 阪神版 1930.9.4, ‘星をいただいて武庫川で原發會式-朝鮮人が日鮮交和會を’

발생했을 때인데, 해당 기사에서 여전히 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이들은 해고를 피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때의 발회식 이후 일선교화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특별히 없다. 1937년 효고현 사회과에서 지역 내 재일조선인 단체를 조사할 때 일선교화회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전에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1933년에는 행정당국의 주도로 조선인 청년단이 결성되었다. 본래 다카라즈카에는 일본인으로 구성된 청년단이 있었는데, 다나카(田中) 료겐촌장이 은코바의 조선인 청년 25명을 따로 모아서 료겐촌 청년단 제7부를 조직한 것이다. 5월 5일 역장(役場) 앞에서 정식으로 입단선언식이 거행되었고 지부장은 조선인 권중수(權重壽)가 맡았다. 청년단복을 입고 참여한 조선인 청년들은 선언식 후에 다 같이 스모대회를 관람했다. 1년 후에는 스모대회에 직접 출전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sup>96)</sup> 그로부터 2년 후 조선인 청년단이 스모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sup>97)</sup> 해당 기사에서는 ‘무코가와 제방의 조선인 부락(제7부)에서 조선인 청년 정예가 대거 가입했기 때문에 뜻밖에 내선융화의 아름다운 스포츠를 볼 수 있게 되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선인 청년단의 경우, 조선인 청년이 지부장이 되고 단원으로 참여했지만, 그 활동은 관의 주도하게 이루어졌다. 결성을 주도한 것이 료겐촌의 행정책임자였고, 결성식이 진행된 장소도 료겐촌 역장 앞이었다. 행정 당국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에도 동원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스모시합을 관람하거나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다. 스모는 일본의 국기(國技)로 조선인 청년들에게 스모를 보게 하고, 직접 참여시키는 것은 일본의 정신을 조선인 청년들에게 이식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조선인을 일본인화하면 할수록 관리와 통제는 더욱 용이해질 수 있고, 조선인의 스모 시합 참여는 내선융화를 선전하기에도 매우 좋은 소재였다

1920년대 노동자의 이주가 한창 진행될 때도, 1929년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1933년 강제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때도, 다카라즈카의 조선인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대응했다는 기록은 없다. 1930년대에 들어서서 일선교화회나 조선인 청년단 같은 내선융화단체가 결성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행정당국의 영향력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재일조선인을 위한 활동이 중심이 된 것도 아니었다. 내선융화단체들이 결성 초기에 사회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과는 달리, 일선교화회는 친목단체로서 생활 태도의 개선을 추구하고, 조선인 청년단 역시 내선융화를 위해 관에 의해 동원되는 방식으로 결성되었고, 조선인의 노동문제나 실업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런데 1936년에 결성된 다카라즈카친향회(宝塚親向會, 이하 친향회)는 이 두 단체와는 성격이 조금 달랐다.

친향회는 다카라즈카 조선인 중 상당수가 가입을 한 단체로, 1930년대 중반 다카라즈카의 거의 유일한 재일조선인 단체였다. 1937년 효고현 사회과에서, 현 내 각

96) 『大阪毎日』 1933.5.6, ‘宝塚に生まれた朝鮮人青年団-立派な自治制も布いて良元村第七部組織’

97) 『大阪毎日』 1935.4.28, ‘内鮮融和の麗はしいスポーツ-宝塚青年団の相撲大会に朝鮮青年も大挙参加’

지역의 조선인단체와 그 회원의 수를 조사했다. 조사 당시 효고현에는 내선융화단체를 포함해서 모두 41개의 조선인 단체가 있었다. 아마가사키에 18개, 니시노미야에는 11개, 아시야(芦屋)에 10개가 있었다. 다카라즈카와 바로 인접해있고, 면적이나 인구 면에서 가장 비슷했던 이타미에도 5개의 단체가 있었다. 그런데 다카라즈카에는 오직 1개, 친향회만이 있었다. 다카라즈카에서 단체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127명의 세대주는 모두 친향회 소속이었다.<sup>98)</sup> 효고현내 41개의 조선인 단체 중에서 친향회는 두 번째로 회원 수가 많았다. 다카라즈카의 하나뿐인 조선인 단체였기 때문에 재일조선인에게도, 다카라즈카의 행정·사법의 관계자들에게도 친향회는 매우 중요했다.

1936년 12월 16일, 다카라즈카 경찰서장, 료겐촌장, 코하마촌장, 시오세촌장 등의 주선으로, 다카라즈카 제일소학교 강당에서 친향회의 설립총회가 열렸다. 회원으로 가입한 조선인의 숫자는 180명이었다. 결성 목적은 조선주 밀조나 도박 등 조선인의 악습을 근절해서 생활향상을 도모하고, 구체적으로는 교육·금융·방법 등 각 분야의 지도 담당을 선임해서 미취학 아동을 교육하고, 범죄의 발견 및 예방 등에 힘쓴다는 것이다.<sup>99)</sup> 친향회 결성에 참여한 인물의 면면을 보면, 결성단계부터 다카라즈카 행정·사법당국의 관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성 목적과 조직 구성을 보면 조선인에 대한 계몽 내지는 문명교화가 중심이다. 타파해야 될 악습이자 범죄로 지목된 것은 조선주 밀조, 도박 등으로, 당시 재일조선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친향회를 통해 조선인의 생활을 개량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친향회는 조선인의 생활 보호를 위한 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친향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다카라즈카의 각 단체 대표자에게 친향회 설립에 관한 인사장을 보내는 일이었다. 인사장의 주요 내용은 조선인 노동자의 생활향상과 친목을 위해 친향회를 결성했는데, 기회가 있으면 친향회의 노동자에게 일을 시켜달라는 요청이었다.<sup>100)</sup> 대다수의 조선인이 종사하고 있었던 자갈채취 일은 안정성이 낮았기 때문에, 조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었다. 친향회는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조선인 아동의 교육, 조선 문화의 유지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소학교 입학 전까지 방치되어 있던 조선인 아동의 교육을 위해 조선보육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도 했다. 이것은 일본의 유아원 제도를 본 딴 것으로 친향회의 임원이었던 김영철 목사가 총 운영을 맡았다. 가정집을 빌려서 만든 유아원에는 26명의 조선인 유아가 다니고 있었고, 수업 내용 중에는 조선의 동요를 배우거나 무용과 체조 등이 있었다. 향후 현의 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더욱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sup>101)</sup> 친향회는 기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무용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선 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sup>102)</sup> 200여명

98) 兵庫縣社會課, 앞의 책, 148~150쪽

99) 『大阪毎日』 1936.12.17, ‘親向會を組織-宝塚署管内の朝鮮人’

100) 『大阪毎日』 1937.1.30, ‘宝塚親向會の挨拶状’

101) 『大阪毎日』 1937.6.11, ‘“朝鮮保育園”宝塚に誕生(親向會)’

102) 『大阪毎日』 1937.2.9, ‘朝鮮舞踊競歌の會(宝塚親向會)’

의 회원으로 출발했던 친향회는 1년이 지난 1938년 회원수가 500명으로 증가했다.<sup>103)</sup>

친향회와 관련해서, <그림5>의 창립기념회 때의 사진이 전해진다.<sup>104)</sup>



<그림5> 다카라즈카 친향회 창립기념회

<그림5>의 사진을 보면 상하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다. 상단에는 ‘다카라즈카친향회창립기념(宝塚親向會創立記念)’, 하단에는 ‘조선인단체를 결성, 쇼와13년 4월 3일, 카와만여관3층(朝人團體를 結成, 昭和13年4月3日, 川万旅館3階)’이라고 쓰여 있다.<sup>105)</sup>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100여명이다. 가장 앞줄, 아마도 임원석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일본식 예복을 입은 두 사람과 경찰간부의 제복을 입은 1명의 모습이 보인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양복을 입고 있고 뒤쪽에 일본식 복장을 한 사람도 몇 명이 있다. 친향회 설립 당시 다카라즈카 경찰서장, 각 촌의 촌장 등이 ‘주선’이라는 명목으로 참여했고, 간사이학원(關西學院)의 부원장 출신 등 교육계 관련 인물이 고문을 맡았는데,<sup>106)</sup>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주선자 혹은 고문으로 추정된다. 관계자의 이런 면모를 보면 친향회 자체는 설립 당시부터 당국과 가까운 사이였고,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서도 친향회는 내선융화 단체로 호명되었다. 그러나 실제 활동에서는 내선융화 외에 조선인 노동자

103) 『大阪朝日』阪神版 1938.3.24, ‘半島人會の熱誠, 第一線へお守札-銃後に緊張した宝塚親向會’. 이 때의 인원은 다카라즈카 경찰조직의 관여에 의한 것으로, 총후에서의 활동을 강조한 것은 보면 친향회를 협회로 개편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104) 코하마에 거주하고 있던 김의곤(金義坤)은 이 사진을 다카라즈카의 연구자인 정홍영에게 주었다. 현재는 정홍영의 책에 이 사진이 실려 있다(鄭鴻永, 앞의 책, 92쪽).

105) 이 사진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다. 친향회는 1936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쇼와13년(1938)에 창립기념회가 열린 것은 맞지 않다. 창립2주년 기념식이라고 하기도 사진은 4월인데, 친향회는 11월에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시 날짜가 맞지 않다. 결국 쇼와13년이라는 표기 자체가 오류이거나 이것이 오류가 아니라면 1938년 4월 3일 무렵 친향회가 조직을 일신하고 새로 창립기념식을 열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06) 『大阪毎日』1937.1.30, ‘宝塚親向會の挨拶状’

의 친목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조선인 교육 및 전통 문화 보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1930년대 초반 스스로 단체를 만들지 못했던 재일조선인의 상황을 생각할 때, 친향회가 재일조선인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눈길을 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단체 결성 과정에서는 분명히 당국의 지원이 있었다. 조직 결성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성립 단계에서부터 200여 명이라는 인원을 참가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도 당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국의 입장에서 조선인의 친향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관리, 통제하고 억압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가능한 한 많은 조선인이 가입하는 것이 조선인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도 보다 용이했기 때문에, 친향회의 활동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일정 정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친향회에 참여한 조선인 역시 조선인 공통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최초의 조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국에 적절하게 협조를 하면서도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선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했다. 친향회에 참여하고 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했고, 조선인의 참여를 더욱 늘려 친향회가 영향력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라도 조선인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했다. 특히 친향회가 결성된 1930년대 중반은 조선인의 지역사회 정착이 이전보다 더욱 진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인의 생활상의 권익보호 활동은 매우 중요했다. 일본인은 ‘주선’이나 ‘고문’으로 관여했을 뿐 친향회의 대표와 임원은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활동이 가능했던 면도 있었다.

친향회는 다카라즈카 당국과 조선인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한 부분이 있었고, 적당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중 하나가 다카라즈카 경찰서의 조선어 강습회이다. 다카라즈카 경찰서에는 ‘조선어를 습득해서 내선융화의 결실을 높’인다는 목적 하에 김영철 목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조선어 강습을 시작했는데,<sup>107)</sup> 강사였던 김목사는 친향회의 임원이자 조선보육원의 운영 책임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상호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향회 운영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있던 것은 역시 식민지 당국이었다. 친향회의 많은 활동은 당국의 용인 하에 가능했는데, 이 말은 얼마든지 당국이 원하면 조직의 활동은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실제로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친향회의 활동은 내선융화가 핵심이 되었다. 1938년 3월 24일 신문기사에 따르면 친향회 대표는 히로다(廣田) 신사에 참배하고 황군의 무운(武運)을 기원하며 부적을 보내기 위해 경찰서에 의뢰를 했고, 경찰서에서도 이런 활동을 환영하며 조선인에게도 총후국민(銃後國民)으로서 일치단결을 주문했다.<sup>108)</sup> 1938년 11월 다카라즈카 협화회가 결성되면서, 친향회는 다카라즈카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07) 『大阪毎日』 1937.2.9, ‘宝塚署で鮮語の講習’

108) 『大阪朝日』 1938.3.24, ‘半島人會宝の熱誠-第一線へお守札, 銃後に緊張した宝塚親向会’

### 3) 다카라즈카 협화회의 결성과 전쟁 동원

협화회는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시기에 재일조선인의 황민화를 추진하고, 조선에서 온 노동자들을 감시, 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였다. 지역 단위에서 먼저 결성되었다. 1939년에 후생성 사회국을 주관관청으로 하는 중앙협화회가 설립되어, 각 지회의 협화사업을 지도했다. 부현협화회 회장은 지사가, 지방의 각 지회 회장은 경찰서장이 맡았고, 간사는 모두 경찰특고계가 담당했다.<sup>109)</sup> 1920~1930년대 초반에 설립된 내선융화단체의 경우 행정당국 혹은 경찰의 참여 여부가 지역마다 달랐지만, 협화회는 경찰의 참여가 공식적이었다.

다카라즈카에는 중앙협화회 설립 이전에 지역 협화회가 설립되어 있었다. 1938년 11월 18일 저녁 7시 다카라즈카 제일소학교에서는 다카라즈카협화회(宝塚協和會, 이하 ‘협화회’)의 발회식이 열렸다. 히로하타(廣畑) 다카라즈카 경찰서장이 회장이 되었고, 다카라즈카 조선인 330세대 1천명이 협화회원이 되었다.<sup>110)</sup> 협화회의 설립 목적은 조선인에 대한 사상 선도와 내선융화의 도모였다.<sup>111)</sup> 협화회원이 되면 협화회수첩을 교부받았는데, 이 수첩에는 사진이 부착되었고, 본적, 현주소, 직업 등을 기재하고 기록란에는 협화회 주최 집회의 출결사항까지 체크할 수 있었다. 이 수첩은 상시 휴대해야 했다. 수첩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연행으로 일본에 왔다가 도망친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도 했다. 일본식 복장의 강요 등 일본문화의 강제 이식도 함께 진행되었다.<sup>112)</sup>

다카라즈카 협화회는, 이타미협화회(伊丹協和會), 모리다협화회(林田協和會)에 이어서 효고현의 세 번째 지역 협화회였다. 이타미협화회가 효고현에서 가장 먼저 결성된 것은 내선상조회(內鮮相助會)와 같은 기존의 내선융화 단체를 기반으로 협화회를 조직했기 때문이었다.<sup>113)</sup> 다카라즈카 역시 친향회가 협화회의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친향회를 협화회로 개편했다는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친향회는 이미 많은 조선인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었고, 다카라즈카의 경찰과 행정당국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향회를 활용해 협화회를 조직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것은 이타미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1938년 이후 친향회의 활동이 협화회와 매우 유사해졌다는 점, 협화회가 등장한 이후에 친향회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109) 협화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히구치 유이치(樋口雄一)의 연구를 참조 바란다. 樋口雄一, 『協和會, 戰時下朝鮮人統制組織の研究』, 社會評論社, 1986. 이 책은 협화회의 목적, 조직, 전국적 분포, 주요 활동, 조선인 마을의 대응 등을 다루고 있다.

110) 『大阪毎日』 1938.11.18, ‘宝塚懇話會發會式’ ; 당시 신문에 보도된 명칭은 다카라즈카간화회(宝塚懇話會) (이하 간화회)였는데, 8일에 협화회 발회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마이니치 보도와 15일에 협화회의 발회식이 18일에 거행된다는 오사카아사히의 보도를 보면 이 때의 간화회는 협화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11) 『大阪朝日』 阪神版 1938.11.15, ‘宝塚内鮮協和會-十八日發會式’

112) 樋口雄一, 위의 책, 21~25쪽

113) 兵庫朝鮮關係研究會, 앞의 책, 111쪽

없는 점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다카라즈카 협화회는 어떤 활동을 전개했을까? 중앙협화회에서 발간한 『협화사업회보(協和事業彙報)』에 보면, 1939년 7월 7일 흥아(興亞)기념일행사에 회원 260명이 참여했는데, 이 날 카와멘신사(川面神社)를 참배하고 황군(皇軍)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원하는 활동을 했다. 7월 17~20일에는 조선부락 내에 등화관제를 실시하는 방공(防空) 훈련에 참가했다.<sup>114)</sup> 1939년 8월에는 취학아동들이 신사참배와 신사 청소 활동을 했고, 8월 3일에는 료겐촌에 집회소를 설치해 아동들에게 공부를 가르쳤다.<sup>115)</sup> 1940년 1월 1일에는 신년 배하식(拜賀式)을, 7일에는 공회당 낙성식, 16일에는 지도원회를 개최했다.<sup>116)</sup> 같은 해 6월 22일부터 3일간 조선인 600명이 돌아가면서 근로봉사를, 9월 14일에는 다카라즈카 공회당에서 다카라즈카 인근 6개 경찰서 관내 협화회지부 지도원의 양성강습회를 1박 2일로 개최했다.<sup>117)</sup>

1943년에는 징병제를 앞두고, 징병제 홍보 영화 등의 상영회도 열었다.<sup>118)</sup> 1944년 7~8월, 효고현협화회는 16~20살까지의 조선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훈련 즉 군사훈련을 시행했다. 다카라즈카협화회는 다카라즈카 소학교에 집합해서 강연을 듣고 교련 훈련을 받았다.<sup>119)</sup> 일부 청년들 중에는 군사 훈련에 그치지 않고, 징병으로 전쟁에 직접 동원되기도 했다. 료겐촌 촌장의 사무보고를 보면 1944년 6월 16일부터 시작된 징병검사를 받은 680명 중에 ‘반도인 16명’이 포함되어 있었다.<sup>120)</sup> 협화회는 내지에 살고 있는 조선인을 황민화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협화회 활동 중에서도 특히 강조된 것은 신사참배였다. 그 외에 황국신민서사 낭독과 궁성요배 등도 행해졌다. 지역에 군수공장을 짓거나 전쟁 관련 활동에 조선인을 동원하기도 했다.

전쟁의 후방 지원을 위해 다카라즈카에도 군수공장이 만들어졌다. 1938년 6월 동양베어링 무코가와공장(東洋ベアリング武庫川工場)을,<sup>121)</sup> 1940년 12월 카와니시 항공기 다카라즈카제작소(川西航空機 宝塚製作所)를 설립했다. 두 공장에는 조선에서 온 징용자와 여자정신대원 등이 근무했다. 이들의 이주와 함께 1940년 이후 료겐촌의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sup>122)</sup>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자 지역의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료겐촌에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을 대상으로 자경단을 결성해

114) 中央協和會, 『協和事業彙報』 제1권 제2호, 쇼와14년 10월, 21쪽

115) 中央協和會, 『協和事業彙報』 제1권 제3호, 쇼와14년 11월, 27~28쪽

116) 中央協和會, 『協和事業』 제2권 제5호, 쇼와15년 6월, 92쪽

117) 『大阪朝日』阪神版 1940.6.21, ‘沿線おちこち’. 『大阪毎日』1940.9.14, ‘宝塚で協和会指導員講習會’

118) 『大阪毎日』1943.2.20, ‘宝塚協和会-情操錬成會’

119) 桶口雄一, 『協和會關係資料集 : 戦時下における在日朝鮮人統制と皇民化政策の實態史料4』, 高麗書林, 1992, 428쪽

120) 鄭鴻永, 앞의 책, 98쪽

121) 1918년 니시조노 지로(西園二郎)는 미에현(三重県) 쿠와나군(桑名郡)에 니시조노철공소(西園鐵工所)를 창업했다. 1923년 오사카의 토모에(巴) 상회(商会)와 제휴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1937년에 회사명을 동양베어링제조주식회사(東洋ベアリング製造株式會社)로 변경했다. 동양베어링은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해 일본 군부(軍部)의 요청에 따라 1938년 3월 만주(滿洲)와 심양(瀋陽)에 공장을 지으면서 볼베어링을 생산했는데, 국내생산을 늘리기 위해 다카라즈카에도 공장을 세운 것이다. 1972년에는 NTN 동양베어링 주식회사로 상호명을 변경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NTN 홈페이지 회사 연혁 참고 ; <https://www.ntn.co.jp>).

122) 宝塚市篇, 앞의 책, 424~425쪽



방공, 수재, 화재 등에 대처하도록 했다.<sup>123)</sup>

1930년대 다카라즈카에서 강조된 것은 내선융화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선융화단체가 만들어졌다. 사회운동의 경험이나 역량이 약했던 다카라즈카 조선인은 자기 주도하에 단체를 조직하지 못하고, 관의 주도 혹은 관의 협조 속에서 재일조선인 단체를 만들었다. 단순 친목 단체이거나 내선융화를 위해 동원된 단체로 재일조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1937년에 결성된 친향회는 조선인의 이해관계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카라즈카의 사법·행정 당국이 용인하는 선에서만 가능했다. 일본이 중일전쟁을 시작하고 재일조선인의 전쟁 동원을 위해 협화회가 결성된 후 재일조선인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단체였지만 어떠한 주체성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 3.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류와 갈등

#### 1) 조선인의 등장과 문화적 충돌

다카라즈카에 조선인이 대거 등장했던 계기는 1920년 무코가와 개수공사였다. 1920년대 다카라즈카로 이주한 조선인의 정확한 수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알기 어렵다. 다만 당시의 신문 기사를 참고로 하면, 1920년 11월 약 300명의 조선인이 있었고, 한달 후인 12월에는 1.5배가 늘어 450명의 조선인이 있었다.<sup>124)</sup> 300명, 450명이라는 조선인의 수는 당시 다카라즈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원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1920년과 1936년의 재일조선인 총인구와 다카라즈카의 인구 대비 조선인의 인구수와 그 비율을 정리하면 <표5>와 같다.

123) 『大阪毎日』 1940.9.7, ‘半島出身者で“自警団”結成-宝塚署管内’

124) 『神戸又新日報』 1920.12.4, ‘西宮署で三日未明から活動を始め検學に努む’

<표5>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인구수 및 비율

|                       | 재일조선인<br>총인구(A) | 다카라즈카<br>총인구(B) | 다카라즈카<br>조선인인구(C) | 총인구 대비<br>조선인비율 (C/A) | 다카라즈카<br>인구 대비<br>조선인비율(C/B) |
|-----------------------|-----------------|-----------------|-------------------|-----------------------|------------------------------|
| 1920년                 | 30,189명         | 4,640명          | 450명              | 1.2%                  | 9.7%                         |
| 1936년 <sup>125)</sup> | 690,501명        | 19,799명         | 1,007명            | 0.15%                 | 5.1%                         |

- ※ 출처 : 兵庫縣社會課, 『朝鮮人の生活状態』, 兵庫縣, 1937, 6쪽 ; 森田芳夫, 『數字が語る在日韓國·朝鮮人の歴史』, 明石書店, 1996, 33쪽 ; 宝塚市篇, 『宝塚市史 III.近現代』, 宝塚市, 1977, 361쪽 ; 『神戸又新日報』 1920.12.4, ‘西宮署で三日未明から活動を始め檢舉に努む’
- ※ 1920년 조선인은 료겐촌에 이주했고, 코하마촌으로의 이주는 1920년대 중반이후에 시작되었다. 조선인의 비율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1920년 다카라즈카 총인구는 료겐촌의 인구만을 기재했다.
- ※ 1920년과 1936년의 인구를 비교한 것은 자료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인구에 대한 기록이 1920년의 신문기사, 1937년 효고현의 조사보고서에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표5>를 보면 1920년 재일조선인 총인구수가 약 3만명이었는데, 다카라즈카 조선인 인구가 450명이었다. 약 1.2%가 다카라즈카 료겐촌에 거주하고 있는 셈인데, 매우 높은 수치이다. 1936년 재일조선인 총인구수 대비 다카라즈카 조선인의 비율이 약 0.15%로 떨어진 것과 비교해보면 더욱 이 수치가 두드러진다. 1920년 료겐촌의 총인구 대비 재일조선인의 비율 역시 9.7%로 대단히 높다. 1936년 그 비율이 5.1%로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게다가 1920년 당시 조선인들의 거주지는 다카라즈카 전역에 흩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무코가와 개수공사 현장 부근이었던 료겐촌에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료겐촌의 주민들이 느끼는 조선인의 비율은 실제보다 더욱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농사를 지으면서 살던 료겐촌 사람들에게 갑자기 늘어난 이주민의 숫자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조선인 역시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곳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다카라즈카 정착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켰다.

1920년 12월 신문에는 다카라즈카 조선인의 기행(奇行)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무코가와 인근의 조선인들이 한밤중에 근처 농가에 가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목욕을 하게 해달라고 강청(強請)하거나, 한밤중에 일본인의 대문을 두드려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 물을 달라고 하고, 통행하는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지역 주민의 농작물을 마음대로 가져가면서 밭을 망친다는 것이다.<sup>126)</sup> 또 조선인들이 매일 밤 모여서 싸구려 술과 고추를 안주로 먹고, 고함을 지르다가, 결국 마지막에 싸움이 벌어지면 비로소 그 모임이 끝난다는 내용도 있다.<sup>127)</sup> 조선인과 지역 주민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하면서, 일본인 주민들의 불만도 점점 높아졌다. 결국 니시노

125) 다카라즈카 시사에는 1925년, 1930년, 1935년, 1940년의 5년 단위로 인구조사를 해서 각 인구수가 기재되어 있다. 1936년 다카라즈카 총인구의 경우, 1935년과 1940년의 인구차이를 통해 1년의 평균증가수를 구하고, 1935년의 인구수에서 1년 후의 증가수를 추정해서 계산했다.

126) 『神戸又新日報』 1920.12.3, ‘危険性を帯びた-武庫川改修工事の朝鮮土工, 泥酔して乱暴を働く’

127) 『大阪朝日』 神戸附録 1920.12.4, ‘武庫川堤は物騒, 西宮署の警告’

미야 경찰서에서는 현장에 경찰을 파견하고, 인근의 소학교와 고등여학교, 정촌장(町村長) 앞으로 조선인의 행태에 대해 경계와 주의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또 무코가와 제방 세 곳에 순회교번소(巡廻交番所)를 설치하고 경찰 6명을 추가로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sup>128)</sup>

조선인은 왜 다카라즈카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까? 가장 큰 원인은 함바의 열악한 시설 때문이다. 함바에는 수도 및 하수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마시거나 세탁을 하거나 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무코가와와 물을 이용해야 했다. 이 무렵은 겨울이라 강물로 목욕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밤에 물을 마시기 위해 강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또 당시 조선에서는 이웃 간의 왕래가 매우 잦았고,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웃의 집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일본인과 조선인이 완전히 달랐을 가능성도 있다.<sup>129)</sup> 게다가 술은 한밤중에 일본인 집의 대문을 두드릴 용기를 주었다.

함바의 인원 구성도 문제 발생의 원인 중 하나였다. 함바에 거주하는 이들은 대부분이 독신 남성이었는데, 이들에게는 힘든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유흥거리가 거의 없었다. 조선에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글을 아는 사람도 매우 적어서 편지를 보내려면 자기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 결국 대부분이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며 밤을 보냈다.<sup>130)</sup> 술과 도박은 현장 인부들 간 충돌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다카라즈카에서도 술을 마시다가 일본인 인부 2명이 조선인 인부에게 단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일이 있었고, 고베수도공사현장의 조선인들이 도박문제로 집단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sup>131)</sup>

무코가와 공사장은 본래 공사관계자들만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함바에 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밤에 조선인들이 일본인 주민의 대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이나, 통행자에 대한 희롱 우려가 있는 것을 보면 함바의 위치가 주민들의 거주공간과 동떨어진 곳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집 앞에서 혹은 통행로에서 조선인 인부들과 마을 주민들이 서로 마주쳤고, 서로의 말과 복장 그리고 행동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 이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무코가와 개수공사가 진행되던 료겐촌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작은 농촌이었다. 낯선 이들의 이주 자체가 달갑지 않았을 텐데,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다른 이민족의 급속한 증가는 매우 경계할 만한 일이었다.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해서 조선인의 집단이주를 수용했던 행정당국은, 사실상 조선인을 다카라즈카에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조선인

128) 『神戸又新日報』 1920.12.4, ‘西宮署で三日未明から活動を始め檢舉に努む’; 『大阪朝日』 神戸附録 1920.12.16, ‘武庫川警戒堤坊’

129) 1927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일본인에 대한 조선인의 특이한 행동으로 “일본인의 집 안에 인사도 없이 들어온다”, “조선인이 말수가 많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제로써 시간 때우기는 즐기며, 상호방문하거나 쾌락적인 집회를 자주 가진다”라는 서술이 있다(조선총독부 편저/김문학 譯,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 북타입, 2010, 405·444쪽).

130) 鄭鴻永, 앞의 책, 180쪽

131) 『大阪朝日』 1916.3.14, ‘朝鮮人を斬る-應答が無禮なりとて’; 『大阪朝日』 阪神版 1927.10.11, ‘賭博の怨恨から土方十七名暴れ込む-神戸水道工事の鮮人’

노동자의 이주를 일시적인 것, 즉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함바는 정식 건물이 아닌 가건물이었고,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거나 일본 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을 할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조선인 인부가 향후 1천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비책은 함바에 목욕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매우 근시안적인 시설개선책 뿐이었다.<sup>132)</sup> 지역의 일본인에게도 조선인에 대한 경계만을 강조했다, 양자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당시 일본인이 조선인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었는지는 조선인이 술안주로 고추를 먹는 것이 일본인 주민들의 눈에 매우 기이한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에서는 일상적인 것이 일본에서는 전혀 일상적이지 않았다.

행정당국과 경찰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신 현장에 경찰을 보내 단속을 강화하며 그 순간의 충돌만을 방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여기에는 시기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1920년은 3.1만세운동 직후로 행정당국에 의한 조선인 감시 및 경계가 보다 엄격했던 시기였다. 무코가와에서도 낯선 사람이 나타나 조선인을 선동하는 것 같으면서 감시를 더욱 강화하려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sup>133)</sup> 행정당국의 이런 조치들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부채질했다.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증대하면서 민족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선인이 일본인의 집을 빌려서 살다가 퇴거할 때 시비가 붙어서 일본인과 조선인 약 20여명이 싸움을 벌이고 조선인 1명이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고, 무코가와 인근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sup>134)</sup> 개인 간의 다툼에서 시작했더라도 이 사건은 꼭 민족간의 집단 충돌로 이어졌다.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사이의 교제를 가족들이 반대하면서 조선인 남성이 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다.<sup>135)</sup> 조선인이 연루된 사건과 사고는 신문을 통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알려졌다.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는 대부분 조선인으로 지목되었고, 조선인의 무지와 무례함 때문이라는 논조가 이어졌다.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행정당국의 적절하지 못한 조치, 자극적인 언론보도는 결국 조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많은 곳에서 조선인이 지역의 풍기를 어지럽힌다는 유언비어가 퍼졌고, 이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화 되어 경찰의 조사로 이어졌으며 후속 보도를 통해 기정사실화되어갔다. 사실 문화적 차이는 거주기간이 장기화되어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면 극복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더럽고, 무례하고, 무서운 조선인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이 언론과 당국을 통해 계속 재생산되면서, 조선인은 개선이 불가능한 열등민족으로 여겨졌고, 이것은 민족 차별의 주요 근거로 작동했다. 조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았고, 1930년대, 1940년대 조선인의 정착이 이어지는 동안

132) 『神戸又新日報』 1920.12.4, ‘西宮署で三日未明から活動を始め検學に努む’

133) 『大阪朝日』 1920.12.4, ‘紳士風の怪しき鮮人-武庫川工事場に出沒’

134) 『神戸新聞』 1922.9.3, ‘二十余名が斬込んで内鮮人の亂闘-鮮人一名慘 武庫川改修工事の樁事’ ; 『大阪朝日』 阪神版 1931.4.27, ‘武庫川で大喧嘩-酒宴の朝鮮人’

135) 『大阪朝日』 神戸附録 1921.4.1, ‘朝鮮人の投身’

에도 계속해서 확대재생산 되었다.

## 2) 조선인의 정착과 지역 주민의 조선인관

조선인이 다카라즈카에 이주한 이유는 무엇일까? 1937년 효고현 사회과의 조사에 따르면 다카라즈카의 조선인 세대주 295명 중 생활 곤란을 이유로 도일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59명으로, 비율이 약 87.8%에 이른다. 이 외에 공부를 하기 위해 도향했다는 사람도 13명이 있었고, 독신자 중에는 일본을 동경해서 왔다는 사람도 5명이 있었지만,<sup>136)</sup> 대부분의 조선인이 생계 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 왔다.

이렇게 이주한 조선인은 다카라즈카의 지역개발공사에 참여했고, 공사가 중단된 후에는 무코가와에서 자갈을 채취하는 일에 종사했다. 당시 다카라즈카 조선인의 임금 수준을 보면, 세대주 295명 중 187명이 월 30~40원을 벌고 있었는데, 그 비율은 약 63%이다.<sup>137)</sup> 9명이 백 원 이상을 벌었고, 10원 이하를 버는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다.<sup>138)</sup> 일본으로 건너오기 전 조선에서의 월수입을 보면, 월 10원 이하를 버는 사람이 130명으로 44%이고, 30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사람은 12명에 불과했다.<sup>139)</sup> 조선과 비교하면 일본에서의 벌이가 압도적으로 좋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본에서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조선인은 대체로 육체노동에 종사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한 달에 25일 이상을 일하고 있었다.<sup>140)</sup> 게다가 일본 현지의 물가, 직업선택 및 임금에 있어서 일본인과의 차이 혹은 차별을 고려한다면, 조선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 반드시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선에 살 때 보다 수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이 수입의 일정 부분을 생활비로 쓰고도 남는 부분을 고향에 송금할 수 있었다.<sup>141)</sup> 생활 곤란이라고 답했던 독일의 목적을 상당부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

도일의 목적이 충족되었기 때문일까, 일본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1937년 효고현의 조사 중 “내지 생활은 고향에서의 생활보다 편한가, 힘든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일본에서의 생활이 더 편하다고 답한 다카라즈카 조선인은 295명 중 233명으로, 약 78.9%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에서

136) 兵庫縣社會課, 앞의 책, 31~32쪽

137) 편의상 세대주로 표현했지만, 전체 세대원의 수입을 모두 합한 것이다.

138) 兵庫縣社會課, 앞의 책, 62~63쪽

139) 兵庫縣社會課, 앞의 책, 34~35쪽

140) 세대주 중 노동일수가 한 달에 25일 이상인 경우가 61.46%로 가장 많았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93%였다(兵庫縣社會課, 앞의 책, 71쪽, 75~76쪽).

141) 고향으로의 송금 내역을 보면 세대원의 경우 월 5~10원을, 독신자는 월 10~15원을 보냈다. 세대원 218명 중에 121명(약 58.7%)이, 독신자는 77명 중 70명(90.9%)이 고향에 돈을 보냈다. 독신자 쪽이 송금비율과 송금액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세대원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어서 생활비가 독신자보다 더 많이 들었고, 가족이 함께 일본에 와서 고향으로 송금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兵庫縣社會課, 앞의 책, 113~114쪽

생활이 힘들다고 답한 이는 6명, 양쪽이 비슷하다는 답이 5명,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51명이었다.<sup>142)</sup> 일본 관청의 조사임을 고려하더라도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높은 만족도는 일본에서 주소 등록을 하는 기류(寄留) 수속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조선인이 일본으로 이주하더라도 호적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류계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sup>143)</sup> 당시 다카라즈카 기류 수속의 양상을 보면, 우선 세대원 218명 중 116명이 기류등록을 완료했고, 독신자의 경우 77명 중 단 3명만이 기류 수속을 완료했다.<sup>144)</sup> 독신자의 기류 수속 비율이 낮은 것은, 이들이 아직 미혼이고 일본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주한 것이기 때문에 본거지를 확실히 정하지 못해서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세대원의 경우 이미 자기 소유의 집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일본에서 태어난 자식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본에서 계속 거주할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 조사보고서에서는 기류 수속을 마친 조선인에 대해 ‘내지 영주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에서의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가는 모습도 나타났다. 당시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일본어 구사능력에 대한 조사를 보면, 295명 중 일본어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80명, 일본어를 반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 187명,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28명이다. 약 90.5%가 일상생활에서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일본어를 이해하고 있었다. 다만, 이 결과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여성과 아동의 일본어 구사능력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sup>145)</sup>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일본어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정 내에 있다는 것은, 생활이 이전보다 용이해졌음을 의미한다.

조선인의 지역사회 정착은 점차 진전되고 있었다. 가족단위의 이주도 증가했고, 기류수속을 하고 영주의사를 보이는 조선인도 등장했으며 언어 면에서 적응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이 다카라즈카 지역사회에 점차 적응하고 있던 것과는 별개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인 지역주민의 인식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933년 무코가와와의 조선인에 대한 강제퇴거가 결정되었을 때, 조선인들은 이주할 곳을 찾으려고 했지만, 다카라즈카의 일본인은 조선인에게 집이나 땅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sup>146)</sup> 결국 일본인 주민들이 살고 있던 마을 안으로 이주하는 것이 불가

142) 兵庫縣社會課, 앞의 책, 117쪽

143) 당시 조선과 일본은 각각 조선호적령과 호적법의 적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결혼이나 양자(養子) 결연을 제외하고는 본적지를 옮길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미즈노나오키·문경수/한승동 譯, 『재일조선인-역사, 그 너머의 역사』, 삼천리, 2016, 24~25쪽).

144) 兵庫縣社會課, 앞의 책, 124쪽

145) 아동은 학교에서 혹은 친구를 통해서 일본어를 학습하는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성인 여성의 경우 일본어 학습의 기회가 제한되기도 했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2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구술인터뷰 중에는 일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다. 관청과 관련된 각종 절차는 아버지 쪽에서 처리했고, 시장에 가서 흥정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등 일본어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자식들이 통역을 했다고 했다는 일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46) 『大阪毎日』 1932.10.15, ‘立退いても行く先がない-武庫川の朝鮮人’

능한 상황이 되었고, 조선인은 은코바 인근의 비어있던 땅, 이소시(伊子志)로 집단 이주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는 이소시 지역을 그대로 은코바라고 불렀다. 다카라즈카의 일본인들은 이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에 대해서도 경계를 했지만, 새롭게 이주해 온 조선인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1938년 7월 한신 대수해 이후 무코가와, 사카세가와의 제방보수와 도로복구 작업을 시작하면서 조선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일이 있었다. 당시 다카라즈카에서 이들 조선인이 관광지 다카라카의 풍기(風氣)를 어지럽히고 언어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sup>147)</sup> 실제로 풍기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이미 조선인은 문제아로 낙인찍힌 상태였다. 조선인이 다카라즈카의 잠재적인 문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조선인을 피식민지민으로서 일본인보다 무지하고 무례한 사람들로 여기는 1920년의 관점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 일본인 지역주민의 이런 인식에 대해 다카라즈카 조선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1937년 효고현의 조사 항목 중 ‘내지인에게 바라는 점’에 대한 문항이 있다.<sup>148)</sup> 효고현의 조선인들은 일본인에게 바라는 점으로, 친절과 차별개선 뿐만 아니라 용화, 친목, 생활 안정, 대우(待遇) 개선, 구직 소개, 임금인상 등 다양한 요구들을 쏟아냈다. 전체 응답자는 6,246명인데, 내지인에게 친절과 동정을 바라는 사람이 37.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용화와 친목으로 33.33%가 선택했고, 세 번째가 차별 없음으로 14.57%의 조선인이 선택했다. 그런데 다카라즈카의 경우 다소 특이한 결과가 나왔다. 이 문항에 응답을 한 다카라즈카 조선인은 모두 136명인데, 이 중 117명이 무차별(평등)을 선택했고, 친절이 17명, 이해(理解)가 2명이었다. 다른 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친절’은 다카라즈카에서는 낮은 편이었고, 두 번째로 높았던 용화와 친목을 선택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전반적으로 일본인과 친목을 도모하거나 용화하는 것에 대한 바람은 거의 없고, 차별개선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 이 말은 1930년대 중반에도 여전히 다카라즈카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1920년대 조선인의 갑작스러운 증가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당시 만들어진 부정적인 조선인관은 여전히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조선인에게 집이나 땅을 빌려주지 않거나, 조선인의 숫자가 단순히 늘어나는 것만으로 앞서서 풍기문란 등을 예상하는 것은 여전히 다카라즈카에서는 부정적인 조선인관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인 역시 이주 당시부터 조선인끼리 집단 거주지를 이루어서 살고 있었고, 1930년대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도 조선인끼리 집단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지역의 일본인과 용화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야 할 필요성을 특별히 느끼지는 못했다. 일본에서, 다카라즈카에서 가족을 이루고

147) 당시 신문기사에서 다카라즈카의 조선인 인구를 언급한 경우를 보면 이 무렵 갑작스런 인구증가가 있었는데는 다소 의문이 든다. 1936년 12월 17일 오사카매일신문에서는 조선인을 약 2천명이라고 했고, 1938년 11월 8일의 매일신문에서는 약 1천 6백명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1940년 9월 7일 매일신문에서는 다시 2천 명이라고 쓰고 있다.

148) 兵庫縣社會課, 앞의 책, 138~140쪽

오랫동안 정착해서 사는 것은 원하고 있었지만, 지역사회 내부로 들어가 일본인 주민들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1920년 이주부터 1945년 해방까지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다카라즈카 조선인 사회는 식민지 시기 동안 어떤 특징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 사회 형성에 고스란히 영향을 주었다.

첫째, 무코가와 개수공사와 함께 이주한 조선인이 무코가와 주변에 밀집해서 살았던 양상은 해방 후에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거주지에서 퇴거될 때도 대부분 집단으로 이주를 하면서 재일조선인의 밀집거주지는 해방 이후에도 그 위치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윤코바, 나마제, 코하마 등은 모두 주요 공사장 인근의 함바 위치 혹은 바라크가 밀집했던 곳이다. 해방 후에도 그대로 재일조선인 마을이 들어섰고, 주민들의 구성 역시 식민지 시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둘째, 장기간동안 좁은 지역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인적네트워크가 매우 조밀하게 형성되었다. 인적네트워크의 긴밀성 역시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 사회 형성과정에서 그대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식민지 시기 다카라즈카로 이주한 사람들 중에는 의성군 봉양면 출신이 많았는데, 같은 고향 출신자들의 집단 이주는 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식민지 시기 다카라즈카 조선인은 무코가와 개수공사, 후쿠치야마선로공사와 같은 건축토목공사에 종사했고, 이 공사가 끝나거나 중단된 이후에는 자갈채취 일을 했다. 해방 후 귀환하지 않은 이들은 여전히 같은 일을 했고, 부모의 일을 그대로 보고 자란 재일 2세대들은 성인이 되어 부모처럼 토목건축 관련 일에 종사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또 이들의 노동이 대부분 강도 높은 육체노동이었기 때문에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의 고통을 단순히 육체노동에서 오는 고통이 아닌 피식민지 민으로서의 고통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특징도 있다.

넷째,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은 사회운동의 경험이 매우 부족했다.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는 공장이나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노조가 결성되거나 파업활동이 전개될 때도 다카라즈카의 경우 노동쟁의 자체가 거의 없었다.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단체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인근의 아마가사키나 니시노미야의 경우 사회주의 계열의 노동운동도 전개되었는데, 다카라즈카에서는 관련 사건 등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사회운동 경험의 부족은 역량의 부족과도 관련되어 있었고, 이것은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 단체 결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 III. 해방 후 분단체제하의 이원화된 조직 활동과 공동체의 분할

#### 1. 다카라즈카 시의 탄생과 재일조선인의 외국인화

##### 1) 해방 직후 다카라즈카의 현안과 시민의 참여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했다. 일본에 있던 재일조선인도 해방을 맞이했다. 일본은 전쟁 중에 입은 공습(空襲) 피해를 수습하기 위한 복구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패전 이후 군수산업이 폐지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했고, 농산물 파괴, 식량 부족, 물자 부족, 쌀 생산량의 감소와 인플레이션, 암시장의 유행 등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sup>149)</sup> 중앙과 지방 모두 예산이 부족한 상태였고, 주요 시설물은 미군에 의해 점유되었기 때문에 복구 작업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고, 미군은 철수하면서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는 듯 했으나 예산 부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1947년 4월 17일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공포했다. 지방자치법의 주요 취지는 시정촌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독립적인 권한을 주어 행정사무를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국가가 간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군국주의적인 전체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sup>150)</sup> 그러나 더 중요한 취지는 역시 재정문제였다. 패전 후 재정이 부족해진 일본 정부는 지방배부세(地方配賦稅)를 큰 규모로 삭감했다. 재정 부족에 시달리던 각 지방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촌(市町村) 간 합병을 통해 지방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시작했다.<sup>151)</sup> 시정촌 간 합병의 움직임은 일본 전역에서 나타났다.

종전 직후 다카라즈카에서도 공습 피해를 수습하기 위한 복구사업이 진행되었다.<sup>152)</sup> 다카라즈카 역시 여타의 다른 지역처럼 재정 문제를 안고 있었고, 료겐촌과 코하마촌이 중심이 되어 촌간 합병문제를 논의했다. 사실 다카라즈카에서는 1942년에 이미 코하마촌과 료겐촌 사이에 합병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 해방 이전에 촌간 합병을 추진했던 것은, 합병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했기 때문이다.<sup>153)</sup> 료겐촌과 코하마촌은 상위 행정기구가 각각 무코군와 카와베

149) 조경희, 「전후 일본 ‘대중’의 안과 밖 - 암시장담론과 재일조선인의 생활세계」, 『현대문학의 연구』 50, 2013, 149쪽

150) 이진원, 「전후 일본 지방자치제도 개정의 쟁점과 의미 - 1946년 지방제도 개정과 1947년 지방자치제도 제정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105, 2015, 10쪽

151) 시정촌간 합병을 하면 우선, 행정의 수와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중앙정부에서는 시정촌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재정지원을 하게 되므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합병은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중 하나였다(신두섭,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향 - 일본의 시정촌합병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3(3), 2011, 157쪽).

152) 1945년 7월 24일 다카라즈카의 군수공장 중 하나였던 카와니시항공주식회사 다카라즈카제작소(川西航空株式会社 宝塚製作所)에 폭탄이 투하되었다. 사고 발생 당일 료겐촌은 인명피해 및 가옥파괴 상황을 조사했는데, 사망자가 23명, 부상자가 8명이고, 가옥의 전파가 205호, 반파가 204호로 전체 449호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다(宝塚市篇, 앞의 책, 429쪽). 이 날의 공습으로 약 160여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료겐촌 전체의 가옥 11%정도가 전파 혹은 반파되었다. 주택지 인근 도로와 공장 근처의 무코가와 제방도 파괴되었다.

군으로 서로 달랐다. 그러나 두 지역은 무코가와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웠고, 각각 구온천지와 신온천지가 있어서 관광 산업을 바탕으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있었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또 정식행정구역과는 별개로 료겐촌과 코하마촌을 합쳐서 다카라즈카로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도 가까웠다. 그러나 1942년의 합병논의는 전쟁과 무코가와의 범람 때문에 중단되었고, 해방 이후 다시 합병이 추진되었다.

1948년 코하마촌은 호쿠세즈도시건설계획(北攝都市建設計劃, 이하 ‘호쿠세즈계획’)을 세우고, 인근의 나가오촌과 료겐촌에 합병을 제안했다. 나가오촌 내 8개의 부락의 주민들은 호쿠세즈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코하마촌의 합병제안을 거절하고 인근의 이타미시(伊丹市)와의 합병을 제안했다. 그러나 나가오촌장 및 촌회 의원 중 일부가 코하마촌과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가오청년단(長尾青年團)이 주최한 촌민대회에 참석해 촌회 해산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했다.<sup>154)</sup> 나가오촌의 경우 내부의 대립이 극심했기 때문에 합병 문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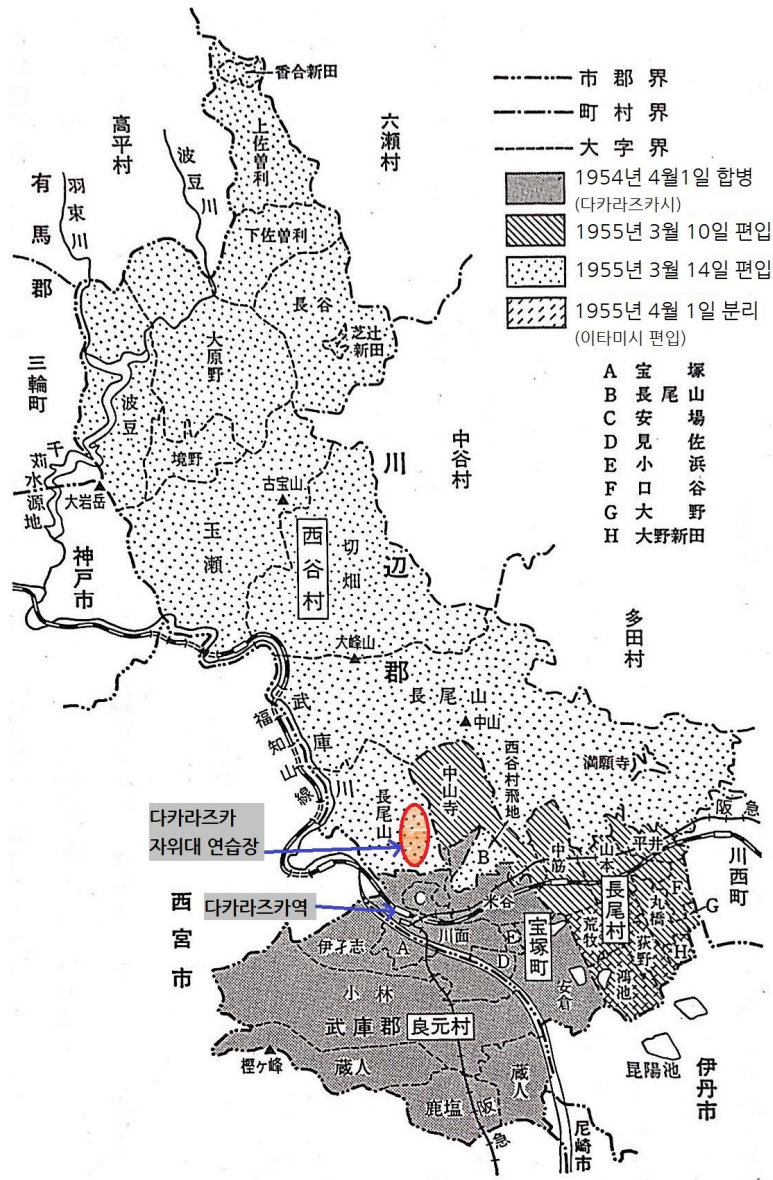
료겐촌은 코하마촌에서 합병제안을 받았지만 동시에 니시노미야시(西宮市)에서도 합병제안을 받았다. 료겐촌회에서는 코하마촌과 합병해서 새롭게 다카라즈카 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니시노미야 시로 편입될 것인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료겐촌장은 니시노미야시 편입을 원했으나, 1951년 3월 8일 주민투표에서 다카라즈카 시 창설이 과반의 표를 얻었다. 그러나 이후의 협상과정에 료겐촌장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결국 코하마촌은 단독으로 다카라즈카정(宝塚町)을 신설했다. 이에 료겐촌장은 독단으로 임시의회를 소집해 니시노미야로의 편입안을 제출했으나, 2차 주민투표에서도 다카라즈카 시제(市制) 창설이 다수표를 얻었다. 주민의 뜻에 따르지 않던 료겐촌장은 2차 주민투표 이후 의회의 불신임을 받아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1954년 4월 1일 료겐촌과 다카라즈카정이 합병해 다카라즈카 시가 탄생했다.

다카라즈카 시는 니시타니촌에 합병을 제안했고, 촌내에서는 합병과 촌의 유지를 놓고 대립하다가 1955년 3월 14일 다카라즈카 시에 편입되었다. 나가오촌의 경우 이타미 합병과와 다카라즈카 합병과가 극심하게 대립하다가 효고현의 중재에 따라 1955년 4월 1일 다카라즈카로 합병하기로 결정되었다.<sup>155)</sup> 이로써 현재의 다카라즈카 시역이 완성되었다. 합병과정에 따른 시역의 확장과정을 지도에 표시하면 다음의 <그림6>과 같다.

153) 宝塚市篇, 앞의 책, 548쪽

154) 宝塚市篇, 앞의 책, 551~556쪽

155) 宝塚市制三十年史執筆編輯, 『宝塚市制三十年史』, 河北印刷, 1975, 15~29쪽



<그림6> 다카라즈카 지역의 변화 과정

<그림6>을 보면 다카라즈카의 지역이 점차 확대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다카라즈카 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각 촌은 여러 진통을 겪었다. 나가오촌의 주민들은 촌회 해산을 요구했고, 료겐촌에서는 실제로 촌장이 교체되는 일이 있었다. 니시타니촌과 나가오촌에서도 합병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간에 첨예한 대립이 발생했다. 시가 탄생한 후에도 갈등은 계속 되었다. 초기부터 이타미과, 다카라즈카파로 나뉘어서 대립하던 나가오촌에서는, 1955년 4월 1일 결국 4개 마을이 다카라즈카로부터의 분시(分市)에 성공해서 이타미로 편입되었다. 1956년 봄에는 니시타니촌의 몇 개 마을의 주민들이 카와니시시(川西市)로의 편입을 주장하며 분시 운동을 전개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sup>156)</sup>

156) 宝塚市制三十年史執筆編輯, 앞의 책, 68~71쪽

합병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어떤 촌과 합병을 하는가에 따라 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의 액수가 달라졌고, 지역의 발전 방향도 달라졌다. 같은 촌에 속해 있더라도 각 마을의 위치에 따라 합병 추진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주민들도, 행정당국 관계자도 저마다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각 촌에서는 ○○파, △△파의 대립이 발생했다. 다카라즈카 시 탄생 이후에는 이러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이런 중에 다카라즈카에서는 자위대(自衛隊) 연습장 설치 문제가 발생했다.

전후 일본에서는 치안유지를 위해 각지에 보안대(保安隊; 자위대의 전신)를 조직했는데, 효고현에서는 이타미시에 제3관구대(第三管區隊)가 배치되었다. 1953년 제3관구대는 훈련연습장 설치를 위해 다카라즈카의 나가오야마(長尾山) 서단지구의 토지를 비밀리에 매입했다. 자위대훈련연습장(이하 ‘연습장’) 설치 문제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다가, 1954년 등기 이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졌다.<sup>157)</sup> 연습장의 설치 예정지는 <그림5>에 타원형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남쪽으로 1.3km 지점에는 다카라즈카역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온천장과 다카라즈카대극장 등 각종 관광시설이 밀집해 있었다. 연습장에서 가장 가까운 주택지는 0.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다카라즈카 시는 관광도시, 주택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시내와 가까운 곳에 자위대 연습장이 설치되는 것은 도시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다. 시의회에서는 곧바로 조사위원회를 결성해 이타미 제3관구대에 질의서를 보내고, 1954년 7월 29일 의회 명의로 반대결의서를 채택했다. 시의회의원 10명과 다카라즈카 지역 유력자 10명은 반대기성동맹(反對期成同盟, 이하 ‘반대동맹’)을 결성했다. 반대동맹은 각지의 자치회장을 소집하거나 다카라즈카 시의 여러 단체에 연습장 설치반대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또 자치회장에게 서명운동을 의뢰하는 한편 여러 기관에 설치반대의견서를 배포했다. 8월 8일에는 시장과 의회부의장이 도쿄로 가서 연습장 설치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sup>158)</sup>

반대운동은 1955년에도 계속 이어져 6월 19일에는 자위대다카라즈카연습장문제 협의대회(自衛隊宝塚演習場問題協議大會)라는 명칭으로, 각 기관장과 주민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주민대회에서 채택된 결의서에서도 “평화롭고 문화적인 관광도시 다카라즈카의 건설”을 위해서는 연습장 설치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연습장 설치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자, 결국 효고현의 조정을 받게 되었다. 1955년 8월 자위대의 훈련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자위대에서 다카라즈카 지역개발에 비용을 일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원래 예정되어 있던 부지에 연습장 설치가 결정되었다.<sup>159)</sup>

연습장 설치 반대운동은 1954년 다카라즈카 시가 성립된 직후부터 시작해서, 1년 4개월이 지난 1955년 8월 중순에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 이 반대운동은 다카라

157) 宝塚市制三十年史執筆編輯, 앞의 책, 54~56쪽

158) 宝塚市制三十年史執筆編輯, 앞의 책, 58~62쪽

159) 宝塚市制三十年史執筆編輯, 앞의 책, 53~66쪽

즈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반대운동에는 시당국과 시의회, 지역주민 등 관과 민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반대동맹 같은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반대동맹의 경우, 연습장을 대체할 토지에 대한 매매 계획을 수립할 당시 시가 재정문제를 겪자, 매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했다.<sup>160)</sup> 이것을 보면 상당한 재력이 있는 지역유력자들이 반대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년단과 자치회 같은 기존의 주민 조직도 반대운동에 참여했다. 청년단은 이미 촌간 합병과정에서 촌민대회를 개최하고 지역 문제에 대해 자기 발언을 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었다. 자치회는 전쟁 전부터 각 촌별로 조직되어 있었던 마을 운영의 말단 조직으로, 전후(戰後)에도 주민 동원 등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sup>161)</sup>

연습장 문제는 ‘다카라즈카 시’에서 발생한 최초의 지역 문제이다. 4개 촌의 촌민이었던 사람들은, 연습장 설치를 저지한다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카라즈카 시민으로서 반대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반대운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서로 다른 촌으로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당장 시민으로서의 인식을 가지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다만, 다카라즈카 시 성립 이후에 시작된 나가오촌과 니시타니촌의 분시 운동을 보면, 1955년 4월 1일자로 나가오촌의 분시 운동은 성공했고, 니시타니촌의 분시 운동은 1956년 9월 20일의 주민투표 결과 최종 실패했다.<sup>162)</sup> 연습장 설치 반대 운동이 가장 격렬했던 시점이 주민대회가 개최된 1955년 6월이었는데, 그 이전의 분시는 성공한 반면 그 이후의 분시는 실패했다. 당시 니시타니촌의 다카라즈카 잔류파들은 현상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카라즈카 시민으로서의 자기 인식이 생겼고, 거기에 크게 불만도 없었다.<sup>163)</sup> 1954~1955년의 연습장 반대운동에 다카라즈카 시민으로서 참여하면서 같은 기억을 만들고, 같은 시민으로서의 인식이 점차 형성되고 있었던 상황이 그 기저에 깔려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해방 이후 다카라즈카 시가 성립하고 다카라즈카 시민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재일조선인의 존재는 찾아볼 수 없다. 다카라즈카에 거주하는 이상 이 지역의 변화는 당연히 재일조선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다카라즈카의 지역 현안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당시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은 어떤 현안에 주목하고 있었을까.

## 2) 조련 다카라즈카지부의 결성과 고국 귀환

160) 宝塚市制三十年史執筆編輯, 앞의 책, 58쪽

161) 전후 오사카나 고베, 아마가사키 등에서는 GHQ의 명령에 따라 지역자치회가 해산되었지만, 다카라즈카는 시 단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산명령 자체가 없었고, 자치회는 그대로 유지되었다(田中義岳, 『市民自治のコミュニティをつくろう』, ぎょうせい, 2003, 38쪽).

162) 宝塚市制三十年史執筆編輯, 앞의 책, 69~70쪽

163) 宝塚市制三十年史執筆編輯, 앞의 책, 70쪽

일본에서 해방을 맞이한 조선인은 태극기를 흔들면서 거리를 뛰어다니거나 창씨개명으로 만들어진 일본 이름을 거부하거나 우리 말을 쓰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sup>164)</sup> 다카라즈카 온코바에서 해방을 맞이한 나마제의 김두함(해방 당시 12살)과 정미자(해방 당시 17살)는 다카라즈카의 해방 직후 풍경을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일본인들은 어느 쪽이나 하면, 지금까지 기세가 강했던 사람들이 패전이라는 것으로 대죽처럼 기세등등하던 것이 기가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점점 본인들이 졌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그런 의식이 조금씩 넓혀졌지요. 그래서 조선인들의 기세가 점점 올라갔지요. 지금까지 억압받았던 것이 해방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조선 사람들의 세계가 되었지요.<sup>165)</sup>

일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했던) 것을,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 그 때는 또 큰 소리치고, 너희가 우리에게 어찌 했노, 이 정도는. 차비도 안 내고, (전차를) 막 공짜로 타고 돌아다니는 그림 사람도 많이 있었고.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sup>166)</sup>

조선인들은 기세가 등등했고, 일본인들은 기가 죽었다. 그동안의 차별에 항의하며 일본인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전차를 타면서 차비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GHQ와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에 대해 ‘해방민족이면서 적국민’이라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재일조선인은 스스로를 ‘해방민족’으로 인식했다.<sup>167)</sup> 해방을 맞은 재일조선인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이었다. 혹은 귀환준비를 하면서 당장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재일조선인 조직을 결성하기도 했다.

GHQ에서 귀환 정책을 수립하기 전부터 일본의 주요 항구는 조선인들로 만원이었다. 일본 정부에 의해 귀환항이 지정되고,<sup>168)</sup> 1946년 말까지 대략 102만명 가량이 조선으로 돌아갔고 1950년대에는 60여 만명의 조선인만 남게 되었다.<sup>169)</sup> 조선인의 귀환을 뒤에서 돕고, 또 귀환을 늦춘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 지원활동을 했던 것이

164) 『朝日新聞』 2005.08.20, ‘(戰後60年の記憶モノクロームは語る) ⑧太極旗を振って祝った’

165) 김두함(1934년생), 2015년 5월 2일, 나마제 구술자 자택

166) 정미자(1928년생), 2015년 5월 3일, 다카라즈카 요양원

167) 조경희는 조선의 독립이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으로 확인된 점을 전제로 할 때 스스로를 해방된 민족으로 여기는 재일조선인의 자의식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평가하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법과 사회적 질서를 지키려는 태도는 희박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태도는 전후 암시장에서 조선인의 불법적 행위로도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조련에서 자발적으로 자치대와 보안대를 조직해 조선인에 대한 제재를 했고 경찰과의 협조 하에 암거래를 하는 조선인을 단속하는 등 조선인 내부의 규율도 존재하고 있었다(조경희, 앞의 논문, 2013, 152쪽).

168) 1945년 8월 24일 조선으로 귀환하던 우키시마마루(浮島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GHQ와 일본정부는 하카다(博多) 항과 센자키(仙岐) 항을 귀환항으로 새로 지정했다. 1945년 8월 30일 센자키 항에서는 귀환선 제1호인 고안마루(興安丸)가 9천명이 넘는 조선인 귀환자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출발했다(최영호, 「日本の敗戦と釜關連絡船：釜關航路の歸還者들」, 『한일민족문제연구』 11, 2006, 253쪽).

169) 1945년 8월부터 1946년 3월까지 940,438명이, 1946년 4월부터 말까지 82,900명이 조선으로 귀환했다(森田芳夫, 『在日朝鮮人の推移と現状』, 法務研究所, 1952, 67쪽). 대략 102만명 정도가 귀환한 셈인데, 개인적으로 배를 사서 귀환한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실제 조선으로 귀환한 숫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귀환이 모두 마무리 된 1950년 이후에는 220만의 조선인 중 140~150만이 귀환을 하고 약 60만 정도가 일본에 남아 재일조선인을 형성했다(채영국, 「해방 후 재일한인의 지위와 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25, 2003, 103쪽).

재일조선인 조직이었다.

해방 직후부터 일본 각지에서는 수많은 재일조선인 조직이 만들어졌다.<sup>170)</sup> 여러 단체가 난립함에 따라 중앙조직의 필요성이 커졌고, 1945년 10월 15일, 16일 양일간 도쿄(東京)에서 전국대회를 거쳐 ‘재일본조선인연맹(在日本朝鮮人聯盟, 이하 ‘조련’)’이 결성되었다. 당시 조련의 강령을 보면 ‘① 신조선 건설에 헌신적 노력을 기한다, ② 세계 평화의 항상적 유지를 기한다, ③ 재일동포의 생활에 안정을 기한다, ④ 귀국동포의 편의와 질서를 기한다, ⑤ 일본 국민과의 호양우의(互讓友誼)를 기한다, ⑥ 목적 달성을 위해서 대동단결을 기한다’라고 되어 있다.<sup>171)</sup> ‘신조선’ 건설을 첫 번째 강령으로 내세우는 것을 보면, 조련이 비록 일본에서 결성되었지만 그 정치적 지향은 조선을 향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련은 귀국하는 동포를 지원하는 한편 일본에 남아있는 조선인의 생활 안정 및 일본 국민과의 우호적인 관계 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처음에 조련은, 귀환 순서에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일본의 조선인이 모두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것은 조련이 제3회 전국대회에서 그 동안의 활동이 임시적·일시적이었음을 반성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조련은 50만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에 남게 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경제적·정치적·교육적으로 상당히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조련을 운영해 나가야 함을 천명했다.<sup>172)</sup> 향후 재일조선인의 권리, 생활, 교육 문제에 대해 보다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조련의 이런 변화는 각 지부의 운영에도 영향을 주었다.

1945년 12월 28일 다카라즈카 최초의 조선인단체인, ‘재일조선인연맹 다카라즈카지부(在日朝鮮人聯盟 宝塚地部, 이하 ‘조련지부’)’가 결성되었다. 조련 지부의 결성을 주도한 이는 사회주의 운동가 출신이었던 최주호(崔周浩)였다. 최주호는 경주에서 남로당 활동을 하다가 경찰의 체포를 피해 1942년 도일했다. 나고야에 도착한 후 토목일을 하며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하다가 다시 경찰에 쫓기는 몸이 되어 와카야마현(和歌山県), 교토부(京都府), 후쿠이현(福井県), 가고시마현(鹿児島県) 등 지역을 옮겨 다니며 피신 생활을 했다. 이후 효고현 아마가사키(尼崎)를 거쳐 1945년 4월 다카라즈카 니가와(仁川)에 정착했다.<sup>173)</sup> 재일조선인의 이주는 보통 친척이나 지인을 의지한 체인이주가 많았는데, 최주호의 경우 다카라즈카에서 특별한 연고가 발견되지 않는다.<sup>174)</sup> 경찰의 감시를 피해서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다가 우연

170) 이들 단체는 공통적으로, 귀환 및 실업 대책의 수립, 민족의 단결 강화, 생명과 재산의 보호, 생활 구제, 통일정부 수립 원조 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김인덕, 「해방 후 조련과 재일조선인의 귀환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 2003, 37쪽). 고국으로 즉각 귀환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귀환을 늦추거나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에서의 단기생활, 장기생활을 위한 지원책을 만드는 것이 각 단체의 활동 목적이었다.

171) 김인덕, 위의 논문, 2003, 38쪽 재인용 ; 원출 : 在日本朝鮮人聯盟, 「報告書」, 1945년 11월

172) 강정훈,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사회의 ‘공익’호호운동(1945~1947)-재일본조선인연맹의 재산세투쟁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32, 2017, 82쪽

173) 최주호, 『자서전』, 1978 ; 총련에서는 전임(專任)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자서전을 작성하도록 했다. 최주호는 1978년 11월에 자필로 자서전을 작성했다. 2017년 11월 3일 최주호의 아들인 최근효와 인터뷰를 진행할 때 이 자료를 제공받았다.

한 기회에 다카라즈카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해방 직후 최주호는 조련 지부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단계를 밟아서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sup>175)</sup> 조련지부가 결성될 때 최주호는 지부 총무 부장직을 맡아 각종 실무를 담당했다. 조련지부의 초대위원장은 다카라즈카의 조선인 유지(有志)였던 김말수(金末壽)였다. 김말수는 1920년대 중반 다카라즈카로 이주해서 토목 관련 청부회사를 운영하며 많은 자본을 축적했던 인물이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사이에서 인지도와 신망이 높았고, 성공한 조선인이라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었다. 김말수는 1년 후에 위원장 자리를 최주호에게 넘기면서 조련 지부의 간부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대표적 ‘어른’이었던 김말수가 초대위원장을 맡음으로서, 조련지부는 중심을 잡을 수 있었고, 최주호는 조련지부 및 다카라즈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던 셈이었다.

최주호는 해방 되기 4개월 전에 다카라즈카로 이주해 왔다.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외지인이나 마찬가지로였다. 그런 그가 다카라즈카에서 조련 준비를 주도하고, 조련 지부의 핵심 요직을 거쳐 지부위원장까지 담당하는 것을 보면, 두 가지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조직 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최주호의 개인적 경험과 능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카라즈카 조선인의 사회운동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것이다. 사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사회운동 역량의 약화는 식민지 시기부터의 특징이었다.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은 스스로 조직을 결성했던 경험이 전무한 상황이었으므로, 다양한 사회운동 경험을 가진 최주호가 조련 지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조련지부의 결성은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김두함은 조련과 민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해방 후에 달라진 것은 조직이죠. 조선연맹이 되었습니다. 연맹이 되었습니다. 연맹에서 정말로 어깨를 들썩이면서 걸어다녔으니까요. 연맹, 연맹 하면서. 민청, 민청 하면서. 민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우리 세력을 만들어서. 우리 형도 와서 어깨에 힘 주면서 걸어 다녔었지요. 다카라즈카에는 회의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런 큰 시내의 중심 도로에서도 당당하게 걸어 다녔으니까요. (...중략...) 무슨 일이 생기면 일본사람이 잘못하거나 하면 데리고 와서 혼을 내거나, 때리거나 그렇게 했죠.<sup>176)</sup>

이 일화를 보면, 당시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들이 조련을 통해 소속감과 안정감

174) 자서전에는 친척과 친우를 적는 칸이 있었는데, 최주호는 친척 부분에 한국의 이승만 정권 하에서 지하운동을 하다가 실종된 동생의 이름과 활동 내용을 기재했다. 일본 내 친척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친우를 적는 칸에서도 모두 조련 혹은 총련 활동을 하면서 일 관계로 알게 된 사람들을 기록했다. 이 외에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없다.

175) 다른 지역의 사례를 확인해보고자 했으나 조련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중앙조직이 중심이고, 지부 결성 과정에 대해서는 눈에 띄만한 연구가 없어서 지부 조직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76) 김두함(1934년생), 2015년 5월 2일, 구술자 자택



을 얻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조련 지부 결성 직후에는 다카라즈카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련의 행동조직 격이었던 재일조선민주청년동맹(在日朝鮮民主靑年同盟, 이하 ‘민청’)을 결성했고, 조선인 보호 및 일본인에 대한 실력행사를 하기도 했다. 조련이 결성되고 민청이 만들어지고 각 조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사회운동역량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조련은 결성 직후부터 본국으로 귀환하는 조선인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귀환을 지원하는 대가로 조선인에게 수수료를 받거나, 혹은 일본 정부로부터 귀국자의 경비를 받아내기도 했다.<sup>177)</sup> 이것은 각 지부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조련 한신지부 소속이었던 서원수는 니시노미야 공원에서 조선인의 귀환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sup>178)</sup> 조련 다카라즈카지부도 귀환지원 활동을 했을 텐데, 자료의 부족으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대신 니시타니촌의 촌장이 남긴 문서에 조선인의 귀환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다카라즈카 조선인의 고국 귀환 상황을 일부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GHQ는 일본정부에 대해 1946년 2월부터 재일조선인의 ‘인양(引揚)을 위한 등록’을 실시하도록 했다. 우선 지방 행정단위에서 조선인에 대해 인양의 희망 유무를 조사하고, 귀환을 희망하는 경우 등록 당시 주소로 인양통지서를 받게 된다. 통지서를 받으면 3~4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가서 지정된 열차를 타고 지정 항구로 이동한다. 열차에는 무장한 연합국경비병 2명과 ‘적당한 수’의 일본인 무장경관이 동승하도록 되어 있었다.<sup>179)</sup> 다카라즈카 조선인의 고국 귀환 역시 동일한 절차를 따르고 있었다. 다카라즈카 조선인의 귀환과 관련된 니시타니촌의 공문 및 관련 보고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표6>과 같다.

---

177) 이 외에도 조선인에게 은행통장·공채·국채증서 등을 양도 받거나, 조선인 노무자를 고용한 회사에게 차별임금이나 사망배상금 등을 받아내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조련은 경제적 기반을 구축했다(김인덕, 앞의 논문, 2003, 42쪽).

178) 한국이 해방 돼서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니시노미야(西宮) 공원에서 동포들로부터 기부를 받고, 배를 단도리(段取り, 준비)하는, 돌아가는 배. 그런 운동을 했죠. 아버지(는), 동포들 많은 사람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신도 돌아가는 생각이었겠죠(서대진(1954년생), 2015년 5월 4일, 다카라즈카 구술자 어머니 자택).

179) 홍인숙, 「第2次世界大戦直後, GHQ의 在日朝鮮人政策」, 『한일민족문제연구』 1, 2001, 158~159쪽

<표6> 니시타니촌의 귀환희망자 조사 과정

|        | 발신          | 수신          | 내용                      |
|--------|-------------|-------------|-------------------------|
| 3월 12일 | 무코가와 지방사무소장 | 관내 각 정촌장    | 조선인, 외국인 중 귀환 희망자 조사 요청 |
| 3월 14일 | 니시타니촌장      | 촌내 부락회장     | 귀환희망자 조사 안내             |
| 3월 16일 | 니시타니촌장      |             | 촌협의회 - 조사원 선정           |
| 3월 18일 |             |             | 니시타니촌 조사 진행             |
| 3월 20일 | 니시타니촌장      | 무코가와 지방사무소장 | 귀환 희망자 조사 보고서 제출        |

※ 출처 : 西谷村役場, <(部外秘)朝鮮人 中華民國人 其他調査書類 - 昭和21年 勅令第107號外國人登録令別冊>, 昭和21年3月18日

무코가와 지방사무소장은 니시타니 촌장에게 귀환 희망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니시타니촌 촌장은 각 부락회장에게 조사 내용을 안내하고, 3월 16일 오전 10시에 촌협의회를 개최해 조사원 및 조사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부락회장은 3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3월 20일에 무코가와 지방사무소에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니시타니촌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촌 내 조선인 30명 전원이 귀국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들의 목적지는 경상북도 5명, 경상남도 15명, 전라남도 10명이었다. 조선인 외에 오키나와로의 귀환 희망자도 10명이 있었고, 중국은 아무도 없었다.<sup>180)</sup> 인근의 카미즈촌(神津村)에서도 귀환자 조사를 완료하고, 18일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카미즈촌에는 조선인이 1,688명이 있었는데, 그 중 3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귀환을 희망하고 있었다. 당시 효고현 후생과에서 발표한 송환실시계획표를 보면, 효고현 내 귀환희망자는 52,049명이고, 이미 개인적으로 귀환한 5,349명을 제외하고 46,700명을 7월과 8월에 걸쳐서 송환할 것이라고 한다.<sup>181)</sup>

니시타니촌에서는 7월 27일 송환일정을 통보 받았다. 니시타니촌에서는 곧 조선인 30명에게 8월 10일까지 오사카역에서 기차를 타도록 안내했다. 짐을 챙기고, 오사카로 이동해야 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귀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10~13일 정도로 매우 촉박한 일정이었다. 그런데 귀환 직전 이들 30명은 촌장에게 귀국 거부 이유서를 제출하고 1명도 귀환하지 않았다. 제출된 이유서 중에는 ‘[일정이] 너무 급해서 준비를 할 수 없고, 우리들의 재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정일에 귀국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머지 이유서에도 ‘재산동결’, ‘재산제한’이라고 짧게 쓰여 있었고, ‘준비 시간이 없음’도 있었다.<sup>182)</sup> 결국 귀환을 하지 않은 것

180) 西谷村役場, 『(部外秘)朝鮮人 中華民國人 其他調査書類 - 昭和21年 勅令第107號外國人登録令別冊』, 昭和21年3月18日

181) 鄭鴻永, 앞의 책, 130쪽

182) 西谷村役場, 앞의 책, 昭和21年3月18日

은 준비 시간의 부족과 재산 제한 등이 원인이었다.

당시 조선으로 귀환하는 조선인은 배에 승선할 때 소지금이 1인당 천 엔(円)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 금액을 넘는 경우 채권증서·재산소유증서로 교환해줄도록 했다. 화물은 1인당 250파운드 즉 100kg까지 허가해줬지만 이 짐을 귀환자 본인이 직접 들 수 있어야 했다.<sup>183)</sup> 자기 재산을 채권증서나 재산소유증서로 교환해주는 했지만, 그 채권이 조선에서 실효성이 있을지의 여부는 확신할 수 없었고, 귀환 전에 정상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만큼의 충분한 시간도 확보되지 못했다. 소지품의 경우도 본인이 직접 들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kg 보다 훨씬 적은 무게의 짐을 소지해야 했다. 결국 일본에서 생활하는 동안 모은 돈이나 생활 도구를 조선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살림살이는 더욱 많았고, 귀환의 결심은 더 힘들었다. 이 외에도 불확실한 조선의 정치 상황, 경제적인 문제 등도 귀환을 망설이게 했다. 당시 다카라즈카에 거주하고 있던 두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도 이런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가 고향에 돌아가면 안 된다, 거기 가서 뭘 먹고 살려고. 안 된다. 그래 돈 있는 사람들은 트렁크에 돈을 막 넣고 가져간 사람도 있고, 이불 안에다가 돈을 넣고 꼬매서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걸 먹고[쓰고] 나면 끝이다, 한번 가면.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남았지요.<sup>184)</sup>

아버지(는), 동포들 많은 사람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신도 돌아가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자리가 없다고, 일할 자리도 없고, 먹고 살 수 없다고, 아직 가기는 빠르다고. 그래서 머물게 됐죠.<sup>185)</sup>

정미자는 아버지의 반대로 귀환하지 않았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 아버지의 판단이었다. 서대진의 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고국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고 결국 일본에 남게 되었다. 서대진의 아버지는 ‘아직 가기에 빠르다’고 말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귀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1937년 효고현 사회과의 조사에 따르면 다카라즈카 조선인 인구는 1000여명 정도였다. 1940년과 1943년의 신문 기사를 보면 다카라즈카 조선인 인구는 각각 2000여명, 3000여명 정도였다.<sup>186)</sup> 1956년 다카라즈카 통계서의 한국·조선인의 숫

183) 채영국, 앞의 논문, 94쪽

184) 정미자(1928년생), 2015년 5월 3일, 다카라즈카 요양원

185) 서대진(1954년생), 2015년 5월 4일, 다카라즈카 구술자 어머니 자택

186) 『毎日新聞』 1940.09.07, ‘半島出身者で“自警団”結成 / 宝塚署管内’ ; 3000명이란 숫자는 징용, 징병 등의 이유로 1940년대 이후에 다카라즈카로 이주한 조선인도 포함된 것이다(『大阪毎日』 1943.02.20, ‘宝塚協和會 情操鍊成會’).

자를 보면 1,626명이다. 1940년대의 증가한 인구수는 강제동원을 통해 조선에서 대규모의 이주가 있었기 때문이다. 강제동원으로 일본에 온 경우 거주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조선으로 귀환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를 고려하면 1920~30년대 초반 노동이주를 한 조선인의 경우 해방 이후에도 귀환하지 않고 다카라즈카에 남은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 어느 시점까지 일본에 있을지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은 생활을 정비하고 장기간의 거주를 준비해야만 했다.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는 외국인이었다. 재일조선인 스스로도 고국 귀환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일본인도 재일조선인의 귀환을 원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게다가 지역 이슈를 선점하거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다카라즈카의 여러 단체들은 식민지시기부터 존재했던 지역의 자치조직인데, 재일조선인은 일본인과 다른 조직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소속될 수 없었다.<sup>187)</sup> 재일조선인 중에 다카라즈카 시 합병과 자위대 훈련장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일본인 주민처럼 갈등해결 과정이나 지역이슈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귀환을 늦추거나 정주를 선택한 재일조선인이 점차 증가했지만,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을 정당하게 대우해주지 않았고, 별도의 지원도 없었다. 직업을 얻고 생활을 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등은 모두 재일조선인에게 지워진 짐이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국인이 된 재일조선인은 해방 후부터 다카라즈카 지역사회에서 유리되었다. 구조적으로 지역주민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할 계기도 없었고, 지역사회의 이슈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재일조선인은 지역사회나 일본인 지역주민과의 관계보다, 재일조선인 내부의 이념 갈등, 공동체의 분열 등을 더욱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 2. 민단 다카라즈카지부의 결성과 한국소학교 운영

### 1) 민단지부의 설립과 학교 소유권 분쟁

해방 직후 조련은 일본 전역에 조선어 교육기관을 설립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조선인 2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의 동화정책 속에서 약화된 민족의식을 회복시키는 것도 주요 목적이었다.<sup>188)</sup> 1945년 말이 되면 일본 전국에 200개가 넘는 국어강습소가 만들어졌

187) 1933년 청년단이 만들 때도, 1940년 자경단을 만들 때도 그 구성원은 조선인으로만 이루어졌다(『大阪毎日』 1940.9.7, ‘半島出身者で“自警団”結成-宝塚署管内’).

188) 김인덕, 「해방 후 재일본조선인연맹의 민족교육과 정체성」, 『歴史教育』 121, 2012, 167~168쪽

고, 총 수강 인원은 20,000명 이상이였다.<sup>189)</sup> 조련은 국어강습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사를 확보하고, 교재 제작을 추진하는 등 학교로서의 체계를 갖춰갔다.<sup>190)</sup>

조련 다카라즈카지부(이하 ‘조련지부’)도 1946년 상임위원회를 통해 국어강습소를 만들었는데, 그 설립 과정은 다음의 최주호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조련이 결성된 후 상임위원회에서, 해방되었으니 아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족 교육을 시켜야하지 않는가 논의 되었지요. 그 때 힘으로 다카라즈카 한군데에 모일 수 없어서 나마제, 코하마, 반카차야, 은코바, 쿠란도 5개소로 나누어 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은 그 자리에서 좋다는 사람이 1명씩 나섰지요.<sup>191)</sup>

상임위에서는 다카라즈카 내 5곳에 국어강습소를 조성하고,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교사를 조달했다. 도쿄와 오사카에 교원양성기관이 있었지만, 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에서의 유입은 불가능했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5개의 국어강습소는 설립 시기가 서로 달랐다. 다카라즈카 최초의 국어강습소는 1946년 3월 코하마촌 아쿠라(安倉)의 반카차야(姥ヶ茶屋) 강습소로, 학생 수는 30명이였다. 학생이 60명으로 늘어나자 료겐촌 이소시공민관으로 일시적으로 강습소를 옮겨 1946년 5월까지 수업을 진행했다. 그 후 다시 반카차야, 나마제(生瀬), 은코바(四工場), 쿠란도(藏人), 코하마(小浜)의 5곳으로 나뉘서 분산교육을 실시했다. 1947년 무렵 학생의 수는 102명, 교원은 5명이였다.<sup>192)</sup> 다카라즈카에 설립된 국어강습소의 위치는 <그림 7>과 같다.<sup>19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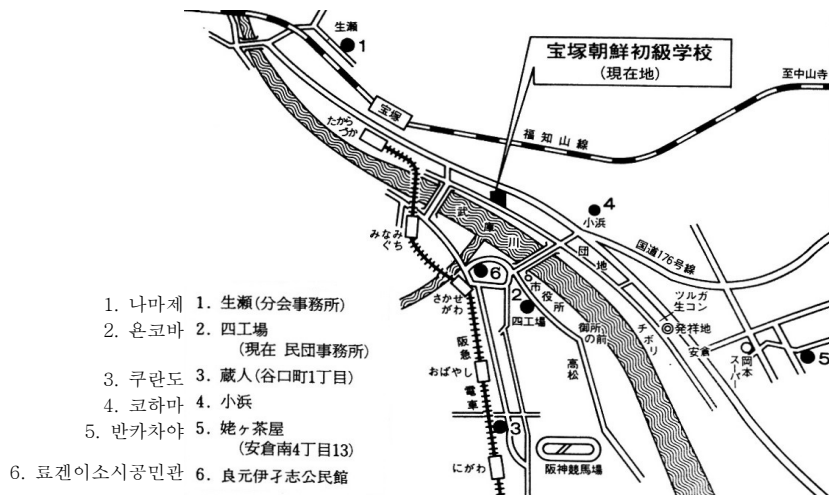
189) 채영국, 「해방 직후 미귀환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37, 2006, 10쪽

190) 1945년 12월 7일 조련은 ‘교원재교육강사단(教員再教育講師團)’을 결성해 조선어강습회를 개최했다. 1회 강습회를 수료한 15명이 도쿄 내 국어강습소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또 시인이었던 이진규가 편찬한 『한글교본』을 모델로, 1946년 2월 조련은 『초등한글교본』, 『한글철자법』, 『조선역사교재초안』을 출판했다. 조련은 초등교재편찬위원회를 만들고, 국문·산수·역사·지리·이과·체육·음악·미술·습자(習字)·도화(圖畫)·공민(公民) 등 11개 과목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교재 제작에 들어갔다(魚塘, 『解放後初期の在日朝鮮人組織と朝連の教科書編纂』, 『在日朝鮮人史研究』 28, 1998, 108~109쪽). 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도쿄에 3·1정치학원, 오사카에 8·15정치학원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1946년 4월에는 오사카 조선인교원조합이 탄생했다(김인덕, 위의 논문, 2012, 171쪽).

191) 宝塚朝鮮初級學校, 『대를이어 빛내리라 40년의 발자국-學校創立40周年記念集』, ツツジ印刷, 1986, 33쪽

192) 宝塚朝鮮初級學校, 위의 책, 5쪽

193) 宝塚朝鮮初級學校, 위의 책, 7쪽



<그림7> 해방 직후 다카라즈카 국어강습소의 위치

<그림7>에서 나타난 국어강습소의 위치는 무코가와 인근과 철도역 주변으로, 식민지 시기부터 조선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며 마을을 형성했던 곳이다. 여기는 지금까지도 다수의 재일조선인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나마제와 은코바는 오늘날에도 다카라즈카의 대표적인 재일조선인 마을로 언급되는 곳이다.

1947년 10월, 조련 본부는 제4회 전체대회를 개최하고, 1948년의 활동방침으로 민족교육·민주문화·민주교육을 선정했다. 특히 조선인학교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교육행정을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sup>194)</sup> 이때부터 전국의 국어강습소는 정식교육기관인 학교로 개편되기 시작했다. 다카라즈카 역시 1947년 10월 무렵부터 5개의 국어강습소를 합쳐서 ‘조련초등학교’로 부르기 시작했다. 교육 공간이 통합된 것은 아니었지만, 같은 학교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했고, 곧 정식학교 설립을 시도했다. 조련 지부에서는 미자(美座) 지역의 주물(鑄物) 공장 자리에 교사(校舍)를 신축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시기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는 분열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분열의 시작은 또 다른 재일조선인 조직의 결성이었다. 1946년 10월 3일 재일조선거류민단(在日朝鮮居留民團, 이하 ‘민단본부’)이 탄생했다.<sup>195)</sup> 민단은 조련과 이념적 대립각을 세우면서 창립된 재일조선인 전국조직이다. 1946년 12월에는 건청 효고현 본부 및 민단 효고현 지방본부가 결성되었다.<sup>196)</sup> 다카라즈카에서는 1948년 5월에 민단 다카라즈카지부(民團宝塚支部, 이하 ‘민단지부’)가 창립되었다. 그 과정에

194) 金慶海/정희선 외 譯, 『1948년 한신교육투쟁』, 경인문화사, 2006, 15쪽

195) 1945년 10월 27일 조련과 물리적 충돌을 겪은 우익청년들은 1945년 11월 16일 재일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在日朝鮮建國促進靑年同盟, 이하 ‘건청’)을 결성했다. 1946년 1월 20일에는 박열 등이 중심이 되어 신조선건설동맹(新朝鮮建設同盟, 이하 ‘건동’)을 만들고, 건청과 건동의 협력 속에서 1946년 10월 3일 재일조선거류민단이 탄생했다. 한국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 조직명을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중앙총본부(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中央總本部)로 개칭했다(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編輯委員會, 『民團50年史』, 서울新聞社 出版事業局, 1997, 40~47쪽).

196) 『민단신문』, 2014.01.17, ‘66년 전 건청 포스터, 암시장 옛터에서 발견’

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현효섭(玄孝燮)이었다. 현효섭은 본래 조련 효고현본부 부위원장 겸 청년부장을 역임하고 있었는데, 조련을 탈퇴한 후 민단 결성에 참여했다. 건청 효고현본부 위원장, 민단 효고현본부 초대단장이 되면서, 효고현 내에서는 꽤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sup>197)</sup> 해방 이후 온코바의 남성들은 밤마다 이소시 공민관에 모여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고, 현효섭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고베에도 갔다.<sup>198)</sup>

민단지부의 단장을 역임했던 박은재가 남긴 기록을 보면, 다카라즈카 온코바에 있던 남정호(南廷浩), 김태호(金泰浩), 박은재(朴殷在) 3명은 1948년 3월 20일 조련지부를 탈퇴하고 한국청년동맹을 결성했다. 탈퇴의 이유로는 조련지부의 좌경화를 들었다.<sup>199)</sup> 박은재의 기록에 등장하는 한국청년동맹은 건국촉진청년동맹(建國促進靑年同盟, 이하 건청)의 오기(誤記)이다.<sup>200)</sup> 건청의 결성은 곧 민단지부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이들 3인은 모두 온코바 출신으로 남정호는 다카라즈카 한국소학교의 초대이사장, 김태호는 12·13대 민단지부 단장, 박은재는 20·21대 민단지부 단장을 역임했다.<sup>201)</sup> 다카라즈카의 민단지부 결성은 효고현에 본부가 만들어진 지 약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가능해졌다. 내부의 운동역량이 약했기 때문에 현효섭의 지도를 받아서 조련을 탈퇴하고, 민단지부를 설립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1948년 5월 민단지부를 결성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온코바에 있던 국어강습소를 ‘다카라즈카 한국소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그 소유권을 민단으로 이전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한국소학교 연혁에 보이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한국소학교 연혁(1946~1948)

|   |
|---|
| 1946년 4월 조련 다카라즈카지부 조선학원 개교<br>1948년 5월 거류민단 다카라즈카지부결성, 조선학원의 소유권을 민단에 이전하고 동시에 학원명을 ‘다카라즈카 한국소학교’로 개칭 발족 |
|---|

※ 출처 : 宝塚韓國小學校長發信(在日大韓民國居留民團中央總本部團長宛), 《學校實態報告》, 1958년 2월 10일

<표 7>의 연혁을 보면 한국소학교는 조련 다카라즈카지부 조선학원에서 출발했다. 처음에는 조련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국어강습소 중 한 곳이었었는데, 1948년 5월 거

197) 吳圭祥, 『ドキュメント 在日本朝鮮人連盟1945-1949』, 岩波書店, 2009, 409쪽

198) 현효섭이라는 이름은 민단지부 측의 다른 기록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데, 민단지부의 단장이었던 남정철(南廷鐵)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이다(渡辺正恵, 앞의 논문, 50쪽)

199) 朴殷在, 〈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宝塚支部 現況報告書〉, 1986.5.8.

200) 박은재는 한국청년동맹이라고 썼지만, 당시 일본 각 지역에 조직되어 있던 민단계의 청년조직은 건국촉진청년동맹이었다. 건청은 1960년 10월에 민단 산하의 재일한국청년동맹으로 개편되었다. 박은재가 기록을 하던 당시에는 건청의 후신인 한국청년동맹이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기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01) 민단지부 건물의 3층에는 역대 단장, 한국소학교 이사장, 부인회 회장의 사진이 걸려 있다. 그 사진 기록을 참고로 한 것이다.

류민단 다카라즈카지부가 결성되면서 학교의 관리주체가 바뀌게 된 것이다. 민단지부의 이런 조치에 반발한 조련지부 사람들은 은코바의 학교로 와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조련지부 소속이면서 학교에서 직접 충돌을 벌였던 여성과 당시 중학생이었던 남성은 그 때를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은코바 학교를 통합할 때 사실은 우리 학교인데 그때 건청(建靑)이 되고 있어서 자기들이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맹대회(女盟大會)를 그 날 저녁에 은코바 학교에서 가지고 투쟁했지요. 그래 마치고 나올 때 [건청에서] 젊은 사람을 먼저 다 보내놓고, 나이 많은 사람을 붙들어 놓고 마구 때렸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본부에 통지하니 청년들이 많이 응원하러 왔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학교에 자면서 싸웠을 때 코하마 어머니들이 욕 보았지요. 주먹밥을 해다 주어도 반찬이 없었지요. 고구마줄기를 삶아 볶았는데 후쿠야마(福山) 아주머니랑 석판술씨 어머니랑 욕 보았지요. 정말 매일과 같이 학교에 나와 걱정했지요. 나중에는 하다가 안 되어 전화가 없었으니 깡통이라도 줄에 달아매고 학교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흔들어 동원하자고까지 이야기들 했지요[최두선(崔斗善)].<sup>202)</sup>

4.24 교육투쟁 당시 은코바 학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서 몽둥이를 흔들기도 하였지요. 그 때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종이조각을 가지고 연락한다고 다녔지요. 그런 경험을 어린 눈으로 보았습니다[김례곤(金禮坤)].<sup>203)</sup>

조련지부 사람들은 민단지부가 학교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다. 학교를 지키기 위해 점거를 하면서 양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은코바에는 민단지부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련지부에서는 코하마의 재일조선인을 동원했다. 은코바의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코하마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는 데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중간연락책의 역할을 했다. 은코바의 재일조선인들은 조련 지부의 청년들이 각목을 들고 은코바 학교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학교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응했다고 말했다.<sup>204)</sup>

이 사건은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다. 1948년 9월 9일부터 이타미재판소에서 은코바 학교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조련지부와 민단지부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었다.<sup>205)</sup> 재판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의 미비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은코바 학교의 소유권을 민단지부가 가지는 것을 보면 법원에서 민단이 승소한 것으로 보인다.<sup>206)</sup> 민단지부 측이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민단지부의 관계자가 조련지부에서 이탈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조련에서 탈퇴했지만, 과거 조련지부 소속으로

202) 宝塚朝鮮初級學校, 앞의 책, 35쪽

203) 宝塚朝鮮初級學校, 앞의 책, 35쪽

204) 渡辺正恵, 앞의 책, 58쪽

205) 金慶海 編, 『四・二四阪神教育闘争を中心に 在日朝鮮民族教育擁護闘争資料集』 1, 明石書店, 1988, 732쪽

206) 1968년 민단지부의 현황보고를 적은 문서에는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재판결과가 언제 나왔는지 어떤 근거로 승소가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록이 없다(朴殷在, 〈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宝塚支部 現況報告書〉, 1986년 5월 8일).



은코바 학교의 운영에 관여 했고, 이런 정황이 반영되어 소유권이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민단지부는 조련의 좌경화에 반대하며 결성되었기 때문에, 결성 자체가 제일조선인 사회의 분열이자 이념적 대립의 시작이었다. 여기에 학교소유권 분쟁이 겹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 조련지부는 학교를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생각했고, 민단지부는 적화(赤化) 되고 있던 민족교육을 정상으로 되돌렸다고 평가했다.<sup>207)</sup> 처음에는 조련지부라는 같은 조직으로 출발했지만, 조련지부와 민단지부로 분열되고, 물리적 충돌과 재판에 경협하면서 양자 사이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념의 대립으로 그치지 않고, 생활 속의 분쟁이라는 구체적 경험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집적했다.

## 2) 한국소학교의 재정 문제와 민단지부의 활동

한국소학교를 운영한 주체는 민단지부이다.<sup>208)</sup> 한국소학교는 기금 마련 없이 개교했기 때문에 출발부터 자원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1957년 3월 사카모토(阪本) 방적의 창업자인 서갑호의 기부를 받아 교사를 증축하고 교문도 만들었다.<sup>209)</sup> 서갑호의 기부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1957년 1월 21일 다카라즈카 한국소학교에서는 수신인을 ‘선배제현(先輩諸賢), 친애하는 제일동포’로 해서, 학교의 현황과 지원요청의 내용을 담은 취지서를 발행했다. 같은 해 3월에 서갑호의 기부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 요청서가 서갑호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때의 공사로 한국소학교는 비로소 학교의 모습을 갖추 수 있었다. 1961년 한국소학교 교장이 다카라즈카를 비롯해 인근 지역의 제일조선인에게 보낸 요망서(要望書)에도 1957년의 교사 증축에 대한 내용이 있다. “(처음 교사는) 동측(東側)에 있던 테라코야(寺小屋)<sup>210)</sup> 형식이었는데, 3년 전부터 현재 땅에 신축 이전해서 교실도 각 학년으로 구

207) 박은제는 ‘조선인연맹이 인민공화국을 지지하면서 적화되자 소학교 교육도 적화’되었고, 재판에서 승리하면서 민족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했다(朴殷在, 〈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宝塚支部 現況報告書〉, 1986.5.8).

208) 현재 민단지부 사무실에는 한국소학교에 대한 각종 공문서와 사진자료 등이 남아 있다. 문서는 1957년부터 1962년까지 생산된 것으로, 송수신의 주체는 다카라즈카 한국소학교, 제일대한민국거류민단중앙총본부,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민단계 한국학교(오사카 금강학원, 도쿄 한국학원, 교토 한국학원), 대한민국문교부, 다카라즈카 시 교육위원회, 다카라즈카 소재 일본학교 등이다. 해당 문서에 대해서는 와타나베 마사에가 그 목록을 정리하고 해제를 달아 논문으로 발표했다(渡辺正恵, 「다카라즈카 한국소학교 사료」, 『追手門學院大學 經濟·經營論集』 9, 追手門學院大學偏執, 2012). 필자는 민단지부 사무실을 방문해, 원본 자료를 조사했고, 한국소학교 및 민단지부 운영의 양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09) 서갑호의 통명은 사카모토 에이이치(阪本栄一)로, 1915년 경상남도에서 태어났다. 1929년 14세에 도일해서 오사카 방적공장 견습으로 일했다. 해방 후 1948년 사카모토(阪本) 방적을 설립했고, 불령장, 부동산업에도 진출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고액납세자 중 한 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1974년 도산하고 이후 한국에 돌아가서 2개의 방적회사 사장이 되었다. 최성기에는 주일대사관 건물을 한국정부에 기부하기도 했다(國際高麗學會日本地部在日コリアン辭典編纂委員會, 『在日コリアン辭典』, 明石書店, 2010, 204쪽).

210) 테라코야(寺小屋, 寺子屋)란 에도시대 서민의 교육시설을 가리키는 말로, 승려·무사·신관·의사 등이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읽기, 쓰기, 계산 등을 가르쳤다. 킨키(近畿, 교토와 오사카 일대) 지방의 사원(寺院)에 설치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테라(寺)라는 말이 붙었다. 교실 증축 후 학년에 따라 교실이 구분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요망서에 쓰인 테라코야라는 표현은 모든 학생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던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별되고, 교문도 세워져서 학교로서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액의 기부는 일시적이었고,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했다. 별도의 기금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 운영 자금은 학부모가 내는 학비, 재일조선인의 기부금, 한국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부모의 대다수는 일용노동자 내지는 직업안정노동자로, 직업의 안정성이 매우 낮았고,<sup>211)</sup> 학비는 큰 부담이었다. 1960년 당시 학비 부담 상황을 보면 다음의 <표8>과 같다.

<표8> 한국소학교 재학생의 학비부담상황

| 학비부담  | 남  | 여  | 총합 | 비율    |
|-------|----|----|----|-------|
| 불가능   | 15 | 12 | 27 | 50%   |
| 일부 부담 | 7  | 5  | 12 | 22.2% |
| 전액 부담 | 6  | 9  | 15 | 27.8% |

※ 출처 : 宝塚韓國小學校, 《實態報告書(全)》, 1960년 6월 4일

한국소학교의 수험료는 학생 1인당 연간 1200엔으로 12회에 분납하도록 되어 있다. 전교생 54명 중 학비를 전액 모두 부담할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은 27.8%에 불과했다. 3분의 2에 가까운 학생들이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한국 정부의 지원은 어땠을까? 1957~1960년까지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의 상황을 정리하면 <표9>와 같다.

<표9> 한국정부의 한국소학교 재정지원 상황

|         | 단기4290<br>(1957년) | 단기4291<br>(1958년) | 단기4292<br>(1959년) | 단기4293<br>(1960년) |
|---------|-------------------|-------------------|-------------------|-------------------|
| 시설보조비   | 720,000           | 1,280,188         | ×                 | ×                 |
| 교사봉급보조비 | ×                 | 287,360           | 384,000           | ×                 |

※ 출처 : 宝塚韓國學院校長發信(駐日代表部貴下), 《宝韓學發公第55号-補助金受領報告之件》, 1961년 7월 25일

한국정부의 재정지원은 시설보조비와 교사봉급보조비로 구분되어 있었다. 1957년의 경우 시설보조비만 72만엔을 받았다. 1958년에는 시설보조비가 대폭 늘어나 128만엔을, 교사봉급보조비로 28만엔을 받았다. 1959년에는 교사봉급보조비만 38만엔을 받았다. 한국정부의 지원은 금액 변동이 커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되

다.

211) 1957년 당시 학교 실정에 대한 보고에 다카라즈카 민족진영의 세력 규모와 직업에 관한 내용이 있다. 민족진영은 350여세대 900여명으로, 유소년·노인 400명을 제외하고 500명 중 일용노동자가 100여명, 직업안정노동자가 350여명, 일본정부의 민생보호대상자가 50여명이다(宝塚韓國小學校發(先輩諸賢, 親愛なる在日同胞みなさん受信, 宛先不明), 《學校の實情並びに新年度豫算報告》, 1957년 1월 21일). 직업안정노동자는 일종의 직업소개소인 안정소에서 일을 소개 받아서 일하는 노동자로, 형태는 일용직과 비슷했다.

지 못했고, 그마저도 1960년 이후에는 지원이 완전히 중단됐다. 학비와 국가보조금의 불안정성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원인 중 하나였고, 결국 교사의 잦은 교체와 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소학교 교사의 수는 1957년에 4명, 1959년 3명, 1960년 6명, 1961년 4명으로,<sup>212)</sup> 매년 교사의 수가 달라졌다. 이들의 월급은 1인당 6000엔 정도인데,<sup>213)</sup> 재정이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사에게 월급을 제때 지급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실제로 매년 교사 전체가 바뀌기도 했다.<sup>214)</sup> 교사의 잦은 교체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면에서도 좋지 않았다.

학교의 시설 역시 매우 열악했다. 천체망원경이나 이과실험기구 등의 기자재나 특별활동을 위한 교실을 제외하고도, 칠판, 책상, 의자, 교탁, 교재, 체육을 위한 운동기구 등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그나마 있는 것도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다.<sup>215)</sup> 1957년 한국소학교에서 작성한 ‘학교지원의 취지서’에서도 학교의 시설 부족 문제와 그로 인한 학생 모집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10>이다.

<표10> 학교지원 취지서 중 학생 모집 상황

- 일본학교 재학아동의 학부형 중에는 어린이를 본교에 전교(轉校; 전학)시키려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시설 불비(不備)를 위해 응하지 않으려고 한다.
- 신년도 취학연령에 달한 아동이 약 80명이지만, 본교 입학 예정 아동 수는 약 30명이다. 그러나 제반시설 불비라는 악조건 때문에 입학예정자수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
- 현재 다카라즈카 조선인 소학교는 입학기를 맞아 각 관계기관의 전폭적인 협력을 얻어 아동모집과 학교시설 완비에 몰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교 재학생(으로)까지 전입시키려고 하는 강경수단이 되고 있다.

※ 출처 : 宝塚韓國小學校, 《學校支援の趣旨書》, 연도미상(1958년 추정)

한국소학교 측에서는 시설 미비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입학을 원하는

212) 宝塚韓國小學校長發信(在日大韓民國居留民團中央總本部團長受信), 《實態報告並びに新學年度特別豫算報告》, 1958년 2월 10일 ; 宝塚韓國小學校長發信(在日本韓國人教育者協會會長受信), 《在日宝韓小發第5号》, 1959년 7월 7일 ; 宝塚韓國小學校長發信, 《兵宝韓校發35号》, 1960년 11월 11일 ; 宝塚韓國小學校長, 《宝塚韓國學院教師俸給及補助金支給者名簿》, 1961년 5월 19일 ; 宝塚韓國小學校長, 《宝韓學發公第55号-補助金受領報告之件》, 1961년 7월 25일

213) 1960년 2월에 교사 4명분의 월급 24,000엔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1인당 6000엔 정도가 된다(宝塚韓國小學校長, 《兵宝校發23号》 1960년 2월 19일).

214) 교사 명단에는 성(姓)과 출생연도, 고향, 출신학교, 특기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명단을 모두 비교해 본 결과 동일인물은 아무도 없었다. 즉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없었다.

215) 당시 한국소학교의 시설부족 현황은 다음과 같다(渡辺正恵, 앞의 논문, 2013, 72~73쪽). ① 교재, 비품의 불비(不備) : 흑판, 전시판, 책상, 의자, 교탁, 도서, 교기(校旗), 산수교재, 환등기(幻燈機; 슬라이드), 천체망원경, 식물곤충표본, 측정계기, 이과실험기구, 지도 및 도표, 각종연대표, 위인사진, 운동구(야구 세트, 축구공, 배구공, 네트), 신체검사용구 세트, 위생기구 세트 / ② 시설의 불비(不備) : 철봉, 미끄럼틀, 모래사장, 난방, 아동 음수용 수도, 과학실험실, 음악교실, 미술교실, 가사실습실, 특별활동 교실, 도서실, 실내체육관, 양호실 / ③ 수선(修繕) 필요 : 교무실, 교실, 책상, 의자, 교사

학생이 있어도 그들을 수용할 수 없음을 토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조선학교에 학생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설 미비는 학생 수 감소로, 학생 수 감소는 재정 불안으로, 재정 불안은 다시 시설 미비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로부터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학교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재정자립을 도모해야 했다. 민단지부 및 한국소학교는 한국정부에 예산을 요청하는 한편, 한신(阪神) 지역의 재일조선인에게도 기부를 부탁했다. 이들은 재원이 확보되면 시설을 보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장소로 학교를 이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 이전 계획을 정리한 것이 <표11>이다.

<표11> 한국소학교의 이전(移轉) 계획

|   |
|---|
| ○ 교재비품정비, 교사수리의 결과, 일본인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학생 24명을 전입생으로 획득. 그 외 신학기 신입생 결정자 11명, 다른 전입 6명 등의 기대가 있지만 현재 위치의 교사에서는 장래적으로 경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현 교사의 이전확장신축을 요한다. |
| ○ 이전(移轉) 희망지는 한신전철(阪神電鐵) 사카세가와역(逆瀬川驛) 북쪽 50미터 지점.   |
| ○ 현재 아동 수에 관한 앞으로의 전망. 나이별로 재학생도가 증가해 1960년도에는 201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  |
| ○ 성인교육을 한층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사를 증축해야 하고, 직원 수도 현재의 3배가 필요하다. 본교의 위치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1958년도 중에는 교통의 편리하고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한다.                                     |
| ○ 동포가 모여 있는 한신지구에 학교를 이주시키면, 인근의 아마가사키시(尼崎市), 니시노미야시(西宮市)는 물론 고베(神戸) 시내로부터의 아동도 수용할 수 있고, 재학생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

※ 출처 : 宝塚韓國小學校發(先輩諸賢, 親愛なる在日同胞みなさん受信, 宛先不明), <學校支援の趣旨書>, 《學校の実情並びに新年度豫算報告》, 1957년 1월 21일 ; 宝塚韓國小學校, 《學校支援の趣旨書》, 연도미상(1958년 추정)

학교 관계자는 학교 시설의 정비를 통해 신입생 유치에 효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학생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성인 대상 교육으로의 확대까지 도모하고 있었다.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모의 학교로는 불가능했다. 시설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학교의 위치였다. 한국소학교는 효고현 내 유일의 한국학교였지만, 효고현 동쪽 외곽에 위치해 있고, 전철역에서도 거리가 멀어 인근 지역의 학생들을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학교의 이전 부지로 거론되는 곳은 사카세가와역(逆瀬川驛) 근처였다.

학교 이전 계획은 1961년 이후 학교의 재정이 정말로 어려워지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학교의 이전 및 신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다. 1961년 1월 27일, 한국소학교는 이사, 교장, 민단지부단장, 학부형들을 모두 소집해 학교 이전 문제를 놓고 긴급토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는, 만약 재정이 확보되지

못해 학교 이전이 불가능해진다면 학교를 폐교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sup>216)</sup> 한국정부에도 이런 결과에 대해 보고를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 같은 해 3월 9일, 한국소학교는 다시 학부형회를 열어 학교 폐교를 결의하고, 학부형 20명의 서명부를 주일대표부에 송부했다.<sup>217)</sup>

그러나 같은 해 7월에 다시 재정곤란으로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sup>218)</sup> 폐교 결의 이후에도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에는 한국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고, 재일조선인으로부터의 기부금도 거의 없었다. 학교 수업과 운동회 등의 행사에서 사용할 기자재나 비품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오사카의 금강학원이나 다카라즈카의 교육위원회, 료겐소 학교에서 여러 기자재와 비품을 빌리면서 겨우 해결했다.<sup>219)</sup> 결국 고질적인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1962년 한국소학교는 폐교했다.<sup>220)</sup>

한국소학교는 14년간 지속했다. 심각한 재정 문제에 시달리면서도 학교를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한국소학교가 있었던 윤코바는 다카라즈카의 대표적인 조선인 마을이었다.<sup>221)</sup> 의성군 출신이 특히 많았다. 한국소학교에 다니고 있던 학생들의 가정환경 조사에 따르면 1961년 무렵 19명의 학생 중 본적지가 경상북도 의성군인 학생이 총 10명, 경남 사천군 3명, 경남 함안군 2명, 경남 창녕군 2명, 경주시 1명, 기입이 없는 학생이 1명이다.<sup>222)</sup>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의 학생의 아버지가 의성군 출신임을 확인

216) 폐교의 이유로 들었던 것은 현재 위치에서는 학생 모집이 불가능하므로 학생 수가 자연감소 할 것이고, 학부형에게 3년 전부터 학교 이전을 약속했고 올해가 최종 기일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 宝塚韓國學院理事長·校長·學父兄會長·民團支部團長發信(駐日代表部公使受信), 《兵宝韓校發39号-理事並びに學父兄會緊急討議事項の件》, 1961년 1월 29일

217) 宝塚韓國小學校理事長·校長發信(駐日代表部公使受信), 《宝韓校發43号-學父兄會決議事項報告の件》, 1961년 3월 13일

218) 宝塚韓國學院小學校理事長·校長發信(大韓民國駐日代表部貴下), 《宝韓學發51号-本學院運營に関する件》, 1961년 7월 25일

219) 물품을 빌리면서, 물품의 내역과 파손 등의 경우에는 책임지고 배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차용서와 시설사용에 대한 요청서가 있다(宝塚韓國學院小學校校長發信(宝塚第一小學校受信), 《借用書》, 1961년 9월 26일 ; 宝塚韓國學院小學校校長發信(宝塚市教育委員會受信), 《使用許可願》, 1961년 10월 6일 ; 宝塚韓國學院小學校校長發信(宝塚良元小學校受信), 《借用書》, 1961년 10월 6일 ; 宝塚韓國學院校長發信(金剛學院校長受信), 《借用書》, 1961년 10월 11일 ; 宝塚韓國學院校長發信(在日大韓民國居留民團大阪府本部), 《借用書》, 1962년 3월 19일)

220) 한국소학교의 폐교에 대해서는 공식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한국소학교의 마지막 졸업생인 신유진을 통해 폐교 시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221) 해방 이후의 윤코바는 1933년 이후 무코가와 인근의 조선인이 강제퇴거 된 후, 비어있던 땅인 이소시(伊子志)로 집단 이주하면서 형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조선인의 밀집도가 매우 높았다. ; 여기 동네 일대는 모두 전부가, 대체로 50세대 55세대 정도가 있었어요. 모두 한국사람이었지만, 그 중에서 바바씨네가 일본인이었고, 바바씨의 친척, 가고시마에서 온 일본사람, 그리고 또는 총련계의 사람. 그렇게 있었는데, 대체로 민단체 사람들이었어요(신유진(1950년생), 2015년 6월 19일, 민단지부 사무실).

222) 宝塚韓國小學校 發信, 《兒童家庭調査書(1961.6.2~1961.6.9)》, 1961년 6월 9일 ; 윤코바의 모든 거주자들의 고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는 것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복수의 사람들과 구술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의성군 출신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보통 의성에 사는 사람이. 여기 한 15호인가 20호 정도 있었지. 의성, 똑같은 고향에 살던 사람이 이쪽으로 많이 오고.”(안중구(1941년생), 2015년 5월 5일 다카라즈카 민단지부 사무실) ; “우리 시아버지가 고향이, 의성군 봉양면. 여기는 죄 봉양면 사람들 이야. 마을 전체가 통째로 왔으니까.”(강화자(1951년생), 2018년 6월 26일, 다카라즈카 민단지부 사무실) ; 오랫동안 이 마을을 조사했던 와타나베는 논문에서 윤코바에 경상북도 의성군 출신이 많았

할 수 있다. 조사대상 학생의 수가 적긴 하지만 의성군 출신이 많았다는 상황은 충분히 짐작이 된다. 민단지부 설립을 주도했던 3인 중 1명이고, 민단지부의 12, 13대 단장을 역임하는 김태호 역시 의성군 봉양면 출신이었다. 조련지부와 충돌을 불사하며 민단지부와 한국소학교를 만든 배경에는 이런 결속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또 재정 부족으로 학교 폐교가 거론될 때마다 반대의 이유로 등장하는 것은 한국소학교가 효고현 유일의 민단계 민족학교라는 것이다.<sup>223)</sup>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한민족 혹은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소학교가 필요했다. 여기에는 조선학교에 대한 경쟁의식과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한국소학교에서는 기부금을 요청할 때마다 조선학교와 한국소학교를 비교하며,<sup>224)</sup> 학생들을 조선학교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적극 피력했다. 게다가 한국소학교의 탄생 과정에서 조련과 학교 소유권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일도 있었고, 그 후 무코가와를 사이에 두고 한국소학교와 조선학교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상대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의 정치적 대립과 재일조선인 조직 간의 갈등 속에서 한국소학교가 탄생했다. 무코가와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던 조선학교와 한국소학교는 일종의 이념대립의 현장으로 여겨졌고, 서로에 대한 경쟁의식은 학교를 지키는 동력으로 활용되었다. 그래서 고베 같은 대도시에서도 1년 밖에 존속하지 못했던 한국학교를, 인구도 적고 조직력도 약한 다카라즈카에서 14년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 3) 한국소학교 폐교 이후 민단지부의 조직 정비

앞서 조련지부 성립 과정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사회운동 조직화 역량은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소학교가 존속하는 동안, 민단지부 구성원들은 학교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응하며 조직운영의 경험을 쌓았다. 한국소학교 설립 직후의 소유권 재판부터 학생유치, 교사채용, 교육 과정 확정, 학부모회 조직, 각종 학교 행사의 개최 등 학교와 관련해서 다양한 사안들이 발생했고, 이것에 하나하나 대응해 가는 것은 민단지부의 사회운동역량을 축적하는 과정이나 마찬가지였다. 동시에 학교를 매개로 구성원 간에 네트워크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기존 네트워크가 재편되기도 했다.

한국소학교에는 PTA(Parent-Teacher Association, 사친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고, 동향의식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다(渡辺正恵, 앞의 논문, 2013, 50쪽).

223) 宝塚韓國學院小學校理事長·校長發信(大韓民國駐日代表部貴下), 《宝韓學發51号-本學院運營に関する件》, 1961년 7월 25일

224) 宝塚韓國小學校發(先輩諸賢, 親愛なる在日同胞みなさん受信, 宛先不明), 〈學校支援の趣旨書〉, 《學校の実情並びに新年度豫算報告》, 1957년 1월 21일 ; 宝塚韓國小學校理事長·校長發信(駐日代表部公使受信), 《宝韓校發43号-學父兄會決議事項報告の件》, 1961년 3월 13일

PTA 소속 학부모들은 교사, 이사회 등과 함께 학비, 교칙을 결정하고, 예산·결산안 심의 등 학교 운영에 관여했다. 한국소학교의 신축·이전을 추진할 때도 회의 참석, 서명부 작성 등에 참여했다. 한국소학교는 민단지부 재일조선인의 모임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학교 운영회 등 학교 행사를 비롯하여, 꽃놀이, 경로회, 민단지부 정기총회, 부인회 총회 등 지부 행사도 모두 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민단지부 구성원이자 같은 마을 주민들이었다. 이웃 사촌이라는 관계로 묶여 있던 이들은 한국소학교의 운영이라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면서 더욱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한국소학교는 민단지부 재일조선인을 외부와 연결하는 매개가 되기도 했다. 민단지부는 한국소학교를 통해 한국 정부와 직접 관계를 맺었고, 교육부관계자들이 다카라즈카를 직접 방문하는 일도 있었다.<sup>225)</sup> 지방 소도시의 지부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한국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민단지부에 사건에 대한 안내, 취지, 전망 등을 담은 문서가 전해졌고, 민단지부는 학교를 활용해 재일조선인에게 한국의 소식을 알리고 때로는 한국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했다.<sup>226)</sup> 학교 운영 과정에서 도쿄, 오사카 등 다른 지역의 한국계 학교와 협조관계를 구축했다. 각 학교의 행사에 서로 초대하거나 비품을 대여해주었다.<sup>227)</sup> 학교 운영에는 효고현 민단본부의 관계자들이 이사로 참여 했다. 기금 마련 과정에서 효고현 및 오사카의 재일조선인과 연락망을 구축하면서 타지역으로 네트워크를 확대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소학교가 폐교되면서, PTA 조직이 해체되고, 행사의 주요 장소 역시 모두 사라졌다. 다른 지역의 한국학교, 재일조선인 사이의 네트워크도 약해졌다. 윤코바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단계부터 일본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학부모들은 재일조선인 커뮤니티를 벗어나 일본학교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면서 일본사회의 커뮤니티에 편입되었다. 윤코바 마을은 변화는 마을제사의 소멸을 초래했다. 윤코바 주민인 안중구는 마을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젊을 때는 (마을제사) 많이 있었지. 젊을 때, 우리가 어릴 때, 그 때는 몇 살 쯤이었나? 20살 때쯤까지는 있었지. 그러나 지금부터 한 50년 전 쯤까지는 있었지. 그 할매들이, 설 때는 할매들이, 나이 많은 할매들이 있어서 인사하러 가면 옛 같은 거

225) 한국정부에서 파견한 문교부 시찰단이 일본 각 지역의 국어교육기관을 시찰할 때 효고현 중에서는 다카라즈카를 방문했다. 당시 시찰단은 단장이 문교부 정부차관, 단원은 민의원 의원 2명, 참의원 의원 1명, 문교부 고등교육국 담당자 총 5명으로 구성되었고, 여기에 수행보도기자 3명이 추가되었다. 1961년 2월 6일에 입국해서 도쿄, 오사카를 거쳐 2월 7일 다카라즈카에 도착해서 민단관계자 및 유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다음날인 8일 오전에 한국소학교시찰, 수업참관, 교직원면담, 선물전달식을 마치고 오카야마현으로 출발하는 것이 당시 계획이었다(駐日代表部大使館事務所所長 發信(學園長 受信), 《韓日代大發第2号-調査團訪日件》, 1962년 2월 1일)

226) 주일대표부 대판사무소장 대리 부영사 조연환 發信, 《한일대(라)제54호 - “5.16군사혁명당시 공산당의 대한민국 침투 개황” 송부의 건》, 1961년 7월 5일

227) 한국소학교 교장은 오사카 금강소학교의 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한국소학교에서 개최하는 운동회에 참석해 줄 것과 학교후원금을 요청했다(宝塚韓國小學校長 發信(金剛小學校長 受信), 《教務第25号》, 1958년 10월 13일).

나눠주고, 그런 행사. 아니면 옛날에 시골에서 머리에 쓰고, 돌리고, 동동탁 뚜드리고. 그렇게 (농악대가) 동네 돌아다니고. 그런 것은 내 스무 살 쯤까지 있었지 싶다. (질문 : 왜 없어졌을까요?) 왜냐면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 대가 돌아가시고 없어지고, 젊은 사람은 그래(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없어졌지.<sup>228)</sup>

윤코바의 마을제사는 1960년대 이후 사라졌다. 안중구는 그 원인을 재일조선인 1세의 사망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 때는 아직 재일조선인 1세들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이다. 다른 변화가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소학교의 폐교와 그에 따른 재일조선인 네트워크의 약화이다.

민단지부는 느슨해지는 결속력을 재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소학교 폐교 후, 그 자리에 다카라즈카 한국회관을 설립하고 그곳을 민단지부의 주요 활동 거점으로 삼았다. 한국회관 1층에는 민단지부 사무실과 강의실을, 지하와 2층에는 행사장 및 강당을 만들었다. 1967년 4월 1일 다카라즈카 한국학원을 설립하고, 국어, 국사, 무용(장구), 요리 등을 가르쳤다. 대상은 민단 단원 중 한국어를 모르는 재일조선인 2세, 3세였다. 아이들은 일본학교에 다니고 있었기에 실제 수강생은 대부분 성인이었다. 1975년 6월 1일까지 약 4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1980년대 이후에도 매년 30여명이 한글을 배웠다.<sup>229)</sup>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한류(韓流)의 영향으로 일본인 수강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비록 정식학교는 아니었고,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이나 위상도 한국소학교 때보다 축소되었지만, 한글교육이 계속 됐다는 것은 민단지부 조선인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효고현 내 유일의 민족학교’를 운영했었다는 자부심을 상기시켜 주었다. 민단지부에서 매년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한국학원은 별도로 보고 하고, 한국학원의 이사장도 민단지부의 간부급 인물들이 맡았다. 그러나 정식 학교가 아니었고, 학생들도 대부분 성인이었기 때문에, PTA를 조직하거나 운동회, 학예회 같은 행사를 진행할 수는 없었다. 조직의 약화는 정해진 수순이었다.

민단지부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다카라즈카 한국학원을 최대한 활용했다. 민단지부에서는 회원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어를 모르는 2세, 3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그들을 민단지부의 새로운 일꾼으로 키우기 위한 방법도 마련했다.<sup>230)</sup> 그러나 절대적인 모임의 횟수는 계속 줄어들었고, 생계활동, 새롭게 편입된 일본인 커뮤니티 등이 중요해지면서 민단지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줄어들었다. 민단지부 사무실에서 40여년을 근무한 오다 마리코는 민단지부 조직의 주요 축소 원인을 학교의 부재라고 진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이. 여기(민단사무실)에는 오지를 않지요. ...

228) 안중구(1941년생), 2015년 5월 5일 다카라즈카 민단사무실

229) 民團 兵庫県宝塚支部, 《第25回 定期大会》, 1975.6.1 ; 民團 兵庫県宝塚支部, 《第29回 定期大会》, 1986.5.11

230) 民團 兵庫県宝塚支部, 《第24回 定期大会》, 1973.3.18



(중략)… 옛날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 총회를 할 때마다 참석하라고 전화를 다 해야 해요. 그래도 잘 안 나와요. 나와도 전부 할머니들, 나이 많은 남자들이죠. (질문 : 이렇게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역시 학교예요. 학교가 없으니까. 총련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거기는 젊은 사람이 많고, 츠나가리[つながり; 연결]가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커서 다 총련 조직으로 오니까. 우리는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도 없고 젊은 부모들도 여기에는 오지를 않아요. 옛날부터 오던 할머니, 할아버지만.<sup>231)</sup>

조직 약화는 민단지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귀화, 탈이념, 일본사회로의 문화적 동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재일조선인 조직은 약화되고 있었다. 민단지부 관계자는 주요 원인에 대해 학교가 부재해서 조직의 후속세대를 길러내지 못했다고 인식했다. 학교가 원인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에 조직 재정비의 방안도 민족교육의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었다.

2000년 이후 민단지부에서는 후속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어린이 행사를 기획했다. 주요 테마는 역시 한글이다. 첫째, 어린이 크리스마스가 있다. 어린이 대상 파티로, 간단하게 한글을 배우고, 한국의 전통 게임을 하고, 한국음식을 먹는다. 매년 어린이와 부모 약 10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둘째, 주말학교, 하계학교 등 어린이 단기 학교를 통해 한글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카와니시(川西)나 아мага사키 등 인근 지역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다. 셋째, 다카라즈카 시의 다문화교실 운영에 참여하면서 일본학교의 재일조선인 아이들을 접촉하고 민단에 대한 벽을 낮추는 기회로 삼고 있다.<sup>232)</sup> 아이들 프로그램을 특히 많이 기획한 것은, 그 부모와 가족을 민단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이다. 아이들이 민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부모도 자연스럽게 민단을 수차례 방문하게 되므로,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2013년에는 한국회관에서 다카라즈카 한국소학교 졸업생이 참여하는 동창회를 개최했다.<sup>233)</sup> 한국소학교에 다녔던 학생들과 교사들을 초청하고, 지역 주민이 행사에 참여했다. 한국소학교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동시에, 민단조직으로부터 멀어졌던 성인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재조직화 하는 계기로 삼기도 했다.

### 3. 총련 다카라즈카지부의 결성과 조선학교의 운영

#### 1) 조선초급학교의 설립과 한신교육대투쟁

231) 오다 마리코(1949년생), 2018년 6월 26일 인터뷰

232) 오다 마리코(1949년생), 2018년 5월 10일 인터뷰

233) 韓國民團宝塚支部, 『宝塚韓國小學校同窓會(2013年11月30日)』, simaura, 2013

민단지부와 학교 소유권재판에서 패소한 조련지부는 5곳의 국어강습소 중, 윤코바 국어강습소를 제외한 4곳을 통합해 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국어강습소 통합으로 학생과 교사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교사(校舍)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학교 위치로 거론된 곳은 미자[美座] 지역의 주물(鑄物) 공장 자리였다. 공장 사무실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보수만 하면 학교 건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건물을 보수하고 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했다. 당시 조련지부 위원장이었던 최주호는 학교 설립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현재 학교 교사 자리는 당시 군수공장(谷鉄工所) 사무실이었고, 운동장은 주물 공장이었는데, 이곳을 구할려고 농약을 쳤지요. 그 때 형편에서는 기금이란 생각도 못하기에 농약대를 두어 우리 지부 관하는 물론 카와베(川辺)지부, 산다(三田)지부까지 가서 하루 종일 농약을 쳤지요. 새벽 2시에 산다에서 넘어올 때 어찌 무서운지 간이 덜렁했지요. 어쨌든 그 때 돈으로 40여만 엔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 돈을 가져(가지고) 세상 떠난 리동섭, 김말수 고문들이 지주인 나카노(中野)씨와 상담하여 부지는 1평 1엔으로 빌리고 집을 40여만 엔으로 구입했습니다. 땅을 산 후 운동장을 고르는데 더 힘들었어요. 주물 공장이라 크고 작은 주물들이 많이 파묻혀 있어서 파낸다고 애 먹었구만요. 그래서 각 분회에서 몇 명씩 나와서 대략 고른 다음 여맹(女盟)이 운동장 정리를 깨끗이 하였지요. 교사는 사무실로 고쳐 썼지요. 그래서 조련다카라즈카중앙초등학교로서 통합해 나갔어요.<sup>234)</sup>

최주호에 따르면 학교 설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농약대를 구성해 재일조선인 집단지주지를 찾아다니며 모금활동을 전개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토지를 빌리고 건물을 구입했다. 토지 임대 과정에서는 조련지부의 초대위원장이었던 김말수 등이 일본인 지주와 교섭을 진행했고, 운동장 정비에는 재일조선인의 노동력이 투입되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내’서 학교를 만들자는 구호는 당시 재일조선인이 민족학교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공사가 완료된 1948년 10월 17일 조련 다카라즈카 중앙초등학교(朝聯宝塚中央初等學院, 이하 초등학교)를 설립했다. 학생은 81명, 교사는 4명이었다.<sup>235)</sup> 어려움 속에서 학교를 설립했지만 그 운영은 쉽지 않았고, 1949년 GHQ의 2차 조선학교폐쇄령과 함께 초등학교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초등학교가 세워지기 직전인 1948년 4월 GHQ 및 일본 문부성의 조선학교 통제 및 학교 폐쇄 조치에 저항한 한신교육대투쟁이 발생했다. 해방 이후 조련의 주도하에 전국 각지에 민족학교가 건립되자 GHQ는 일본 내 재일조선인 학교에 대해 일본의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을 따르도록 지시했고, 일본 문부성은 이런 지시를 받아 1948년 1월 24일 각 도도부현에 통첩을 보냈다. 1948년 4월 7일 효고현 군정부(軍政府)는 조선학교에 대한 퇴거명령을 내렸다. 4월 11일 고베를 비롯하여 효

234) 宝塚朝鮮初級學校, 앞의 책, 33쪽

235) 宝塚朝鮮初級學校, 앞의 책, 5쪽

고현 내 조선인은 인민대회를 열고, 각지의 대표 70여명을 선출해 4월 15일 현지사를 만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4월 23일에는 고베의 히가시고베(東神戸), 나다(灘) 조선학교가 강제 폐쇄되었고, 니시고베(西神戸) 조선학교는 재일조선인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폐쇄에 실패했다.<sup>236)</sup>

1948년 4월 24일, 전날의 학교 폐쇄에 항의하기 위해 효고현 내 조선인 약 만명 정도가 현청 앞에 집합했다. 4.24 한신교육투쟁의 시작이었다. 다카라즈카의 조선인도 현청 앞 반대시위에 참여했다.<sup>237)</sup> 현장에 모인 이들은 조선학교 폐쇄명령 철회와 체포자 석방을 요구했다. 조선인 대표 6명이 현지사와 교섭하고, 저녁 무렵 효고현 지사가 학교 폐쇄령을 철회하고 체포자를 즉시 석방한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을 날인했다.<sup>238)</sup> 그런데 그 날 밤 고베와 인근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다음날부터 조선인에 대한 무차별 체포가 시작되었다. 26일 새벽나마제와 코하마 등에서 76명이 체포되었다. 당시 조련 다카라즈카지부위원장이었던 최주호는 24일 새벽 4시반경에 예비검속으로 체포되어 고베의나마다(生田)경찰서에 48일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sup>239)</sup>

재일조선인들의 체포 때문에 당시 다카라즈카는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에 놓여있었는데, 이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윤코바 국어강습소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조련지부와 민단지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시기 다카라즈카의 민족학교는 아직 국어강습소의 형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폐쇄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sup>240)</sup> 조련지부의 사람들은 효고현청이 있는 고베에 가서 항의시위를 전개했지만, 다카라즈카 지역 자체는 경찰의 체포를 제외하면 한신교육대투쟁에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윤코바 학교의 운영을 둘러싼 재일조선인 내부의 갈등이 더욱 큰 문제였다.

초등학교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2차 조선학교폐쇄령이 내려지면서이다. 1949년 10월 19일 GHQ와 일본 정부는 ‘조선인학교의 처리방침’을 정하고, 11월 무인가 조선학교에 대해 폐쇄결정을 내렸다. 사실 인가문제는 핑계였다. 실제로는 조련의 공산주의 교육을 빌미로 조선학교를 폐쇄해 조련을 약화·해산 시키려는 의도였다.<sup>241)</sup> 다카라즈카의 초등학교도 폐쇄 대상이었다. 현 담당자의 폐쇄명령서에 대해 초등학교의 교장은 수령을 거부했고, 학부모들은 당번을 정해 학교에서 불침번을 서면서 폐쇄 조치에 불응했다. 당시 학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236) 김인덕,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운동에 대한 연구 - 재일본조선인연맹 제 4,5회 전체대회와 한신(阪神)교육투쟁을 중심으로」, 『사람』 26, 2006, 188쪽

237) 정확히 몇 명이 참여했는지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당시 이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다카라즈카에서 모인 사람들은 트럭 두 대에 나눠 타고 효고현청으로 가거나 트럭에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전차를 이용했다고 한다(鄭鴻永, 앞의 책, 138쪽).

238) 金慶海, 「1948년 阪神教育闘争은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闘争」, 『한일민족문제연구』, 2008, 247쪽

239) 鄭鴻永, 앞의 책, 138~139쪽

240) 한신교육투쟁 당시 다카라즈카에 존재했던 조련초등학교는 5개의 국어강습소를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었을 뿐, 고베지역처럼 물리적으로 통합된 형태의 학교는 아니었다.

241) 김태기, 앞의 논문, 2009, 190~191쪽

저녁이 되면 어머니들이 보자기에 모포를 안고 와서, 그걸 뒤집어 쓰고 책상 위에서 교대로 잠을 잤습니다. 모포라고 해도 지금 같은 건 아니고 미군의 불하품(拂下品)이었어요. 먹는 것도 고구마를 찌서 오거나 집집마다 모은 쌀로 한 밥 뿐이었어요. 반찬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밤중이 되면 추워서 운동장에서 불을 피웠고. 어떤 때는 30명 정도였는데, 많은 때는 50명도. 지금 생각해도 정말 열심히 했지요.<sup>242)</sup>

참으로 그 때 어머니들이 투쟁하는 그 기백을 보고 감동했고 놀랐어요. 그 때 어머니들은 공부 못 한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자식들에게 민족교육을 시킨다고 필사적으로 싸우셨기에 경관들이 학교에 들어오지 못했지요. 강독(제방) 우에서 돌아보고 있었을뿐이지요. 그 때 상공인(商工人)이랑 있습니까? 여성들은 안정소(安定所), 남성들은 노가다(土方)를 하면서 그날그날 생활하면서 학교를 지켜왔어요.<sup>243)</sup>

한겨울에,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학부모들은 학교를 지키기 위해 교대로 학교에서 숙박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고 추위에 잠을 자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학교를 지키는 1개월 동안 사복과 제복을 입은 경찰이 왔다갔다 했지만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다.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은 부모들의 고생과 노력을 고스란히 지켜봤다. 특히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어머니들이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애쓰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대부분은 그날그날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에게 학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공간이었다. 한 달의 투쟁 이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의 형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초등학교는 일본공립학교의 분교가 되거나, 학교를 없애고 민족학교급으로만 존재하는 대신 자주학교의 길을 선택했다.

2차 폐쇄령의 경우 조련에 대한 조치가 우선이긴 했지만, 민단계열의 학교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한국소학교의 경우 경찰의 폐쇄명령서 전달 등이 실행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민단 효고현 본부의 관계자들은, 자신들과 효고현이나 경찰 등의 행정조직과의 관계가 긴밀했기 때문에 2차 조선학교폐쇄령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sup>244)</sup> 실제로 2차 학교폐쇄령의 경우 그 집행은 지역의 자율적 처리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sup>245)</sup> 초등학교와 한국소학교에 서로 다른 잣대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과 직접 충돌했던 당시의 경험을 통해 조련지부는 일본 정부를 ‘적’으로 인식했다. 동시에 조련계 재일조선인 사이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고, 민족교육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일본의 직접 탄압

242) 정홍영이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이자 한신교육투쟁에 참여했던 최두선(崔斗善, 1918년생, 인터뷰당시 76살)을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본인의 책 2부에 실었는데, 인용한 부분은 그 내용 중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鄭鴻永, 위의 책, 209쪽). 지금은 두 사람 모두 고인이 되었다.

243) 宝塚朝鮮初級學校, 앞의 책, 34쪽

244) 渡辺正恵, 앞의 책, 59쪽

245) 조선학교를 폐쇄할 경우 그곳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역의 일본학교에 분산시켜 편입학을 해야 했는데, 학교의 부족, 일본인 학부모의 반발 등 각 지역별로 사정이 달랐기 때문에 2차 폐쇄령 이후의 조치는 상당부분 지역에 맡겨져 있었다(김태기, 앞의 논문, 2009, 202~203).

과 여기에 저항해서 이길 수 있었던 이 때의 경험은 향후 민족학교 운영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 2) 초급학교의 재정문제와 총련지부의 활동<sup>246)</sup>

1949년 9월 일본정부는 조련을 해산시켰다.<sup>247)</sup> 잠시간의 공백기를 지나 1955년 5월 25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이하 총련)가 결성되었다. 조련의 해산과 총련의 등장은, 재일조선인이 이제 일본공산당의 운동 지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과, 앞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의미한다.<sup>248)</sup> 북한에서는 특히 재일조선인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교과서, 교육원조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던 여러 교육규정을 일본에 송부해 재일조선인 민족 교육에 반영하도록 했다. ‘민주주의적인 민족교육’을 지향하고, ‘유능한 민족간부의 양성’이 교육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다.<sup>249)</sup> 총련의 민족학교는 지식 학습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총련의 활동가를 길러내는 곳이었다.

다카라즈카에도 1955년 6월에 총련 다카라즈카지부(이하 ‘총련지부’)가 만들어졌다.<sup>250)</sup> 총련지부는 1956년 4월 초등학교를 다카라즈카 조선초급학교(宝塚朝鮮初級學校, 이하 ‘초급학교’)로 변경했다. 초급학교는 1957년 4월 19일 북한으로부터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았다. 초급학교의 경우 전신인 초등학교의 건물을 세울 때도 지역의 조선인들과 유지들의 도움 속에서 어느 정도 학교의 형태를 갖추어서 개교를 할 수 있었다. 민단의 한국소학교에 비하면 상황이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이지 재정이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들어온 보조금과 장학금은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

1957년 무렵 초급학교의 학생은 어느 정도였을까? 한국소학교 관련 문서 중에

246) 다카라즈카 조선학교는 2002년에 이타미조선학교로 통합되었다. 학교 운영 관련 문서는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일부는 총련지부 사무실로, 일부는 이타미조선학교로 흩어져서 자료의 거의 대부분이 망실된 상태로 그 내용을 거의 확인하지 못했다. 특히 정치적인 문제로 연구자가 총련지부 사무실을 방문해 내부의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다카라즈카 조선학교의 운영실태를 밝히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재일조선인 개인들에게 제공받은 자료와 구술인터뷰, 그리고 필드워크를 통해 이타미조선학교의 운영과정에 대한 조사내용을 참고로 했다.

247) 조련이 해산된 후 1951년 1월 9일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在日朝鮮統一民主戰線, 이하 ‘민전’)이 결성되었다. 코민테른의 일국일당 원칙에 따라 조련과 민전 단계에서 재일조선인 조직은 일본공산당의 지도를 받았다. 조련은 결성 단계부터 일본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일본공산당 재건과정에도 적극 참여했다. 일본공산당 내에는 조선인부가 있었고, 조련은 구성원들에게 일본공산당 가입을 독려했다. 그러나 조련 내부에서는, 조련이 민족적 주체성을 상실하고 일본의 공산혁명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재일조선인총연합회가 결성되었다(윤건차/박진우 외 譯, 『자이니치의 정신사』, 한겨레출판, 2015, 150~155쪽).

248) 진희관, 『조총련 연구 : 역사와 성격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 박사논문, 1999, 50~53쪽

249) 김명희, 『재일조선인 교육에서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7, 53쪽

250) 崔周浩가 1978년 작성한 자서전에 총련 다카라즈카지부의 결성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

1957년, 1958년, 1960년 다카라즈카 거주 조선인 아동의 학교별 분포를 조사한 것이 있다. 그것을 정리하면 <표12>와 같다.

<표12> 재일조선인 학생의 학교별 분포

| 학교명   | 민족학교   |         | 일본학교      |       |             | 합계  |
|-------|--------|---------|-----------|-------|-------------|-----|
|       | 한국 소학교 | 조선 초급학교 | 다카라즈카 소학교 | 료겐소학교 | 다카라즈카 제일소학교 |     |
| 1957년 | 63명    | 102명    | 53명       | 135명  | 56명         | 409 |
| 1월    | 15.4%  | 24.9%   | 13.0%     | 33.0% | 13.7%       | 100 |
| 1958년 | 71명    | 102명    | 60명       | 135명  | 60명         | 428 |
| 2월    | 16.6%  | 23.8%   | 14.0%     | 31.6% | 14.0%       | 100 |
| 1960년 | 32명    | 156명    | 214명      |       |             | 402 |
| 6월    | 8.0%   | 38.8%   | 53.2%     |       |             | 100 |

- ※ 출처 : 宝塚韓國小學校發(先輩諸賢, 親愛なる在日同胞みなさん受信, 宛先不明), <學校支援の趣旨書>, 《學校の実情並びに新年度豫算報告》, 1957년 1월 21일 ; 宝塚韓國小學校長發信(在日大韓民國居留民團中央總本部團長受信), 《實態報告並びに新學年度特別豫算報告》, 1958년 2월 10일 ; 宝塚韓國小學校, 《實態報告書(全)》, 1960년 6월 4일
- ※ 상기 출처 중 <學校支援の趣旨書>는 1957년 1월 21일 문서에 붙어 있으나,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제 작성된 연도는 1958년으로 추정된다.<sup>251)</sup>
- ※ 1959년의 실태보고서는 남아 있지 않아서 자료에 반영하지 못했다.
- ※ 1960년 6월 조사에서는 일본학교의 경우 학교별로 분리하지 않고, 다카라즈카 시립소학교로 통합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1957년 다카라즈카의 409명의 아동들 중 약 60%가 일본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나머지 40% 중 약 25%가 초급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1958년에는 인원변동이 없었다가 1960년에 초급학교 학생의 비율은 약 40%로 증가했다. 일본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은 1957년과 1958년에 약 60%로 비슷한 수준이다가 1960년에 53.2%로 비율이 감소했다. 한국소학교의 경우 1958년에 전년보다 학생이 조금 증가했다가 1960년이 되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1960년에 학생 수와 그 비율이 증가한 것은 초급학교 뿐이다. 이것은 한국소학교나 일본학교보다 초급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57년 북한의 재정 지원 이후 학교 시설 확충 등이 증가 원인으로 추측된다.

초급학교의 운영주체는 총련지부였다. 총련지부 사무실은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초급학교 건물과 마주보는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학교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sup>252)</sup>

251) <學校支援の趣旨書>의 경우 1957년 1월 21일 문서에 별첨자료 형식으로 붙어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 그보다 뒤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취지서 내에 1958년 시점의 계획이 기술되어 있고, 조선초급학교의 상황개선에 대한 언급도 있다(“조선인 소학교는 작년 봄 3월까지 본교와 같은 상태였지만 현재 6개 교실, 교원 6명으로 본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실하다”). 초급학교는 1957년 4월에 북한으로부터 교육원조비를 받고 그 이후에 교육상황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는데, 그때를 작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문서의 작성 시기는 1958년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學校支援の趣旨書》를 인용할 때는 자료 뒤에 ‘연도미상(1958년 추정)’으로 표기할 것이다.

우선 필요한 일은 학교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1964년 4월 학교에 유아반을 만들면서 초등 이전 단계부터 민족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유아반 과정을 마친 아동들을 자연스럽게 초급학교의 학생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과학실이나 강당 등 부대시설도 필요했는데, 전반적으로 학교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신교사 건축을 추진했다.

1965년 총련지부는 약 1200만 엔의 예산을 들여 9개의 교실을 갖춘 2층 건물을 새로 건축하고, 같은 해 11월 3일에 낙성식(落成式)을 거행했다. 신축교사는 콘크리트 건물로, 구교사와 비교하면 규모도 커지고 교실 수도 증대되었다. 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다카라즈카의 실업가였던 김말수가 건축 비용을 기부했고, 학교 부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도 땅주인과 직접 교섭에 나서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빌릴 수 있었다. 다른 재일조선인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했다.<sup>253)</sup>

초급학교는 점차 체계를 갖춰갔고, 1967년 4월에는 일본정부로부터 학교법인설치인가를 받아 각종학교(各種學校)로서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sup>254)</sup> 1976년에도 학교창립3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학부모들이 기금을 모아 새로 통학버스를 구입하면서 두 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되었다.<sup>255)</sup> 1978년 4월에는 아리마(有馬) 조선초급학교와 통합하면서 학생 수가 더욱 늘어났다.<sup>256)</sup> 1987년 7월 당시 재학생 수는 156명이었다.<sup>257)</sup>

초급학교 운영의 목표는 재일조선인 학생들에게 민족교육을 하는 것이었다.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야 했고, 교사에게 안정적으로 월급을 주고, 학교에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도 처리 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 1957년부터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는 북한으로부터 매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그 액수는 1년에 약 1억 2천만엔 정도이다.<sup>258)</sup> 그러나 전국의 조선학교에 이를 분배하고 나면 각 학교에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은 많지 않았다. 결국 학교 운영비의 상당 부분은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했다. 게다가 초급학교는 다카라즈카 시로부터 학교법인으로서 인가를 받았지만, 일본의 교육법이 인정하는 일조교(一條校)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학교가 받는 여러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었다.<sup>259)</sup> 심숙정은 학교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다음

252) 정양식(1959년생), 2017년 8월 27일, 구술자 자택

253) 2번째(1965년) 새로 교사를 건설했을 때 니시고베학교에서 재료를 가져와서 각분회에서 사람들이 나와 기초공사 하는 모습이 기억되고 있었습니다[김례곤(金禮坤)](宝塚朝鮮初級學校, 앞의 책, 37쪽).

254) 각종학교(各種學校)란, 일본의 학교교육법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된 학교(一條校)’ 이외에 학교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만족시킨 교육시설을 가리킨다. 각종학교는 일본의 문부성이 아닌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교육위원회나 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는다. 조선학교의 경우 1960년 이후에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기 시작했고, 1975년에는 모든 조선학교가 각종학교가 되었다.

255) 宝塚朝鮮初級學校, 앞의 책, 5~6쪽

256) 아리마초등학교는 1949년 4월에 설립되었는데, 1977년 3월에 학교를 폐쇄하고 4월에 히가시고베(東神戸) 조선초중급학교와 통합했다가 1978년 4월에 다카라즈카 조선초급학교와 통합했다.

257) 宝塚朝鮮初級學校, 앞의 책, 6쪽

258) 김명희, 위의 논문, 67쪽

259) 일조교는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된 학교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0년 일본정부에서 고교수업무상화(高敎授業無償化)·취학지원금지급제도(就學支援金支給制度)를 신설했을 때, 조선학교는 각종학교로 일조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혜택에서 제외되었다. 이 문제를 논

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카라즈카 사는 동포들은 대체로 우리 학교에 보내고 있었지. 역시 1세 분들이 많았고. (질문 : 수업료는 부담되지 않으셨나요?) 수업, 수업료는 마찬가지로야. 그 때는 더 비쌌던 거 아닌가. 조성금(보조금)도 없고, 다카라즈카에서 조성금, 받게 되었는데, 일 년에 지금도 달리 없어요. (보조금을) 올리지 않고 있으니까. (질문 : 시에서 지원이 나오기 전에는 더 힘들었던 거네요.) 네. 그래도 넷이, 다섯이 잘, 우리 학교 보내고, 교육 시켰어요, 모두. 옛날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근데 옛날에는 물론 JR 정기권도 그렇고, 물세도, 수도 값도 일반가정, 일반가정으로 했어요. 다카라즈카에 우리 학교가 있는 것도 무시하고 있었지, 뭐. 다카라즈카 시는.<sup>260)</sup>

조선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생들은 정기권 구입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학교의 수도세와 전기세 역시 일반가정요금을 적용받아서 부담이 컸다. 각종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었다. 초급학교의 재원은 수업료, 기부금, 그리고 지방자치체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1970년대 이후부터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다카라즈카의 경우 1982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했다.<sup>261)</sup> 그 이전에는 재일조선인 스스로가 학교 운영비를 마련해야 했고, 많은 경우 학부모와 지역 재일조선인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재원 마련에 앞장섰던 것은 학부모단체인 교육계였다. 1962년부터 22년 동안 조선학교의 교육계회장을 맡았던 김한근(金漢根)은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사서 인근의 재일조선인에게 판매하면서 학교 운영을 위한 비용을 모금했다.<sup>262)</sup> 김한근은나마제, 코하마 등의 재일조선인들과 깊이 접촉하면서 조선학교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사람들 사이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사고로 인해 불편해진 다리를 이끌고 매일같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그의 모습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이때의 모금 비용은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 1986년 초급학교 출신자들이 모인 좌담회에서 김월순(金月順)은 “학교 살림살이를 잘 할 수 있도록 전통포학부형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sup>263)</sup> 그만큼 재정 문제가 중요했다.

교육계 뿐만 아니라 초급학교의 어머니회와 아버지회 등 학부모 모임도 학교 운영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학교에서 운동회나 애교절(개교기념일), 8.15 축제 등 재일조선인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어머니회에서는 음식을 준비해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학교 운영 자금에 보탬다. 총련지부의 조선민주여

---

고 2018년 오사카와 히로시마, 도쿄 등에서 재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260) 심숙정(1954년생), 2018년 4월 18일, 구술자 자택

261) 宝塚市, 「外國人」, 『第2次宝塚市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基本方針』, 宝塚市, 2006, 47쪽

262) 아버지는 고기(생선) 장사 했습니다. 전임일꾼 되면서는 고기 파는 일은 그만 두고. 매일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매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계속 고기 팔러 다녔어요. 새벽에, 고기 사서, 자전거에 실어가지고 동포들한테 팔러 다녔습니다. 동포들한테 다 팔아가지고 그거 다 학교에 냈습니다 (김민철(1946년생), 2016년 8월 4일, 구술자 자택).

263) 宝塚朝鮮初級學校, 앞의 책, 37쪽



성동맹(이하 ‘여맹’)이 여기에 참여했다.<sup>264)</sup> 아버지회에서는 폐배터리, 공병, 폐지, 중고가전 등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학교의 운영비로 보냈다.<sup>265)</sup> 총련지부의 산하에는 각각 마을별로 분회(分會)가 조직되어 있는데, 학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이 분회를 통해 학교 재정 지원에 참여했다. 분회 모임 때마다 정기적으로 학교운영자금을 모금하거나 마을의 사람들에게 참기름, 떡국, 볶은 깨 등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학교에 기부했다.<sup>266)</sup> 사업을 하는 남성들의 조직인 다카라즈카 청년상공회(宝塚靑年商工會) 역시 학교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했고, 더 이상 조직 활동을 하지 않는 할머니들도 계모임 같은 정기적 친목모임을 가질 때마다 회비를 모금하고, 그것을 학교의 운영비로 기부했다.<sup>267)</sup>

초급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총련지부의 구성원들과 관계자들 모두 초급학교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북한 체제에 대한 실망, 민족교육에 대한 회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초급학교의 학생 수가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반대로 학교 운영 비용은 계속 증가했다. 특히 초급학교 부지의 임대료가 크게 상승했다. 다카라즈카의 시민단체가 초급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지원을 했지만 학교의 재정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2002년에 초급학교는 인근 이타미시(伊丹市)의 이타미조선초급학교(伊丹朝鮮初級學校)로 통합되었다.

### 3) 다카라즈카 조선초급학교의 역할과 의미

초급학교의 학생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1956년 당시 조선학교의 교과목을 보면 전학년에 걸쳐서 독본, 산수, 음악, 체육, 미술, 일본어를 배우고, 초등 4학년 때부터는 문법, 자연, 조선역사, 조선지리, 사회상식을 함께 배웠다. 1974년에는 ‘김일성원수혁명사업’이라는 과목이 신설되어 2004년까지 유지되었다.<sup>268)</sup>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일본의 역사, 지리 등이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는 않았다. 학생들은 조선의 역사, 사회 등을 배우면서 민족정체성을 체득했고, 이념교육을 통해 총련 조직의 일꾼으로 성장했다.

다카라즈카 초급학교의 교육도 이와 유사했을 것이다. 1986년의 좌담회에서 초급학교 수업내용에 대한 언급을 보면, 민족의식, 민족문화 중심의 수업이 중요함을 우선 강조하고, 다음으로 정치적인 내용이 많고 일본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sup>269)</sup> 당시 초급학교의 수업 내용이 조선 중심이고, 일본에 관한 내용이 소

264) 심숙정(1954년생), 2018년 4월 18일, 구술자 자택

265) 정양식(1959년생), 2017년 8월 27일, 구술자 자택

266) 정기자(1946년생), 2017년 12월 14일,나마제 분회 사무실

267) 김선희(1958년생), 2016년 8월 2일, 구술자 자택

268) 김명희, 앞의 논문, 54~59쪽

269) 宝塚朝鮮初級學校, 앞의 책, 37~38쪽.

략하다는 점, 이념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6년과 2017년 이타미조선학교의 수업 풍경도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sup>270)</sup> 북한에서 여전히 보조금을 받고 있고, 총련지부에서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이상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정치적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초급학교 수업을 통해 민족의 기원을 학습하고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sup>271)</sup> 특히 민족사는 일본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으로, 재일조선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에 저항했던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배우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1948년의 한신교육투쟁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송미진은 1970년대부터 다카라즈카 초급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학교를 다니며 강연을 했고, 다음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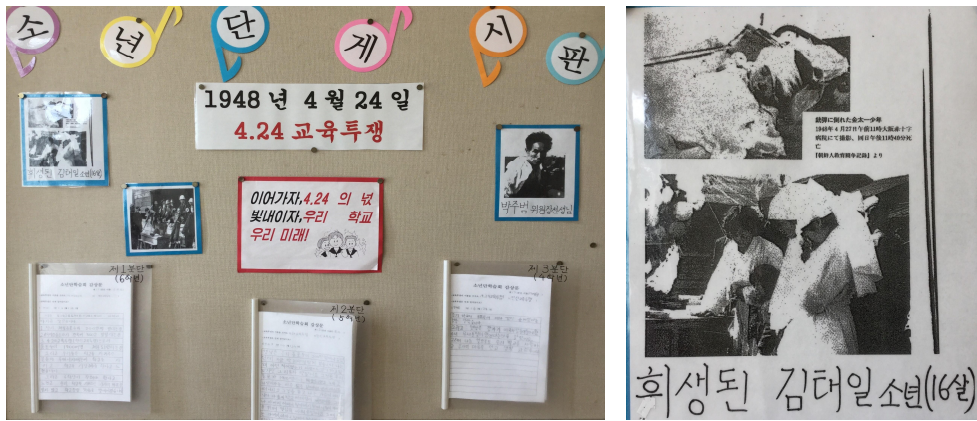
지역에서는 박주범씨가 죽고, 3일 동안 시체를 가지고 니시노미야부터 일주를 했지요. 그리고 요새같이, 뭐라고 할까요. 여름이면 (시체를) 냉동시키는데, 3일 동안 그렇게(냉동 없이) 다니니까, 시체는 썩고, (관에서 물이) 주르륵 주르륵. 그 때 우리는 노래를 불러가면서(행렬을 따라가고), 그랬죠. 제가 제일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아마중(아마가사키 중학교)도 이타미도, 고베에도, 한신초급학교에도, 직접.<sup>272)</sup>

박주범은 조련한신지부 위원장으로 한신교육투쟁으로 체포·석방 되었는데 감옥에서 얻은 질병으로 사망했다. 재일조선인들은 그의 시신을 넣은 관을 들고 니시노미야에서 고베까지 이동하며 일종의 시민장을 치렀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송미진은 그 행렬을 따라가며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눈물을 흘렸다. 이 특별수업을 통해 송미진을 비롯한 부모세대의 경험과 기억, 학교에 대한 애정은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이타미 조선학교에서는 지금도 매년 한신교육투쟁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학교 게시판에 통해 그 내용을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2016년 당시 이타미조선학교의 게시판과 한신교육투쟁의 수업 자료를 보면 다음의 <그림 8>과 같다.

270) 2016년 8월 6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참관 행사가 있어서 여기에 참여했다. 일본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의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된다. 일과생활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어를 포함해서 국어, 산수, 과학, 사회 등 한국의 초등과목과 유사하다. 교과서의 내용은 현재 한국의 교과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교과서 자체에 한자가 많다는 특징이 있었다. 역사와 지리의 경우 한반도 전체의 역사와 지리를 배우고, 세계사 파트에서 일본의 역사 및 지리도 학습하고 있었다. 한 학년에 선생님이 한 명씩 있고, 교사들은 모두 도쿄의 조선대 사범학과를 졸업한 후 발령을 받아 해당 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271) “을지문덕, 이순신, 우리 조상들, 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내 뿌리에 대한 거, 아무래도 그런 걸 학교에서 배워서.. 지금도 기억이 다 나고, 그래, 다행이다 싶습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거, 그거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싶어요. 일본에, 일본 학교 다니면 그런 거 배울 수 없다 아닙니까.” 김수희(1959년생), 2017년 12월 28일, 구술자 자택

272) 송미진(1937년생), 2015년 5월 2일, 구술자 자택



<그림8> 이타미조선초급학교 게시판 (2016년 5월 15일)

<그림8>을 보면 학교는 단순히 지식의 학습 공간이 아니라 세대 간 기억의 전승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는 다양한 행사의 개최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수업참관, 운동회, 문예회, 애교절(개교기념일) 같은 행사가 열렸고, 하나미(花見), 팔일오(8.15) 등 재일조선인의 축제가 개최되었고, 시국특별강연회나 총련지부의 총회가 열리는 곳도 학교였다. 학교에서 개최된 행사의 모습은 다음의 <그림9>과 <그림1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9> 학교창립40주년기념행사(1986)



<그림10> 8.15모임(1999)

이런 행사에는 조선학교의 학생부터, 가족, 친인척 그리고 지역별로 재일조선인이 모두 모였다. 특히 학교 통합 이후에는 다카라즈카 뿐만 아니라 아리마의 재일조선인도 행사에 참여했다.<sup>273)</sup> 각 마을별로 분회 모임이 있었지만, 학교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다카라즈카 전 지역의 총련지부 관련 재일조선인이 모두 모이기 때문에, 재일조선인 간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총련지부 조직을 재정비한다는 의미를 갖

273) 이타미조선학교의 경우, 2019년 현재 다카라즈카, 카와니시(川西), 산다(三田)의 조선학교가 모두 통합됨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네 지역의 재일조선인이 함께 참석한다.

고 있었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들과 함께 여러 행사에 참여하며, 총련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부모의 인적 관계에도 그대로 편입될 수 있었고, 총련지부 조직의 운영에 대해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소조(小組)활동이라는 일종의 방과 후 클럽활동을 통해 조직 활동을 체험했다.<sup>274)</sup> 재일조선인 조직이 약화되고 있는 중에도, 총련이 후속 세대를 길러내면서 명맥을 유지했던 것도 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를 매개로 부모와 자식, 친인척, 이웃 등이 모두 동창이나 선후배 관계로 묶여 있다는 사실도 조직 유지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1962년 이후 다카라즈카에 민족학교는 초급학교뿐인 상황에서 부모가 다닌 학교에 자식이 다니거나, 친인척이나 사촌들이 모두 동창생인 경우가 많았다. 학교 중심의 네트워크는 송미진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 실체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얼마 전에 니시노미야 공민관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나는 한국소학교 나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서로, 언니, 언니, 오랜만이다, 하면서 다 아는 사이였어요. 조선학교 나온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학교가, 역시 조선학교가 오래 있었으니까.<sup>275)</sup>

한국소학교에 다닌 신유진은 학교가 일찍 폐교되었기 때문에 학교를 바탕으로 한 인적네트워크를 만들지 못했고, 초급학교 출신들의 네트워크에 편입될 수도 없었다. 초급학교 출신들은 졸업 이후에도 아мага사키 중학교, 고베 조선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약 12년이란 시간을 친구, 선후배의 관계로 공유했다. 상급학교를 일본학교로 진학하더라도 부모님이 총련지부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면 그 인적 네트워크로부터 탈락되지 않았다.

1949년 2차 조선학교폐쇄령이 내려졌을 때 일본 정부의 탄압에 맞서서 학교를 지켜냈던 기억은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다. 정홍영의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런 자부심이 드러난다.

해방 후로부터 우리 힘으로 40년 동안 하루도 문을 안 닫고 [학교를 운영] 했다는 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놈들[일본]이 학교를 없앨려고 달라붙었고 자주운영(自主運營)인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문을 닫지 않고 해왔다는 것은 큰 자랑입니다. 그렇게 볼 때 다카라즈카나 산다 동포들은 훌륭하지요.<sup>276)</sup>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은 재일조선인의 자랑이 되었고, 앞으로도 학교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1949년의 조선학교폐쇄령 이후에도 보조급 미지급과 삭감, 학교운영에서의 차별, 고질적 재정문제 등이 계속 발생했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일

274) 정양식(1959년생), 2017년 8월 27일, 구술자 자택  
275) 신유진(1950년생), 2018년 4월 22일, 민단 사무실  
276) 宝塚朝鮮初級學校, 앞의 책, 36~37쪽

본 정부의 교육 차별, 민족 차별로 인식했다. 그런 차별에 맞서서 학부모, 학생, 총련지부 관계자 등은 학교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그 과정을 일상과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들과 공유했다. 그 모든 과정이 저항이자 투쟁이었다.

비록 다카라즈카 초급학교는 이타미조선학교에 편입되었지만, 초급학교에 대한 기억은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었다. 2018년 1월 6일 총련지부의 신년회 모임에서는 초급학교에 대한 영상을 상영했다.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학교가 그림다는 사람도 있었고, 학교를 지키기 못해서 아쉽다는 사람도 있었다. 초급학교가 폐교된 지 16년이 경과했지만 이들에게 민족학교란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자신이 투영된 공간이었다. 일본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자긍심과 언젠가는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동시에 담고 있는 공간이다. 학교에 대한 이런 인식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단지부의 구성원과는 결코 공유할 수 없는 것이었다.

#### 4. 민족학교의 역할과 재일조선인 공동체의 분할

##### 1) 민단지부와 총련지부의 경쟁과 대립

재일조선인들은 대체로 조선인집단거주지 혹은 조선인 마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일본인이 아니라 재일조선인이었다. 남북한이 체제경쟁을 하듯 민단과 총련 역시 제한된 공간 안에서 서로 경쟁을 했다. 1959년 이후 시작된 북송사업과 여기에 대한 민단의 대대적인 반대운동, 그리고 1965년 한일회담 이후에 시작된 국적변경 운동과 총련의 비판 운동 등 이념대립은 더욱 심해졌다. 신유진과 서대진의 이야기를 통해 그 양상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는 총련계 사람들이 왜 바보이냐면 고향은 다 한국인데, 북조선이 아닌데, 왜 [북송사업으로] 거기에 가는지. 바보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의성군이니까 대한민국의야. 그리고 한 때는 조선, 조선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조선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한국이라고 해라.<sup>277)</sup>

그 동네[나마제]가 빨갱이 부락이라고 합니다. 그쪽은, 민단 사람들은 못 들어왔습니다. (면담자 : 그 못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 살고는 있는데, 다들 총련 회비 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 낸다고 말을 못했죠. 한국의 자기 친척 만나러 가는 것도 숨어서 갔죠. 다 반대하고. 이 사람아! 할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로 조총련이 강했죠.<sup>278)</sup>

277) 신유진(1950년생), 2015년 6월 19일, 민단 사무실

278) 서대진(1954년생), 2015년 5월 4일, 구술자 어머니 자택

신유진의 아버지는 같은 마을 재일조선인의 북송(北送)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 비판은 북송만이 아니라, 고향이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조국처럼 생각하는 총련지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다. 자식에게는 앞으로 조선 대신 한국이라는 표현을 쓰라고 당부했다는 것은 재일조선인 사회가 이념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자신의 이념적 지향을 감춰야 할 정도로 대립은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념 대립은, 다음의 한성수의 경험에서도 드러나듯 각 조직의 구성원 확보 경쟁으로 이어졌다.

나는 뭐 민단도 좋고, 총련도 좋고 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한다고 한 번 바꿨어요. 한국으로 바꿨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 아버지[鄭鴻永, 총련지부 위원장]가 와서 야단났어요. 그래서 다음날 가서 바로 돌렸어요. 누가 질렀는가, 질렸어요. 모르게 했는데. 나는 동생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왔다갔다 오고, 그 때 내가 분회장도 안하고 있을 때, 분회원하고 있을 때요. [위원장이] 앞으로 니가 분회장 해서 그 지도해야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sup>279)</sup>

나마제에 살고 있던 한성수는 한국에 있는 동생을 만나기 위해 국적변경을 신청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총련지부 위원장이 집으로 찾아왔고, 결국 국적변경을 포기했다. 설득의 근거는 분회장을 해야 한다는 것, 즉 향후 총련 조직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국적으로의 변경이 총련조직으로부터의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잠재적 일꾼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특히 다카라즈카는 재일조선인의 수가 많지 않고, 지역의 면적도 매우 좁았기 때문에 경쟁은 더욱 심했다.

이런 경쟁관계를 더욱 부추긴 것은 민족학교였다. 조선학교와 한국학교가 모두 설립된 곳은 도쿄, 오사카, 교토인데, 이 세 지역은 재일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 이면서 대도시이기 때문에 학교는 적당한 곳에 떨어져서 위치했다. 민족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학생을 사회화시킨다는 것이다. 민단계의 한국소학교가 한국의 영향을 받고, 총련계의 조선초급학교가 북한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양쪽 학교의 교육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재외동포, 북한재외동포를 길러내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카라즈카는 면적이 좁았고, 한국소학교와 조선초급학교가 강을 사이에 놓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학교를 둘러싼 대립은 필연적이었고, 동시에 매우 노골적이었다.

어른들 사이의 대립은, 다음의 이야기처럼 아이들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신유진은 조선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괴롭힘을 당했고, 무코가와에서 조선학교 학생을 만나 서로 다뤘던 경험도 있다.<sup>280)</sup> 이런 싸움과 대립의 원인은 추상적인 이념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소학교와 초급학교 사이에 교류가 없어서 서로에 대해 매우

279) 한성수(1932년생), 2015년 6월 18일, 분회 사무실

280) 신유진(1950년생), 2015년 6월 19일, 민단 사무실

무지했다는 것도 원인 중 하나였다. 한국소학교와 초급학교에서는 수업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각 조직의 재일조선인만을 위한 행사였다. 한국소학교는 도쿄, 오사카, 교토의 한국학원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고, 행사안내와 초청·방문 관계는 한국학원들 사이에서만 존재했다.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에도 한국소학교는 인근의 초급학교가 아닌 오사카의 금강학원이나 다카라즈카의 료겐소학교에 요청을 했다. 초급학교 역시 이타미, 산다, 카와니시 등의 조선학교와 교류관계를 구축했다.

민단지부 사람들은 한국소학교를 통해 한국과 관계를 맺었고, 총련지부 사람들은 초급학교를 통해 북한을 자신의 조국으로 인식했다. 한국소학교가 존재했던 14년 동안의 경험은 총련계의 재일조선인과는 공유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카라즈카 초급학교에서의 경험은 그들만의 고유한 기억이었다. 양자 사이에 교류가 단절되면서 이념적 대립에서 시작된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사회의 분할은 구체적인 경험의 차이로 이어졌고, 서로 다른 역사의 축적을 낳았다. 총련에서는 조련지부의 국어강습소를 민단지부에서 빼앗아서 학교를 세웠다고 기억했고, 민단지부에서는 윤코바 재일조선인의 소유였던 것을 정식으로 되찾은 것으로 기억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은 재일조선인 사회의 분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2) 일본에 대한 인식 차이와 당면과제

민단지부 관계자들은 한국소학교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이른 시기에 폐교했지만, 효고현 유일의 한국학교를 운영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민단지부는 일본으로부터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을 받았던 경험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눈앞의 ‘공산주의’로부터 윤코바의 재일조선인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이들과 직접 충돌한 것은 일본사회가 아닌 총련지부의 재일조선인이었고, 재일조선인 간의 대립이 더욱 시급한 문제였다. 민단지부와 다카라즈카 시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가 만들어졌다. 민단 사무실에 근무하는 오다 마리코는 시청을 방문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스스로 우리 아이를 [일본] 학교에 입학시키고 싶다고 부탁하러 가야했어요. 우리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켜주세요,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는 꼬박꼬박 내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써야만 했습니다. 부탁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없애달라거나 의료비 문제, 주거 문제 등 자주 부탁을 하러 가야만 하기 때문에, 다카라즈카 시청은 가까워서 많이 친밀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민단에 들어갔을 때는 외국인 등록과에서 만났던 분이 1년, 2년 지나고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러 과에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관계가 많아졌지요.<sup>281)</sup>

281) 오다 마리코(1949년생), 2015년 5월 3일, 민단 사무실

1962년 한국소학교가 폐교된 후, 학생들을 일본학교에 보내는 과정에서 민단지부는 다카라즈카 시청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에서 담당자와 점점 가까워졌다. 민단지부 사무실과 다카라즈카 시청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주 방문하며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했다. 민단지부와 다카라즈카 시와의 우호적인 관계는, 시에서 주최한 다카라즈카 마즈리에 민단지부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카라즈카 마즈리는 1972년부터 시작한 지역축제로, 민단지부는 1975년부터 시의 회의에 참석하고, 한국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장구팀과 사물놀이팀이 축제에서 공연을 했다.<sup>282)</sup> 반면에 총련지부는 개인적으로 축제에 방문하는 경우는 있지만 조직차원에서 출연하지는 않았다.

총련지부는 학교 설립 과정에서 민단지부와 물리적 충돌을 경험했고, 1949년의 일본 정부의 학교 폐쇄 시도에 맞서 온몸으로 학교를 지켰다. 이들에게 일본은 적이었고, 그것은 ‘개놈’이라는 과격한 언어로 표현되었다.<sup>283)</sup> 초급학교를 자주학교로 운영할 때에도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민단지부의 사람들보다 일본 정부의 차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총련지부의 재일조선인에게 초급학교의 유지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일본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민족정체성을 지켰다는 것의 증명이나 마찬가지였다. 초급학교는 윗세대의 저항정신과 자부심을 후세대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재환기시키는 공간으로서 기능했다. 때로는 조직을 넘어서서 학교가 더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김민철의 증언에서도 그런 인식이 드러난다.

난 이제 총련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학교, 거기는 갑니다. [행사 있다고] 연락 오면 꼭 갑니다. 여기 학교 선생님이 편지를 썼어요, 항상 와 주어 고맙다고. 와야. 나 그거 보고 눈물이 콧, 하하. 그래, 학교는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말 모르면 안되니까. 그래서 학교에 가고, 내가 안 가면 사람들도 꼭 찾고 하니까, 갑니다.<sup>284)</sup>

김민철은 총련 다카라즈카지부 선전부장을 역임하는 등 총련지부의 간부급 위치에 있었는데, 현재는 총련의 운영 방식이나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조직 활동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말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의 부친이 학교에 헌신했던 기억, 본인이 학교를 다닌 경험, 자식을 학교에 보냈던 책임감 등 스스로의 경험을 통

282) 民團 兵庫縣宝塚支部, 《第25回 定期大会》, 1975.6.1

283) 아리마 학교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개놈들이 박은 못과 뼈라를 뜯어내고 공부시켰지요.[김태삼(金泰三)]; 다음날 아침 개놈들은 투쟁참가자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해갔지요.[권교도(權敎道)]; 이 때(2차 학교폐쇄령)는 정말 결사적으로 학교를 지켰지요. 개놈이 강뚝(제방)에서 학교 안에 못 들어왔지요.[최주호(崔周鎬)]; 宝塚朝鮮初級學校, 앞의 책, 33~34쪽

284) 김민철(1946년생), 2016년 8월 4일, 구술자 자택



해 학교에 대한 애정이 만들어졌다. 김민철처럼 정치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을 떠날 수 없다는 사람도 있고, 조직을 떠난 후에도 학교의 행사에는 계속 참여하며 운영을 지원하는 사람도 있다.

2019년 현재 다카라즈카에는 더 이상 민족학교가 없다. 민단지부, 총련지부는 해마다 이탈자가 증가하고 있고, 조직의 결속력 역시 약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자는 서로 다른 해결책을 모색했다. 총련지부는 이타미 조선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보조금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해마다 삭감되고 있는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명운동, 집회 같은 집단 행동을 하고, 다카라즈카 시, 효고현과 협의도 이어갔다. 이타미의 재일조선인과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기금마련을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다카라즈카 초급학교는 비록 폐교되었지만, 이타미조선학교가 건재했기 때문에 총련지부로부터의 이탈을 억제하고 조직이 유지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민단지부의 경우 앞서도 언급했듯이 후속세대를 길러내지 못한 문제의 원인을 학교의 부재에서 찾고 어린이들과 그들의 젊은 부모를 민단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어린이 대상의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만들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지만 두 조직은 협조관계를 만들지 못했다. 민단지부는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조선학교의 교육이 이념적이라는 이유로 보조금 투쟁에 지원을 하지 않았고 총련지부 관계자는 이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sup>285)</sup> 민단지부에서는 조선학교를 활용해 학교 부재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었고, 총련지부에서는 민단지부와 협조해 다카라즈카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 없었다. 다문화공생을 표방하면서 여전히 동화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사회에서 양 조직이 선택한 것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이었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사회가 분할된 것은 추상적인 이념대립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각자의 민족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하고, 분리된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것이 더욱 크게 작용했다. 민족교육에 대한 생각도 달랐다. 민단지부는 좌경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총련지부는 우리말과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고, 총련 조직의 구성원을 길러내는 것을 민족교육이라고 생각했다. 조직과 학교를 통해서 축적한 경험은 민단지부와 총련지부 각 구성원의 고유한 역사였고, 서로 공유할 수 없었다. 재일조선인 공동체의 분할은 일본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를 만들었고, 당면한 과제에서도 협력 보다는 차이를 부각시켰다. 민단지부와 총련지부의 재일조선인은 서로 독립된 생활공동체를 구성하고, 대립하고 경쟁하면서 각각의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만들었다.

---

285) 학교란 것이, 민족의 교육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데[왜] [민단에서는] 도와주지 않을까나. 항상 의문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으면 모두 우리동포가 다 좋지 않습니까(심숙정(1954년생), 2018년 4월 18일, 구술자 자택).

## IV. 현안을 통한 지역사회 교류와 재일조선인의 재발견

### 1. 지역사회의 변화와 신경환 사건

#### 1) 1970년대 이후 다카라즈카의 인구사회적 변화

일본 사회에서도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도 1970년대는 변화의 시기였다. 일본정부는 인도차이나 난민의 일본 유입을 계기로,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외국인 정책을 전환했다.<sup>286)</sup> 1979년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며 공공주택 보급 시의 국적 조항을 삭제했고, 1981년에는 난민조약을 비준하고, 국민연금법, 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법, 아동수당법 등에 대해 적용하던 국적조항을 삭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 사회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이 국민이 아닌 주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sup>287)</sup>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으며 살아온 재일조선인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일본 각지에서 재일조선인이 참여한 주민운동이 시작된 것도 1970년대부터였다. 대표적인 지역은 가와사키(川崎), 오사카, 교토 등이다. 가와사키는 68학생운동 이후 혁신지자체장이 선출되었는데,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재일조선인기독교교회(KCC) 등이 협력해 차별반대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사쿠라모토(桜元) 지역을 중심으로 히타치(日立) 취직 차별 반대운동, 재일조선인 보육원의 인가 운동, 후레아이관(ふれあい館) 건립 활동이 전개되었다.<sup>288)</sup> 오사카부(大阪府)의 야오시(八尾市)에서는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이 중심이 되어 두꺼비어린이회와 야오친목회가 결성해서, 국적 조항에 따른 사회적 차별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sup>289)</sup> 이 과정에서 민단과 총련 같은 기존의 재일조선인 조직은 배제되었다. 교토의 히가시쿠조(東九条)에서는 조선인 거주지였던 히가시마츠노기(東松の木)의 정비를 위해 주민운동이 전개되었고, 이후 행정지반이 만들어지고,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는 등 환경이 개선되었다.<sup>290)</sup>

1970년대 이후 일본 내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 지역사회운동은 민단과 총련 외에 기독교계, 지역친목회 등 새로운 세력의 주도 하에 활발히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

286) 1975년 4월 30일 남북베트남 통일과 함께 대량의 인도차이나 난민이 발생하고, 일본정부는 이들을 임시로 수용했다가 1978년 4월 정주허가 방침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정책 방향을 보다 개방적인 쪽으로 바꾸게 되었다(田中廣, 『在日外国人 新版 - 法の壁, 心の溝』, 岩波新書, 1995, 156쪽).

287) 田中廣, 앞의 책, 158~162

288) 가와사키(川崎)의 사쿠라모토 지역에서는 히타치(日立) 취직차별반대운동을 시작으로, 재일외국인 특히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해 다양한 사회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재일대한기독교교회가 운동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히타치 투쟁에 참여했던 일본의 시민운동가, 대학생 등도 지역사회 변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가와사키에서 전개된 각종 사회운동과 그 성과는 다음의 도서를 참고로 하길 바란다. 星野修美, 『自治体の變革と在日コリアン - 共生の施策づくりとその苦悩』, 明石書店, 2005

289) 徐正禹, 「私の體驗的地域活動論」, 『在日』はいま、在日韓国・朝鮮人の戦後五〇年』, 靑丘文化社, 1996, 121~1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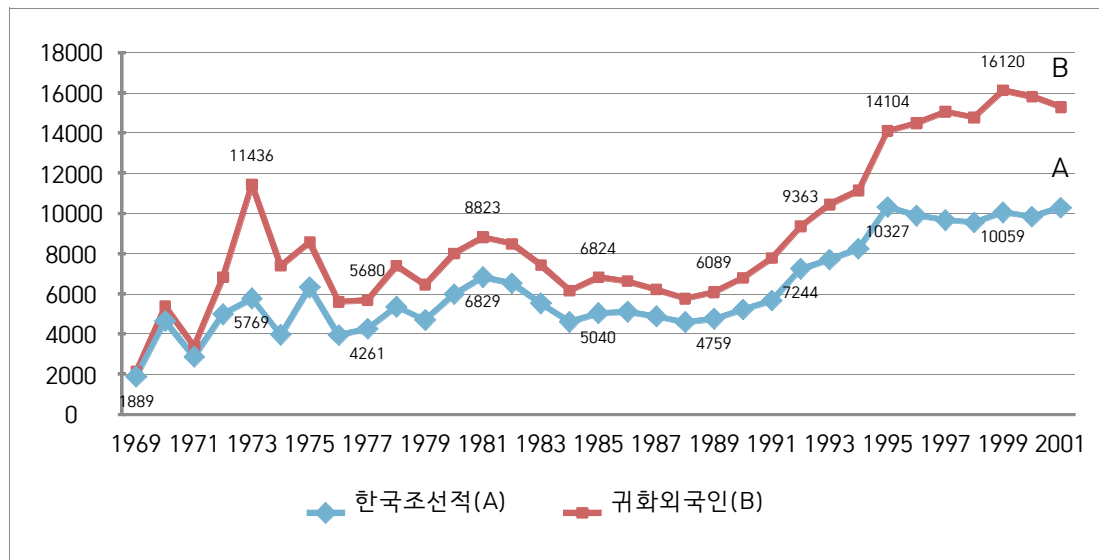
290) 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在日朝鮮人の生活と住民自治研究会 編著, 『在日外国人の住民自治-川崎と京都から考える』, 新幹社, 2007, 99~102쪽

일본인 주민과의 협조도 필수적이었다. 지역사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는 등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었다.

지역사회운동의 활성화 현상에는 재일조선인 사회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었다. 1970년대 이후 재일조선인의 세대교체와 함께 2세들이 조직 운영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재일조선인 2세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1세에 비해 본국지향성이 낮고, 향후 일본에서의 정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조선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자이니치(在日)’로서 일본에서 살아가야 하는 ‘제3의 길’에 대한 고민이었다.<sup>291)</sup> 이와 함께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차별, 민족교육, 정체성, 귀화 등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들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모임, 세미나, 회의 등이 개최되기도 했다.<sup>292)</sup>

그러나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지역사회운동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예로 든 가와사키, 오사카, 교토 등은 모두 재일조선인의 밀집도가 상당히 높고 기독교 교회처럼 새로운 조직이 있던 곳이다. 그 외의 지역에서 재일조선인은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었고, 많은 재일조선인은 사회운동 대신 일본으로의 귀화를 통해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1952년부터 1966년까지 재일조선인 41,151명이 일본국적을 취득했는데, 한 해 평균 약 2,939명이 일본의 국민이 된 셈이다. 1969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의 외국인 수와 한국·조선적 보유자 중 귀화한 사람의 수를 연도별 그래프로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11>과 같다.<sup>293)</sup>



<그림11> 외국인과 한국·조선적 보유자 중 귀화자 수

291) 飯沼二郎 編著, 『在日韓國·朝鮮人 - その日本社会における存在価値』, 海風社, 1988

292) 金石範(司會) 외, 「(座談会)‘在日’を生きる根拠とは何か」 『在日朝鮮人の歴史』, 彩流社, 1981

293) 日本 法務省民事局, <帰化許可申請者数, 帰化許可者数及び帰化不許可者数の推移>, 2017 ; 日本 総務廳統計局, <(第1表)男女別人口- 總人口(大正9年~平成12年), 日本人口(昭和25年~平成12年)>, 2000 ; E-start(<https://www.e-stat.go.jp/>)

<그림11>을 보면, 귀화외국인의 숫자 변화는 재일조선인의 변화의 경향과 거의 흡사하다. 이것은 전체 귀화자의 약 62~88% 정도를 재일조선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1년까지 전체 귀화 외국인의 대부분이 한국·조선적 소유자였고, 그 이후에는 다른 국적 외국인의 귀화도 증가하고 있다. 1969년부터 매년 적게는 2천명에서, 많게는 6천명의 재일조선인이 일본 국적을 선택했다. 1973년에 처음으로 5천명을 넘었고,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5년 이후에는 9천명에서 만 명 사이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귀화자의 증가는 지역의 재일조선인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적으로 귀화자가 증가하고 있을 때 다카라즈카 지역사회와 재일조선인 사회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었을까? 다카라즈카의 총인구 및 재일외국인, 재일조선인 인구의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13>과 같다.

<표13> 다카라즈카 한국·조선적외국인의 인구

| 연도   | 총인구(A)  | 외국인총인구(B) | 한국·조선적(C) | 비율(C/A) | 비율(C/B) |
|------|---------|-----------|-----------|---------|---------|
| 1956 | 57,118  | 1,720     | 1,626     | 2.8     | 94.5    |
| 1961 | 70,094  | 2,075     | 1,935     | 2.8     | 93.3    |
| 1966 | 98,381  | 2,298     | 2,168     | 2.4     | 94.3    |
| 1971 | 134,768 | 2,646     | 2,491     | 1.8     | 94.1    |
| 1976 | 166,007 | 2,886     | 2,674     | 1.6     | 92.7    |
| 1981 | 188,382 | 2,925     | 2,716     | 1.4     | 92.9    |
| 1986 | 197,493 | 3,193     | 2,906     | 1.5     | 91.0    |
| 1991 | 203,536 | 3,382     | 2,938     | 1.4     | 86.9    |
| 1996 | 203,781 | 3,458     | 2,907     | 1.4     | 84.1    |
| 2001 | 217,013 | 3,476     | 2,617     | 1.2     | 75.3    |
| 2006 | 220,288 | 3,410     | 2,447     | 1.1     | 71.8    |
| 2011 | 226,840 | 3,195     | 2,236     | 0.98    | 69.98   |
| 2016 | 225,228 | 2,942     | 1,840     | 0.82    | 62.5    |
| 2017 | 225,421 | 3,040     | 1,742     | 0.77    | 57.3    |

※ 출처 : 宝塚市外國人市民文化交流協會, 『わが宝塚わが同胞』, あさひ高速印刷, 1998, 80쪽 ; 宝塚市, 『宝塚市統計書』 (平成13年版, 平成18年版, 平成23年版, 平成28年版, 平成29年版,)

다카라즈카의 총인구는 계속 늘어났다. 다카라즈카 시가 탄생한 것이 1955년인데 그로부터 약 20여년이 지난 1976년에는 인구가 16만 명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했

다. 이렇게 증가한 인구는 다카라즈카 전역으로 퍼져 나간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밀집 거주했다. 1960년 국세조사에 따르면 다카라즈카 전 지역의 14.7%에 도시 전체 인구의 83.1%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sup>294)</sup> 바로 무코가와 인근의 료겐과 코하마였다.<sup>295)</sup> 한국·조선적 외국인도 료겐과 코하마에 밀집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주거는 이미 식민지 시기 이주 당시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다카라즈카 시에서 ‘한국·조선적 외국인’에 대해 인구조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56년이였다. 5년 단위로 다카라즈카의 한국·조선적 외국인의 인구 변화를 보면, 1991년까지는 그 수가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 대비, 전체 외국인 대비 한국·조선적 인구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즉, 다카라즈카에 일본인과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한국·조선적 인구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다.

1996년부터는 한국·조선적의 총인구가 줄어들었다. 자연증가를 고려할 때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이탈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그림11>의 ‘일본 내 외국인과 한국·조선적 보유자 중 귀화자 수’의 그래프를 보면 1995년 이후 귀화자가 만 명을 넘어서는데, 다카라즈카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귀화자가 상당수 발생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sup>296)</sup> 1956년에 다카라즈카 총인구 대비 2.8%를 차지하던 재일조선인은, 2017년에 그 비율이 0.77%로 줄어들었다. 재일외국인 중에서 차지하던 비율 역시 1956년의 94.5%에서 2017년에는 57.3%로 하락했다.

시 탄생 이후 다카라즈카 도시계획의 주요 목표는 관광도시이자, 오사카, 고베 등 대도시의 위성도시(베드타운)로서 성장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관광시설을 정비하는 동시에 주택지 건설이 추진되었고, 다카라즈카의 산업구조에도 변화가 생겼다. 1955년 17%를 차지했던 농업종사 인구는 1970년에 4%로 급감했다. 주택 건설 사업이 증가하면서 1970년대 제조업, 소매업 관련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50%에 달했다. 은행이나 상사(商社) 같은 전문직에 근무하는 사람도 1955년 16%에서 1970년 22%로 늘어났다. 나머지는 기능공·생산공·단순노무자, 판매종사자 등 서비스 직종 근무자였다.<sup>297)</sup> 이처럼 다카라즈카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한편에서는 화이트칼라 직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역시 이 산업구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텐데, 사실 재일조선인의 직업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1957년 한국소학교에서는 학교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은코바 마을 사람들의 직업상황을 부분적이거나 조사한 일이 있다. 그 자료를 정리한 것이 <표14>이다.

294) 宝塚市篇, 앞의 책, 574쪽

295) 지금도 북쪽의 니시타니촌이나 나가오촌의 경우 산지가 많고, 화훼단지 등이 조성되어 있어 인구 밀도가 낮다. 료겐과 코하마는 다카라즈카의 중심지로 일제시기부터 인구밀도가 높았는데, 식민지 시기 그리고 해방 후 대규모의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구는 더욱 증가했다.

296) 다카라즈카의 한국·조선적 외국인 중 귀화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 각종 통계자료, 다카라즈카 시 발생 자료를 비롯해서 관련 논문을 검토했으나, 지역별로 귀화자수를 조사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 자료의 미비로 다소 거칠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다.

297) 宝塚市篇, 앞의 책, 576~577쪽

<표14> 민족진영 500여명의 생활상황

| 직업종류        | 인원    | 비율  |
|-------------|-------|-----|
| 일용노동자       | 100여명 | 20% |
| 직업안정노동자     | 350여명 | 70% |
| 일본정부민생보호대상자 | 50여명  | 10% |

※ 출처 : 宝塚韓國小學校發(先輩諸賢, 親愛なる在日同胞みなさん受信, 宛先不明), 〈學校支援の趣旨書〉, 《學校の実情並びに新年度豫算報告》, 1957년 1월 21일  
 ※ 원조사에서는 900여명의 생활상황을 조사했으나 이 중 400여명은 유소년과 노인으로 노동불가능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나머지 500여명에 대한 내용만 기재했다.

1957년 당시 민단체 재일조선인 중 노동가능인구였던 500명의 직업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일용노동자이다. 350명의 직업안정노동자가 있지만, 이들 역시 안정소(安定所)를 통해 그날그날 새로운 일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대우나 노동조건 등이 일용노동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sup>298)</sup> 특히 재일조선인의 경우 일제시기 노동이주를 할 때부터 공사현장에서 일했고, 땅이나 건물을 구입한다든지, 다른 안정적인 수입원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해방 후에도 건설현장에서 육체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sup>299)</sup> 구술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직업의 상황은 <표15>와 같다.<sup>300)</sup>

<표15>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직업분포

| 종류    | 제조업  |      |      | 사무직 | 가게 | 교사 | 주부 | 기타 | 합계  |
|-------|------|------|------|-----|----|----|----|----|-----|
|       | 토목건설 | 트럭운전 | 회사근무 |     |    |    |    |    |     |
| 인원(명) | 5    | 2    | 2    | 3   | 7  | 2  | 5  | 1  | 27  |
| 비율(%) | 19   | 7    | 7    | 11  | 26 | 7  | 19 | 4  | 100 |

※ 참고 : ① 제조업의 토목건설은 본인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이다.  
 ② 트럭운전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일하는 것이다.  
 ③ 회사근무는 오사카쇄석(大阪碎石)의 근무를 말한다.  
 ④ 사무직은 모두 민단지부, 총련지부 사무실 근무이다.  
 ※ 조사 인원의 근무 시기는 대략 1960~1990년대이다.

298) “지역 사람들은 아버지는 일용노동에 나가고, 어머니는 안정소(安定所). 정부가 운영하는 일이죠. 노동자로 고용하는. 그 사람들은 학교에 잡초를 정리하는 일이나 도로 정비나, 여성들은 안정소에 가서 하루에 뒤편 일을 해서 돈을 받거나 하는 그런 일상이었지요.” 오다 마리코(1949년생), 2015년 5월 3일, 다카라즈카 민단지부 사무실 : 안정소는 일본정부가 운영하는 일종의 직업소개소이다.

299) 여기(다카라즈카)에 살고 있는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인은 많은 적든 토지가 있었지요. 옛날에 다카라즈카 사람들은 이 토지에서 자기의 밭에서 쌀을 키워서 생활했습니다. 뒤편지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살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노가다 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건설업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宝塚市外國人市民文化交流協會, 『わか宝塚わか同胞』, あさひ高速印刷, 1998, 36쪽).

300) 구술인터뷰 대상자 34명 중 뉴커머 3인과 일본인 2인, 그리고 재일조선인 3세 2인을 제외한 27명의 직업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재일조선인 3세를 제외한 것은 연령차이가 많이 나서 1970~80년대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려서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표에서 직업분포 상황을 조사한 이들은 대부분 1960~90년대에 일을 한 재일조선인 2세대들이다.

27명의 직업을 보면 토목건설 및 트럭운전 등 제조업과 관련된 직종이 33%로 가장 많고, 다음이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로 26% 정도이다. 가게는 대부분 식당이나 주점이었다. 결혼하고 직업을 따로 갖지 않는 여성도 19% 정도였는데, 이들도 비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무직 여성 3인은 모두 민단지부와 총련지부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제조업 분야가 특히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재일조선인의 경우 그 부친이 대부분 토목 건설과 관련된 제조업 분야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역시 같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1957년 한국소학교 조사에서 대부분이 일용노동자인 것과 비교하면, 직업에 있어서 안정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자기 회사나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의 숫자도 적지 않고, 생산적이긴 하지만 회사에 취업해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직업상황 전체를 살펴보다라도 화이트칼라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1970년대 다카라즈카의 화이트칼라 비율이 22%였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재일조선인의 직업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재일조선인의 직업분포가 다양하지 않았고 토목과 관련된 회사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재일조선인들은 같은 직종에서 만날 기회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 남성의 경우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면 대부분 오사카쇄석에서 일을 했다. 쇄석이란 돌산의 바위를 부수어 인근의 공장에서 공업용으로 재가공하는 것으로, 오사카쇄석은 1925년 쇼도시마(小豆島)에서 창업한 회사이다. 1934년 오사카쇄석공업소(大阪砕石工業所)로 출발했고, 1938년에는 나가오야마(長尾山)와 그 일대에 다카라즈카 공장을 설립했다.<sup>301)</sup> 이 공장에는 다카라즈카 출신 재일조선인이 많았다. 총련지부의 한성수와 민단지부의 김태호도 오사카쇄석에서 만났다. 한성수는 두 사람의 친분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질문 : 민단 단장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였나요?) 친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서. 그리고 옛날부터 이 처가가 동네[온코바]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가와 민단 단장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문제없었지요. (...중략...) 그래서 내가 민단 단장한테 자꾸 돈 부쳤어요.[한국의 동생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함] 그 단장이 내한테 민단 하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해요. 돈 몇 푼 부쳐주면서. 카네시로라고 그 단장이 오래 했어요. 나는 민단도 친하게 지내고, 총련도 친하게 지내고.<sup>302)</sup>

한성수는 민단지부의 12, 13대 단장을 역임했던 김태호(金泰浩)와 오사카쇄석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친해졌다. 한성수의 처가가 온코바에 있었고, 그 가족들과 김태호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속해 있는 조직은 달랐지만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보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성수는 국적이 조선

301) <http://www.osakasaiseki.co.jp/>

302) 한성수(1932년생), 2015년 6월 18일, 분회 사무실

적이어서, 한국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김태호를 통해 부산에 있는 동생에게 돈을 보내곤 했다. 인간적으로 사귀는 과정에서 민단이나 총련 같은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서로 화제에 올리지 않았다.

김두함 역시 트럭을 구입해서 독립적으로 운수업을 하기 전 오사카쇄석에서 일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 중 상당수가 재일조선인이었고, 동료들과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다니는 등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친목관계를 다졌다고 말했다. 김두함에 따르면 일할 때는 민단이나 총련 같은 이념적 차이는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sup>303)</sup> 오사카쇄석에는 일본인도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정치적인 문제 등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민단지부와 총련지부처럼 이념적 지향이 다른 재일조선인 조직이 만들어져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서로 간에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다카라즈카에는 두 개의 민족학교가 설립되어, 각자 행사를 진행하는 등 조직운영에 있어서 교집합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호의 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생활의 공간인 직장에서는 재일조선인, 일본인이 모두 섞여서 일을 하고 있고, 민단, 총련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일본인, 조선인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더욱 많았고, 서로에게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화제에 잘 올리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념과는 별개의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젠더적 차이가 있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의 빈도가 낮아서 가족관계로 얽여 있지 않으면 사회생활 중에 이념을 넘어서서 친구 관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 2) 신경환 사건과 재일조선인의 지역사회 출현

1973년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과 관련해서 전국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사자의 이름을 따서 ‘신경환(申京煥) 사건’으로 불린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 6년에 걸쳐 다카라즈카와 도쿄를 오가며 진행된 신경환 사건은, 다카라즈카 지역사회와 재일조선인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신경환은 1948년 1월 15일에 다카라즈카 율코바에서 태어났다. 효고현립아리마(兵庫縣立有馬)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신경환 혼자만 취업처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1965년 3월에 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친척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1968년 친구들과 함께 강도 사건을 저지르고 체포되었다. 신경환은 망을 보는 역할이었는데, 입구에서 실랑이가 벌어질 때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수건을 건네며 말을 걸었다가 ‘인물특정’이 되어 강도치상죄(強盜致傷罪)가 성립되었다. 일반강도죄의 적용을 받은 동료들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6년 반을 복역하다가 1973년 9월 20일 형무소를 출옥했다. 그런데 출옥하자마자 한국으로의 강제송환이 결정

303) 김두함(1934년생), 2015년 5월 2일, 구술자 자택



되면서 다시 오무라수용소(大村收容所)에 갇히게 되었다. 그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다카라즈카와 고베, 도쿄 등 여러 지역의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모여 1973년 12월 ‘신경환군을 지원하는 모임(申京煥君を支える会, 이하 ‘지원모임’)'을 결성했다. 1978년 9월 11일 선고 때까지 총 22회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지원모임은 재판을 지원하고, 주요 지역에서 강연회 및 집회를 개최하고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원모임은 최종 활동 보고를 하고 1979년 3월에 해산했다.<sup>304)</sup>

신경환 사건은 다카라즈카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는 1965년 한일법적지위협정(韓日法的地位協定)에 의해 만들어진 강제송환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입국관리법에서는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이 강제송환의 대상이 되었는데, ‘협정영주(協定永住)’ 취득자의 경우 7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강제송환의 대상이 되었다.<sup>305)</sup> 협정영주자이면서 8년형을 선고받은 신경환이 그 첫 번째 대상자였다. 신경환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다른 재일 외국인들 역시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한국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sup>306)</sup> 지원모임은 다음의 이유로 강제송환을 반대했다. 신경환의 가족이 모두 일본에 있고, 한국에는 연고가 없으며, 그는 한국말도 잘 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강제송환은 사회적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로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신경환은 재판에서 승리했고, 오무라수용소에서도 풀려났다.

신경환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은, 당시 고쿠라 교회의 목사이자 1세대 재일조선인 인권운동가였던 최창화(崔昌華)였다.<sup>307)</sup> 최창화 목사가 신경환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것은 그가 신경환의 가족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다. 1958년 최창화는 그의 부인, 아들과 함께 다카라즈카에서 2년 정도 살면서 한국소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했고, 다카라즈카 교회를 설립해서 운영했다. 당시 다카라즈카 교회의 모습이 다음의 <그림12>와 같다.<sup>308)</sup>

304) 飛田雄一, 「‘申京煥君を支える会’の記録 - 協定永住取得者初めの‘強制送還’との闘い」, 『むくげ通信』 265, 2014, 1쪽

305) 한일 법적 지위 협정은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체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식민지 이전에 왔거나 혹은 1960년 전에 왔더라도 계속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당사자와 자손들이 소정의 절차에 맞춰 영주권을 신청하면 일본에서의 영주를 허가하는 것이다. 이 협정의 제3조에는 협정 영주자가 일본에서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다. 신경환에게 적용된 것은 ‘(d)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자’를 강제로 퇴거시킨다는 항목이었다.

306) 『중앙일보』 1973.11.15, ‘소년 때 강도로 8년 복역[재일교포 청년 강제송환]’ ; 『중앙일보』 1973.11.23, ‘재일 교포 청년 강제 퇴거조치-일 법원서 집행정지 결정’

307) 최창화는 1930년 평안북도 선천 출생으로, 1954년 밀입국으로 도일(渡日)했다. 1960년 기타큐슈(北九州)에 재일대한기독교회 고쿠라(小倉) 교회를 창설해 목사가 되었고, 이후 재일조선인의 권리 획득을 위한 다양한 인권운동을 전개했다. 참정권획득운동, 지문날인거부운동을 주도했고, 특히 1975년 NHK 방송을 상대로 한자 이름을 일본식이 아닌, 한국식 그대로 불러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308) 이 사진은 현재 민단 다카라즈카지부에서 보관중인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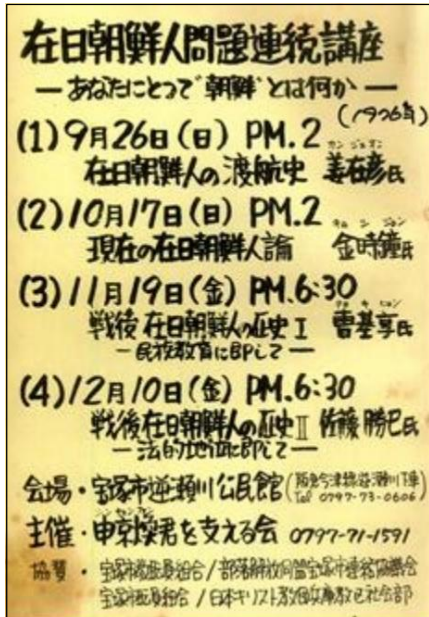
<그림12> 다카라즈카교회 창립1주년 기념

<그림12>의 사진은 다카라즈카교회 창립1주년 기념사진이다. 가운데에 의자에 앉아 있는 두 사람 중 오른쪽이 최창화이고, 뒤쪽 열의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여성이 신경환의 어머니 김필련(金弼連)이다. 다카라즈카 교회는 전도소로 출발했지만, 1958년 정식 교회가 되었고, 1959년에 1주년 기념행사도 개최했다. 최창화는 신경환의 담임이기도 했는데, 신경환의 여동생인 신유진(申点粉)은 어린 시절에 최창화가 자신의 집을 방문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sup>309)</sup> 선생님과 학생·학부모의 관계로 만났지만, 신경환의 집에서 최창화의 아이를 돌봐주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김필련은 다카라즈카 교회에 다니면서 신도가 되었고, 신유진 역시 어린이 일요교회를 다녔다. 1960년 최창화가 큐슈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에 소식이 끊어졌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연락이 닿은 것이다. 최창화는 김필련과 신유진에게 도쿄의 변호사를 소개해주었고, 당시 가와사키에서 인권운동을 하고 있었던 이인하(李仁夏) 목사를 비롯해 재일조선인 교회, 일본교회 관계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sup>310)</sup>

최창화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대외적으로 크게 알려질 수 있었고, 교회 관계자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받을 수 있었다. 동시에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재일조선인 인권운동가들과 연구자들이 지원활동에 참여했다. 지원모임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는 각 지역에 배포되었다. 지원모임은 다카라즈카와 고베가 중심이었지만,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각 지역의 사회운동조직은 신경환 사건을 계기로 재일조선인 일반의 차별문제를 공론화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의도는 다음 <그림13>의 당시 강연회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09) “다카라즈카 한국소학교가 여기 근처에 있으니, 가정방문 있잖아요, 학생들이(학생들 집에). 그래서 우리 집도 오시고, 형제가 많으니까. 목사님 큰 아들 키우는 거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 셋째 언니가 맡았어요. 그래서 다른 집보다 우리 집을 자주 왔다, 다녔지요. 최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신유진(1950년생), 2017년 6월 26일, 민단지부 사무실

310) 田中伸尙, 『行動する預言者 崔昌華-ある在日韓国人牧師の生涯』, 岩波書店, 2014, 47쪽



<그림13> 지원모임 주최 강연회

재일조선인문제연속강좌  
- 당신에게 '조선'이란 무엇인가 (1976년)

- (1) 9월 26일(일) 오후2시  
재일조선인의 도항사 - 강제언
- (2) 10월 17일(일) 오후2시  
현재의 재일조선인론 - 김시중
- (3) 11월 19일(금) 오후6시30분  
전후 재일조선인의 역사 I  
민족교육에 대해서 -조기정
- (4) 12월 10일(금) 오후6시30분  
전후 재일조선인의 역사 II  
법적지위에 대해서 - 사토 가즈미

장소: 다카라즈카 사카세가와 공민관  
주최: 신경환군을 지원하는 모임  
협조: 다카라즈카 시 공무원조합, 부락해방동맹 다카라즈카 시지부협의회, 다카라즈카 시 교원조합, 일본 기독교단 효고교회 사회부

<그림13>은 1976년 지원모임에서 주최한 재일조선인문제연속강좌의 안내문이다. 주제부터가 “당신에게 있어서 ‘조선’이란 무엇인가(あなたにとって‘朝鮮’とは何か)”로, 신경환 문제 보다는 오히려 재일조선인의 도항사 및 해방 이후 정주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 강좌 안내문에 연속강좌에 대해 협조를 했던 여러 주체들이 나오는데, 다카라즈카에서 신경환을 지원했던 이들의 면면도 확인할 수 있다. 신경환에게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사람은 다카라즈카 후쿠이쵸의 후쿠이교회(福井教會) 목사였던 가와하타 사토시(川端諭)였다. 가와하타는 지원모임의 대표직을 맡았고, 지원모임의 사무국 회의도 교회에서 진행되었다. 신경환의 여동생 신유진 역시 후쿠이 교회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던 오다 마리코의 도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바바(馬場)씨에게도 우리 오빠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때 바바씨가 교회에 가져가자고 해 주었고, 그래서 기독교 사람들이 모두 움직여주었어요. (...중략...) 바바씨 하고는 민단에서 아는, 동네 아는 사이라서, 그 바바씨가 다니던 일본교회에도. (질문 : 이 근처에 있는 교회였나요?) 후쿠이쵸(福井町)라서 조금 떨어집니다만, 일본 사람 교회. 거기서 교배교회, 뭐 일본 전국교회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변호사도, 도쿄에 있는 변호사도 크리스찬이고. 우리 엄마, 우리 엄마하고 저를 보고 제가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만났을 때 이거를 내가 모르는 체 하고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못 만나겠다고 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무료로.<sup>311)</sup>

신유진은 어떻게 오다 마리코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아버지들끼리 서로 친분관계가 있었으며, 후쿠이 교회로부터의 요청도 있었다.<sup>312)</sup> 신유진은 오다 마리코를 통해 교회의 일본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고 도쿄와 다카라즈카를 오가는 동안 오다 마리코는 신유진과 함께 움직였다. 당시 민단지부의 12대 단장이었던 김태호가 도쿄 재판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다.<sup>313)</sup>

김태호나 오다 마리코 같은 민단지부의 인물들이 개인적으로 신경환 사건에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민단지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는 못했다. 1973년의 24회 정기총회부터 1980년의 27회 정기총회 자료를 보면, 전체 보고에서도 또 월별 활동내용을 정리한 일정표에서도 신경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신유진 역시 일본교회의 도움은 여러 번 말했지만, 민단의 도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 강연회 당시 협조의 주체로 민단의 이름이 없는 것을 보더라도 당시 민단지부가 이 사건에 대해 주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경환 사건은 약 6년 동안 진행되었다. 다카라즈카에 살고 있던 일본인 중 일부는 후쿠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다카라즈카에서 개최된 몇 차례의 집회와 강연을 통해 신경환 사건을 접할 수 있었다. 그동안 지역 안에서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았던 재일조선인을 의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다카라즈카의 공무원노조, 교원노조 역시 재일조선인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고, 후술하겠지만 1980년대로 넘어가면 다카라즈카에서 재일조선인의 각종 문제를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신경환 사건을 전국적 이슈로 만들고, 재판과정을 지원한 사람들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자, 인권운동가, 종교인 등이다. 반면에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 조직은 민단지부와 총련지부가 거의 유일했고, 교토나 가와사키처럼 시민사회운동을 주도할만한 제3의 세력도 없었다. 민단지부에서 진행하는 총회 때마다 조직화의 필요성이 과제로 제시될 정도로 사회운동의 실천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직 차원에서 신경환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총련지부의 재일조선인들도 당시 신경환의 이름과 재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역시 특별한 지원은 없었다.<sup>314)</sup> 그러나 조직이 없었더라도 이 일에 관계 했던 재일조선인은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신유진의 향후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신유진이 사회운동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80년대의 지문날인거부운동이다. 신유진은 지문날인거부운동에 대한 소식을 신문에서 보고, 본인도 거기에 참여해야겠다고 결심한 후 시역소를 방문해 지문날인을 거부했다. 아들이 일본학교

311) 신유진(1950년생), 2017년 6월 26일, 민단 사무실

312) 윤코바의, 우리 동포의 일이었으니까요. 교회도 요청이 있었지만, 신씨하고는 원래 알고 있던 사이였고. 역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어요(오다 마리코(1949년생), 2018년 5월 10일, 민단지부 사무실).

313) 김태호 외에 이쿠마 이치로(井熊一郎)라는 인물도 재판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없어서 일본인인지 재일조선인인지, 윤코바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신유진과 오다 마리코 역시 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314) 정양식(1959년생), 2017년 8월 27일, 구술자 자택

를 다닐 때 따돌림을 받아 등교거부를 하게 되자 학교를 찾아가 담임, 교장 등과 면담을 하고 교육청에 탄원서를 써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고, 재일조선인 출신 보조교사를 학교에서 고용해서 학생들의 생활을 지원하도록 했다.<sup>315)</sup> 1992년에는 효고현재일외국인보호자회(兵庫県在日外国人保護者の会, 이하 ‘보호자회’)의 결성을 주도하고 대표로 취임하고, 2015년까지 왕성한 활동을 했다. 보호자회는 일본 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과 다문화공생교육을 실천하는 단체로, 한국 요리 실습, 한국 문화 및 놀이체험,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05년 무렵 신유진은 보호자회의 대표이면서, 전국재일코리안보호자회부회장(全国在日コリアン保護者会副会長), (사)오사카국제이해교육연구센터((社)大阪国際理解教育研究センター) 이사직을 맡을 정도로 열성적으로 활동했다.<sup>316)</sup> 2018년 현재는 민단지부 부인회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신유진은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힘들다는 것은 일단 옆으로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일본사람은] 재일조선인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근현대의 역사, 식민지 지배를 했던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략...) [우리의 역사를] 전달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제 인생에서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sup>317)</sup>

신유진은 일본 각지에 재일조선인이 살고 있고 그들의 삶에는 정당한 역사적 연원이 있었음을 일본인에게 알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이런 활동의 원천에 대해 신유진은 엄마가 된 이후에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안되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지만 신경환 사건도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신유진은 도쿄와 다카라즈카, 가와사키 등을 오가며, 수많은 연구자와 활동가들을 만났고, 탄원서를 작성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국단위 사회운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신유진은 자신의 활동 영역을 다카라즈카로 제한하지 않고, 여러 지역에 걸쳐서 활동했다. 다카라즈카 출신으로, 전국단위의 활동을 전개하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 신유진인 것을 고려하면, 신경환 사건의 경험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경환 사건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던 민단지부와 총련지부는 1980년대 이후가 되어서야 조직 차원의 대응을 시도하게 된다.

## 2. 지역현안과 재일조선인·일본인의 공동대응

315) 신유진(1950년생), 2015년 6월 19일, 민단 사무실

316) 三重県在日外国人教育研究協議会, 〈第6回三重県在日外国人教育研究大会〉, 2005년 1월 29일

317) 신유진(1950년생), 2015년 6월 19일, 민단 사무실

## 1) 니시다가와 마을의 홍수와 피해보상 협상

식민지 시기부터 무코가와 인근에는 많은 재일조선인이 살고 있었다. 1933년 한 차례 강제퇴거 조치가 있었지만, 해방 이후에도 바라크라고 불리는 판잣집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다. 이 집들은 대부분 무허가였고, 홍수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었다. 1961년 효고현은 무코가와 불법 점거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상은 아마가사키, 니시노미야, 이타미, 다카라즈카의 638세대, 2127명이었다. 1961년 7월 28일 아마가사키에서 강제집행이 있었다. 이타미와 다카라즈카에서는 집단거주지를 알선하고 그 쪽으로의 자진 퇴거를 유도했다.<sup>318)</sup> 당시 다카라즈카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한 곳은 니시다가와(西田川) 마을이었다.

니시다가와는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형성된 마을이 아니라, 행정력에 의해 집단거주지로 선택되면서 임의로 조성된 마을이다. 1961년 당시 재일조선인 39세대, 일본인 18세대 총 57세대가 니시다가와로 이주했다.<sup>319)</sup> 1964년에는 산코마(三工場)의 조선인 마을에 대한 강제퇴거가 집행되었고, 조선인 8세대, 일본인 1세대가 니시다가와로 이주했다. 1966년에 다시 무코가와 폐천부지의 조선인 7세대를 니시다가와로 이주시켰다.<sup>320)</sup> 이로써 니시다가와 마을에는 총 73세대가 이주했고, 이 중 재일조선인이 54세대, 일본인이 19세대였다. 마을의 전체 호(戶) 중 약 74%가 재일조선인이었다.

1983년 9월 24일 태풍10호가 일본을 강타했다. 큐슈(九州)를 지나 26일에 다카라즈카에 상륙한 태풍은 그 날 밤 12시 30분부터 19시까지 총 312mm의 비를 뿌렸는데, 특히 15~16시 사이에 64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무코가와가 범람하면서 국도 176호선 일부 지역에 통행금지가 내려졌다. 가옥이 전체 침수된 것이 78호(戶), 일부 침수된 것이 173호였다.<sup>321)</sup> 다카라즈카 시 전체에서 특히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니시다가와(西田川) 마을이었다. 다카라즈카에서 전체 침수된 가옥 78호 중 53호가 니시다가와의 가옥이었다. 53채의 가옥 중 조선인가옥과 일본인가옥의 수는 알 수 없지만, 니시다가와의 전체 호 중 73%가 조선인호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53채의 피해 중 39채가 조선인 가옥이고 14채가 일본인 가옥이 된다. 조선인의 피해가 2.7배 정도 많은 셈이었다. 니시다가와에서 홍수를 직접 겪은 정홍영은 당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완전히 순식간의 일이었다. 허를 찔린 사람들은 무엇 하나 꺼낼 틈도 없이 문자 그대로 몸만 챙겨서 피난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일을 하러 나가서 빈 집이 많았는데, 경보를 들은 남자들은 가족을 피난시키기 위해 급히 돌아왔고, 분담해서 노인, 병자, 어린이들을 등에 업고 허리까지 올라온 물속을 가르며 필사적으로 마을을 빠져나갔

318) 尼崎地域研究史料館 編, 「武庫川原の立ち退き問題」, 『Web版尼崎地域史事典-apedia』,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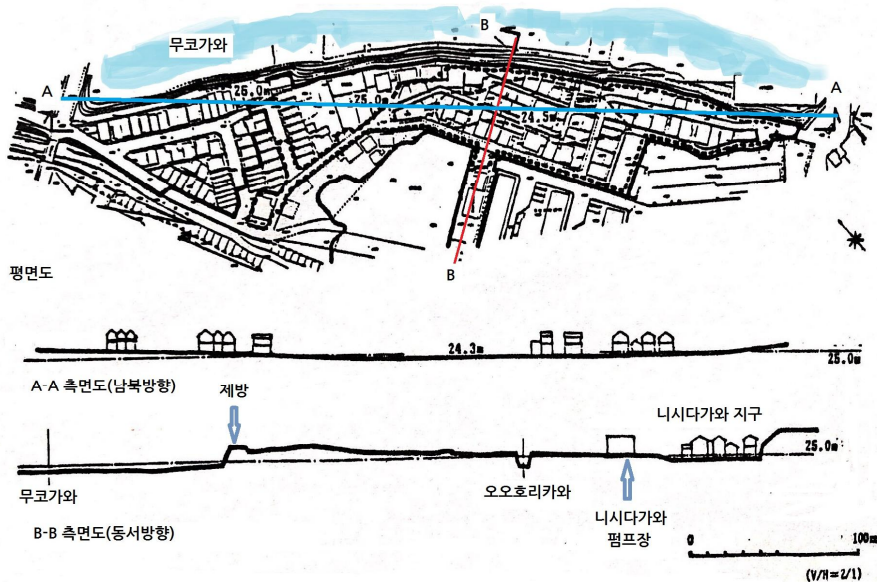
319) 1961년의 강제퇴거 과정은 효고현 하천과에서 만든 자료에 상세한 내용이 있다(兵庫県 河川課, 《昭36, 實施 武庫川不法占據關係》, 1961).

320) 鄭鴻永, 앞의 책, 149~151쪽

321) 兵庫県, 《武庫川水系河川整備基本方針 流域及び河川の概要に関する資料》, 2009.03

다. 침수가 시작되고 겨우 20분 후에 물은 가옥의 1.5~2미터까지 차올랐고, 더 이상은 위험해서 마을에 들어갈 수 없었다. 빗발은 조금씩 약해졌지만 마을을 집어삼킨 물은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 (...중략...) 공포와 불안의 하룻밤을 보내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물이 빠진 집에 가보니, 너무나 참혹한 광경에 모두 망연자실했고 말도 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집이 천정 근처까지 물이 차올랐고, 몇 시간이나 침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을 머금어서 팽창한 다다미(畳)는 들뜬 채였고, 뒤집어진 것도 있었다. 그 위에 장롱, 텔레비전 등이 포개지듯 넘어져 있었고,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가재도구, 의류, 침구, 취사용구부터 아이들의 교과서까지 쓸 수 있는 물건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화장실 오물이 묻은 의류와 이불은 세탁도 할 수 없었고, 모두 버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322)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자 무코가와가 제방을 넘어서 범람했고, 침수가 시작된 지 20분이 경과하자 가옥의 1층이 모두 물에 잠겼다. 마을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긴급피난장소로 지정된 아쿠라소학교(安倉小學校) 강당에 모였다.323) 피해는 심각했다. 특히 가옥이 장시간 침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의 벽과 바닥이 망가졌고, 일부는 붕괴가 시작되었다. 니시다가와 자치회의 조사에 따르면 마을의 전체 피해 규모는 거의 2억 엔에 육박했다. 니시다가와 마을은 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을까? 니시다가와 마을의 지형단면도는 <그림14>와 같다.324)



<그림14> 니시다가와 지형 단면도

<그림14> 하단의 B-B 측면도를 보면, 니시다가와 마을이 양 옆의 지반보다 더

322) 鄭鴻永, 앞의 책, 145쪽

323) 『神戸新聞』 1983.09.29, ‘不安な一夜 武庫川の増水で近くの小學校に避難した住民’

324) 宝塚市, 『西田川地區環境整備事業報告書』, 1984 ; 鄭鴻永, 앞의 책, 148쪽 재인용 ; 일본어 표기는 한국어로 바꾸고, 새로 선을 그리고 주요 지점을 추가로 표시했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단의 A-A 측면도에서도 니시다가와 마을은 인근 지역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가운데가 움푹 패여 있는 형태의 땅 위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물이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고이면 밖으로 빠져 나가기 어려운 구조를 하고 있었다. 만약 니시다가와 옆에 있는 오호리카와(大堀川)의 물이 범람한다면, 지형이 높은 왼쪽 대신 니시다가와 마을이 있는 오른쪽으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가 무코가와와 오호리카와가 합류하는 지점과 니시다가와 마을이 가까웠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무코가와와 물이 늘어나면 오호리카와도 함께 영향을 받았다. 이처럼 니시다가와는 지형 자체가 홍수에 취약했다. 마을 조성 단계부터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텐데, 배수 시설 등 홍수를 대비할 만한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았다.<sup>325)</sup> 실제로 1983년의 홍수는 무코가와와 물이 제방을 넘어 범람하면서 오호리카와로 흘러들었고, 오호리카와가 함께 범람하면서 가장 지반이 낮았던 니시다가와 마을로 모든 물이 흘러들어오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

홍수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민족과 국적의 구분은 없었다. 홍수 피해는 특정 민족,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시민들이 보낸 생필품과 위로금이 대피소에 도착했고, 총련의 여성동맹원들이 2주일 동안 매일 하루 세끼의 식사를 준비했으며, 민단의 부인회에서 쌀과 반찬을 사는 비용을 제공했다.

피해복구를 하는 동시에 피해당사자들은 효고현, 다카라즈카 시와 피해보상협상을 진행했다. 행정당국에서는 홍수가 자연재해로 인한 천재(天災)라고 주장했고, 주민들은 니시다가와가 자연적으로 조성된 마을이 아니었고,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데에도 사전에 침수 대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측에서는 민단 다카라즈카지부단장, 총련 다카라즈카지부위원장, 그리고 일본인 자치회장이 대표로 참여했다. 재일조선인의 경우 행정당국과 협상을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각 조직의 단장 혹은 위원장을 대표로 내세웠다.

교섭은 피해당사자와 다카라즈카 행정당국 사이에서 진행되었지만, 재일조선인측은 협상과정에서 힘을 얻기 위해 인근 학교의 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니시다가와 마을의 주민이면서 가옥침수의 피해당사자이고, 총련지부의 위원장 출신이었던 정홍영은, 아쿠라중학교(安倉中學校)의 직원연수회(職員研修會)를 방문해서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일본교직원조합(日本教職員組合, 이하 ‘일교’) 소속 교원들에게 협상 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sup>326)</sup> 우선 아쿠라중학교는 니시다가와 인근의 학교였기 때문에 피해자 중에는 아쿠라중학교 출신자들이 있었다. 학생들의

325) <그림15>의 단면도에는 펌프장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수 피해 이후에 새롭게 만든 것이다. 홍수는 1983년도에 발생했는데, 그 해 니시다가와 펌프장이 만들어졌다. 이 단면도는 1984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펌프장이 표시되어 있다.

326) 당시 아쿠라중학교의 교원이었던 모리 신이치는 이 때 처음으로 정홍영을 만났다. 모리 신이치는 1950년 오카야마현 출신으로, 29살에 다카라즈카 제일중학교에 부임해왔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다카라즈카에 살고 있다. 홍수가 발생했던 당시에는 아쿠라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모리 신이치 역시 신경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무렵에는 다카라즈카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깊게 관여하지는 않았다. ; 모리 신이치(1950년생, 다카라즈카 교원), 2018년 5월 2일, 사카세가와역 키사텐



학교, 혹은 모교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 일교 소속 교사들은 신경환 사건 당시 지역의 주요 협조 주체들 중 한 단체였기 때문에 재일조선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었다. 또 사사키 기분(佐々木基文) 같은 일교소속 교사가 초급학교를 방문해 교류관계를 구축하는 등 홍수 이전에 이미 양자 사이에 어느 정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재일조선인 학생들이 초급학교에 등교할 때, 인근 중학교의 일본인 학생들이 ‘조선학교 거지 학교’, ‘조선인들 마늘냄새 지독해’같은 말로 놀리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당시 다카라즈카 중학교의 교사였던 사사키 기분은 이런 일을 전해 듣고, 1980년 11월에 학생들을 데리고 초급학교를 방문했다. 사사키는 서로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런 차별적 언사가 발생한다고 보고 학교 사이의 교류를 제안했다. 그에 따라 1982년부터는 다카라즈카 초급학교와 다카라즈카 중학교, 미자소학교 3개교 합동의 ‘한신지구일조우호소·중학생의 모임(阪神地区日朝友好小·中学生のつどい, 이하 ‘우호모임’)이 결성되었다.<sup>327)</sup>

사사키는 일교 소속으로 그 자신 스스로가 재일조선인을 비롯하여 소수자 문제,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sup>328)</sup> 사사키의 첫 방문은 개인적인 문제의 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호모임 역시 학교 차원의 교류였지 일교가 본격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 때의 방문을 계기로, 총련지부와 일교 교사 사이에 협력 관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협상은 피해당사자와 행정기관 사이에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홍영이 일교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결국 지역 내에서 협상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자신들만으로는 지역사회에 그런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힘들었을 텐데,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외부세력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전략은 아마도 이전에 있었던 신경환 사건을 참고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일교를 통해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부족한 사회운동 역량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는 일교를 일부러 끌어들이 필요는 없었다.

교섭 진행 과정에서 행정당국은 인제가 아닌 천재라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피해 보상 역시 일반 재해에 적용하는 법률과 조례에 따르려고 했다. 위로금은 일체 없었고, 취사용구로 주전자와 냄비 정도를 제공할 뿐이었다. 다만 침수된 가옥의 다다미교체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 정도가 일반재해 피해보상과의 차이점이었다. 여러 주체들이 참여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sup>329)</sup> 같은 해 니시다가와 지구에 펌프장(西田川ポンプ場)이 설치되면서

327) 『朝鮮新報』2002.04.12, ‘友好のシンボル - 日本市民ら感謝のコンサート, 20年にわたる交流’

328) 사사키 기분은 학교를 그만둔 후 가업을 이어 헤이린지(平林寺)의 주지가 되었다. 2017년 당시 그는 사이코우인(西光院) 명예주지이자, 다카라즈카 시민평화회의(市民平和会議)의 대표,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다카라즈카 시민의 모임(朝鮮学校を支える宝塚市民の会) 대표를 역임하는 등 다카라즈카에서 재일조선인 지원 단체 및 평화인권 관련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다(『橋本新聞』2017.07.06, ‘高野山真言宗・発展へ続投! 添田宗務総長・就任式’)

329) 이 협상자체가 3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다카라즈카 시에서 관련된 자료를 찾는 것이 불가능했고,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 중에서 이 일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역시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정홍영이 남긴 기록과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대략의 뼈대만 구성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나마 배수시설에 대한 정비는 이루어졌다.<sup>330)</sup> 그러나 하천개수공사나 니시다가와 의 지대를 높이는 등의 환경정비 사업은 계속 미뤄지거나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 피해보상이나 사후처리가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가 된 것도 역시 다 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사회운동의 미숙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과는 평범했지만, 니시다가와 홍수 피해보상 협상은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민단지부와 총련지부로 서로 분리되어 대립하던 조직이 처음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행정당국이 협상 상대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재일조선인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했다. 이런 협조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해서 아무런 연고 없이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앞서 3장에서 민단지부와 총련지부 사이에 교류가 거의 없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조직 문제와는 별개로 친인척 관계나 직장 혹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동료관계 등은 여전히 유효했다. 가족, 친척 내에서 민단과 총련으로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는 경우에도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다. 한 가족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저쪽[남동생]은 조총련, 김일성을 지지하는 그걸로 들어갔지요. 조총련이라고 하는 단체가 되고, 우리는 거류민단, 우리 한국을 지지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서. 다카라즈카에 살고 있으면은 우리 남편은 다카라즈카 민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우리 자유를 지지하는 우리 민단, 민단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민단에 들어가고, 동생은 조총련의 최고 간부가 되어서. 언제나 오면 둘이서[남편과 남동생] 그렇게 싸우고, 우리 남편하고. 그렇게 싸울 거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sup>331)</sup>

설날에는 우리 고모, 정미자씨, 아시지요? 그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그 집 어른들이 다 놀랍니다. 그 집 아들(애들)은 일본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늘 설날 인사를 갔던 건 아니고 친척들이 다 모이고 분위기가 좋을 때 그 때 갑니다. (질문 : 아버지나 어머니도 함께 갔나요?) 안 갑니다. 아이들끼리만 왔다갔다. 다른 날에는 고모가 집에 한 번 오고, 우리 어머니가 고모네 집에 갑니다.<sup>332)</sup>

정홍영은 총련지부 위원장이었고, 그의 누나인 정미자는 민단지부 부인회 회장, 정미자의 남편은 민단지부의 단장이었다. 이 때문에 명절이나 제사 등 가족행사 때문에 함께 모일 때면 자주 싸움이 벌어졌고, 일시적으로 왕래가 끊기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한 발 거리를 두고 있었던 여성들과 아이들은 상대의 집을 오고가며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했다. 서로의 집안 분위기가 달라서 어색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가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지는 않았다. 실제로 정미자는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동생의 생활을 돕기 위해 좋은

330) 宝塚市上下水道局, 《第28回宝塚市上下水道事業審議會議事概要》, 2014년 7월 29일

331) 정미자(1928년생), 2015년 5월 3일, 다카라즈카 요양병원 사무실

332) 정양식(1959년생), 2017년 8월 27일, 구술자 자택

건물이 나왔을 때 소개를 해주고, 매매(賣買) 과정을 돕기도 했다.<sup>333)</sup> 정치적 이념과는 별개로 생활의 다른 부분에서 인적 교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관계와 생활상의 관계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것은 비단 이 가족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었다.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은 료겐과 코하마에 밀집해서 살고 있다. 식민지 시기부터의 거주 양상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정주했기 때문에 그 곳에서 만들어진 인간 관계는 ‘일대일(1:1)’이 아닌 ‘다대다(多:多)’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형제자매나 친척 같은 혈연적 관계뿐만 아니라 혼인을 통해 만들어진 관계, 이웃사촌, 같은 고향 출신, 동네친구, 학교 동창 등의 관계가 세대를 넘어서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런 관계는 총련, 민단과 같은 조직 차원에서 형성된 관계와는 별개로 지역사회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1983년 니시다가와 홍수 피해보상 협상 과정에서 재일조선인은 자신들의 부족한 경험과 조직의 미숙을 보완하기 위해 일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비록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일교와 교류관계가 성립되었고, 민단지부와 총련지부도 조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동일한 이해관계로 묶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합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었던 것은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사이에 존재하던 인적 네트워크였다. 그것은 당사자 간에 만들어진 것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을 중간 매개로 삼아서 형성된 것이기도 했다.

## 2) 국민연금법 개정과 특별급부금 지급 운동

일본에서 국민연금법이 처음 실시된 것은 1959년으로, 가입대상자는 일본인으로 제한되었다. 1981년 일본은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하면서 각종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국적조항을 철폐했고, 1982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시 국적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동시에, “1982년 1월 1일 시점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이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1986년 4월 1일 시점에서 만 60세 이상이 되는 재일외국인은 국민연금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세부조항을 포함시켰다. 임의가입이 가능해진 시점에서조차 일부 재일외국인의 가입을 금지한 것이다.<sup>334)</sup> 재일외국인이라고 표현했지만, 1982년 재일외국인의 대다수가 재일조선인이었던 현실을 고려할 때 그것은 재일조선인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이 조항 때문에 1986년 일본이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때 ‘만 60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한 연금 지급을 제외시켰고, 20세 이상의 장애를 가진 사람 역시 장애복지연금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일본 내 시민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민족차별정책을 반대하며, 차별을 시정하려는 사회운동을 전개했다.

333) 정양식(1959년생), 2017년 10월 24일, 구술자 자택

334) 田中廣, 앞의 책, 152쪽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 고령자도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연금수령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카라즈카의 여러 시민단체는 이것을 민족차별로 규정하고, 다카라즈카 시와 협상에 나섰다. 협상에 참여한 단체는 다카라즈카 시 교육위원회, 시직원조합, 조선문제를 생각하는 다카라즈카 시민의 모임(朝鮮問題を考える宝塚市民の会, 이하 ‘조선문제모임’), 일본부인회 다카라즈카지부(日本婦人會議宝塚支部, 이하 ‘부인회지부’), 그리고 민단지부와 총련지부였다. 참여 단체는 노동조합과 재일조선인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부인회 등이었다.

민단 다카라즈카지부의 총회 자료를 보면, 연금협상이 진행된 시점에 대해 199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sup>335)</sup> 이전 총회 자료에는 연금협상 관련 내용이 없다. 이것을 보면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과 함께 바로 지급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일정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연금 지급 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992년 민단지부 총회 자료에 실린 ‘1993년 활동계획’을 보면, 고령자 및 장애인의 행정보조실현을 위한 조직(老齡者及び障害者への行政補助實現に向けての取り組み)을 결성하고, 자치체에 대해서는 요망서를 보내면서 시민단체와 연대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sup>336)</sup> 급부금 지불 운동과는 별도로, 민단에서는 자체적으로 고령자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단기금(民團基金)’을 설립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민단기금은 다카라즈카 시에서 특별 교부금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3년에 걸쳐 약 1000만 엔의 기금을 모아서 고령자, 장애인, 생활곤란자를 지원하고, 민단의 민족 교육 부흥 및 민단원 간 상호부조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sup>337)</sup>

1993년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은 효고현의 권익옹호위원회와 공동으로 다카라즈카 시장과 시의회의장에게 요망서를 제출하고, 특별급부금의 빠른 지급을 촉구했다. 조선문제모임도 요망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1994년 4월부터 장애인에 한해서 2만 5천엔의 급부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다만 고령자에 대해서는 시민과 의회의 총의(總意)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이 보류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문제모임 등은 인권옹호에 관한 연속강좌를 진행하는 한편 다카라즈카 주민들에 대해 서명운동을 실시했다.<sup>338)</sup> 1994년 6월까지 약 3000명의 서명을 받아 이것을 다카라즈카 시장에게 제출했다. 서명운동에는 조선문제모임, 일본부인회 지부, 민단지부, 총련지부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1995년 또 한 차례의 요망서를 제출했고, 마침내 다카라즈카 시장의 결재가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의회의 승인만 남은 상태였다. 그런데 곧 이어 한신아와지대지진(阪神・淡路大地震)이 발생했다. 다카라즈카도 큰 피해를 입었고, 재해복구를 위한 예산이 대거 필요해지면서 급부금 지급은 다시 미뤄지게 되었다.<sup>339)</sup>

한신대지진으로 인해 급부금의 실질적인 지급은 좌절되었지만, 이 과정 자체는

335) 在日大韓民國居留民團 兵庫縣宝塚支部, 〈活動方針案〉, 《第31回 定期支部大会》, 1991.5.26

336) 在日大韓民國居留民團 兵庫縣宝塚支部, 〈1993年度活動方針案〉, 《第33回 定期支部大会》, 1993.5.30

337) 在日大韓民國居留民團 兵庫縣宝塚支部, 〈特別事業-民團基金設立への取り組み〉, 《第33回 定期支部大会》, 1993.5.30

338) 在日大韓民國居留民團 兵庫縣宝塚支部, 〈總括報告〉, 《第34回 定期支部大会》, 1994.5.29

339) 在日大韓民國居留民團 兵庫縣宝塚支部, 〈總括報告〉, 《第35回 定期支部大会》, 1995.5.28

의미가 있었다. 우선 장애인에 대해서 다카라즈카 시 차원의 특별급부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신대지진의 발생으로 고령자에 대한 특별급부금이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몇 년에 걸친 활동으로 다카라즈카 시장의 결단을 이끌어 냈다는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340)</sup> 게다가 1990년을 전후로 한 무렵부터 1995년까지 약 6년의 시간 동안 민단지부, 총련지부 그리고 일교, 노동조합, 부인회지부, 조선문제모임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관계를 구축해 연대활동을 전개했다는 것 또한 큰 수확이었다. 민단지부와 총련지부의 경우 니시다가와 홍수 문제에 이어서 특별급부금 지급까지, 10년 이상 같은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했다. 이 때의 경험은 향후 두 조직의 운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민단지부와 총련지부 사이를 매개하고, 특별급부금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역시 일교와 조선문제모임 같은 다카라즈카의 시민단체였다. 특히 일교는 보통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총련과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다. 민단의 경우 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일교와 관계를 맺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다카라즈카에서는 1985년 경 일교 소속 교사들이 민단지부에서 운영하는 한국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민단지부 구성원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했다.<sup>341)</sup> 총련지부, 민단지부 모두와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일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니시다가와 홍수 피해보상 협상과 급부금 지급 투쟁 과정에서 재일조선인은 정치적 조직을 넘어서서 경제적 문제, 민족적 차별 문제에 있어서 공통의 이해관계,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 속에서 민단지부와 총련지부 사이에 협력관계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조직과는 별개로 이미 혈연, 지연, 개인적 친분 등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또 이전의 홍수피해 보상 협상과 비교하면 급부금 지급 운동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다카라즈카 시장과 의회에 정기적으로 급부금 지급 요청서를 보낸 것이나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서명운동을 진행했던 것이 그 예이다. 이런 적극성은 1970년의 신경환 사건, 1983년 홍수 피해보상 협상, 1990년 특별급부금 지급운동 등 몇 차례의 현안에 대응하며 점차 내부의 운동역량이 성장해가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일교, 다카라즈카 시민단체 등과 교류·협력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역량의 부족을 보충했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경우 식민지 시기부터 내부 운동역량의 약화를 계속 노출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조련을 만들고, 민단지부, 총련지부를 운영하고 이 조직을 바탕으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응하면서 내부의 운동역량이 점차 성장했다. 지역사회에서 감춰져 있던 재일조선인은 점차 ‘차별받고 있는 소수민족 집단’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340) 2003년 6월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740개의 시정촌(市町村)이 고령복지금(高齢福祉金)을 606개의 시정촌이 장애복지금(障害福祉金)을 지급하고 있다.

341) 모리 신이치(1950년생, 다카라즈카 교원), 2018년 5월 2일 사카세가와역 키사텐

### 3. 민족마츠리(民族まつり)의 개최와 재일조선인의 참여

#### 1) 다카라즈카 민족마츠리의 기획과 운영

7.4남북공동성명,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영향 속에서 1980년대 이후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도 분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재일조선인 사회의 통일운동이 시작되었다. 재일조선인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동시에 재일조선인 사회의 화합과 통일에도 기여해야 했다. 이런 움직임은 7.4회 조직으로 이어졌다.<sup>342)</sup> 오사카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통일’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지역축제가 개최되었다. 1983년 이쿠노민족문화제(生野民族文化祭)가 개최되었을 때 당시 슬로건이 ‘하나가 되어 키워 보세, 민족의 문화를! 마음을!’이었다.<sup>343)</sup> 재일조선인의 화합과 민족정체성 회복을 강조하고, 일본사회의 동화정책에 대한 반발도 드러나 있다.

이쿠노 민족문화제의 문제의식을 더욱 발전시킨 것은 1985년 오사카에서 열린 원코리아 페스티벌이다.<sup>344)</sup> 원코리아페스티벌은 민족정체성 확립·통합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남북의 통일, 일본인과의 공생을 목표로 내세웠다. 1987년부터는 민단과 총련이 함께 참여했다.<sup>345)</sup> 1990년대 이후로는 아시아공동체를 지향하며 원아시아로 발전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동아시아를 테마로 축제를 진행하기도 했다.<sup>346)</sup>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일본 각지에서 재일조선인이 기획하거나 참여한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 축제들의 특징을 보면 첫째, 전체 축제의 70~80% 정도가 오사카, 교토, 고베에 집중되었다. 이 곳은 재일조선인 인구가 많은 곳으로, 인구의 집중이 민족문화의 창조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1990년대는 일본사회의 차별이 점차 완화되고 동화가 심화되는 한편 재일조선인 내부의 정치적 분열이 여전한 시기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자기반성과 민족정체성의 위기감도 축제 발생과 관련이 있었다. 셋째, 민단이나 총련 등 재일조선인 조직의 주관 하에 탄생한 정치운동이 아니라 소수의 발의자에 의해 만들어진 축제가 많다. 이것은 대부분의 축제가 내부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sup>347)</sup>

다카라즈카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 속에서 축제가 시작되었다. 다만, 다카라즈카의 경우, 재일조선인 내부의 문제의식 속에서 축제가 개최되는 대신 지역 차원에서 공동으로 축제가 기획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1990년대 초반 재일조선인 고령자에 대한 특별급부금 지급을 위해 다카라즈카 시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재일조선인을 위한 시책 중 하나로 축제에 관한 언급이 나온 적이 있었다. 1995년

342) 이신철, 「재일동포사회의 통일운동 흐름과 새로운 모색 —원코리아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사림』 52, 2015, 311쪽

343) 김현선, 「재일 코리안의 축제와 민족 정체성」, 『일본연구논총』 26, 2007, 464쪽

344) 정식명칭은 ‘8.15 페스티벌 : 민족, 미래, 창조’였고, 1990년부터 행사명을 원코리아페스티벌로 개칭했다.

345) 이신철, 앞의 논문, 312~314쪽

346) 전진호, 「원코리아(One Korea) 운동과 한인 디아스포라」, 『일본연구』 30, 2018, 159~161쪽

347) 김현선, 앞의 논문, 464~466쪽

한신아와지대지진 이후에 효고현재일외국인교육연구협의회(兵庫縣在日外國人教育研究協議會)라는 교원조직을 만들고, 다카라즈카에서 지구강좌(地區講座)를 개최할 때 다시 축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sup>348)</sup> 그 논의의 과정을 이끌었던 사람은 다카라즈카 중학교의 교원이었던 모리 신이치였다. 그는 축제를 기획하게 된 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질문 : 어떻게 민족마츠리를 기획하게 되셨나요?) 가장 큰 목적은 일본 사람과 한국, 조선인의 교류. 그것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좀 전부터 방금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카라즈카 시의 행정부에게 당시에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조선학교의 아이들에 대한 보조금 문제도 있어서 시의 행정과 같이 협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연금 문제에 있어서는 총련도 민단도 같은 과제였기 때문에 함께 같은 자리에서 협상을 하고는 했지요. 그것을 이렇게 좁은 방안에서만만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소수의 일본 사람과 재일조선인의 교류는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크게 넓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것은 다카라즈카에서 최초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원래는 이쿠노구에서도 민족 마츠리라는 것을 하고 있었어요. 나가타(長田)에서도 하고 있었고. 그런 행사도 보러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카라즈카에서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sup>349)</sup>

모리 신이치는 민족마츠리를 기획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 재일조선인 사이의 교류를 좀 더 확장시키는 것이다. 민단지부와 총련지부의 경우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조직 차원의 교류가 거의 없었는데, 홍수피해 보상 문제나 연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되었고, 이런 우호의 분위기를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시키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된 것이다. 둘째,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주민 사이에 새로운 교류 관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던 교류를 전 지역 차원으로 확대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오사카 이쿠노구, 고베 나가타의 민족마츠리를 보고 자극을 받기도 있다.

당시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에게는 시에서 개최하는 마츠리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즐길만한 축제가 없었다. 총련지부에서는 다카라즈카 초급학교를 중심으로 봄의 꽃놀이, 여름의 8.15행사, 운동회 등 축제와 다름없는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민단지부의 경우 한국회관에서 지부 총회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각 행사에 민단지부나 총련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런 중에 민단지부에서는 재일조선인의 운동회를 개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모리 신이치는 당시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 민족마츠리를 하기 전인가, 2~3년 전에 한국학원(韓國學園)의 이사장을 하고 있던 분이 무코가와에서 자이니치(在日)의 운동회를

348) 飯田剛史, 『民族まつりの創造と展開(下) 資料編』, 研究成果報告書, 2010, 276~278쪽

349) 모리 신이치(1950년생), 2015년 5월 2일 нама제 지인집

한 번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걸 바바씨로부터 내가 전해 들었지요. 그 때는 내가 아직 40대, 그 정도, 뭐 젊었다고나 할까요. (하하) 그 이사장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지금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라도 민단과 총련이 함께 시작한다면 괜찮지만, 민단이 먼저 시작해버리면 나중에 총련이 들어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가 노력을 할테니까 지금은 일단 하지 말아주세요, (하하)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 했지요.<sup>350)</sup>

이 자이니치 운동회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거나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이니치가 누구인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다. 총련지부에서는 이미 학교를 통해 운동회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단지부 구성원만이 참석하는 운동회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리 신이치 역시 민단지부만의 행사로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고, 한국학원의 이사장을 찾아가 행사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 요청 때문이었던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이 행사는 추진되지 않았다. 그리고 민단지부와 총련지부가 함께 참여하는 마츠리가 계획되었다.

처음 축제를 구상하던 단계에서는 재일조선인 사이의 관계,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관계를 대립과 갈등에서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실제 축제를 기획·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재일조선인뿐만 아니라 다카라즈카의 모든 외국인이 민족마츠리의 참가 대상이 되었다.<sup>351)</sup> 민족마츠리 실행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보면 민족마츠리의 목적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지금 다카라즈카에는 서로 다른 민족적·문화적 뿌리·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인간이라는 것, 다카라즈카에서 살아가고 일하고 있는 것. 다른 문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마을이야말로,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이 공생하고 서로 부딪치며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마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일익을 담당하고, 다카라즈카의 국제화를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해 올해도 ‘다카라즈카 민족마츠리’를 개최합니다. 모두 모여서 ‘다름’을 서로 주고 받고, ‘다름’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다름’을 인정해봅시다.<sup>352)</sup>

1997년 제1회 민족마츠리가 개최되었을 때, 다카라즈카 전체 외국인의 약 86%가 재일조선인일 정도로 그 비율이 높았다. 처음 1회~3회 정도까지 민족마츠리 부스 운영자로 참여하고, 관객으로 참여한 ‘외국인’은 대부분 재일조선인이었다.<sup>353)</sup> 그럼에도 목적에서 외국인으로 표기한 것은 다카라즈카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350) 모리 신이치(1950년생), 2018년 5월 2일, 사카세가와역 기사텐

351) “재일코리안(한국적, 조선적, 일본국적을 취득한 코리안 등, 한국 및 조선에 뿌리를 가진 모든 사람들), 브라질·페루를 비롯한 남미각국에서 온 일본계 외국과 그 가족, 중국에서의 귀국자와 그 가족, 우치난츄(오키나와사람), 아이누, 결혼을 계기로 일본국적을 취득한 많은 외국출신자, 그 외 세계각지에서 일본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민족마츠리를 기획할 때 염두에 둔 축제의 주역들이다.

352) 宝塚民族まつり実行委員会, 《実行委員会レジュメ》, 2018.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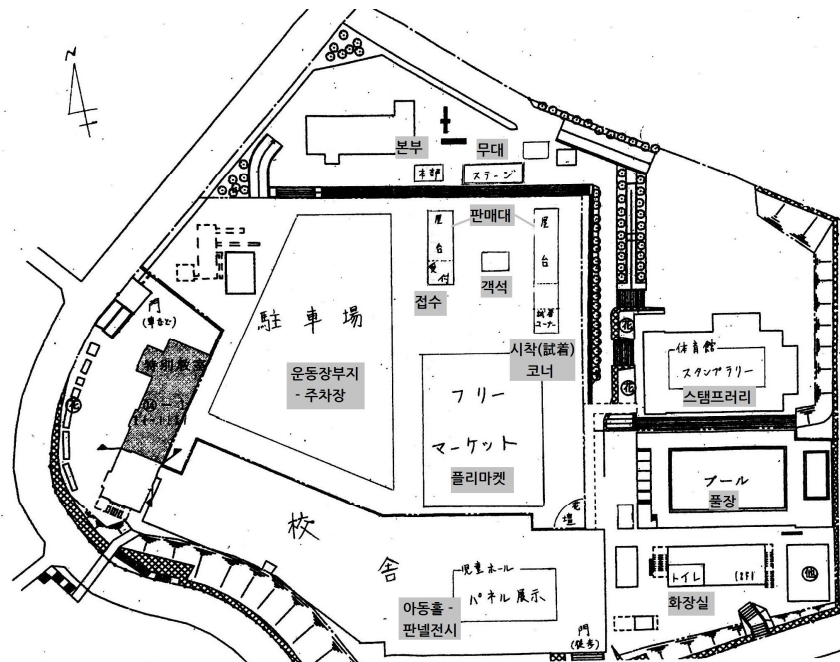
353) 김민철(1946년생), 2018년 11월 4일, 료겐소학교



다른 국적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일조선인만으로 축제를 운영하는 것은 확장성도 적고, ‘다문화공생’을 표방하는 지역사회의 분위기에도 맞지 않았다. 더군다나 다카라즈카에는 오키나와 출신도 매우 많았는데, 제1회 민족마츠리에서의 메인 공연이 오키나와의 에이사(エイサー)였을 정도로 오키나와 역시 다카라즈카 다문화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sup>354)</sup>

다카라즈카 민족마츠리는 표면적으로는 다문화공생, 재일외국인의 보편적 인권을 중심에 내세웠지만, 실제 축제 내용을 보면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내용이 매우 많았다. 민족마츠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당일 현장의 행사와 축제 전에 진행되는 파트2 행사가 있다. 지금까지의 파트2 프로그램을 보면 영화 상영회, 공연, 강연회가 중심이었는데, 1~7회까지 재일조선인의 역사 혹은 한국 문화에 대한 것이었다.<sup>355)</sup> 최근에는 다른 민족의 역사와 문화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2005년부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뒤통지체험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선학교의 음악수업 체험, 다카라즈카의 일본인·재일조선인·필리핀인과의 대화, 각 민족의 놀이 및 전통 의상 체험, 음식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행사 현장의 모습은 어땠을까? 매년 축제 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 구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정형화된 형태가 있다. 2013년의 민족마츠리는 나가오 소학교에서 진행되었는데, 당시 현장에서 배포된 제17회 다카라즈카 민족마츠리의 안내책자에 그려진 축제 현장의 구성은 다음의 <그림15>와 같다.



<그림15> 제17회 민족마츠리 행사장 안내도

354) 에이사는 오키나와의 전통춤으로, 집단으로 북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오늘날 오키나와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 중 하나이다.

355) 宝塚民族まつり実行委員会, 《実行委員会レジュメ》, 2018.5.10, 6쪽

<그림15>를 보면 운동장 한 곳에 주차공간을 만들고 운동장의 나머지 공간과 강당 등을 활용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당일 현장의 프로그램을 보면 우선 사진 판넬을 활용한 전시회가 있다. 전시회는 대체로 다카라즈카의 재일외국인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졌는데, 17회의 주제는 “또 하나의 이민 ‘만주개척단’(もう一つの移民, ‘満州開拓団’)”이었다. 만주개척단의 결성과 활동 내용, 그 과정에서 희생된 중국인·일본인의 모습을 판넬을 활용해 전시했다. 또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플리마켓이 있고, 무대 바로 앞쪽에는 관객석과 각종 판매대, 접수창구, 그리고 민족의상(대체로 한복의 치마와 저고리)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시착(試着) 코너도 있다. 판매대에는 총 9개의 단체가 참여했는데, 옷, 책, 물건, 각국의 음식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재일조선인의 경우 ‘원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공동으로 부스를 운영했는데, 주로 한국(조선)의 음식인 지지미(전), 비빔밥, 잡채, 김치 등을 판매했다. 체육관에서 다양한 민족들의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스탬프를 찍으면 상품을 주기도 했다.

중앙 무대에서는 여러 단체가 참여해 음악과 춤 등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인근의 이타미, 고베, 오사카 등에서 공연팀이 왔는데, 초급학교가 있을 때는 초급학교의 학생들이 사물놀이, 전통무용 등의 공연을 담당했으나 폐교 이후에는 이타미학교의 공연팀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민족마츠리의 공연 및 플리마켓의 모습은 다음의 <그림16>, <그림17>과 같다.



<그림16> 제7회 민족마츠리 무대공연



<그림17> 민족마츠리 공예품 판매

<그림16>의 사진에서는 한국과 오키나와의 합동공연을 볼 수 있고, <그림17>에서는 판매대에서 한국의 전통 공예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민족마츠리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민단지부의 정기총회 자료에 따르면, 1회 행사의 경우 전체 참가자가 300명인데, 2회부터는 700명으로 늘었고 3회, 4회는 3000명이라는 큰 숫자가 참여했다고 한다. 5회부터는 다시 참가자가 줄어들어 1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회별로 참가자 수의 차이가 매우 심해서 이 수가 과

연 정확한 숫자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2012년 16회 다카라즈카 민족마츠리 참가자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당시 약 800명의 다카라즈카 시민이 행사장을 방문했고, 당일 스태프가 50명, 공연에 출연한 사람은 약 170여명이라고 한다.<sup>356)</sup> 모두 합하면 약 1,020명 정도가 된다. 이것은 주최 측에서 직접 작성한 자료이므로 좀 더 믿을만한 자료로 보인다. 이를 통해 유추하면 역시 3000명이라는 수는 과장되거나 오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행위원회에서는 참가자에 대해 대략적인 수만 파악하고 있었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가 약 1000명 정도이고 보통 때는 500~700명 정도라고 한다.<sup>357)</sup> 초반에는 참여율이 저조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어린이들을 축제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어린이 플리마켓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아이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부모들을 축제 현장으로 불러올 수 있었다. 민족마츠리를 통해,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재일조선인’은 사회적, 문화적 존재로 지역사회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 2) 축제를 통한 문화교류와 재일조선인의 재발견

현재 일본에는 수많은 지역축제가 있고, 그 중 재일조선인이 기획했거나 혹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당, 민족마츠리 같은 축제는 전국에 약 100개 정도가 있다.<sup>358)</sup> 재일조선인에게 축제는 ‘민족’을 마음껏 호출할 수 있는 장소였다. 재일조선인은 축제를 통해 민족공동체로서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일본인과의 교류도 진행하면서 축제공간을 개방된 장으로 활용하기도 했다.<sup>359)</sup>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축제의 기획과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교토의 히가시구조(東九条) 마당이다.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으로서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장소적 의미를 강화할 수 있었다.<sup>360)</sup> 그렇다면 다카라즈카 민족마츠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사실 다카라즈카 민족마츠리는 재일조선인 내부의 요구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이 고베나 오사카에서 진행되는 민족마츠리에 개인적으로 놀러가기도 했고, 민단지부에서 고베 마당에 공연팀을 보냈다는 기록도 있지만 재일조선인의 민족 축제를 기획한다는 발상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오히려 민족마츠리의 구상은 다카라즈카의 일본인 특히 재일조선인 문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회운동 단체의 관계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356) 民族まつり研究会編, 『民族まつり/マダン 全国交流シンポジウム資料集』, 2012, 80~81쪽

357) 모리 신이치(1950년생), 2018년 11월 4일 구술자 자택

358) 2011년도 전국민족마츠리/마당의 현황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에 따르면 마츠리, 마당, 페스티벌의 이름으로 108개의 축제가 일본 각지에서 실행되고 있다(飯田剛史, 앞의 책, 17~20쪽)

359) 이희숙, 「재일한인축제를 통해서 본 장소의 정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 2003

360) 이정은, 「경계의 균열, 공생(共生)의 문화변용 - 민족축제 ‘마당’을 통해본 교토(京都) 히가시구조(東九条)의 역사성과 장소성」, 『사회와 역사』 97, 2013

매년 다카라즈카 민족마츠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민족마츠리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이다. 실행위원회에서는 민족마츠리를 통해 모든 외국인이 자기 문화를 드러내서 지역사회와 공유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카라즈카를 공생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고자 했다. 실행위원회에 참여한 이들은 특별 급부금 지급 운동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 다카라즈카 교사들이 소속된 효고현 재일외국인교육연구협의회, 다카라즈카 시 직원조합, 조선문제모임, 부인회지부에서 일본인들이 참여했고, 민단지부와 총련지부의 관계자도 각 1인씩 참석했다. 재일조선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의 관계자는 2018년 현재까지도 실행위원회에 참여한 경우는 없었다.

실행위원회의 주체로서 재일조선인이 참여한다는 것은 민족마츠리에서 재일조선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그것이 주체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행위원회에서 재일조선인이 담당하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마츠리의 목적을 구상하고 테마를 만들고,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이들은 대부분 일본인 실행위원들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일본인 실행위원들이 사회운동에 대한 경험이 더 많고, 축제를 실행할 때 장소 혹은 시설을 빌리거나, 각종 기금을 모으고, 행정당국 및 학교와 마츠리 운영에 관한 협의를 직접 담당했기 때문이다. 재일조선인의 경우, 경험도 부족했고, 외국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직접 협의를 하기에 곤란한 위치에 있었다. 예를 들어 축제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소학교 운동장을 빌린다면, 실행위원회에 소속된 교사 출신 위원이 담당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재일조선인 위원에게 맡길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축제의 운영에 있어서 재일조선인 실행위원은 보조적인 역할만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보조적인 역할임에도 계속 실행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재일조선인을 빼고서는 민족마츠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축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함께 모여서 하루 즐겁게 노는 것이다. 다카라즈카 민족마츠리의 현장에는 음악과 춤, 마술 등의 공연이 진행되는 메인 스테이지가 있고, 한국, 오키나와, 인도, 필리핀, 타이 등 전세계의 대표 먹거리 판매 코너, 플리마켓 등 쇼핑을 할 수 있는 곳, 세계 각지의 놀이문화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너도 있다. 축제의 전반적인 구성은 다카라즈카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문화를 축제 방문객들에게 소개하고, 그것을 체험해보는 것이다. 축제에 참여한 일본인 주민들의 관심은 역시 이문화(異文化)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인 주민들의 축제 참여의 양상은 2010년 제14회 다카라즈카 민족마츠리에 참여했던 한 한국인 연구자의 다음의 에세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치마저고리를 전시해 놓고 입어보는 코너는 축제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단골코너의 하나이다. 한국의 전통의상은 이런 곳에서도 역시 민족색을 가장 강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이다. 오늘도 인기가 있나 보다. 한복 앞에는 계속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 줄을 한참 기다려 기어코 치마저고리를 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오는 여학생들. (중략) 한국 전통 의상에 아름다운 시선과 호기심을 갖는 대학생들, 이들 젊은이들에게 치마저고리는 어떤 이미지일까.<sup>361)</sup>

체험 코너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곳은 세계의 전통의상을 입는 곳으로, 특히 한복이 인기가 많다. 한복의 경우 민단지부에서 의상을 준비했는데, 아동용부터 성인용까지 종류와 사이즈가 다양한 한복이 구비되어 있었다. 웹에서 다카라즈카 민족마츠리를 검색하면, 현장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많다. 한류를 통해 한국드라마가 일본에서 방영이 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한복을 한국의 전통의상으로 인식한다. 다카라즈카 민족마츠리 현장에서 한복은 이색적이고 이국적인 의상으로 주목도가 높다.<sup>362)</sup> 한복 외에도 재일조선인의 문화로 자주 이야기되는 것은 비빔밥, 지지미(전), 잡채, 김치 등의 한국음식과 장구, 농악, 소고춤 등 전통음악에 관한 것이다.

이런 문화를 공유하는 이들이 ‘재일조선인’으로 인식되는 곳이 민족마츠리이다. 재일조선인은 민단과 총련 같은 서로 다른 조직으로 구분되어 있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축제에서만큼은 그런 차이가 지워지고 재일조선인으로서의 공통점이 강조된다. 일본인이라는 이민족이 바로 앞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의 차이를 드러낼만한 역사문화적 요소는 모두 지워지고,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만 남게 된다. 이 과정에서 때때로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역사성이 제거되기도 했다.

사실 한복은 재일조선인의 전통의상으로, 외형적으로 일본인과 재일조선인을 구분해 주기 때문에 민족색을 가장 잘 보여준다. 재일조선인이 대내외의 행사에 참여할 때 ‘치마·저고리’를 입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행위이다. 치마·저고리를 입고 졸업식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 긴장되고 무서웠다는 사람도 있었고,<sup>363)</sup> 치마·저고리에 대한 테러가 자행되었던 때도 있었다.<sup>364)</sup> 그러나 축제 공간에서는 한복이 가진 이러한 상징성은 사라지고 이문화에 대한 호기심만이 남아 있다. 소위 ‘한국의 문화, 조선의 문화’는 다카라즈카 일본인의 눈에 이색적이지만 지나치게 이질적이지 않은 것들이다. 그래서 민족마츠리를 통해 드러나는 재일조선인은 매우 정형화되어 있다. 축제는 즐거워야 하기 때문에 실험적이거나 모험적인 내용을 담기 어렵다. 갈등의 소지가 될 만한 내용도 제외된다. 그래서 매우 평이한 축제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은 실행위원 쪽에서 특별히 의도 했다가보다는 통합을 위한 축제를 구상하

361) 김현, 『오사카아리랑』, 어울누리, 2012, 164~165쪽

362) 2018년 11월 5일 22회 민족마츠리에서도 역시 한복은 인기가 많았다. 민족의상 착용 코너에는 한복 외에도 중국, 필리핀 등 다른 나라의 민족의상도 있었으나 수량이 적고 사이즈가 충분하지 않아서인지 한복의 인기를 따라올 수 없었다. 특히 일본인의 경우 한복을 입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복 탈의실 옆에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는데, 미니병풍과 방석이 있어 전통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는 일본인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부분이 한국드라마를 통해 이미 한복을 잘 알고 있었다. 한복에 대해서는 예쁘다, 편하다,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아이들은 한복을 갖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다.

363) 김수희(1959년생), 2017년 12월 28일, 구술자자택

364) 1994년 북한의 핵무기 의혹 사건 이후, 일본에서는 치마·저고리를 입고 등교하는 조선학교 여학생들의 옷을 칼로 찢는 사건이 있었다. 1994년 1년 동안만 160여건의 피해 사실이 밝혀졌다. 그 이후에도 북일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일본 우익들에 의해 치마저고리가 테러의 표적이 되곤 했다. 이 사건 때문에 일부 조선학교에서는 사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한 후 교복인 치마저고리로 갈아입도록 하고 했다(『여성신문』 1998.10.13., ‘[사건] 치마저고리 테러 위협’).

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인의 존재 자체가 감춰져 있던 지역에서, 정형화된 문화라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축제를 통해 재일조선인의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문화에 대한 반감을 줄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족마츠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족마츠리는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을 지역사회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인과 재일조선인이 서로 같은 동네에 살면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는 일도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개인적 차원의 교류일 뿐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재일조선인의 존재는 감춰져 있었다. 민족마츠리를 통해 재일조선인은 정치적 집회를 하고 일본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사회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노래, 춤, 음식, 놀이, 한복 등 다른 문화를 가진 보통의 사람으로 지역사회에 등장했다.

민족마츠리는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민족마츠리에 참여한 김두함은 그 감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일본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요. 맘이 통했다고 할까요. 음식을 가지고 하나씩 더욱 좋았던 것 같아요. (...중략...) (질문 : 민족 마츠리 참가를 하고 계신데, 가지면 주로 무엇을 하나요?) 여러 가지. 일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인사도 하고, 교류도 하고 하나씩, 재미있지요. 그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사먹기도 하고. 처음에는 민족마츠리라고 해도 한국 국적만이었어요. 최근에는 필리핀이나 여러 나라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민족마츠리도 커지고 있지요.<sup>365)</sup>

김두함은 일본인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민족마츠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족마츠리는 다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하는 장소이자, 그동안 감춰져 있던 소수민족을 새롭게 발견하는 곳이다. 평소에는 나와 같은 말을 쓰고,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음식을 먹지만, 사실 이들은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축제에서의 여러 문화체험을 통해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전시, 체험, 놀이, 음식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른 나라, 혹은 일본 내 소수자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민족마츠리 이후에 민단의 한국학원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의 수가 늘어났고, 다카라즈카 소학교의 교사가 한국학원에서 장구를 배운 후 학교에서 장구교실을 운영하는 일도 있었다.<sup>366)</sup> 민단지부에서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일본학교의 학생들에게 한국문화, 한국요리 등을 가르치는 것도 모두 민족마츠리 이후에 시작된 일이다.<sup>367)</sup> 민족마츠리를 통해 재일조선인의 문화는 지역에서 그 모습을 드러

365) 김두함(1934년생), 2015년 5월 2일, 구술자 자택

366) 오다 마리코(1949년생), 2018년 4월 13일, 다카라즈카 서공민관

367) 물론 여기에는 다카라즈카 시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추진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의 축제가 다문화공생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재일조선인 문화를 이문화로서 학습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축제 역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냈고, 확산되기 시작했다.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교류를 확대시키고 싶다는, 민족마츠리의 처음 의도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민족마츠리에서 재일조선인은 말 그대로 ‘재일조선인’으로 재발견되었다. 일본인 지역주민과의 대비 속에서 양자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강조 되었다. 공통점의 내용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말을 쓰고, 피식민지의 백성이었다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이다. 앞서 2장에서도 살펴봤듯이 재일조선인은 어느 조직에 속해 있었는가에 따라 경험의 폭이 서로 달랐다. 서로 다른 요소가 많지만 축제에서만큼은 공통점이 매우 많은 사람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일조선인에 대한 이런 인식이 구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문화공동체로서의 동질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이 축제의 실행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은 명확하지 않았고, 민족마츠리를 통해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그동안의 차별에 대해 문화적인 저항을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다.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낀 것일까.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은 자신들만의 축제를 기획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

#### 4. 원코리아 다카라즈카와 재일조선인 공동체의 통합

##### 1) 남북 관계의 개선과 민단지부·총련지부의 관계 변화

1984년 적십자회담의 재개,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과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 1989년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의 북한 방문 등 남북 관계는 위기를 겪으면서도 교류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었다. 남북관계의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북한의 핵개발 의혹도 1994년 북한이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면서 해결국면으로 들어가는 듯 보였다.<sup>368)</sup> 1998년 탄생한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포용정책을 전개했다. 1998년 11월부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고, 정부에 의한 대북 인도지원도 이어졌다. 2000년 3월 ‘베를린 선언’이 나오면서 남북관계는 급진전되었고, 3개월 후인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남북관계의 변화는 재일조선인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이후 일본 각지의 재일조선인 축제에는 남북관계의 변화가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오사카의 원코리아 페스티벌의 경우 1990년에 남북합동공연을 진행했고, 1993년부터는 남북일의 문화적 통합을 통한 아시아 시민을 주장하기도 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도쿄, 오사카 등 지역을 옮겨가며 원코리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1990년대 남북합동공연 직후 일본 내 다른 지역에서도 원코리아

368) 제네바 합의는 북한과 미국의 외교적 국제 합의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그 대가로 북미수교, 평화협정, 경수로발전소 건설, 대체에너지 중유공급 등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2003년도에 파기되었다.

의 이름을 딴 민단·총련 합동으로 원코리아 바둑대회, 원코리아 꽃구경 대회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효고의 원코리아 통일행진, 교토의 원코리아 카운트다운21 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sup>369)</sup> 1980년대의 축제가 재일조선인 간 반목을 지양하고 민족정체성 약화를 극복하려는 문제의식 속에서 진행되었다면, 1990년대의 축제는 남북통일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면서, 민단과 총련처럼 재일조선인 조직이 앞장서는 축제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다카라즈카에서도 2000년에 민단지부와 총련지부의 협조 속에서 원코리아 다카라즈카 페스티벌(ONE KOREA 宝塚 festival, 이하 ‘원코리아 다카라즈카’)이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남북관계의 변화만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 이후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한류(韓流)는, 2000년을 전후해서 일본에 상륙했고 2004년 겨울연가의 대히트와 함께 거대한 트렌드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의 매스 미디어가 계속해서 일본인 납치문제, 핵문제, 정권세습문제를 다루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했다. 총련 조직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1990년대 중반 이후는 민단과 총련 모두 세력이 약화되던 무렵이었다. 일본으로의 귀화가 크게 늘었고, 귀화를 하지 않더라도 재일조선인 조직에 대한 불신 등이 높아지면서 이탈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세력 약화의 경향은 민단 보다 총련 쪽이 더욱 두드러졌다. 과거에는 조선적을 한국적으로 바꾸면 총련 관계자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조선적에서 한국적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서대진은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의 국적 변경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국적으로 바뀌버렸어요, 총련의 사람들도. 지금 활동이라면, 진짜 재일조선인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조총련계 사람이 많죠. 많지만, 조총련 사람 중에서 80%가 한국국적이 돼버렸어요. 생활은 한국을 왔다갔다하면서 운동은 조총련 지지하고 2, 3세대들은 1세처럼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질문 : 언제 국적을 바꾸셨어요?) 나는 3대. 김정은이 결정되었을 때. 그 전에 선언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2대 때에는 좀 참았지만, 3대 때는 그건 왕국 아니에요. (...중략...) 그렇지만 재일조선인 운동은 총련을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 많다 싶습니다. 나는 뭐 한국정부를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반대해서 조총련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일조선인의 운동을 옹기 끌고 온 건 총련에 있었다고 봐요. 총련이 하는 것도 틀린 것도 많다, 있다 싶습니다. 그냥 북한만 바라보고 하는 거. 그것도 알면서. 그렇지만 총련이 없다면 재일조선인 운동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sup>370)</sup>

1990년대가 되면 먹고 살기 위해 한국을 오고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고향방문

369) 이신철, 앞의 논문, 315~317

370) 서대진(1954년생), 2015년 5월 4일, 구술자 어머니 자택



혹은 친인척 방문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과 총련 조직에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 국적을 변경했다. 그러나 국적 변경 후에도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운동의 측면에서 총련을 계속 지지하기도 했다. 이 무렵부터는 한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분회장 등 총련의 하부조직의 장을 하는 것도 가능했다. 총련 지부를 이탈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일부는 재일조선인 조직을 완전히 떠났고, 또 일부는 민단지부로 가기도 했다. 다카라즈카에도 총련과 민단을 넘나들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이름이 다음에서 말하는 석관술이었다.

석관술이라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랄까, 큰 선배야. 내가 이 사람 뒤에 따라갔어요. 총련의 청년들, 청년단의 위원장 했어요. 나도 그 뒤에 위원장하고. 이 사람의 4대 밑에. 이 사람이 조총련의 상공연합회, 상공회 이사장 했어요. 나도 그 뒤에서 이사장 했어요. 42살 때인가 다카라즈카. 근데 그 사람은 민단지부 단장 돼 있었어. 그 때. 근데 골프회나 학교 창립일 때 돈 걷는다 하면, 내가 있으면 찾아간다고, 도와달라고. 그럼 항상 해준다고. 동생 같이 봐주고. 학교는 옳다. 학급교육은 옳다. 그런데 북한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조직은 나는 싫다고. 학교 운동회는 내가 협력을 한다고. [기부금을] 해줬습니다.<sup>371)</sup>

석관술은 총련지부 청년회 위원장, 상공회의 이사장을 역임한 인물로, 총련지부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1949년 조선학교폐쇄령 당시에 학교에서 한 달간 숙식을 하면서 학교를 지킨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집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더욱 컸다. 그러나 석관술은 총련의 이념적 지향에 반대하며 총련지부를 이탈했고, 그동안 조직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민단지부의 단장이 되었다. 석관술은 민단지부 소속이 된 후에도 총련지부의 민족교육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했고, 그를 잘 따랐던 서대진과도 관계를 끊지 않았다. 석관술이 총련지부를 이탈한 후 민단지부에 가입하게 된 과정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의 경우 조직을 떠나서 혈연, 지연, 학연, 직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 다카라즈카의 토목인의 모임이자 석관술이 회장을 역임한 적도 있는 스에히로회(末廣會)의 경우도 12명의 회원 중 총련 소속이 8명, 민단 소속이 4명이었다. 조직을 초월해서 동업자 조직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석관술의 민단지부 가입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또 다른 인물은 2018년 민단지부의 부단장(副團長)을 역임했던 조용수이다. 그는 나마제 조말순의 남동생이다. 조말순은 지금도 총련지부 나마제분회 여행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조용수는 일본소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민족교육이 필요하다며 조선학교로 전학을 보냈고, 그대로 아마가사키 중학교를 거쳐 고베조선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 보통 고등학교까지 조선학교를 다니는 경우, 졸업 후에도 총련지부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조용수는 학교를 졸업하고

371) 서대진(1954년생), 2015년 5월 4일, 구술자 어머니 자택

나서 총련과 민단 어느 쪽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후에 석관술의 제의를 받고 민단 지부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총련도 안 했고, 민단도 안 했습니다. 다 만나면 인사도 하고 그랬지만은. 여기는 서로 다 아니까. 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민주적인 생각이, 너무 그 김일성 뭐야, 나중에 김일성 죽고 나서 그 김정일이지요. 똑같은 그런 거지요. 뭐 그런게 있으니까 애가 나서[싫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아이 낳으니까 총련에서 와서 학교 [입학] 시켜달라고, 나도 싫고, 우리 집사람도 뭐 절대 안 된다고. (...중략...) 석관술씨가 뭐 옛날부터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니까 한 12, 13년[구술자의 착각으로 15년 전이 맞음] 전에 제가 그 골프 좋아하니까 한번 골프 가자고, 갑시다 하면서 가서 술 마시고 골프치고 자다가 술 마시고 하니까, 나한테 조용수 그 민단 조직에서, 너 한번 [일하면] 어떠냐고. 물으시니까 나 그런 건 잘 못한다고, 그 사람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니까 이름만 조금 빌려달라고 해서, 뭐 그건 괜찮다,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속았어요. 하하<sup>372)</sup>

조용수는 전학이 자기의 뜻이 아니었고, 학교를 다닐 때에도 친구들과 선생님이 좋아서 참고 다녔지만, 교육 내용에는 불만을 가진 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학교 졸업 후 일을 시작했을 때 총련지부에서 일을 함께 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했다. 그러다 2000년대 초반에 석관술의 제의를 받고 민단지부에 들어온 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석관술이 조용수에게 민단지부에서 일하도록 제의한 것은 그가 조선중학교, 조선고등학교를 다니며 조직 운영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또 제의를 했던 시점이 민단지부와 총련지부가 공동으로 원코리아 다카라즈카 행사를 진행한 직후였기 때문에 장래를 위해서도 총련과 민단 양쪽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조용수의 경우 총련지부에 동창생이나 후배들이 많이 있었다. 실제로 조용수는 민단에 가입한 이후 2001년부터 원코리아 다카라즈카의 실행 등을 담당했다. 석관술이나 조용수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두 개의 조직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민단지부와 총련지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00년 6월 무렵, 남북한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이 점차 가시화되고,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 사회도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6월 15일에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다카라즈카에서도 여기에 호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당시의 벽찬 감동을 서대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석관술] 찾아갔지요. 형님,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우리도 어떻게 일본에 있으면서도 지지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합시다,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민단을 책임 질테니까, 너는 총련을 책임지라고. 그래서 원코리아 해보자고, 잔치를 해보자고. 그래서 시작해서

372) 조용수(1949년생), 2018년 5월 11일, 민단 사무실

한 석 달쯤 아마 했습니다.<sup>373)</sup>

남북정상회담을 본 서대진은 그 길로 석판술을 찾아가 새로운 재일조선인 축제를 제안했다. 즉석에서 원코리아라는 이름이 나온 것을 보면 오사카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민단과 총련의 협력 하에 원코리아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시기 다카라즈카에서는 이미 민족마즈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민족마즈리는 재일조선인을 위한 축제이면서도 재일조선인‘만’을 위한 축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민족마즈리를 축하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무리였다. 원래 계획은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서 축하 행사의 의미로 원코리아 다카라즈카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한이 너무 촉박하기도 하고, 협력의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행사는 3달 뒤인 9월 17일에 진행되었다.

## 2) 축제의 실행과 공동체 통합의 의미

원코리아 페스티벌을 기획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행위원회가 결성되었다.<sup>374)</sup> 이 모임을 주도한 것은 민단지부의 석판술과 총련지부의 서대진이었다. 석판술이 민단지부를, 서대진이 총련지부를 설득하기로 역할분담을 했다. 다음의 서대진의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민단의 간부가 나오죠. 총련에서도 간부가 나오죠. 내가 아마 제일 젊었던 것 같은데, 민단의 사람들도 우리를 안 믿어줘. 같이 하자 해도. 조총련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100% 총련이 양보했죠. 민단 사무소에서 회의하고,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름은 민단 총련 합동 원코리아 라고 하는데 항상 민단을 앞세워 줬죠. 민단의 이름을. 그렇게 하니깐 점점 1세 민단의 사람들은 친해졌고, 해보자는 식으로 됐죠. 그런데 민단의 중앙도, 중앙본부도 이 모임에 대해서 비준을 해주지 않았습니니다. 조총련의 중앙도 여기에 비준을 주지 않았습니니다. 일단 보고를 해야 하지 않았습니니까? 조직이니까.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해도 괜찮아? 그래서 기다리는데 좀 기다리쇼 하는 거죠. 민단 본부는, 본부는 좋다고 하는데 아직 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을 기다리는데 이거는 못 기다리겠다고, 밑에서 올리자고. 없는 가운데 멋대로 했지요. 위의 비준 없이.<sup>375)</sup>

원코리아 다카라즈카가 처음 기획된 2000년은 이미 다카라즈카에서 민족마즈리

373) 서대진(1954년생), 2015년 5월 4일, 구술자 어머니 자택

374) 원코리아 페스티벌은 1985년부터 오사카를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던 재일조선인 축제였다. ‘원코리아 페스티벌 실행위원회’에서 기획하고, 총련과 민단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던 행사였다. 원코리아 페스티벌의 자세한 경과에 대해서는, ‘정갑수, 「정상회담 이후 재일동포사회의 화해·협력」, 『통일문제연구』 12(1), 2000’을 참고바란다. 이 무렵 ‘원코리아’라는 말은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다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고, 오사카의 원코리아 페스티벌에 참여하지는 못했더라도 그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75) 서대진(1954년생), 2015년 5월 4일, 구술자 어머니 자택

가 3회 정도 진행되고 난 이후이다. 그러나 민단지부와 총련지부 사이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상대에 대한 불신도 여전했다. 석판술과 서대진이 중간에서 조율을 담당했다. 실행위원회를 결성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만남이 거듭되면서 신뢰가 쌓여갔다. 오히려 문제가 됐던 것은 중앙본부의 비준이었다. 민단본부도, 총련본부도 비준을 해 주고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갔다. 실무자들은 마음을 졸이다가 결국 중앙본부의 허가 없이 행사를 진행했다. 원코리아 다카라즈카의 행사 준비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16>과 같다.

<표16> 원코리아宝塚의 준비 및 실행의 과정

|   | 날짜    | 시간    | 장소      | 모임명                            | 참가자            |
|---|-------|-------|---------|--------------------------------|----------------|
| 1 | 07.03 | 18:30 | 大八車     | 朝鮮總連宝塚支部役員과 民團宝塚支部役員의 간친회(懇親會) | 6명(민단·총련 각 3명) |
| 2 | 08.05 | 19:00 | 조선초급학교  | 朝鮮總連宝塚支部 광복절 축하회 참가            | 4명(민단)         |
| 3 | 08.09 | 14:00 | 민단지부    | 원코리아宝塚실무자회의                    | 15명(민단·총련)     |
| 4 | 08.25 | 12:30 | 宝塚시역소   | 원코리아宝塚 경로축하회에 관한 기자회견          | 4명(민단·총련 각 2명) |
| 5 | 09.04 | 13:00 | 민단지부    | 원코리아宝塚에 관한 논의                  |                |
| 6 | 09.07 | 13:00 | 민단지부    | 원코리아宝塚실무자회의                    | 민단·총련 합동       |
| 7 | 09.14 | 13:00 | 민단지부    | 원코리아宝塚실무자회의                    | 18명(민단·총련)     |
| 8 | 09.17 | 11:00 | 시역소하천부지 | 원코리아宝塚 경로축하회 개최                | 약 700명 참가      |
| 9 | 09.29 | 18:30 | 조선초급학교  | 원코리아宝塚 경로축하회 반성회               | 10명(민단·총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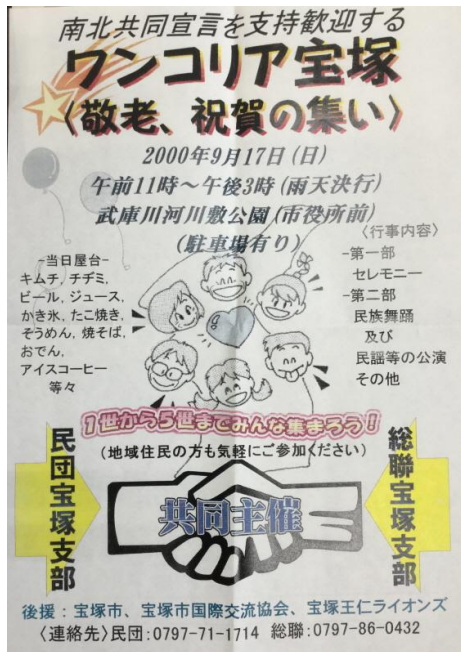
※ 출처 : 在日大韓民國居留民團 兵庫県宝塚支部, <總括報告>, 《第41回 定期支部大会》, 2001.6.10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보름여가 지난 후인 7월 3일 다카라즈카의 음식점에서 민단지부와 총련지부의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원코리아 다카라즈카에 대한 구상과 양 조직 사이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다카라즈카 조선학교에서 진행된 광복절 축하회에 민단에서 4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민단지부와 총련지부가 결성된 후 민단지부의 간부가 총련지부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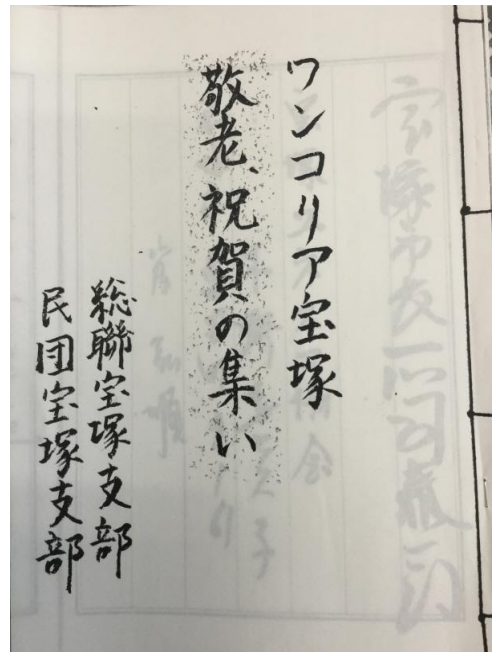
원코리아 다카라즈카 행사의 진행을 위해 실무자 회의가 진행될 때, 장소는 모두 민단지부의 사무실이였다. 8월 9일은 총련지부의 간부가 민단지부의 사무실을 방문한 최초의 날이였다. 8월 25일에는 시역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몇 차례의 실무자 회의를 거치면서 장소, 시간, 공연프로그램, 음식관 매점설치, 홍보물 발행 등 행사 운영을 위한 각종 논의를 진행했다. 장소대여를 위해 다카라즈카 시와 어떻게 교섭 할 것인지, 주요 방안에 대해서도 결정했다. 남북 간 분위기가 좋았기 때

문에 다카라즈카 시에서도 장소 대여 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sup>376)</sup> 그리고 9월 17일 다카라즈카 시역소 앞의 무코가와 하천 부지에서 경로회를 겸한 원코리아 다카라즈카 행사가 진행되었다.

다음의 <그림18>은 원코리아 다카라즈카의 행사 안내를 담은 홍보 전단지이다. 이 전단지는 행사 전과 행사 당일에 배포되었다. <그림19>은 원코리아 다카라즈카 행사 방명록의 표지이다. 이 두 자료를 통해서 당시 원코리아 다카라즈카의 행사 내용과 참여자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18> 원코리아宝塚 전단지



<그림19> 원코리아宝塚 방명록 표지

<그림18>의 전단지에는 행사명, 시간, 장소, 내용 등에 대한 안내가 있다. 행사 내용을 보면 1부에 기념식을 거행하고, 2부에 민족무용, 민요 등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또한 당일 음식 판매대 설치에 대해서도 안내가 이루어졌는데, 김치, 지지미, 타코야키, 야키소바 등 주요 먹거리와 마실거리에 대한 판매를 알리고 있다. 하단에는 “1세부터 5세까지 모두 모이자”라고 쓴 다음에 민단지부와 총련지부의 공동개최를 강조하는 그림을 넣고, 다카라즈카 지역주민들에게도 참가를 부탁하고 있다. 재일조선인을 위한 축제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도 열린 축제로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코리아 다카라즈카의 경우 방명록이 남아 있어 당시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하다. <그림19>의 방명록에는 총 136명의 서명이 있다. 우선 중의원의원(衆議院議員)과 그 비서, 효고현 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다카라즈카 유

376) 서대진(1954년생), 2015년 5월 4일, 구술자 어머니 자택

네스코 협회관계자, 다카라즈카 국제교류협회 부회장, 국제문화센터 직원, 지역소 직원, 민단본부 부단장(副團長), 총련본부 부단장, 그리고 민단지부와 총련지부의 사람들, 다카라즈카 주민 등이 방명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행사에는 의회 의원들부터 지역소 역원, 다카라즈카의 국제교류 관련 협회의 관계자들이 골고루 참여했다. 일본의 입법 및 행정 쪽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한 것이 눈에 띈다. 재일조선인들이 비록 선거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교류를 통해 가능한 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날 축제에 참석한 인원은 700~750명 정도이고, 기부금도 상당한 액수가 모였다. 이 기부금은 민단지부와 총련지부가 각각 절반으로 나눠서 한국학원 및 다카라즈카 초급학교의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었다.

원코리아 다카라즈카의 중앙 무대에서의 공연과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의 모습은 다음의 <그림20>, <그림21>과 같다.



<그림20> 원코리아宝塚 - 무대공연



<그림21> 원코리아宝塚 - 무대 밑

<그림20>를 보면 무대에 한반도기를 설치해서 통일의 염원을 드러냈고, 장구팀, 소고팀, 사물놀이팀 등 여러 팀이 공연을 진행했다. <그림21>은 무대 아래의 모습으로,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다. 일본인 주민들에게도 참여를 요청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만 행사 장소인 무코가와 하천부지는 다카라즈카 주민들의 대표적인 쉼터로 주말이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축제를 모르고 왔다가 참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행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한 주민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이 행사는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그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 지부의 멤버가 모여, ‘조국이 해빙의 상태이다. 지금까지 단체로서 정식교류는 없었다. 우리도 공동으로 무엇이든 하자’라고 누구랄 것도 없이 이야기를 했다. 경로의 날로 정하고, 재일1세가 땀을 흘렸던 무코가와 하천부를 행사장으로 선택했다. (...중략...) 민단 다카라즈카지부의 박덕규(朴德珪, 60) 단장은 ‘같은 지역에 사는 같은

민족이 1세의 위업(偉業)을 축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제 양지부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싶다'. 조선총련 다카라즈카지부 곽병출(郭柄出, 53) 위원장도 '우리들은 원래 하나다. 지금부터라도 손을 잡고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sup>377)</sup>

신문 기사를 통해 원코리아 다카라즈카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행사 날짜는 재일 1세를 위한 경로의 날이고, 장소로 선택된 무코가와는 재일1세가 처음 다카라즈카에 와서 정착한 지역이다. 원코리아 다카라즈카를 진행하면서 “재일 1세의 다카라즈카 이주”라는 역사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나름 고심을 했던 것이다. 일본에 정착한 재일조선인 2세로서 1세의 고생을 치하하고, 그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현재는 총련과 민단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그 뿌리는 원래 하나였음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축제는 2000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3회에 걸쳐 민단지부와 총련지부가 함께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축소되었지만, 골프대회의 경우 기금을 모으기에 훨씬 유리한 면이 있었다. 골프대회에 대해 서대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총련 학교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원코리아에서 골프 대회 하고, 많이 모였습니다. 어, 골프 좋아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골프 하는 사람만, 교포만 아니고 일본 사람도 여러 가지 뭐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실시를 한다고. 왜냐면은 아까 말은 그 민단 조직도 자금이 충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총련은 학교 그 운영하는데 돈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때 하나 1인당, 골프 그 뭐야 플레이하고 식사하고 상품도 사고 그래서 그 안에 기부를 조금 넣고, 기부금 조금 넣고 그래서 1인당 얼마라고. 많이 왔어요. 백, 백명이, 백명 이상 모였죠.<sup>378)</sup>

2000년의 원코리아 다카라즈카의 경우 시간과 노력이 매우 많이 투입되는 행사였다. 그러나 매년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재일조선인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뒤를 따랐다. 다카라즈카 초급학교의 경우 운영비의 부족이 큰 문제였다. 민단의 경우도 자금이 부족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행사의 성격 자체를 아예 기금모금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골프대회는 축제보다 준비가 용이했고, 일본인이 참여하기도 좋았으며, 기금을 모으기에도 유리했다. 1회 대회는 2001년 11월 22일에 열렸다. 명목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후원이었다. 참가자들에게 참가비 및 기부금을 받았고, 이렇게 모은 기금은 고령자를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하거나 조선학교, 한국학원의 운영비로 사용했다. 2회 대회는 2004년 7월 1일에, 3회 대회는 2008년 7월 3일에 개최되었다. 골

377) 『毎日新聞』 2000.09.16, ‘在日1歳の偉業共に祝う-あすワン・코리아宝塚の集い’

378) 조용수(1949년생), 2018년 5월 11일, 민단 사무실

프대회 외에도 등산을 함께 간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행사도 진행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한국의 보수정권 집권에 따라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결국 행사는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행사는 비록 중단되었지만 양자 사이의 관계는 이전과 달라졌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그 때[원코리아 다카라즈카 실행을 논의할 때] 약속한 것이 조선신보를 민단 사무실에 넣어준다, 우리도 받고. 관혼상제도 서로가 알리고. 특히 누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서로가 알리자고. 그것도 동포 사이에 오해가 풀리는 계기가 되니까. (...중략...) 옛날 민단 사람들이 볼 때, 만나면 무시하거나, 총련놈들.. 하거나 했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지고, 오히려 안부를 서로가 묻고.<sup>379)</sup>

저 조총에서 니시야마(西山)[석관술] 상인가, 조총에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민단지부 사무실] 상대해서 여기서 모여서 [회의] 했는 거 그런 거 있었지.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지. 개인적으로는 있었지. 개인적으로는 있었지만,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었지. 그래서 그 페스티벌 있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더 사이가 좋아졌지.<sup>380)</sup>

원코리아 다카라즈카 이후 민단지부와 총련지부 사이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중앙본부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서로의 사무실에 무료로 넣어주고, 부고나 결혼 같은 소식에 대해서도 서로 알려주게 되었다. 남북관계에 따라 사이가 나빠지거나 공동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다. 이 때의 협력 과정은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에게 중요한 경험이 되었고,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공동체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와 함께 언제든 다시 협력을 시도해볼 수 있게 되었다.<sup>381)</sup>

원코리아 다카라즈카는 외부세력의 조력이나 별도의 매개체 없이, 자발적으로 민단지부와 총련지부 사이에서 소통과 교류가 시작된 최초의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두 조직을 넘나드는 석관술 같은 이의 존재가 큰 역할을 했다. 이 때 결성된 교류의 움직임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또 2000년 이후부터는 다카라즈카 시에서 주최하는 다카라즈카 마츠리에 민단과 총련이 '원코리아'라는 하나의 팀을 결성해서 참여하기도 했다. 원래 이 행사에는 민단만 참여하고 있었는데, 원코리아 다카라즈카 이후에 자연스럽게 하나의 팀을 결성해서 참여하게 된 것이다.<sup>382)</sup> 다카라즈카

379) 서대진(1954년생), 2015년 5월 4일, 구술자 어머니 자택

380) 안중구(1941년생), 2015년 5월 5일 민단 사무실

381) 2018년 봄 총련지부에서 개최한 하나미 행사에 민단의 단장, 부단장, 부인회 회장, 사무원 등 5명이 참석했다. 총련지부의 초청에 의한 것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계기가 되었다. 양자 사이에는 앞으로의 교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원코리아 행사를 다시 한 번 더 추진하자는 이야기가 오고갔다.

382) 다카라즈카 시에서는 1972년부터 다카라즈카 마츠리(宝塚まつり)를 개최했다. 재일조선인은 관객으로 이 마츠리에 참여했는데, 1987년 8월 24~25일에 열린 다카라즈카 마츠리에 민단지부가 농악대 40명을 보내면서 공연팀으로도 참여하게 되었다(在日大韓民國居留民團 兵庫県宝塚支部, 〈學園關係報告〉, 《第30回 定期支部大会》, 1989.7.2). 앞서 언급했듯이 1983년에 니시다가와 마을 문제로 민단지부와 총련지부의 관계자들이



마즈리는 8월에 진행하는 1박 2일의 지역 축제인 다카라즈카 주민의 참여가 특히 높았다. 그런 주민들 앞에서 재일조선인은 전통문화 공연팀으로 출연하면서 하나의 집단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된 것이다.

다카라즈카 민족마즈리는 재일조선인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인과 재일조선인 사이의 교류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다카라즈카 외국인 중 재일조선인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재일조선인을 중심에 놓고 시작한 축제였지만, 조선인만을 위한 축제는 아니었고 실행위원회에 참여한 재일조선인의 역할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다. 재일조선인 사회의 분열이나 민족정체성의 약화와 같은 재일조선인의 문제의식은 축제에 반영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남북관계가 개선되자, 민단지부와 총련지부 사이에는 조직 차원의 협조관계가 구축되고 이를 바탕으로 원코리아 다카라즈카를 진행했다. 기존에 존재하던 혈연, 지연, 학연 등의 관계가 행사 진행의 원동력으로 작동했고, 재일 1세 이주의 역사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행사를 구성하고 진행하면서, ‘하나 되는 민족공동체’ 결성을 시도하기도 했다.<sup>383)</sup> 비록 이 행사는 2008년 이후 중단되었지만, 이것을 계기로 구축된 재일조선인 사이의 우호 관계는 일정 부분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

다카라즈카 시 관계자와 피해보상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의 만남 이후에 민단지부가 이 축제에 참가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총련지부에서 다카라즈카 마즈리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없고, 사실 인터뷰에서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구경을 갔겠지만 재일조선인 조직 차원에서 참여한 것은 민단으로 보인다. 민단의 경우, 1987년의 공연팀 참가 이후 민단은 다카라즈카 마즈리에 계속적으로 사물놀이팀과 공연팀을 보내고 있고, 1996년부터는 아예 다카라즈카 마즈리 개최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다(在日大韓民國居留民團 兵庫縣宝塚支部, 〈活動報告〉, 《第37回 定期支部大会》, 1997.6.8).

383) 본문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못했는데, 원코리아 다카라즈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일조선인 사회의 젠더문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재일조선인 사회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힘이 발휘하고 있는데, 남성들이 회사, 학교, 조직활동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과는 달리 여성들은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조직을 넘나드는 네트워크를 거의 만들지 못했다. 지역 내 여러 교류 과정에서 여성이 소외되는 현상이 실제로 목격되기도 했다. 원코리아 다카라즈카가 지속되지 못한 원인 중에는 여성이나 아동 사이의 교류 관계가 부재했었다는 것도 있을 것이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사회의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V. 다문화공생과 재일조선인의 지역사회 재정착운동

### 1. 지역주민으로서의 재일조선인

#### 1) 자치회의 가입과 활동

1954년 다카라즈카정(구 코하마촌)과 료겐촌이 합병되면서 만들어진 ‘다카라즈카 시 건설계획’은 1955년 나가오촌과 니시타니촌의 합병과 함께 재정비되었다.<sup>384)</sup> 다카라즈카의 도시 발전 방향을 관광도시, 주택도시로 설정한 이 계획에 따라 1950년대 지역소를 비롯하여 소·중학교의 교육시설, 소방시설, 병원 등의 위생시설, 도로·교량 등의 토목시설, 수도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 1961년 ‘신도시건설계획’ 실시와 함께 도시화는 더욱 진전되었고, 1960년대 외부에서 다카라즈카로 젊은 인구들이 새롭게 유입되기 시작했다.

1960~70년대 다카라즈카의 시간대별 유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오사카, 고베, 교토 등 인근 도시로의 이동이 매우 많았다. 인구의 진출과 진입 통계를 보면 매년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카라즈카로 유입되거나, 또 그만큼의 숫자가 다른 지역으로 진출되고 있었다.<sup>385)</sup> 해마다 젊은 사람 약 1만 명이 새롭게 교체되고 있는 셈이다. 고베나 오사카 등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이 다카라즈카로 유입 되었지만, 상당수는 단기 거주자였다.<sup>386)</sup> 다카라즈카 인구 변화의 특징인 ‘새로운 젊은 세대의 유입과 단기 거주’는 다카라즈카의 전통적 사회질서를 약화시켰다.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기 전, 다카라즈카 각 마을을 운영했던 것은 자치회였다. 자치회는 촌락공동체를 결속시키기 위해 신앙과 오락을 매개로 공동의 의식(儀式)을 행하던 코우(講) 조직에서 유래했다. 다카라즈카의 니시타니촌 나카타니(長谷)에는 여러 종류의 코우가 조직되어 있었다.<sup>387)</sup> 처음에 코우는 본가·분가라는 친인척 관계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가와 분가의 혈연적 관계가 멀어지면서 단순한 지역적 연대로 변화해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농가수가 감소하고 외부로부터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코우의 수는 더욱 축소되고 행사의 내용과 절차도 간소화되었다.<sup>388)</sup>

코우가 약화됨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나카타니 원주민은, ‘부락유재산에 관한규정

384) 宝塚市制三十年史執筆編輯, 앞의 책, 75쪽

385) 宝塚市篇, 앞의 책, 575~576쪽

386) 전통적 사회질서는 전통적인 신분질서일 수도 있고, 마을의 원주민과 이주민을 구분하기 위한 배타적 공동체성일 수도 있다. 또 피차별부락이나 재일조선인에 대한 편견과 관련을 맺고 있을 수도 있다. 전통적 질서의 해체는 과거와는 다른 가치에 눈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387) 묘를 공유하며 공동의 제사를 준비하는 하카코우(墓講)부터 농사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이세신궁(伊勢神宮)에 참배하는 이세코우(伊勢講), 고야산의 절에 참배하는 고야코우(高野講), 수해나 화재로부터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신사에 참배하는 코우 등이 있었다.

388) 余田博通, 「農業村落社會の倫理構造」, 『関西学院大学社会学部紀要』 47, 1983, 71~73쪽

(部落有財産に就ての定め)'(1955년 1월 26일)을 새로 만들었다. 재산처분에 관여하는 구성원의 자격을 새로 정했는데, 구성원이 되려면 본적이 나카타니에 있어야 하고, 거주기간은 30년 이상이 되어야 했다.<sup>389)</sup> 원주민들은 배타적인 조건을 통해 외부인을 배제함으로써 전통질서를 수호하고자 했다. 이러한 배타성 때문에 다카라즈카로 새로 이주해 온 일본인은 코우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외국인의 지위에 있었던 재일조선인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젊은 사람들의 단기간의 전입, 전출이 활발해지면서 코우가 담당하던 마을 운영은 점차 그 의미를 상실했다. 그 뒤를 이은 것이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자치회였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새로 개발된 주택지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민들 간의 관계가 과거의 촌락공동체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 자치회장은 나름의 권한 혹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1년 단위로 7~8인의 역원(役員)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자치회장을 담당하고, 마을제사를 기반으로 하는 친목활동보다는 회람판(回覧板)을 통한 정보 교환이나 마을 미화, 야간 순찰 등으로 활동도 더욱 단순화되었다.<sup>390)</sup> 관광지이자 베드타운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다카라즈카는 공동체성이 계속 약화되고 있었고, 행정당국에서는 자치회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은 언제부터 자치회에 가입하기 시작했을까? 재일조선인의 가입 시기에 대한 별도의 조사 자료는 없지만, 1960년대 이후 행정기관 차원에서 자치회를 조성하면서 재일조선인 역시 자치회에 가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부터 자치회는 마을 공동의 운영조직이라는 기존의 의미에서 벗어나, 당국에 의해 행정구역을 단위로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일조선인 역시 자연스럽게 자치회의 회원으로 편제되었을 것이다. 재일조선인의 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조옥진의 증언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여기가 다카마츠(高松)였지만 아버님이 30년 동안 자치회 회장이었어. (중략) 그러니까 다카마츠기타(高松北) 자치회는 아버님이 쭉 회장이었어. 자치회 쭉 회장 하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조선 사람이 많고 일본사람도 조금조금 있었고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은, 너무너무 웃기는 게 기타(北)가 있으면 미나미(南)가 있잖아. 미나미는 오키나와야. 우리 아버님도 오키나와는 아니야. 너무 웃기지 않아? 그 쪽은 오키나와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은 하나가 됐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냥 다카마츠 하는. 옛날에는 기타하고 그냥 다카마츠가 있었는데, 인제는 하나가 돼서, 세대수가 많으니까 몇 반 몇 반으로 나뉘져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 아버님이 잡고 있던 기타 자치회. 30년을 회장 했대니까, 아버님이.<sup>391)</sup>

389) 구성원은 부락협의비를 부담하고, 신행제(神幸祭) 거행, 신사·사원의 수리, 식목·별채 참여, 하천도로의 개수 등 마을 일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宝塚市篇, 앞의 책, 534~536쪽).

390) 田中義岳, 앞의 책, 39~40쪽

391) 조옥진(1954년생), 2017년 12월 12일, 구술자 자택

과거 타카마츠에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중심이 된 타카마츠 자치회와 재일조선인이 중심이 된 타카마츠기타 자치회, 두 개의 자치회가 있었다. 거주구역별로 민족구성이 달랐고, 그에 따라 자치회의 운영 역시 구별되어 있었다. 조옥진의 시아버지가 30년 동안이나 자치회 회장을 했다는 것을 보면, 재일조선인이 특정 지역에 밀집해서 거주하는 경우 자치회 운영이 재일조선인에 의해 독점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민족끼리 자치회가 구분된 것을 보면 행정적·공적 성격도 있었겠지만, 친목모임이자 공동체로서의 역할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마제 조선인들의 경우, 이미 총련지부 분회가 있었기 때문에 자치회에 따로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1969년부터나마제의 자치회장직을 역임했던 타루이 마사오(樽井正雄)는 총련지부나마제 분회장과의 교섭을 통해 자치회에 재일조선인 대표자를 파견하도록 요청했고, 2명의 조선인이 자치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들이나마제의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창구 역할을 담당했다.<sup>392)</sup> 형식적으로는 재일조선인 모두가 자치회에 속했지만, 타루이는 재일조선인 대표자와 접촉하며 자치회를 운영했다. 1993년 국도 176호선의 확장공사에 따라나마제의 조선인들이 집단으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 재일조선인을 대신해서 시 당국과 교섭을 담당했던 인물 역시 타루이 마사오였다. 당시 이주대상자였던 김두함은 그 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나마제는 시와 교섭을 해서 각자가 제대로 된 집을 세울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받아서 그 쪽에서 철거를 했어요.나마제의 경우는 모두가 부러워했던 경우입니다. 그 때 제가 분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자치회의 타루이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분회에 자주 불러서 사이 좋게 지내고 있었는데, 타루이 씨에게 다 맡길 테니까, 타루이 씨가 하는 일이면 모두 다 맡을 잘 듣겠다, 동포들이 나중에 불만이 없도록 잘 부탁한다고 했더니 타루이 씨도 잘 알겠다고 해서, 모두 철거가 되었는데 다들 좋은 집을 짓고, 그 중에 손해를 본 사람도 있었겠지만, 욕심을 내서. 그래도 그 타루이 씨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sup>393)</sup>

재일조선인은 개별적 협상 대신 타루이를 대리로 세워 일괄협상을 진행했고, 일본인들은 개별협상을 진행했다. 일괄협상을 하면서 재일조선인의 경우 모두가 비슷한 금액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타루이는나마제 조선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고, 이것은 자치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이후 재일조선인쪽의 대표 외에 다른 재일조선인도 자치회의 행사에 열심히 참여했다. 타루이 마사오에 대해서 재일조선인은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A : 그 사람(타루이 마사오)이 있을 때는 우리 여맹,나마제 부인회지요, 교류모임을 잘 했어요. 여기(나마제 분회사무실)서 식사 하고, 저, 비빔밥 했지요. 그 사람

392) 藤室玲治, 『ムラの政治』の戦後事 - 西宮市生瀬地区を中心に』, 神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8, 87~88쪽

393) 김두함(1934년생), 2015년 5월 2일,나마제 구술자 자택

오고. 비빔밥 해 가지고 잘 먹고 했는데, 그 때는 타루이 씨가 있어서 좋았어요.  
 B : 그러니까 그 분(타루이)이 계실 때는 여기 нама제에 경로모임이 있었어요. 노인, 노인들 하는. 그 때는 가무단(歌舞團), 옛날에 가무단이라고 총련에 많이,  
 A : 그러니까 нама제 경로회 할 때는 고베 가무단이 전부 오고, 드갔다가 나갔다가 했어요.  
 B : 타루이상이 잘 해주고 있었으니까.<sup>394)</sup>

자치회 행사에 재일조선인을 참여시킨 것도 타루이였다. 그는 자민당 출신의 시의원이었지만 нама제 재일조선인에게 인기가 많았다. 자치회에서의 좋았던 기억 때문인지 현재 нама제의 재일조선인들은 자치회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에 특별한 불만이 없었다.<sup>395)</sup>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재일조선인 마을에도 변화가 생겼다.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들의 빈자리를 일본인 주민들이 채우기 시작했다. 재일조선인 마을을 떠난 이들도 지역사회 곳곳으로 흩어져서 일본인 주민과 이웃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온코바의 경우 여전히 재일조선인의 거주비율이 높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일본인 주민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면서 마을 주민들 사이의 인간관계가 재편되어 갔다. 자치회에도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가입되었고, 재일조선인의 친목모임이 아닌 마을 공동의 사안을 관리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온코바의 마을 회관 역시 한신대지진 이후에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동포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사 가니까, 일본사람들이 왔어요. (...중략...)  
 (질문 : 자치회관도 있나요?) 여기[다카라즈카 한국회관]예요. 여기. 다른 데는 자치회관이 있는가, 온코바는 여기가 자치회관입니다. 그래서 피난소로도 되고. 지진이 나면 여기로 대피해요. (질문 : 그럼 일본인들도 오나요?) 물론이지요. 여기 주변의 일본인들도 모두 같은 자치회 소속이니까요. 일본인들은 평소에도 옵니다. 여기에.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 하러도 오고. (질문 : 자치회관에서 장례식 같은 것도 하던 데.) 물론. 여기도 합니다. 일본사람들이 필요하면 빌려줍니다.<sup>396)</sup>

온코바의 자치회는 한신대지진 이전에 회장직을 맡았던 사람이 공금을 유용해 임의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사건 때문에 전임회장이 물러나고 민단지부 사무실에서 자치회 관련 업무를 대신 맡게 되었다. 지진 이후에 다카라즈카 한국회관을 아예 자치회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민단지부 사무실은 주변의 일본인들이 원할 때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일본인과 조선인이 주민으로서 공유하는 장소가 된 것이다.

394) A: 정기자(1946년생), 2017년 12월 14일, нама제 분회 사무실 ; B 조말순(1938년생), 2017년 12월 14일, нама제 분회 사무실

395) 자치회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최근 일본의 젊은이들이 자치회에 가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396) 박명분(1948년생), 2018년 4월 13일, 민단 사무실

자치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효는 그 아버지가 오랫동안 자치회 회장도 하고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회비를 잘 냈지만, 이제는 회람판 열람 기능만 할 뿐, 가입해도 별다른 혜택도 없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2년 전부터 자치회 회비를 더 이상 내지 않고 있다.<sup>397)</sup> 자치회가 행정구역 단위로 구성된다고 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그 경우 자치회원으로로서의 권리 역시 인정받을 수 없다.

자치회에 가입해서 회비를 냄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자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정양식은 자치회에 대한 다른 재일조선인의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옆에 옆에 집부터는 다른 자치회요. 거기 영감님이 한 명 있는데, 그 자치회에는 회관이 있어서 누가 죽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때 그 영감님 부인인가 죽어서 그 회관에서 상(喪)을 했습니다. 거기는 자치회 회비를 내면 다 무료입니다. 그래도 그 영감님은 아이고, 일본 사람들 고맙다고. 지금도 일본사람들한테 은혜 입었다고 그래 말합니다.<sup>398)</sup>

재일조선인 중에는 자치회에 소속되어 있고, 회비를 내면서도 자신이 일본인 주민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치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일본인으로부터 배려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지역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한 것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잘못이라며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국민은 아니지만, 주민으로서, 자치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한다는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권리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의 변화는, 재일조선인 중에도 지역사회 정착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역주민으로서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자치회는 배타적인 재일조선인 조직이 아닌 사회의 말단 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자치회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중 상당수는 자치회에 가입해서 회비를 납부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고 있었다. 자치회를 통해 일본인 주민과의 접촉 빈도 역시 이전보다 증가했다. 대부분의 재일조선인은 일본에서의 영주(永住) 상황을 받아들였다. 이런 변화는 1994년 민단 중앙대회에서 민단의 정식명칭인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에서 일시체제를 의미하는 ‘거류(居留)’라는 말을 삭제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sup>399)</sup> 정주화가 진전될수록 재일조선인은 자신들의 권리 획득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도 자신이 총련 소속인지, 민단 소속인지, 그리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

397) 최근효(1954년생), 2017년 11월 3일, 구술자 자택

398) 정양식(1959년생), 2017년 10월 24일, 구술자 자택

399) 在日本大韓民國民團, 앞의 책, 221쪽

을 취하고 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상의 권리획득을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 2) 지역사회의 차별개선과 생활권 획득 운동

1954년 다카라즈카 시가 탄생한 직후부터 코하마의 ‘부락(部落)’에 대한 차별문제가 대두되었다.<sup>400)</sup> 다카라즈카 시에서는 피차별부락 사람들을 위해 교육 및 사회복지의 혜택을 확대하는 등 동화(同和) 정책을 실시했다.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던 부락민들을 일본국민으로, 또 다카라즈카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정책실시의 목적이었다. 동화대책심의회가 여러 차례 열렸고, 1969년에는 동화교육 기본방침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sup>401)</sup> 그런데 피차별 부락민 못지않게 지역에서 여러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던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는 차별 개선 조치들이 상당히 늦은 시기에 등장했다. 외국인이라는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주었을 텐데, 식민지 시기부터 이미 일본에서 살고 있던 재일조선인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다.

행정기관의 정책과는 별개로 지역 단위에서는 부락문제와 재일조선인 문제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다. 부락해방운동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재일조선인 문제가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 고베시 나가타가 있다. 나가타의 경우, 부락민의 차별 개선 운동 과정에서 지역의 활동가와 교사들이 일본 사회의 또 다른 피차별대상인 재일조선인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sup>402)</sup> 다카라즈카에서도 부락해방운동이 전개되면서 부락해방동맹 다카라즈카지부협의회(이하 ‘부락동맹’)가 결성되었는데, 이 단체는 1973년 다카라즈카에서 신경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원모임의 협조 단체로서 역할을 했다. 그 이후 부락동맹 차원에서 재일조선인의 차별문제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부락동맹 소속이었던 일본인 활동가가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차별 개선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sup>403)</sup> 이런 움직임에 더해 다카라즈카 시에서도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

400) 부락은 에도 시대의 최하층민인 에타(穢多)가 살고 있던 마을로부터 유래한 곳으로, 다른 말로 도와(同和) 지구라고도 한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부락주민(部落民) 또는 도와민(同和民)으로 불리면서 식민지 시기에도 계속 차별을 받고 있었다. 전후 각 지역에서는 차별개선운동이 전개되었다. 다카라즈카에서는 코하마에 마이타니(米谷) 지구라고 불리는 부락이 있었는데, 1970년, 1972년, 1975년에 마이타니 일부의 지명을 변경하고, 다카라즈카 마이타니 인권문화센터를 만들었다(兵庫部落解放研究所編, 『記録阪神・淡路大震災と被差別部落』, 解放出版社, 1996).

401) 1970년대 이후 정부차원의 동화대책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부락학생의 학업성취도와 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었고, 공교육제도 내에서 부락학생에 대한 차별행위는 점차 줄어들었다(박지환, 「현대 일본사회에서 부락문화의 형성 - 중졸 부락 남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145, 2011, 153쪽). 지자체에서 만든 동화교육 기본방침안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402) 이재호(1951년생), 2018년 4월 24일, 아마가사키 지인의 집

403) 피차별부락민으로써 차별을 받았던 일본인 다나카 히로미(田中ひろみ)는 부락에 대한 차별문제가 개선이 된 후에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학교, 위안부, 민족마쓰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단체를 결성해 차별반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조옥진(1954년생), 2017년 12월 12일, 구술자 자택).

재일조선인이 가장 많은 차별을 받았던 것은 직업선택의 문제였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조선인 2세도 국적이 일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많은 재일조선인은 자영업자가 되거나 혹은 일본인이 꺼리는 파친코나 3K(3D)업종에 종사했다. 실제로 1970년대 일본 각지에서 재일조선인에 대한 취업차별 문제가 발생했다. 1970년 가와사키에서 발생한 히타치(日立) 취직차별이 대표적이다.<sup>404)</sup>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도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수원 입소를 거절당한 김경득의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문제는 재일조선인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국적에 따른 취업차별 문제가 대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지역의 공무원임용에서 국적조항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1953년 1월 효고현이 공무원 채용에서의 국적조항을 신설하면서 다카라즈카를 비롯한 현내 다른 지자체도 그 방침을 따랐다. 취업차별 반대운동이 거세지자, 1974년 전국에서 최초로 아마가사키시, 니시노미야시, 카와니시시, 이타미시, 아시야시(芦屋市), 그리고 다카라즈카 시 등 6개 시에서 국적조항을 철폐했다.<sup>405)</sup> 이 조치 후 1974년 4월에 카와니시 1명, 니시노미야 1명, 아마가사키 3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했다. 1982년에는 효고현의 교육위원회가 교원채용에서도 국적조항을 철폐했다.

다카라즈카 시는 1974년에 공무원채용시 국적조항을, 1990년에는 소방직에 대한 국적조항을 철폐했다. 고베시의 경우 1984년 일부 기술직, 전문직 채용의 국적조항을 철폐했고, 1997년 소방직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 국적조항을 철폐했다. 고베시와 비교하면 다카라즈카 시의 국적조항철폐 조치가 상당히 이른 시기에 그리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적조항 철폐 후에, 실제로 재일조선인이 다카라즈카 공무원으로 취업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06)</sup> 이 때문에 다카라즈카에서 국적조항 철폐가 재일조선인의 차별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타지역 보다 이른 시기에 여러 조치가 취해진 것을 보면, 차별개선의 의지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 문제나 지문날인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 세금 납부를 비롯하여 지역주민으로서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민단을 중심으로 지문날인거부운동, 지방참정권획득운동 등이 시작되었다.

1980년 9월 도쿄 신주쿠(新宿) 구역소에서 재일조선인 1세 한종석(韓宗碩)이 지문날인을 거부했다. 1947년 외국인등록령 이래로, 재일조선인은 만 14세가 되면 구역소나 시역소를 방문해 외국인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했다. 이 등록증은 평상시에도 항상 휴대해야 하고, 3년마다 갱신해야 했다. 그런데 최초 등록과

404) 통명(通名)으로 합격한 재일조선인 청년 박종석이, 본명이 기재된 호적을 회사에 제출하자 회사가 그의 취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

405) 全日本自治団体労働組合 兵庫県本部, 《兵庫県下の国籍条項撤廃について》, 2000

406) 2018년 4월 다카라즈카 시역소에 문의한 결과, 시역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한국적 혹은 조선적을 가진 사람은 현재까지 없다고 한다.



갱신 때 마다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해야 했다. 재일조선인 내부에서는 지문을 날인하는 것이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종석의 반대는 전국에 보도되었다. 최창화 목사가 여기에 호응하며,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에서 지문날인거부운동을 교회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이후 전국의 기독교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지문날인거부운동이 전개되었다.<sup>407)</sup> 일본 각지의 재일조선인 2세대들 역시 지문날인거부운동에 동참했다.

다카라즈카의 경우 민단지부에서 지문날인거부를 홍보하고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일을 담당했다. 1986년 민단지부의 정기총회 자료에 지문날인거부의 경과가 짧게 등장하는데, 재일조선인의 권익옹호운동의 일환으로 ‘지문날인 유보운동(指紋捺印留保運動)’을 전개한 것이다. 외국인등록증의 지문날인뿐만 아니라 상시휴대의무를 폐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런데 민단지부의 기록을 보면 그 다음해인 1987년에 전국의 민단원들과 양심있는 일본인의 호응과 지지로 이 운동이 성황리에 ‘종결(終結)’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408)</sup> 그러나 일본에서 지문날인제도가 완전히 폐기된 것은 1993년이었고, 1987년에는 갱신 때 마다 하던 지문날인을 최초 1회만 하는 것으로 완화된 상태였다. 실제로 지문날인거부운동에 참여했던 신유진의 이야기를 보자.

(질문 : 지문날인거부에 관해서는 어떤 걸 통해서 알게 되셨어요?) 신문에서, 신문 보고. ‘아이고, 나도 옛날부터 싫어했는데 이 사람[박종석]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나도 다음에는 꼭 해보겠다.’ 근데 그 때는 신문 볼 때는 결혼 아직 안했고, 애라 태어나니까 낱아보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은 애들이 열 여섯 살 되면은 또 시작하니까 이거는 엄마가, 엄마로서 절대로 시지 않겠다고 해서, 어린애 뭐야 아들엽고 딸을 데리고, 지문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 혹시 총련이나 민단이나 이런 재일조선인단체나 혹은 뭐 근처의 재일조선인 교회나 이런데서 지문날인거부운동을 하자 하는 광고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었어요. 내가 아는 친구도 없고, 나 혼자서 했으니까. 얼마나 덜덜덜덜 했는지 모르겠어.<sup>409)</sup>

신유진은 민단의 안내나 홍보가 아닌, 신문을 보고서 지문날인거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스스로 그것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며, 그대로 실천했다. 민단지부 측의 홍보가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시기에 민단지부에서 집중했던 일은, 앞서 다뤘던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재일조선인 고령자를 위한 특별 급부금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양쪽 모두 재일조선인의 권익과 관련된 일이었지만 전국적인 운동보다는 역시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혜택, 가시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성과를 확보하는 데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407) 지문날인 거부에 대한 서명을 받으러 다니거나, 매월 15일을 지문날인 거부의 날로 정해서 지문날인거부를 ‘예고’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독려하기도 했다. ; 在日大韓基督敎會歷史編纂委員會, 『(在日大韓基督敎會)宣敎90周年記念誌:1908-1998』, 在日大韓基督敎會, 2002, 15쪽 ; 李清一, 『在日大韓基督敎會宣敎100年史:1908-2008』, かんよう出版, 2015, 238~241쪽

408) 在日大韓民國居留民團 兵庫東宝塚支部, 〈總括報告〉, 《第29回 定期支部大会》, 1986.5.10

409) 신유진(1950년생), 2017년 6월 26일, 민단 사무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민단지부가 재일조선인의 권익옹호운동의 일환으로 또 하나 집중했던 것이 바로 참정권 획득운동이었다. 민단본부에서는 1991년을 앞둔 시점부터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확보 및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 전개를 지시하고, 각 지역의 민단에서는 시역소, 시의회를 대상으로 재일조선인의 일본인과의 동등한 권리 인정을 요구하는 각종 요망서(要望書)를 제출했다.<sup>410)</sup> 민단지부에서도 1992년부터 매년 시의회에 지방참정권획득을 위한 요망서를 제출했고, 1995년 12월 5일에는 지방참정권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다카라즈카 시장과 시의회의장에게 각각 전달했다. 같은 해 12월 12일 다카라즈카 시의회는 “정주외국인지방참정권의견서(定住外國人地方參政權意見書)”를 결의했다<sup>411)</sup>. 민단지부에서는 지방참정권 요구에 대해 “지역주민으로서 공생·공영하며 살아가기 위한 권리”라고 말했다. 의견서 채택 이후에도 지방참정권을 입법화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지방자치체에 대해서는 요망서를 제출하고, 광고지 등을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 민족마르리를 활용해 다카라즈카 시민그룹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이 참정권 문제를 놓고 민단지부와 총련지부 내부에 온도차가 존재했다. 총련지부의 경우 공식적인 입장은 지방참정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참정권을 받게 되면 고국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일본사회에 더욱 동화될 우려가 있고, 재일조선인 사회가 선거를 놓고 서로 분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sup>412)</sup> 과거 총련에서 활동하고 현재도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김재술은 참정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들은 외국인인데, 참정권은 별로,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선거권을 달라고 하면 일본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차별개선]에 안 좋을 수도 있고. (질문 : 선거권 보다는 다른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좋다는 말인가요?) 그거는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외국인인데 선거권을 주는 건. 오히려 보조금 쪽이 도움이 되지 않는가. 보조금은 주고 있던 거니까.<sup>413)</sup>

그는 외국인인 재일조선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학교의 보조금 문제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참정권 운동이 일본인에게 재일조선인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다. 총련지부의 간부들은 선거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총련지부 관계자 중 많은 수가 지방참정권 획득에 대해 긍

410) 在日本大韓民國民團, 앞의 책, 192쪽

411) 일본은 정주외국인에 대해서 참정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1995년 2월 28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는 헌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각 지방 의회에서는 정주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는데, 다카라즈카 시의회도 1995년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 강제가 없는 의견서에 불과했고, 재일조선인은 법률 제정을 위한 활동을 계속 전개했다.

412) 심숙정(1954년생), 2017년 12월 14일, нама제 분회사무실

413) 김재술(1950년생), 2017년 6월 13일, 구술자 자택

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비 공식 혹은 ‘내 생각’에 불과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과거 총련조직에서 활동했던 두 사람은 선거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거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게 있고, 선거 있으면 일본 정치인들이 우리도 보고, 우리도 그래, 힘이 좀 생기고,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 그렇습니다. 근데 총련은 싫어라 합니다. 위원장도 안 된다고, 선거권 안 된다고. 일본인도 아닌데 필요 없다고.<sup>414)</sup>

[질문 : 지역의 선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아무래도 외부에 있으니까, 나는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조직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총련 조직과의 갈등과 징계를 받았던 일]. 우리는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안정되지, 그,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생긴 거는 일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잘 몰라요, 일본 사람들도, 그래도 내는 알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 많은 데 가면 좀 위축되고 그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역시 일본에서 사는데, 살면서 필요한 그런 거, 권리 같은 거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도 듭니다.<sup>415)</sup>

지방참정권 획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지방참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지역에서 영향력이 커질 수 있고 차별문제 등을 개선하는 데에도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총련지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참정권 획득 운동은 민단지부 단독으로 전개되었고, 때로는 총련지부 사람으로부터 불만 섞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총련의 태도에 대해 민단지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총련은 선거권을 반대합니다. 이상하지요? 자기 권리에 관한 문제인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거권을 달라고 운동 하는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재일조선인도 공무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반대를 했습니다. 일본인이 된다고, 재일조선인이 없어진다고. 이상하지요? 그런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sup>416)</sup>

재일조선인으로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처럼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조직 차원의 대응이 달라서 사안별로 대립하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민단지부가 지문날인거부운동, 참정권획득 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 총련지부의 관심은 온통 다카라즈카 초급학교에 쏠려 있었다.

참정권 운동이 한창 진행되던 1990년대 중후반은 초급학교의 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다카라즈카 초급학교의 경우 1982년부터 다카라즈카 시로부터

414) 김민철(1946년생), 2016년 8월 4일, 구술자 자택

415) 최근효(1954년생), 2017년 11월 3일, 구술자 자택

416) 오다 마리코(1949년생), 2018년 4월 13일, 다카라즈카 서공민관

재정 지원을 받고 있었다.<sup>417)</sup> 다카라즈카의 시민단체가 시를 압박하며 초급학교를 지원했기 때문에 보조금의 수준은 상당히 높았다.<sup>418)</sup> 1995년에 한차례 금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지급수준이 전국에서 두 번째였다.<sup>419)</sup> 그러나 학교 부지의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초급학교는 심각한 재정문제에 부딪혔다. 1948년 학교를 처음 세울 때 당시 일본인 지주로부터 1평당 1엔의 임대료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아들이 주인이 되면서 임대료가 대폭 상승한 것이다.<sup>420)</sup>

2001년 6월 초급학교가 재정문제로 이타미 조선학교의 통합이 결정되자, 조선문제를 생각하는 다카라즈카 시민의 모임 회원들은 다카라즈카조선초급학교의 존속을 기원하는 모임(宝塚朝鮮初級學校の存續を願う会, 이하 ‘존속기원모임’)을 결성했다. 존속기원모임은 우선 다카라즈카 시에 학교용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시가 부지를 인수해서 초급학교에 썬 임대료로 빌려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일본인 교사와 주부, 재일조선인 등이 참여했다. 약 두 달 동안 시민 7754명의 서명을 받았고, 2001년 12월 11일 서명서를 시에 제출했다.<sup>421)</sup> 그러나 다카라즈카시가 학교용지매입을 거부하면서 결국 초급학교는 이타미조선학교로 통합되었다.

2002년 3월 24일 초급학교 운동장에서 폐교식이 진행되었다. 폐교식에서는 그동안 학교에서 진행했던 여러 행사의 사진을 전시했고,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모두 함께 모였다. 어려운 시절 함께 지켜온 학교였기 때문에 다카라즈카 사람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매우 컸다. 당시 학교 폐교를 지켜봤던 조종우는 깊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금 20년간 굉장히 일본 경제가 나빴고, 특히, 일본경제가 나쁜 것에 제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효고학원이 자기들이 다카라즈카 하고 이타미 하고 통합, 다카라즈카 폐교하고 통합하자는 의견을 내왔어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것은 내, 다카라즈카는 120명 있었어, 학생이. 그렇게 우리가 오랜 역사를 해왔는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 학교 보낸다고 했는데. 뭔데 너희들이 임마 120명 있는 학교를 왜 폐교, 통합해야 하나, 더군다나 여기는 역사가 일본에서, 효고에서 세 개(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자주학교예요. 그런 학교를 폐교한다 해서 내가 일단, 내가 굉장히 반대했어.<sup>422)</sup>

학교가 없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동시에 통합을 결정한 효고 본부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본의 차별에 굴하지 않고 자주학교로서 오랫동안 학교를 유지해왔고, 학생 수도 많았는데 갑작스런 통합 결정은 총련지부 재일조선인에게 큰

417) 宝塚市, 「外国人」, 『第2次宝塚市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基本方針』, 宝塚市, 2006, 47쪽

418) 「日本市民ら感謝のコンサート - 20數年にわたる交流」 『朝鮮新報』, 2002년 4월 12일

419) 「宝塚朝鮮初級學校の兒童に, 高水尊の補助金を支給」 『毎日新聞』, 1994년 3월 20일

420) 심숙정(1954년생), 2018년 4월 18일, 구술자자택

421) 「宝塚朝鮮初級學校 存續へ 地域の日本人が異例の署名運動」 『毎日新聞』, 2001년 10월 18일 ; 「朝鮮學校用地の買い上げ, 宝塚市長「できない」 存續願う会の署名提出に」 『毎日新聞』, 2001년 12월 12일

422) 조종우(1943년생), 2016년 8월 5일, 자택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다카라즈카 초급학교가 없어지고 난 후에도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은 계속 되었다.

존속기원모임은 해산하는 대신, 조선학교를 지지하는 다카라즈카 시민의 모임(朝鮮學校を支える市民の会, 이하 ‘학교지지모임’)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카라즈카 초급학교가 통합된 이타미 학교에 대한 지원 활동을 계속했다.<sup>423)</sup> 다카라즈카의 아이들이 여전히 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2년 다카라즈카 초급학교 폐지 이후 다카라즈카 시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려고 하자, 학교지지모임과 총련지부의 재일조선인들이 격렬한 반대운동을 전개했고, 결국 이타미조선학교와 아мага사키조선학교에 다니는 다카라즈카의 학생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것은 오사카부가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모두 중단했던 것과 대비가 된다. 비록 다카라즈카에서는 학교가 없어졌지만 이타미에 여전히 학교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총련지부의 재일조선인들은 멀리 있는 참정권 문제 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조선학교 보조금 문제가 더욱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1990년대 이후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들에게 지역사회의 정착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었다. 민단지부에서 만든 회의 자료에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전개된 것이 지문날인거부운동과 지방참정권획득 운동이었다.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하지는 않았지만, 재일조선인이라는 존재가 지역사회에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반면에 총련지부는 조선학교 보조금 투쟁을 통해 민족교육을 지키려고 했다. 총련지부에서 보조금 지불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자신들이 다카라즈카에 살면서 주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재일조선인의 생활상 권리 획득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민단지부와 총련지부는 생각의 차이를 드러냈다.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매우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각자 운동을 하고 지역사회나 일본의 행정기관에 대해 요구하던 내용의 바탕에는 재일조선인도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확신이 점차 성장하고 있었다.

이 시기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사회운동은 매우 고전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민단지부와 총련지부 같은 기존의 조직이 여전히 지역의 운동을 주도했고, 새로운 사회운동 단체는 성장하지 못했다. 오사카나 교토, 도쿄의 기독교계 조직처럼 제3의 조직이 두드러지지 못했다. 또 오사카에서는 재일조선인 3세, 4세가 함께 모여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을 결성하고, 독자적인 문화운동을 실천하고 있었는데,<sup>424)</sup>

423) 학교지지모임의 대표인 사사키 기분(佐々木基文)은 다카라즈카 중학교 교원 출신으로 현재는 절의 주지스님으로 다카라즈카에서 다양한 인권활동을 하고 있다. 실무 책임자인 다나카 히로미(田中 ひろみ)는 피차별부락 출신으로 일본의 차별문제에 매우 열심히 저항한다. 학교지지모임은 이타미 조선학교를 지원하고, 동북대지진 이후에는 후쿠시마의 조선학교 학생들을 다카라즈카로 초청해 매년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카라즈카의 총련지부와 협조해서 재일조선인 관련 영화 상영회, 위안부 문제 강연회, 수요집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초급학교가 없어진 후에도 이타미조선학교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카라즈카, 이타미의 재일조선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24) KEY의 회원자격을 보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에 뿌리를 가지는 자로 단체의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다. 이들은 자기자신을 오카사 지역에서 풍부한 문화를 창조해가는 재일코리안 청년으로 정의한다. 그동안 차

다카라즈카의 경우 이러한 젊은 재일조선인의 활동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카라즈카는 관광도시이긴 하지만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도시 자체의 생산성이 높지 않았고, 직장을 찾아서 외지로 나가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재일조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 2세와 인터뷰 할 때 그들의 자식들은 직장생활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sup>425)</sup> 다카라즈카에 남아 있는 젊은이의 숫자 자체가 적었고, 이들을 민단이나 총련으로 유입시키는 것도 사실상 실패했다. 민단지부와 총련지부의 정치적 역할은 과거에 비해 축소되었고, 젊은 세대의 상실과 함께 조직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다카라즈카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 후반부터 다카라즈카에서는 제3의 세력에 의한 사회운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거기에 참여한 이들은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 일본인으로, 세대로 보면 장년과 노년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 2. 다문화공생 정책과 외국인 시민문화교류협회

### 1) 다카라즈카 시의 다문화공생 정책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끝나고 난 후,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수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했지만, 일본인 인구 대비 비율은 0.6~0.7% 사이를 오가며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후 일계(日系) 외국인이라고 불리는 남미출신의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부터이다. 외국인의 증가는 일본의 이민정책과 외국인정책의 수정을 가져왔고, 일본 각지에서는 ‘다문화’가 중요 이슈로 떠올랐다.<sup>426)</sup> 그러나 다문화가 이슈로 떠오르기 전부터 이미 일본의 여러 지역에는 ‘외국인’이라는 법적지위를 가진 재일조선인이 살고 있었다. 197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차별적 체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교류 정책을 신설했다.<sup>427)</sup>

지자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인 것에 비해 일본 중앙정부의 대처는 느리고 또 미온적이었다. 중앙정부에서 ‘다문화공생’이 의제로 채택된 시점은 2005년 6월로, 총무성(總務省)에서 ‘다문화공생의 추진에 관한 연구회(多文化共生の推進に關する研究

---

별의 진제 중 하나였던 ‘재일조선인’이라는 소수자성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주요 활동을 보면 재일코리아 청년의 민족적 정체성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아시아청년과의 교류사업, 사회활동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 문재원·박수경, 앞의 논문, 216~2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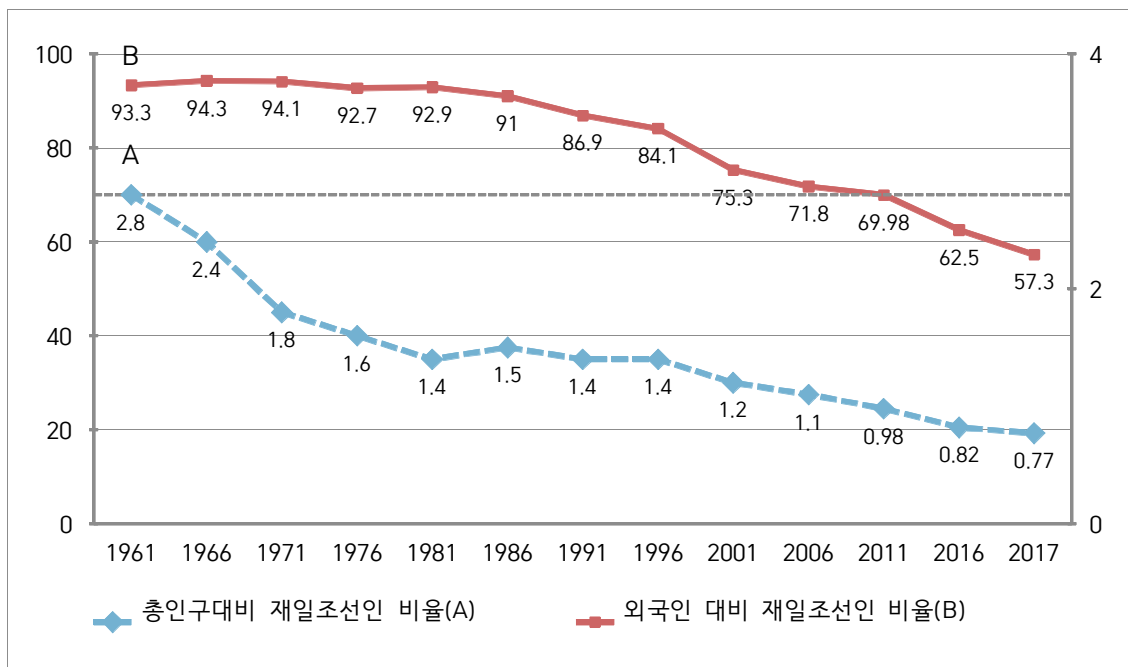
425) 구술인터뷰를 진행했던 34명 중 부모가 30명이다. 그 중 부부가 두 쌍이 있는데 부부를 하나의 부모로 세면, 총 28명의 부모가 존재하는 셈이 된다. 그 중 자식들이 부모와 분리되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18명으로, 약 64%의 비율을 점하고 있다. 즉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 가정 중 약 64%에서 자식이 다카라즈카 밖으로 진출했다고 할 수 있다.

426) 황익구, 「일본의 ‘다문화공생’ 담론과 재일코리아의 사회운동」, 『日本文化研究』 66, 2018, 334~337쪽

427) 남경희, 「일본의 다문화공생 추진과 거점으로서 지역 및 학교」, 『한국초등교육』 25(4), 2014, 19쪽

會)를 설치하면서부터이다. 이 연구회에서는 지역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검토하고, 2006년 3월에 ‘지역의 다문화공생 추진 플랜(地域における多文化共生の推進に向けて)’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총무성은 도도부현(都道府県)과 시정촌(市町村)에 이 플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sup>428)</sup> 이 보고서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일본인과 외국인 주민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일본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지역주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다문화공생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다카라즈카의 경우, 등록외국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재일한국·조선적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그 비율이 변화하고 있다. 다카라즈카의 총인구 대비 재일조선인 비율과 외국인수 대비 재일조선인 비율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22>와 같다.<sup>429)</sup>



<그림22> 총인구 및 외국인 대비 재일조선인 비율

<그림22>의 다카라즈카의 총인구 대비 재일조선인의 비율을 보면 1961년 2.8% 였던 것이 계속 하락하여 2011년부터는 1%이하로 떨어졌으며 현재는 0.77% 정도를 점하고 있다. 이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우선 일본으로의 귀화가 증가하고 있고, 오사카나 도쿄 같은 대도시에 비해 뉴커머의 유입 요인이 낮기 때문이다. 또 대학, 직장 등의 문제로 젊은 세대 재일조선인의 타지역 이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428) 문정애,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지역사회 다문화교육 고찰」,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6(2), 2012, 23 쪽

429) 이 그래프는 본 논문 4장 1절의 <표13>를 기초데이터로 활용해서 만든 것이다(본 논문 89쪽).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 비율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라즈카의 외국인수 대비 재일조선인의 비율 역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1961년부터 1986년까지 그 곡선이 상당히 완만하므로 감소의 수준은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6년 이후 그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2001년까지 10년 사이에 대략 10%가 줄어들었다. 이 시기는 중국인과 일본계 남미인이 노동자로서 일본에 대거 유입된 시기로, 다카라즈카에도 중국인과 브라질 사람의 이주가 증가했다. 2000년대에도 재일조선인의 비율은 계속 감소해서 2017년 시점에는 57.3%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감소추세라면 앞으로는 1~2년 사이에 그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재일조선인수의 감소 및 비율의 하락은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사회에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다카라즈카 시는 정주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지역 행정 차원의 대응을 모색했고, 중앙정부의 다문화공생 플랜에 따라 다카라즈카에 필요한 정책, 실천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 바탕에는 인권의 보호, 국제교류의 실현과 같은 이상적인 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다. 1970년대에는 재일외국인 중 재일조선인, 특히 올드커머의 비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다카라즈카에서 만든 다문화공생 정책은 우선적으로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했다. 다카라즈카 시에서 만든 재일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 시기순으로 정리하면 <표17>과 같다.

<표17> 다카라즈카 시 당국의 외국인 정책

|          | 연도    | 내 용                     | 비 고                         |
|----------|-------|-------------------------|-----------------------------|
| 수당<br>지급 | 1959년 | 신체장애자연금 적용              | 시민복지금의 전신                   |
|          | 1963년 | 정신박약자연금 적용              |                             |
|          | 1967년 | 모자(母子) 연금, 외국인의 시영주택 입주 |                             |
|          | 1982년 | 아동수당 적용                 |                             |
|          | 1986년 | 국민건강보험 적용               |                             |
| 교육<br>관련 | 1982년 | 조선초급학교에 조성(보조금 지급)      | 2001년까지                     |
|          | 1986년 | 외국적아동에의 '공립소학교 입학안내'    | 한신(阪神)의 각시(各市)와 동시기 시행      |
|          | 1993년 | 다카라즈카 시 재일외국인 교육지침      |                             |
| 취업<br>관련 | 1973년 | 시직원의 행정채용에 국적조항 철폐      |                             |
|          | 1990년 | 소방직의 국적조항 철폐            | 기능직 및 의료직은 처음부터 국적조항의 적용 없음 |
| 생활<br>지원 | 1995년 | 국제교류의 마을추진기본계획 수립       |                             |
|          | 2000년 | 다카라즈카 시 외국인시민간화회 설치     |                             |
|          | 2002년 | 외국인시민생활상담창구 설치          | 간화회 제언을 받아서 설치              |

※ 출처 : 宝塚市, 「外國人」, 『第2次宝塚市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基本方針』, 宝塚市, 2006, 47쪽



다카라즈카 시는 재일조선인에 대해 각종 수당 지급부터 취업차별 개선, 학생 지원, 생활 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수당 지급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재일조선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다만 아직 이 단계에서는 수당 지급 이외에 일상생활의 차별 개선이나 지역사회의 차별 분위기에 대한 대책 등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런 정책이 실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도 불확실하다. 다카라즈카 시는 1959년부터 신체장애자 연금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했다고 발표했지만, 재일조선인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이다. 더구나 이 지원은 다카라즈카의 행정당국의 자발적 정책이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와 민단지부, 총련지부가 장기간의 운동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다.<sup>430)</sup>

1993년에 결정된 재일외국인교육지침(在日外國人教育指針, 이하 ‘지침’)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만들어졌다. 1970~1990년대 일본 전국의 지자체는 재일외국인교육지침을 만들었다. 대상은 대부분 울드커머인 재일한국·조선인 아동들이었고, 199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교육지침에는 뉴커머 외국인의 아동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다카라즈카에서 만든 지침의 내용은 차별과 편견의 배제, 국제교류, 다문화공생, 본명 사용, 일본 적응과 일본어 습득 등이다. 다른 지역의 지침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지역 초중등학교에서는 한국민요, 한글학습, 윷놀이 같은 전통 놀이 등을 커리큘럼에 반영하기도 했다.<sup>431)</sup> 다카라즈카 역시 민단지부와 협력하여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특별수업을 다카라즈카 내의 소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sup>432)</sup> 1996년 다카라즈카 시는 인권존중도시 선언을 하고, 1998년 인권계발기본방침(人權啓發基本方針)을 만들었다.<sup>433)</sup> 모두 다카라즈카 재일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다문화공생 정책 마련을 위해 다카라즈카의 외국인 당사자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한 다카라즈카 시 외국인시민간화회(宝塚市外國人市民懇話會, 이하 ‘간화회’)를 설치하고, 이들로부터 다문화공생 실현을 위한 여러 제안을 받기도 했다. 간화회 구성원은 모두 10명으로, 이들의 국적을 보면 한국·조선 5명, 일본 1명, 중국 1명, 콜롬비아 1명, 필리핀 1명, 이란 1명이다.<sup>434)</sup> 역시 한국·조선적의 숫자가 가장 많았고, 4개국의 사람들이 대표로 참석했다. 간화회의 설립과 활동을

430)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다카라즈카에서 전개된 특별급부금 지급 운동의 결과, 1994년부터 재일조선인 장애인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카라즈카 행정당국의 자발적인 지원이 아니었던 것이다.

431) 磯田三津子, 「在日外国人教育方針・指針と外国人児童生徒教育の課題」, 『埼玉大学紀要』 65(2), 2016, 59쪽

432) 오다 마리오(1949년생), 2018년 4월 13일, 다카라즈카 서공민관

433) 宝塚市, 「宝塚市の人権関連の年表から振り返りを」, 『先生と市民のための人権教育・啓発パンフレット』, 2017, 30쪽

434) 일본적 1명의 경우 아버지가 재일조선인 1세, 어머니가 일본인인데 아버지가 밀항으로 일본에 와서 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호적에 올라서 일본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적과는 별개로 민단 다카라즈카지부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스스로를 재일조선인 2세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한국·조선적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간화회의 좌장은 김우석으로,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 2세이자 대표적인 기업가로, 1996년에 다카라즈카 외국인시민문화교류협회의 결성을 주도한 인물이다.

주도한 것은 재일조선인이었다. 단체의 명칭에 ‘외국인’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다카라즈카 시의 공식 기구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재일외국인 중 재일조선인의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다카라즈카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간화회는 2000년 9월부터 1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후 2002년 8월 26일 4가지의 제언을 제출했다. 간화회에서 제출한 제언은 우선 재일외국인의 생활전반에 관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①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정보 제공, ② 외국인 시민의 인권과 일상생활 및 정책에 관한 상담, 안내 등의 종합창구 설치, ③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통역 시스템 완비가 있다. 다음으로 상호이해를 위한 교육·계발에 관한 것으로 ④ 상호이해의 확립(올바른 역사·인권 교육, 본명으로 살아가기, 모국어교육 지원, 상호간 교류 확대 등)이 있다. 그리고 간화회의 제안에 따라 2002년 다카라즈카 국제교류센터에 시민상담창구가 설치되었다.

현재 다카라즈카에는 재일외국인정책, 다문화공생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 세 개의 주체가 활동하고 있다. 우선 행정당국인 다카라즈카 시가 있다. 다카라즈카 시는 지역의 다문화공생사업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총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다카라즈카 시 국제교류협회(宝塚市國際交流協會, 이하 ‘국제협회’)가 있다. 국제협회는 1988년 10월 17일에 설립되었고, 2005년 4월 1일 법인이 되었다. 2008년 4월 1일부터는 다카라즈카 시 국제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국제협회는 다카라즈카 일본인 시민들이 중심이 된 단체로, 자발적인 시민의 모임이라는 형태로 출발했다가 법인으로 등록되면서 회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설립 목적은 이문화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다카라즈카의 국제화 추진 및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다.<sup>435)</sup> 국제협회에서는 일본어교실, 외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국제문화센터의 공간을 활용해 각종 강연회와 사진전, 그림전, 공예작품전 등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제협회의 활동은 재일외국인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재일외국인 중에 재일조선인의 숫자가 가장 많다는 현실 등은 운영 과정에서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또 다른 주체로는 다카라즈카 시 외국인시민문화교류협회(宝塚市外國人市民文化交流協會, 이하 ‘교류협회’)가 있다. 1996년에 결성된 교류협회는 다카라즈카 시의 재일조선인, 일본인, 그리고 오사카의 재일조선인, 일본인이 함께 만든 시민단체이다. ‘외국인’이란 이름을 표면에 걸고 있지만 실제 이 모임을 주도하는 것은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이다. 그럼에도 ‘외국인’이라는 명칭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고, 활동의 목적 역시 이문화간 상호이해, 인권의 확립 등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교류협회를 조직했던 김우석은 이 명칭이 다카라즈카 시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하고, 앞으로의 확장성을 고려했으며, 재일조선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sup>436)</sup> 간화회가 ‘외국인’이라는 명

435) 特定非營利活動法人 宝塚市國際交流協會 홈페이지 (<http://www.tifa.be>)

436) 김우석(1933년생), 2018년 11월 5일, 회사 사무실

칭을 사용한 것처럼 교류협회 역시 재일조선인의 감소를 염두에 두고, 보편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활동의 명분을 확보하고자 했다.

교류협회는 연구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회원들이 일본어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한국어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특히 식민지 시기 다카라즈카 도시 건설에 참여했던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다카라즈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책자를 발간하거나, 재일조선인 관련 현장 답사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다카라즈카 시의 다문화정책 수립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다카라즈카에는 식민지 시기에 이주해 온 재일조선인과 그들의 자손이 거주하고 있다. 다카라즈카 시가 ‘다문화공생’을 말하기 이전부터 이미 다문화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은 다문화의 주체로 인식되지 않았다. 재일조선인은 일본에 거주한 기간이 길고, 문화적 동화도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며 일본인과 비슷한 외모와 생활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다 재일조선인이 피식민지민으로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었던 현실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행정당국은 경제적 어려움만 해결해주면 된다고 생각했고, 초창기 외국인 정책은 모두 단순한 경제적 지원에 그쳤다. ‘다문화공생’을 위한 주민인식개선 등의 정책은 병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출신국이 다양화되고 재일조선인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와중에, 다카라즈카에서는 ‘다문화공생’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사회문화적인 정책으로 발전했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은 ‘다문화공생’의 분위기를 반기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재일조선인은 자신들이 1980·90년대에 일본으로 이주해 온 뉴커머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심숙정은 뉴커머와 올드커머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사람들[뉴커머 외국인] 하고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해서 온 거 아니고, 완전히 끌려 왔는데. 옛날에 다 강제로. 돈 벌러 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강제 아닙니까.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학교 다 없애라고 하는데, 선배들이 다 막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 절대 모릅니다. 모두 일하고, 조센징이라고 차별 받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지금도 차별은 있지만, 그 때는 진짜 심했어요.<sup>437)</sup>

뉴커머의 이주가 상당부분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서 비롯된 것인 반면 재일조선인 2세의 경우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 본인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최전선에서 오랫동안 피해를 입은 집단이다. 이런 재일조선인에게 다문화공생의 주장은 재일조선인의 존재를 ‘재일외국인’ 속에 감추려는 시도로 비춰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다카라즈카에서 다문화공생사업을 추진하는 세 주체들 사이에도 미묘한 입장차이가 발생했다. 다카라즈카 시나 국제협회의 경우 ‘재일외국인’에 방점을

437) 심숙정(1954년생), 2018년 4월 18일, 구술자자택

두고, 다카라즈카의 재일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마련하거나 각종 사업을 구상했다. 그러나 교류협회의 경우 재일조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획하는 사업이나 관련 활동들은 모두 재일조선인이 중심에 있었다.

교류협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했을까.

## 2) 외국인시민문화교류협회의 활동

1993년 다카라즈카 시 교육위원회는 재일외국인교육지침(宝塚市 在日外国人教育指針)을 발표했다. 그 지침에는 “외국인을 편협하고 차별적인 존재로 여기는 의식을 없애고, 외국인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밝은 거리를 만드는 것은 오늘날의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일본인에게 주어진 책무이다. 하물며 국제관광도시 다카라즈카의 시민에게 있어서 한층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sup>438)</sup> 1996년 3월 5일 다카라즈카 시는 인권존중도시를 선언했다. 모든 사람은 인권을 존중받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평등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행정당국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다카라즈카뿐만 아니라 일본 내 대부분의 도시에서 ‘인권’은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특히 다카라즈카는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국제관광도시’로 설정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개방적인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439)</sup>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고 일본정부가 재일외국인 관련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울드커머인 재일조선인은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중앙정부 혹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재일외국인 정책은 뉴커머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울드커머로서 재일조선인의 특수성은 정책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2014년에 다카라즈카 시에서 『인권교육 및 인권개발기본방침 행동계획(人權教育及び人權啓發基本方針行動計劃, 이하 ‘행동계획’)』을 만들 때 그 심의회에 참석했던 와타나베 마사에(渡辺正恵)는 행동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438) 大阪国際理解教育研究センター, 『우리고장 たからづか』, 宝塚市市民部同和對策課, 1999, 12쪽

439) 다카라즈카의 개방성은 몇 가지 정치적인 사안에서도 드러난다. 첫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다.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는 2008년 3월 28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사과를 촉구하는 ‘위안부문제에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서(慰安婦問題で政府に対応を求めた意見書, 이하 ‘의견서’)’를 의원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방의회에서는 최초였고, 다카라즈카의 채택 이후 다른 지역의 시의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14년 10월 8일 다카라즈카 시의회는 출석의원 25인 중 14인의 찬성으로 의견서를 철회했다. 일본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의 의견서 채택이 만장일치였고, 2014년의 철회 과정에서도 9인의 시의회 의원이 반대를 했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다카라즈카의 개방성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다카라즈카 시민단체에서 주도하는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두 번째는 성소수자 지원에 관한 것이다. 다카라즈카 시에서는 2016년 6월 1일부터는 성소수자(LGBT) 지원을 위해 동성커플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수령증 교부를 실시했다. 일본에서도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모두 6곳에 불과하다. 2015년 11월 東京都 渋谷区・世田谷区, 2016년 4월 三重県 伊賀市, 2016년 6월 宝塚市, 那覇市, 2017년 6월 札幌市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을 통해서도 그 개방성의 면모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

행동계획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25개의 소항목이 있는데, 그 중 17개 항목은 뉴커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카라즈카 시의 3000명의 외국인 중에 재일한국·조선인이 2000명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고려한 항목은 매우 소략하다. 게다가 재일외국인 중에서도 잠깐 머무르는 사람, 다카라즈카에 정착한 사람, 전전(戰前)부터 다카라즈카에 정주했던 재일한국·조선인 및 한국·조선에 뿌리를 둔 사람으로 나뉘어서 사업 전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440)</sup>

와타나베 마사에는 외국인에 대한 항목이 뉴커머 중심인 것을 지적하고, 올드커머인 재일조선인을 배려한 정책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다카라즈카 시 관계자의 답변은, 대상자의 파악이 곤란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와타나베 마사에는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재차 실행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것은 공무원 개인의 무성의라기보다는 다카라즈카 행정당국의 외국인 혹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식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올드커머로서의 재일조선인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알고 있더라도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재일외국인의 범주를 하나로 정의해 버린 것일 수도 있다. 둘 중 어느 것이든지 다카라즈카 행정당국이 올드커머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사는 보이지 않았다. 올드커머 재일조선인의 입장에서 행정당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때 앞장 선 것이 외국인시민문화교류협회이다.

교류협회의 초대 회장은 김우석이었다.<sup>441)</sup> 김우석은 다카라즈카의 유명한 조선인 실업가 김말수의 아들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약 40년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카라즈카, 오사카, 효고 등의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과 교류했다.<sup>442)</sup> 또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학식과 자본, 인적네트워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김우석은 행정당국이 올드커머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일본인 주민들이 재일조선인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교류협회가 탄생했다.

440) 渡辺正恵, 「外国人市民の会あれこれ」, 『地球人・宝塚』, 2014, 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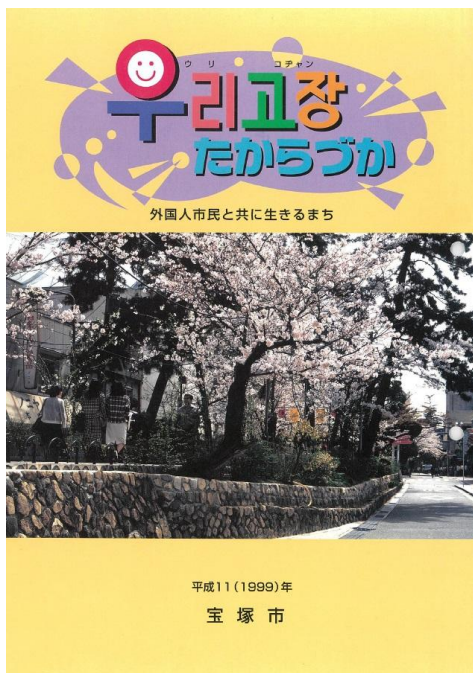
441) 김우석은 1933년 다카라즈카 시 코하마에서 태어났다. 초·중·고등학교 모두 조선학교를 다녔고, 조선대학교(朝鮮大学校)에 진학했다. 문학부를 졸업한 후 조선대에서 전임교원으로 재직했으나, 1970년 둘째 형의 죽음과 함께 아버지의 회사를 잇기 위해 다카라즈카로 돌아왔다. 1990년대 초반 자신의 회사에 일본계 브라질인을 수 십명 고용했는데, 이들이 외국인노동자로서 언어 문제, 거주 문제 등을 겪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다카라즈카 시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공생에 대한 고민은 외국인시민문화교류협회의 결성으로 이어졌다(小熊英二·高贊侑·高秀美, 「宝塚で外国人市民の共生目指して」, 『在日二世の記憶』, 集英社新書, 2016). 처음에는 외국인문제가 중심이었으나, 재일조선인 2세였던 그는 재일조선인의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활동의 중심이 역사 문제로 점차 옮겨갔다.

442) 김우석의 인맥은 상당부분 그의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말수는 식민지 시기 다카라즈카로 이주해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 다카라즈카 시가 전후복구사업을 진행할 때 자신의 공장 부지를 기부하기도 했다. 조선의 초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다카라즈카의 지역유지와 일본인 실업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등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신망이 높은 인물이었다. 김우석에 따르면, 총장, 시장 등이 새롭게 선출되면 꼭 김말수에게 인사를 하러 왔고, 김말수 역시 시의회의원, 현의회의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김말수의 이런 인맥은 아들에게도 전해졌다. 김우석은 1970년대 중반 무렵 조선인으로서는 최초로 ‘다카라즈카 상공회의소’에 가입했고, 다카라즈카의 일본인 유력자들과 인맥을 형성했다.

교류협회의 회원으로는 다카라즈카와 오사카의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이 참여했다. 교류협회는 행정당국과 회의 혹은 협상을 진행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도쿄나 오사카와 달리 다카라즈카에는 지식인 집단으로 불릴만한 재일조선인이 거의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결국 오사카와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을 참여시켰다. 다카라즈카는 효고현에 속해 있지만 오사카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오사카 사람들과 인적 교류가 많고, 생활상의 네트워크 역시 오사카와 매우 긴밀하다.<sup>443)</sup> 이런 이유로 오사카의 지식인, 연구자, 문화예술인 등이 교류협회에 참여했다. 교류협회가 다카라즈카에서 실행한 사업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연구활동, ② 다문화정책 수립 관련 활동, ③ 강연회 및 전시회 개최, ④ 회보 발행 및 출판 등이다.

### ① 연구활동

교류협회에서는 다카라즈카의 외국인, 그 중에서도 재일조선인의 역사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다카라즈카 시에 요청을 해서 관련 책자를 만들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그림23> 『우리고장 다카라즈카(たからづか)』이다.



<그림23> 『우리고장 다카라즈카』 - 표지와 내용

발행은 다카라즈카 시에서 했고, 기획 및 협조는 오사카 국제이해교육연구센터에

443) 김우석(1933년생), 2018년 11월 5일, 회사 사무실

서 맡았다.<sup>444)</sup> 표지에 나와 있는 부제는 ‘외국인 시민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外國人市民と共に生きるまち)’이다. 파트1과 2는 책자의 형태인데, 파트3은 전단지 형태이다. 각 책자의 소재목을 정리하면 <표18>과 같다.

<표18> 『우리고장 다카라즈카』의 구성내용

| 분류  | 주요 내용  | 비고   | 연도   |
|-----|--|------|------|
| 파트1 | 다카라즈카 시의 기초를 쌓은 조선인, 일본과 조선의 역사적 관계, 재일코리안의 발자취, 다카라카의 외국인시민, 재일코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사는 사회, 다카라즈카 그림지도                            | 총13쪽 | 1999 |
| 파트2 | 국제교류의 이벤트가 가득, 남북공동선언과 다카라즈카의 코리안, 식민지 지배의 시대와 다카라즈카의 코리안,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실태, 다카라즈카에 새롭게 이주한 사람들, 우리고장 다카라즈카, 다카라즈카의 인권계발상(人權啓發像) | 총13쪽 | 2001 |
| 파트3 | 외국인 시민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 외국인 시민이 공부한 학교   | 총2쪽  | 2004 |

※ 출처 : 大阪国際理解教育研究センター, 『우리고장 たからづか』, 宝塚市市民部同和對策課, 1999 ; 大阪国際理解教育研究センター, 『우리고장 たからづか パート2』, 宝塚市市民部同和對策課, 2001 ; 大阪国際理解教育研究センター, 『우리고장 たからづか パート3』, 宝塚市市民部同和對策課, 2004

※ 참조 : ‘주요 내용’에서 정리한 소재목 중 밑줄을 그은 것은 다카라즈카의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고, 진한 글씨는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을 다룬 것이다.

파트1부터 파트3까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카라즈카 재일외국인 일반에 대한 내용보다 재일조선인에 대한 내용이 양적으로 훨씬 많고, 질적으로도 보다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식민지시대에 걸쳐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대한 내용부터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이주 계기와 정착 과정, 그리고 현재 다카라즈카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조선인의 문화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서도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면 통명과 본명 사용의 문제, 민족교육문제 등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제목에 ‘우리고장’이라는 한글 표현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도 이 책자의 역할이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알리는 것이 주요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파트3에서 다카라즈카 조선초급학교의 역사를 서술한 부분의 소재목이 ‘외국인 시민이 공부한 학교’라는 것이다. 파트1과 2에서는 재일조선인에 대해 다룰 경우 제목에 코리안이라고 썼는데, 2004년에 갑자기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sup>445)</sup> 그러나 파트3은 2쪽으로 앞의 두 권과 비교해 분량이

444) 이 책의 기획 및 협조에 오사카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것은, 다카라즈카에는 이런 일을 대신할 연구자집단이나 연구기관이 없었고, 교류협회의 회장이었던 김우석의 주선에 의한 것이었다.

445) 사용 명칭의 변경은 시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다카라즈카 시의 정책 추진 방향에 더

매우 적다. 또 파트3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우리고장 다카라즈카가 출판되지 않는 것을 보면 재일조선인에 대한 역사를 담은 책을 시의 재원으로 계속 출판하는 것에 대해 다카라즈카 시가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교류협회는 책자 발간에 그치지 않고, 이 책을 다카라즈카의 일반 시민에게 보급하고, 다카라즈카 초·중학교에서 부교재로 활용할 것을 시와 시 교육위원회에 꾸준히 요청했다.<sup>446)</sup> 다카라즈카의 인권심의회에서도 『우리고장 たからづか』의 보급 및 부교재 채택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sup>447)</sup> 그러나 2019년 6월 현재까지 부교재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류협회는 역사교육을 통해 재일조선인의 이주와 정착의 특수성을 이해함으로써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부교재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교류협회는 역사책 발간에 그치지 않고, 다카라즈카의 학생들에게 지역사의 일부로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고장 다카라즈카』를 교재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 것이다.<sup>448)</sup> 일선 학교의 교사를 지원해 학교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류협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의수업을 진행하고 수업내용 및 방법에 대해 함께 검토하기도 했다.<sup>449)</sup> 역사 연구에 그치지 않고 그 활용방안까지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류협회의 활동은 매우 실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② 다문화정책 수립 관련 활동

교류협회는 다카라즈카 시, 국제협회와 함께 이문화상호이해사업을 실행하는 3주체 중 하나이다. 교류협회 관계자들은 정기적으로 이문화상호이해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다카라즈카 시가 다문화공생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혹은 시나 국제협회의 활동에 제동을 거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류협회 차원에서 매월 혹은 격월로 활동보고회를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교류협회에서 사전 논의를 거친 후 행정당국의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 ③ 강연회 및 전시회 개최

교류협회는 강연회와 문화교류회, 역사전시회도 개최하고 있다. 1998년 국제교류센터에서 ‘다카라즈카의 한국·조선역사전’이 열렸다.<sup>450)</sup>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정주 과정과 한반도의 문화와 자연을 소개하는 내용의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카라즈카의 역사 한국·조선인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김우석(1933년생), 2018년 11월 5일, 회사 사무실)

446) 宝塚市外国人市民文化交流協會, 「1月あつまりのきろく」, 『地球人・宝塚』, 宝塚市外国人市民文化交流協會, 2012, 5쪽

447) 宝塚市人權審議會, 《平成26年度(2014年度)第2回宝塚市人權審議會 議事録》, 2014년 10월 29일, 11~13쪽

448) 宝塚市外国人市民文化交流協會, 「報告」, 『地球人・宝塚』, 宝塚市外国人市民文化交流協會, 2015, 3쪽

449) 宝塚市外国人市民文化交流協會, 「活動報告」, 『地球人・宝塚』, 宝塚市外国人市民文化交流協會, 2014, 6~9쪽

450) 「宝塚の韓国・朝鮮歴史展」開催 事實を直視して-宝塚市 『毎日新聞』, 1998년 8월 8일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문화이해사업 중 지금까지 진행된 주요 행사의 포스터는 <그림24>와 같다.



<그림24> 다카라즈카 이문화상호이해사업 ‘계발전(啓發展)’

<그림24>의 왼쪽 포스터의 제목을 보면 ‘사카세가와, 과거와 오늘의 이야기 - 사진과 지도로 보는 사카세가와와 재일조선인의 역사(逆瀬川今昔物語-寫眞と地圖で見る逆瀬川と在日コリアンの歴史)’라고 되어 있다. 오른쪽 포스터는 ‘다문화공생의 거리 다카라즈카 - 그 기원과 지금’이라는 제목인데, 행사의 주요 내용은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이주와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사진 전시 및 체험 등에 관한 것이다.

이문화상호이해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전시회와 체험전 등도 모두 재일조선인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의 다도를 소개하거나 한국의 전통 음악을 주제로 한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제협회에서도 강연회나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했지만, 양자의 전시 내용을 비교해보면 교류협회 쪽이 재일조선인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행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재일조선인 중심의 전시회에 대해 항의편지를 보내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본인 주민도 있었지만, 답장으로 보내는 등 지역의 일본인에 대한 이해와 설득의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④ 회보 발행 및 출판

교류협회는 『지구인 다카라즈카(地球人·宝塚)』라는 회보를 발행하고 재일조선인

혹은 한국과 관련된 일본 책을 번역해서 출판하기도 했다. 회보와 번역서는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 시민문화교류협회의 출판사업 - 단행본 및 회보

교류협회 회보인 『지구인 다카라즈카』는 2010년부터 매년 2~3회씩 발행되고 있다. ‘지구인 다카라즈카’의 의미는, 다카라즈카에 사는 사람들이 인종, 국적, 성별을 모두 초월해서 오직 다카라즈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보에는 교류협회의 활동 보고와 사진, 도서에 대한 서평, 답사기행문, 강연회원고, 강연회 감상문 등을 싣고 있고,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기도 한다. 한일관계와 관련된 일본어 책을 함께 읽고 번역 출판을 하기도 했는데, 2018년 4월 『한우를 사랑해요』를 한국에도 번역·출판했다.

교류협회의 다양한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문제를 환기시키거나 관련 정책을 만드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다. 다카라즈카 시에서는 1998년에 인권계발기본방침을 정하고, 2006년도에 그 내용을 더 보충하여 2차 다카라즈카 시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기본방침(第2次宝塚市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基本方針, 이하 ‘2차방침’)을 정했다. 2차 방침에서 다카라즈카 시의 외국인 관련 서술에 재일조선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외국인 중] 한국·조선적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동화정책에 의한 직접간접의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연행과 징용의 형태로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또 본지에서 [재일한국·조선인의] 비율이 높은 배경에는 진중, 전후를 통해서 룻코사방공사, 후쿠치야마선로공사, 현도아

마가사키-다카라즈카선공사, 무코가와 개수공사 등 몇 개의 대규모 토목공사에 많은 한국·조선인이 종사했던 역사적 경위가 있다.<sup>451)</sup>

다카라즈카에 재일조선인이 정착한 경위에 대해 상당히 정확하게 서술을 하고 있다. 언제 이주가 시작되었는지, 이주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서술과 함께 다카라즈카의 대형 토목공사에 재일조선인이 종사했던 사실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서술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재일조선인에 대한 이런 서술은 2017년 제3차 다카라즈카 시 인권교육 및 인권계 발기본방침(이하 ‘3차방침’)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이 서술에 대한 참고문헌으로 교류협회에서 발간한 『우리고장 다카라즈카(ウリコジャンたからつか)』를 제시하고 있다. 2차방침에서도 『우리고장 다카라즈카』를 참고로 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정책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2차방침, 3차방침에서 행정기관이 재일조선인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교류협회의 활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류협회의 왕성한 활동에 대한 반작용도 있었다. 2014년 다카라즈카 시 문화정책과(文化政策課) 담당자, 국제협회의 이사, 교류협회의 회원 등 3개 기관의 담당자가 참여하는 이문화상호이해에 대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공개회의 자리에서 국제협회의 이사들은 “(재일조선인은) 동화(同化)하는 편이 좋다.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좋다”, “한국·조선의 사진전은 옛날의[식민지의] 것을 폭로하고 있다. 보고 싶지 않다고 친구가 말했다”, “나는 차별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재일조선인은 피해자의식을 지나치게 갖고 있다. 소외감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sup>452)</sup> 다문화공생 정책을 실행하는 입장에 있는 국제협회의 간부들이, 공식 회의 자리에서 재일조선인에 대해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교류협회에서 주최하는 ‘다카라즈카 시의 한국·조선역사전(宝塚市における韓国・朝鮮歴史展)’이라는 사진 전시회가 2015년 3월 20일에 개최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다카라즈카 이주와 노동현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될 예정이었는데, 국제협회의 관계자들이 여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교류협회를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교류협회는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의 사진전에 이어 2016년에도 ‘사카세가와, 과거와 오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재일조선인에 관한 사진전을 진행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류협회가 결성된 1996년은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에게 변화의 시기였다.<sup>453)</sup> 다카라즈카 외국인의 수는 약 35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

451) 宝塚市, 「外国人」, 『第2次宝塚市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基本方針』, 宝塚市, 2006, 47쪽

452) 渡辺正恵, 「外国人市民の会あれこれ」, 『地球人・宝塚』, 2014, 18

453)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일반에서는 교류협회의 명칭이나 교류협회의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아니면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교류협회에서 활동하는 김우석이나 모리 신이치, 와타나베 마사에 등에 대해서는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었다. 교류협회가 하는 일은 때때로 김우석이 하는 일로 알려지기도 했다. 김우석은 재일조선인 조직의 관계자들과 만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는데, 재일조선인의 비율은 계속 감소해서 80% 중반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 무렵부터 다카라즈카 시의 다문화공생 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올드커머로서의 재일조선인의 특수한 역사는 점차 논외로 밀려나기도 했다. 여기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 교류협회였다. 단체명에 ‘외국인’이라는 명칭을 상용했지만, 실제로는 재일조선인이 중심이었다.<sup>454)</sup>

재일조선인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재일조선인을 뉴커머 외국인의 일부로 인식되는 경향이 증가했다. 이주와 정착의 특수성이 점차 희미해져 가는 현실에서 재일조선인 당사자가 느꼈던 위기의식이 교류협회의 출발이었다. 교류협회는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발굴하고 그것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런 재일조선인의 현실을 공감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일본인들이 의협조 속에서 교류협회는 더욱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3. 추도비 건립운동과 지역사회 재정착화

#### 1) 조선인에 대한 추도제와 추도비건립운동

다카라즈카 시에서는 『다카라즈카 시사』, 『다카라즈카 시제 30년사』, 『다카라즈카 대사전』 등 다카라즈카의 역사·지리를 담은 단행본과 논문집 『다카라즈카』(총10권)를 발간했다.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이 책은 다카라즈카 시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공식역사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다카라즈카 시사』에는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다. 무코가와 개수공사에서 조선인이 일했다는 기록이 아주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고, 전후(戰後)의 다카라즈카를 서술할 때 초급학교에 대해 몇 줄을 서술한 것이 전부이다. 『다카라즈카 시제 30년사』에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 『다카라즈카 대사전』에는 다카라즈카의 외국인을 소개하며 중국인과 재일조선인을 비슷한 양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주의 연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논문집인 『다카라즈카』에는 권당 4~5편의 논문이 실려 있는데, 총 50여 편의 논문 중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것은 조선사(朝鮮寺)에 관한 소논문 한 편 뿐이다. 재일조선인이 다카라즈카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발행하는 책에는 재일조선인의 존재가 지워져 있다.

해방 직후부터 일본 각지의 많은 재일조선인들은 자신들, 혹은 자신들의 선조가 일본에 오게 된 경위와 일본에서의 생활과정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

454) 교류협회의 회원인 이해진은, 교류협회에 대해 외국인과 일본인이 아닌, 일본인과 한국인의 친선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단체라고 설명했다. 교류협회의 활동 방침이 다카라즈카의 외국인 일반이 아닌 재일조선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쓰마루 시마조/이해진 譯, 『한우를 사랑해요』, 논형, 2018, 132쪽 ; 김우석은 『지구인 다카라즈카』에 수록할 원고를 검토하면서 단어 사용에 신중함을 기했는데, 과격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부로 문제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또한 여러 단체에 일본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제 교류의 측면뿐 아니라 재일조선인이 전면에 나섰을 때 겪게 될 여러 어려움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을 언급했다(김우석(1933년생), 2018년 4월 일, 회사 사무실.

을 책으로 출판했다. 피식민지인으로서 자기 역사를 쓰지 못했던 안타까움과 그 욕구가 해방 이후에 터져 나온 것이다. 그 역사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세대의 이야기를 통해 간접체험을 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대학이 없는 지방 소도시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기록되지 못한 역사는 곧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각 지역에서는 지역 연구 모임이 결성되기 시작했다. 아카데미에서 활동하는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성실한 태도와 꼼꼼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다.<sup>455)</sup> 정홍영 역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정홍영은 다카라즈카의 향토사 연구자이다. 젊은 시절 총련지부 위원장을 하면서 열성적으로 활동을 했고, 수많은 재일조선인의 집을 직접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다. 총련지부를 은퇴한 후 그는 본격적으로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자료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현장 답사를 열성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재일조선인 1세와 고령의 일본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발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인터뷰를 다니던 중 어느 일본인 노인으로부터, 식민지 시기 후쿠치야마(福知山) 선로공사에서 조선인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시간, 장소, 그리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1993년 정홍영은 다카라즈카 지역사 연구자인 호리우치 미노루(堀内稔)로부터 당시 사고가 실린 신문 기사를 제공받으며 사고의 전말을 확인했다.

1929년 3월 26일에 후쿠치야마선 터널 공사 현장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암석폭과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다이너마이트가 얼어서 작동을 하지 않자 모닥불을 피워 다이너마이트 뇌관을 건조시키려고 하다가, 실수로 뇌관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을 한 것이다. 21살의 윤길문(尹吉文)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25살의 오이근(吳伊根)은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사망했다. 현장에 있던 3명의 조선인도 크게 다쳤다. 당시 신문기사는 폭발의 원인을 조선인의 무모함과 무지로 돌렸다. ‘무지한 조선인에게 위험한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sup>456)</sup>

희생자의 이름과 나이를 알게 된 정홍영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중학교 교사 모리 신이치에게 추도회를 제안했다. 사고 당일인 3월 26일로 날짜를 정하고 현장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아무 것도 없는 빈손이었다. 두 사람만 참석하는 추도회는

455) 효고현의 경우를 보면, 1971년 고베지역의 일본인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무쿠게회(むくげの会, 무궁화회)를 만들었고, 1979년에는 재일조선인운동사연구회 간사이부회(關西部會)의 연구회를 시작했다. 무쿠게회는 고베학생정년센타가 중심거점이 되었다. 1984년에는 효고현의 재일조선인들이 중심이 되어 효고현조선문제연구회(兵庫縣朝鮮問題研究會)를 결성했다. 이 단체들은 현재까지도 정기적인 연구모임을 계속 진행 하고 정기적으로 회보(回報)를 발행하고 있다. 정홍영은 다카라즈카에서 자랐고, 리즈메이칸대학을 졸업했다. 총련 다카라즈카지부의 위원장을 역임했고, 은퇴한 후에 본격적으로 지역 연구에 뛰어 들었다. 그 역시 효고조선문제연구회의 회원이었고, 자신의 단독 저서와 회원들과 공저로 몇 권의 책을 출판했다.

456) 「ダイナマイトが爆發し四名その場で死傷 雷管を焚火で乾燥させた長尾山トンネル入口の樁事」 『神戸又新日報』, 1929년3월28일 ; 「これはまた亂暴千萬な! ダイナマイト火炙り 果然二名慘死を遂げ三名重傷を負ふ 川邊郡隊道工事場の樁事」 『神戸新聞』, 1929년3월28일

몇 년 동안 이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꽃도 사고 간단한 제사음식을 준비하기도 했다.<sup>457)</sup> 정홍영이 사망한 후에는 모리 신이치 혼자 추도식을 하다가, 민단지부 사무실의 오다 마리코에게 참석 여부를 확인했다. 총련지부에도 추도회에 대해 알렸다. 그 때부터는 민단지부와 총련지부의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고, 이 행사에 대해서 알게 된 재일조선인도 자유롭게 참석했다.

재일조선인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모임의 명칭이 ‘추도모임’에서 ‘제사’로 변경되었다. 제사의 대상자도 늘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 사고가 일어난 곳은 고베수도공사의 현장과도 매우 가까웠다. 1914년, 1915년의 고베수도공사 현장에서도 사고로 3명의 조선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sup>458)</sup>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모리 신이치는 이 3명에 대해서도 함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이 5명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2010년 무렵에는 교류협회에도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알렸고, 교류협회의 회원들 역시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2018년에도 추도모임이 계속 진행되었다. 2018년 3월 26일, 추도모임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도중 조선인 함바에서 잠시 멈춰서 설명을 듣는 모습이 <그림 26>, 현장에서의 제사를 위해 상을 차리는 모습이 <그림 27>이다.



<그림 26> 조선인 함바부지



<그림 27> 제사의 준비

이 날 추도식에는 총 18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한국인이 섞여 있었다.<sup>459)</sup> 역에서 사고 현장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약 25분 정도의 거리였다. 현장으로 가는 도중 중간 중간 멈춰서 고베수도공사와 당시 함바의 위치, 조선인의 생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등 식민지 시기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림 25>는 고베수도공사 때 조선인 함바가 위치해 있던 곳이다. 사고현장으로 가려면 몇 개의 터널을 지나야하는데, 후쿠치야마선은 이제 폐선이

457) 모리 신이치(1950년생), 2018년 5월 2일, 사카세가와역 기사텐

458) 본 논문의 2장 1절의 <그림 3> 고베수도공사 사망자에 대한 매장인허증을 참조바란다(본 논문 18쪽).

459) 필자 역시 이 추도모임에 참석했다. 민단지부와 총련지부 관계자들이 4명이 있었고, 교류협회에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처음 참가한 사람들도 5명이 있었다.

되어 기차는 달리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하이킹 장소로 활용하는 곳이다. 사고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는 각자가 준비해 온 음식으로 상을 차렸다. <그림26>의 상차림을 보면 밥, 나물, 지지미, 편육, 생선, 과일 등과 함께 일본식 닭튀김과 전통빵인 도라야키를 함께 제사상에 올렸다. 조선인에 대한 제사이지만 조선의 음식과 일본의 음식이 함께 있는 등장하는데, 이 추도식이 조선인만의 것이 아니라 다카라즈카의 일본인도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는 추도비 건립에 경과 보고가 진행되었다. 사실 사고현장의 근처에는 이미 후쿠치야마 선로 건설 당시 공사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추도비가 건립되어 있었다. 니시타니촌의 청년단이 돈을 모아서 설립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석비(石碑)의 정면에는 ‘순직자의 비(殉職者の碑)’라고 쓰여 있고 공사로 사망한 사람 20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20명 중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은 한 명도 없었다.<sup>460)</sup> 모리 신이치에 따르면 정홍영은 생전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추도비에 조선인의 이름이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기회가 된다면 조선인을 위한 추도비를 세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늘 했는데, 사망하면서 그 뜻을 실현하지 못했다.

2010년 이후의 제사에서 추도비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었고,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찬성하면서 추도비 건립 계획이 가시화되었다. 2017년 5월, 추도비건립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고베수도건설공사 및 구국도후쿠치야마선개수공사중의 사망자 추도비를 건립하는 모임(神戸水道建設工事及び旧国道福知山線改修工事中の殉難者追悼碑を建立する会, 이하 ‘건립하는 회’)이 정식 발족했다. 회장은 모리 신이치가 맡았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길 비석은 교류협회의 고문이자 목련회(モンニョン, もくれんの会)<sup>461)</sup>의 공동대표였던 김우석이 기증을 하기로 했다.<sup>462)</sup> 그 외에 제작과 설치를 위한 제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카라즈카를 포함해서 오사카, 고베 등 인근지역의 재일조선인, 일본인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경과보고에 의하면 2018년 3월까지 80여명으로부터 697,000엔을 모금했다. 그러나 이 비용은 필요자금의 약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모금을 계속하는 한편 추도비 건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목련회의 회원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비용을 냈고,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도 1000엔, 2000엔의 비용을 내며 모금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모금에 참여했던 정양식의 이야기이다.

거기에[추도비건립] 우리도 다 돈을 냈습니다. 내도 내고, 전동원도 내고. 좋은 일이니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꼭 필요하다고.<sup>463)</sup>

460) 鄭鴻英, 앞의 책, 32쪽

461) 목련회는 추도비건립을 위해 결성한 단체로, 대표는 모리 신이치, 공동대표는 김우석이다.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람은 두 사람의 대표를 포함한 23명으로,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이 섞여 있다. 이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다카라즈카 외국인시민문화교류협회의 회원이다.

462) 김우석이 운영하는 회사 앞에는 사각형의 큰 바윗돌이 두 개 있는데, 그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배로 옮겨 온 것으로 그 상징성을 생각해서 기부를 결정한 것이다.

463) 정양식(1959년생), 2017년 10월 24일, 구술자 자택

모금운동과 함께 추도비를 세울 장소에 대해서도 현재 다카라즈카 시 및 효고현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추도비를 건립의 이유가 다음과 같이 목련회의 찬동모금(贊同募金)을 부탁하는 편지와 현장 보고에서 등장한다.

처음에는 술만 올릴 뿐이었던 소박한 위령(慰靈)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제사(祭祀) 형식의 추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타향 땅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고향에 두고 온 부모형제, 사랑하는 부인과 자식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 채 숨이 끊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 손자에게, 25년, 50년 그리고 100년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추도비건립의 모임’에서는 ‘사실을 후세까지 전하고, 일본과 코리아 양국민의 우호를 바라면서 추도비를 건립할 것입니다. 부디 추도비 건립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뜨거운 생각에 함께 하고, 우선은 가족, 친척, 가까운 친구부터 찬동자(贊同者)의 범위를 넓혀가려고 생각합니다. 장래에 목련꽃이 필 때 무코가와와 옆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면, 입회와 찬동모금에 협력해 주시길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바랍니다.<sup>464)</sup>

이 기획은 고(故) 정홍영씨의 유지(遺志)와 김우석씨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반드시 실현시켜서 여러분에게 추도비를 보여주는 동시에, 현재의 다카라즈카 시민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추도비를 보여줌으로써 미래에도 **이 사실이** 계속 전해지도록 하는 역할을 다 하도록 ‘건립하는 회(建立する会)’의 회원 일동은 더욱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부탁드립니다.<sup>465)</sup>

찬동모금을 요청하는 편지에서도, 경과보고에서도, 추도비 건립의 이유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이 사실”, 즉 식민지 시기 지역발전 공사에서 재일조선인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위쪽의 편지가 재일조선인 당사자에게 선조들의 희생을 잊지 말 것을 요청하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것에 비해, 아래쪽의 경과보고는 다카라즈카의 시민, 그리고 다른 지역의 일본인이 추도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비슷한 목적이지만,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의 지향점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재일조선인에게든, 일본인에게든 조선인의 희생을 알리는 것이 목적인다고 하는데, 조선인의 희생을 알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정양식은 2016년 3월 26일에 진행된 제사에 참석하고 그 때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sup>466)</sup> 사진은 <그림28>과 같다.

464) 金禮坤, 《“モンニョン=もくれんの会”の贊同募金をお願いします!》, 2017.05.13

465) 《経過報告 - 神戸水道建設工事及び旧国道福知山線改修工事中の殉難者追悼碑を建立する会》, 2018.03.24

466) 이 사진입니다. 본래 우리 아버지가 제사에 갔지만, 아버지(정홍영)가 돌아가신 후로는 내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갔습니다. 다카라즈카 시에서도 사람이 나왔어요(참석했어요). 이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하니까 제사를 지냅니다(정양식(1959년생), 2017년 10월 24일, 구술자 자택).





<그림28> 추도 제사 - 2016년 3월 26일

사진에는 15명의 어른과 1명의 어린이가 있었고, 낮은 선로 위에 돛자리를 깔고 그 위에 신문을 깔 다음에 과일과 생선, 나물 등의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총련지부 관계자, 민단지부 관계자, 교류협회의 회원들, 이타미 시에서 온 재일조선인 부자(父子), 일본인 연구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었다. 때로 다카라즈카 시의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이 제사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 사고로 죽은 재일조선인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다. 사고로 희생된 조선인들과 정양식은 아무런 연고도 없었다. 그러나 정양식은 그들에 대해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마도 자신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기원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사고로 희생된 재일조선인은 일본에 처음 이주했던 정양식의 할아버지이며, 또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다. 그들로부터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016년 2월 26일 국제교류협회에서 진행했던 ‘사카세가와 옛날과 지금의 이야기 (逆瀬川今昔物語)’ 전시회를 방문했을 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식민지시기에 진행된 무코가와 개수공사와 사카세가와 개수공사, 후쿠치야마 선로공사, 한신국도 공사 등에 많은 조선인들이 종사했다. 개수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땅 위에 현재 다카라즈카 시역소(市役所), 다카라즈카 중학교, 주민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이 들어섰고, 후쿠치야마선, 한신국도 등이 도시발전의 중요한 교통로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카라즈카의 발전은 재일조선인의 노동력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재일조선인의 희생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의 다카라즈카를 만드는데 기여했음을, 나아가서는 일본사회를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했음을 알리고 또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런 역사를 지역사회에 구체적인 형상으로 새겨 두기 위해 추도비 건립 운동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 2) 이주의 역사 재해석과 지역사회 재정착의 근거

식민지 시기 조선인이 다카라즈카로 유입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코가와 개수공사였다. 이 공사에 조선인이 참여하면서 다카라즈카 정착이 시작되었다.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에게 자신들의 연원을 물어보면 10명 중 10명은 모두 무코가와 개수공사를 언급한다. 자신의 선조가 무코가와 개수공사에서 일을 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답은 마찬가지였다. 그만큼 무코가와 개수공사는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약 10여년에 걸친 무코가와 개수공사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부지 위에는, 다카라즈카 시역소, 시민공원과 체육관, 다카라즈카 중학교 등 현재 다카라즈카의 핵심적인 공공시설이 밀집해있다. 이런 사실은 다카라즈카의 개발과 발전이 재일조선인의 참여로 가능했다는 인식의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추도 활동은 무코가와 개수공사가 아닌, 고베수도공사와 후쿠치야마 선로공사에서 희생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베수도공사나 후쿠치야마 선로공사의 경우 조선인의 참여는 확인되지만, 어느 정도로 참여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고베수도공사는 1914년에 시작되었다. 조선인의 노동이주가 192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아직 시골인 이 곳에 대규모의 조선인 노동력이 투입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후쿠치야마선로는 1920년 이후에 시작된 공사이다. 조선인 청부업자가 참여했고 조선인 함바가 1곳 있었다고 하니 조선인 수십 명이 공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무코가와 개수공사처럼 전체 노동력의 3분의 1을 조선인이 담당했다고 할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코가와 개수공사 대신 고베수도공사와 후쿠치야마선로공사가 추도의 대상이 된 것은, 희생된 재일조선인의 정보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무코가와 개수공사에서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만 가능할 뿐 실제로 발생한 사고나 희생자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베수도공사, 후쿠치야마 선로공사의 경우 매장인허증과 신문 기사를 통해 각각 3명, 2명의 조선인 희생자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다. 무코가와 개수공사가 대규모의 조선인이 참여한 지역 최대의 공사라는 상징성을 가진다면, 이들 조선인 5명은 무코가와 개수공사와 유사한 지역개발 공사에서 희생된 '재일조선인 선조'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었다.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고, 어떤 공사에서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다카라즈카에서 조선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희생됐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인물이다.

이들에 대해 알게 된 시점부터 추도 제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5명의 재일조선인에 대해 제사라는 추도행사를 통한 기억하기에 그치지 않고, 그 기억을 추도비라는 상징물을 만들어 역사적 기록으로 영구히 남기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시도가 등장했을까?

2010년이 되면 다카라즈카 총인구 대비 재일조선인의 비율은 1% 이하로 떨어지고, 다카라즈카 외국인수 대비 재일조선인의 비율은 70%이하로 떨어지며 60%대가 되었다. 일본으로 귀화하는 사람은 꾸준히 증가했고, 한국·조선적을 가지고 살더라도 재일조선인 공동체로부터 이탈해서 일본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민단지부와 총련지부 같은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조직 역시 이탈자가 증가하면서 계속 약화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재일조선인 2세들의 활동이 3세, 4세의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2세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매우 컸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2세 김우석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뉴커머가 일본과 한국과의 역사를 잘 모르고 오는 사람도 있고, 잘 알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면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잘 모르는 사람도 저기 해야 하거든. 모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뉴커머 아니더라도 여기에, 여기에서 자란 사람, 3세 4세대. 나는 2세지만은 2세, 나이가 이렇지[ 많지 ] 않소.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3세, 4세거든, 중심이. 네,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모르고 지내는 사람, 알고 지내는 사람, 이 사람들도 곤란해. 뉴커머도 곤란하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도 곤란해. (중략) 다카라즈카에는, 여기(강연노트)에도 써놨습니다만 내가 글 써라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글을 썼어요. 다카라즈카에는 외국인이 3530명, 그 중 2419인이 정주외국인. 정주라는 것은 재일한국인. 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살게 되었는가. 전쟁 전에는 후쿠치야마선, 고베수도공사의 외국인 노동자, 이런 사람들의 자손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냐고. 내 그거를 아는 것이, 이문화 교류사업의 중요한 일이다, 라고, 그래 시작을 했습니다.<sup>467)</sup>

김우석은 뉴커머들이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잘 모르고 일본에 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걱정을 했고, 재일조선인 커뮤니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젊은 세대인 3세, 4세대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게다가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일본인들 역시 어떻게 재일조선인이 일본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드러냈다.

재일조선인 1세는 일본으로 직접 이주하고 또 정주한 당사자들이다. 2세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세대를 통해 이주와 정주의 과정을 모두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가능했다. 부모세대가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민족적 차별을 경험했는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무엇인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부모세대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들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3세, 4세 단계에 오게 되면 일본사회로의 문화적 동화는 더욱 진전되고 조부모세대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점점 불가능해졌다. 재일조선인 2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재일조선인의 역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자신들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

467) 김우석(1933년생), 2018년 6월 27일, 회사 사무실

각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다카라즈카에서는 추도비건립운동이 진행되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전후부터 북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일본 각지에 서 전쟁희생자들에 대한 추도비 건립이 진행되었다. 이 때의 추도비는 전쟁 희생자들 덕분에 지금의 평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리고 희생자들을 평화와 반전(反戰)의 초석으로 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 각지에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협력하에 조선인 강제연행 희생자에 대한 비석이 건립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희생자에 대한 추도와 함께 전쟁 가해국의 국민으로서의 반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sup>468)</sup> 그러나 비가 건립된다고 그 반성의 행위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치쿠호 강제연행희생자납골식추도비 실행위원회의 경우, 치쿠호에 추도비를 건립하고 나서부터 새로운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 비석을 유지 보존하는 일과 강제노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조사활동, 뒤를 이은 추도식 개최 등 운동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었다. 즉, 추도비 건립이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행위원회 참여자들의 현재의 고민이 끊임없이 투영되면서 당대의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sup>469)</sup> 그런 의미에서 추도비의 건립을 역사를 기억하는 동시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자 하는 실천의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 역시 추도비 건립을 통해 단순히 과거를 박제하거나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살아가는 현재의 지역사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우리고장 다카라즈카』의 파트1의 표지에는 길 양옆으로 꽃이 피어있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사진을 사용했다.<sup>470)</sup> 이 사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다카라즈카 시의 상징공간인 ‘꽃의 길(花のみち)’은 과거 무코가와와 제방자리였다. ‘꽃의 길’이 제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무렵, 그 주변 일대는 자주 무코가와와 범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이쇼9년(1920)부터 8년에 걸쳐 개수공사가 진행되었고, 많은 조선인이 이 일에 종사해 다카라즈카 시의 번영에 공헌했다.<sup>471)</sup>

식민지 시기 다카라즈카에 이주한 조선인은 무코가와 개수공사를 비롯하여 후쿠치야마 선로공사, 고베수도공사 등 지역사회의 개발과 관련된 여러 공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다카라즈카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오늘날의 다카라즈카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재일조선인 1세의 이주는 2세, 3세, 4세의 정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2세, 3세들은 다카라즈카 시의 발전에 공헌한 선조들의 역사를 비석에 새겨 남김으로써 자신들의 기원을 확고하게 밝히고자 한다. 동시에 다카라즈카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근거로 삼으려고 하

468) 大和 裕美子, 「日本市民による植民地支配の記憶の試み - ‘在日筑豊コリア強制連行犠牲者納骨式追悼碑建立実行委員会’を事例に」, 『HOMO MIGRANS』 13, 2015, 124~125쪽

469) 大和 裕美子, 앞의 논문, 138~139쪽

470) 본 논문 5장 2절의 <그림23>을 참조바란다(본 논문 147쪽).

471) 大阪国際理解教育研究センター, 앞의 책, 1쪽

는 것이다.

일본에서 태어나 계속 살면서도 자신을 지역주민으로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70살이 다 된 나이에 또 여전히 자신을 이방인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심정에 대해 김재술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여기서 오래 살아서 자기들이 주민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그런 거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당연하다 하는 거(는 잘 몰랐어요), 지금은 효고켄쵸(兵庫縣朝) 하면서 일본사람하고도 오래 운동을 같이 하니깐.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는 한 이십년 전. 그런 입장[지역주민]에서 좀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도 한 십년 전이고. 어쨌든 우리는 재일조선인이니까 일본사람들의 지지와 힘을,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하겠다 생각이 있고, 자기가 여기서 태어나서 살아서 자기 주민이다, 그러니까 이런 권리가 있다 하는 의식이 약했던 건 사실이네.<sup>472)</sup>

김재술의 경우 자신을 지역의 주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십년 전에서야 겨우 가능했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계속 일본사회의 외국인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 지지와 도움을 받아야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는 선거권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자신을 여전히 외국인의 위치에 놓고 있다. 이에 비해 김우석은 훨씬 전향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

나도 그렇습니다만, 조선반도를 조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조국이라고 하지 않고 고향이라고 하는 이들이 제일 1세이지만, 1세는 이제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고향)은 태어나고 자란 곳을 말합니다. (중략) 맞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이 다카라즈카가 고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수십년 동경에서 생활했는데, 그 무렵 돌아올 때 마다 정말 그리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고향을 느끼는 마음이겠지요.<sup>473)</sup>

김우석은 다카라즈카를 가리켜 고향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많은 재일조선인들에게 고향을 물으면 아버지의 고향을 말하는데, 그는 태어나고 자란 곳이자 추억이 있는 장소인 다카라즈카를 고향으로 지목했다. 그런 그에게 다카라즈카에서 살고, 그의 자식들과 손주들이 역시 다카라즈카에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김우석은 다카라즈카 시민으로 사는 것과 재일조선인으로 사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글로벌한 시민권획득을 목표로 해서 다카라즈카 시민으로 사는 것과 재일한국-조선인으로 사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청년시대에는 민족교육자로서 활동에 전념했지만, 40대부터는 현재까지 자이니치의 한 사람으로서 기업경영, 문화적인 계발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의 고향은 조선반도의 남도 북도 아닙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선의 고향을 생각했던

472) 김재술(1950년생), 2017년 6월 13일, 구술자 자택

473) 宝塚市外国人市民文化交流協會, 앞의 책, 21쪽

어머니와는 다르게 확실히 나는 이 땅에서 흙이 되겠지요."<sup>474)</sup>

김우석은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 다카라즈카의 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후손들 역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역사를 전해줄 수 있는 재일조선인 2세가 사라지고 나서도 그 역사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존재를 변호하고, 재일조선인으로서 그리고 다카라즈카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고민 속에서 추도비 건립이 진행되었다. 특히 추도비 건립과정을 재일조선인만의 사건으로 만들지 않고, 재일조선인에 대해 우호적이고 그 역사를 잘 이해하는 일본인들과 추도비건립운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일본인을 일종의 증인으로서 활용하는 동시에 다카라즈카 전체의 의미 있는 ‘사건’으로 만들고자 했다.<sup>475)</sup>

추도비는 공사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추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추도비는 식민지라는 시간, 다카라즈카라는 공간, 그리고 조선인의 지역개발 공사 참여와 희생이라는 사건, 이 세 가지가 총망라되어 물질화된 증거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추도비가 가진 상징성은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에게, 그리고 일본인 주민들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첫째,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이 왜 일본으로 이주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곳에 살고 있는지, 그 삶에 역사적인 정당성을 부여한다. 둘째, 뉴커머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재일조선인의 특수성이 약화되고 재일조선인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현실 속에서, 울드커머로서의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셋째,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넷째, 추도비 건립운동에 이념과 민족에 관계 없이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지역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추도비 건립운동 과정에서 재일조선인에게 우호적인 일본인과는 지역 주민으로서 협력관계를 구축하지만, 같은 민족인 뉴커머는 오히려 배제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sup>476)</sup> 지역사회 재정착을 시도하는 과정에

474) 小熊英二·高贊侑·高秀美, 「宝塚で外国人市民の共生目指して」, 『在日二世の記憶』, 集英社新書, 2016 ; 김우석은 다카라즈카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만 애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공간으로서 다카라즈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다카라즈카가 일본인 주민에게도 또 외국인에게도 살기 좋은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김우석(1933년생), 2018년 5월 16일, 회사 사무실).

475) ‘건립하는 회’의 회장은 모리 신이치가 맡고 있다. 김우석은 일본인을 회장으로 한 것은 추도비 건립 과정에서 행정당국과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자칫 재일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추도비 건립이 불허되거나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모리 신이치의 경우 일찍부터 추도활동을 시작했고 일본인이지만 재일조선인의 상황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임자라는 이야기도 했다(김우석(1933년생), 2018년 5월 18일, 회사 사무실)

476) 거의 대부분의 뉴커머가 한국에서 반공교육을 받고 일본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총련 조직의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총련 조직의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는 거리감과 두려움을 나타냈다.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고 총련지부와 민단지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에는 뉴커머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다. 민족마즈리를 제외하면 총련지부와 함께 참여하는 행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혼 후에 자식을 낳으면 조선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말하던 친척을 만났을 때의 충격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총련지부에서 준비한 행사에는 무서워서 참여할 수 없다는 증언도 있었다(홍순자(1963), 2018년

서 동반자의 조건은 같은 국적이나 민족이 아니라 동일한 역사의 공유임을 알 수 있다.

일본 각지의 재일조선인 사회는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그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마다의 방법을 찾고 있다. 재정착의 시도는 비단 다카라즈카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활동이 인상적인 부분은 재정착운동의 과정에서 식민지 시기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일조선인의 기원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강제동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지만, 다카라즈카의 경우 추도비 건립을 통해 자신들의 기원을 식민지 시기의 노동이주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은 식민지시기 조선인의 다카라즈카 이주와 정착에 대해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추도비 건립을 통해 그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정립시켜가고 있다. 자신들의 기원을 식민지 조선에 두면서도 현재의 고국인 한국(북한)을 긍정하고, 앞으로 다카라즈카 지역 주민으로서 살아갈 것이라는 현실도 인정했다. 재정착 과정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 종속되지 않고, 한국인이면서도 동시에 다카라즈카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그 경계 위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sup>477)</sup>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자기 역사를 구축해 왔고, 앞으로도 자기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것이다.

---

6월 27일, 민단 사무실; 황인자(1962), 2018년 6월 27일, 민단 사무실. 반대로 올드커머의 경우 부모세대부터 인적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인식이 뉴커머와는 전혀 달랐다.  
477) 최근 다카라즈카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다카라즈카는 한국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없다. 이에 따라 교류협회의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의 도시와 다카라즈카 사이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2018년 11월 10일 다카라즈카 시의회 의원과 교류협회 회원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의 대구시를 방문해 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매결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 VI. 결론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일본 이주로부터 시작된 재일조선인의 역사는 이제 100여년이 지났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속에서 탄생했지만, 재일조선인은 한일양국의 공식 역사에서 소외되었다. 재일조선인은 거주국인 일본에서는 소수민족으로, 고국인 한국에서는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겨졌고, 그 존재의 양상을 규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셔널(national)의 관점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특징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재일조선인의 존재적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차별과 저항’에 주목했고, 재일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면서 차별과 저항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컸던 도쿄, 오사카, 교토 등의 대도시가 연구의 주요 소재가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구성된 재일조선인의 역사는, 보통의 재일조선인에게 공통의 기억이나 경험이 될 수는 없었다. 재일조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그들의 생활에 매우 많은 변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재일조선인이 정착한 지역이 어디인가에 따라 이주 시기, 이주의 목적, 이주 후의 직업 등이 서로 달랐고, 거주의 방식이나 조선인 마을의 형성 과정, 일본인 지역사회와의 관계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구체적인 생활의 장이자,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이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거기에는 차별과 저항만이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교류, 갈등, 동화, 통합 등 다양한 관계들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재일조선인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과정에서 ‘지역’에 주목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국가차원의 공식역사에서는 소외되었지만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지역사회에서 주민으로 정주하고, 지역의 일본인과 또 고국의 친인척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었다.

이 연구는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지역사회 정주과정에 대한 연구로, 구체적으로는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공동체의 변화와 지역사회 재정착운동을 분석했다. 식민지시기 조선인의 이주와 정착으로부터 재일조선인이 유래했지만,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은 일본이라는 국가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유리되었다. 그러나 정주화가 진전되고 세대가 교체되는 등 재일조선인을 둘러싼 내외부의 조건이 달라지면서 지역사회에서 자기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재일조선인 공동체는 변화의 과정을 겪었고, 지역의 일본인과의 관계 역시 이전과는 달라졌다. 그동안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안에 대응하면서 스스로가 역사 기록의 주체가 되었고, 지역사회에 자신의 위치를 정립했다.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과정을 지역사회 ‘재정착운동’으로 명명했다. 일본제국의 국민으로서 고국으로의 귀환이 언제든 가능한 상황에서 전개된 이주와 정착은, 해방 이후의 정착과는 분명히 달랐다. 해방 이후 외국인의 지위를 가지고, 고국으로의 귀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개된 재일조선인의 정착은 이런 의미에서 재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1920년 무코가와 개수공사를 계기로 다카라즈카로 이주한 조선인은 해방 이후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기원이 되었다. 이들은 제국과 식민지의 경계 위에 있었지만, 일본에서의 정주화가 진전되면서 영주의 의사를 가지기도 했다. 다카라즈카의 조선인은 지역개발 공사에 참여하면서 은코바를 비롯해, 코하마, 나마제 등 공사장 인근에 밀집해서 거주했다. 식민지 시기의 이주는 대부분 체인이주의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 은코바 조선인의 경우 동향출신자들이 많아서 그 네트워크가 매우 촘촘했다. 그러나 다카라즈카 조선인은 사회운동을 주도할만한 역량이 거의 없었고, 일제의 행정적 지도 위에서 겨우 조선인 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조직 등은 자생적으로 조직되지 못했다. 식민지 시기의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특징은 해방 후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사회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은 고국과 일시적으로 왕래가 끊어지고, 외국인이 되어 지역사회의 현안으로부터 유리되었다.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은 식민지 시기부터 형성된 재일조선인 마을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조련지부(총련지부)와 민단지부를 결성하고, 각 조직의 민족학교로 조선학교와 한국소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했다. 두 조직은 서로 교류를 단절한 채 서로 다른 경험을 했다. 민단지부는 공산화교육을 막는 것을 민족교육이라고 생각했고, 총련지부는 일본의 차별에 맞서 조선학교를 지킴으로서 민족교육을 수호했다고 여겼다. 각 조직과 학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역사는 서로 공유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 남북한의 분단 속에서 재일조선인 사이의 갈등과 체제 경쟁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이후에도 참정권 문제나 조선학교 지원 등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재일조선인 사이의 갈등이 반복되었다.

1970~80년대 다카라즈카에서는 신경환 사건, 니시다가와 홍수피해 보상문제, 고령자연금 특별급부금 지급 문제 등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현안이 발생했다. 여기에 대응하면서 개인적으로 사회운동 역량을 축적하는 사람도 있었고, 조직 차원에서 다카라즈카의 일본인 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현안에 대응하며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했다. 다카라즈카의 여러 시민단체들은 재일조선인과 다카라즈카 행정당국을 매개해주는, 동시에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조직 사이를 연결시키기도 했다. 민단지부와 총련지부도 조직 차원에서는 이 때가 최초의 교류였다. 이 교류를 계기로 다카라즈카 민족마츠리가 개최되었고, 재일조선인이 직접 기획한 민족축제로 원코리아 다카라즈카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런 축제를 통해 다카라즈카 지역사회에 재일조선인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으나, 재일조선인 내부의 차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매우 정형화된 재일조선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카라즈카 시가 만든 다문화공생 정책은 대부분 뉴커머 외국인이 중심이었고, 올드커머인 재일조선인은 자신들의 역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카라즈카와 오사카의 재일조선인, 일본인이 중심이 되어 외국인시민문화교류협회를 결성하고,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문화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 식민지시기 다카라즈카 지역개발 공사에서 희생된 조선인을 위한 추도비 건립운동을 추진했다. 추도비는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존재에 대한 변호인 동시에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시도이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은 일본 주민들과 함께 지역개발을 주도해 온 사람들로, 지역주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개발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뉴커머가 배제되는 것은,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은 지역사회의 역사문화를 공유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고, 이것은 모두 재정착운동의 결과물이다.

최초의 이주로부터 최근의 재정착까지,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일본사회로의 문화적 동화는 필연적이고, 세대교체에 따라 국가·민족·친족의 개념은 달라지고 있으며, 남북일 관계의 변화 속에서 재일조선인 조직은 약화되고 새로운 조직이 결성되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매우 광범위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일양국의 재일조선인 연구는 내셔널의 관점을 고수하고 있고, 재일조선인에게서 차별에 대한 저항, 민족정체성 등을 발견하고자 한다. 그러나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 사회가 해방 후 겪고 있는 고립과 교류, 그리고 재정착의 과정은 기존의 관점만으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혼종적 인간인 재일조선인의 존재양상을 설명하고 재일조선인 사회 변화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방 소도시의 재일조선인 사회의 변화 양상을 미시적으로 관찰한 본 연구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재일조선인 중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학업이나 취직 등의 이유로 고국으로 역이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주국에 그대로 정착해서 살고 있다. 이 경우에도 귀화할 것인가, 혹은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경우 동화나 고립이 아닌 지역사회로의 재정착을 시도하고 있다. 다카라즈카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재해석 하면서 재정착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재일조선인이 탄생했다는 것을 근거로 일본에 대해 생활보장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식민지 시기 생존을 위한 노동이주는 다카라즈카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기여로 해석하며 지역사회에서 자기 지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 추도비건립운동이다. 일본 내에 세워진 추도비의 상당수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되지만, 다카라즈카의 추도비는 노동 이주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추도비 건립을 통해 재일조선인을 피해자로만 해석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담당한 주체적인 지역사람으로 다카라즈카에 확인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의 뿌리를 조선에 두면서도, 지역주민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

재일조선인은 다른 국가의 재외국민과는 달리 한국인과 식민지 과거를 공유하면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재일조선인에 대해서 두려움, 선

망, 미안함 등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남북한의 분단에 따라 재일조선인 중 일부가 북한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모호한 두려움과 한국과 일본의 경제격차에서 기인한, 부유한 재일조선인에 대한 선망이 있었다. 최근에는 일본사회의 민족차별을 외면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부채의식이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재조명이나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재일조선인에 대한 이런 복잡한 인식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배제 혹은 막연한 온정주의로 표출되었고, 재외동포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에도 일정한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날 재일조선인은 더 이상 국가에 종속되거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자기 역사를 구축하고, 한일 양국 사이에서 수평적인 주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재일조선인 사회의 기원이 있었고, 긴 시간동안 겪은 내외부의 변화가 있었다. 그 시작과 변화상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역사적 연구의 접근방법을 통해서 오늘날 재일조선인의 지역사회 재정착이 가지는 복합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재일조선인 사회의 형성과 변화의 과정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면서 재일조선인의 생활세계와 네트워크, 기억과 실천, 다원적 경험의 역사화를 시도한 본 연구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구성원과 재일조선인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및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大阪毎日』 『毎日新聞』

『大阪朝日』 『大阪朝日』 神戸附録 『大阪朝日』 阪神版

『神戸新聞』 『神戸又新日報』

『朝鮮新報』 『민단신문』

『중앙일보』

『여성신문』

《経過報告 - 神戸水道建設工事及び旧国道福知山線改修工事中の殉難者追悼碑を建立する会》, 2018.03.24

《‘モニョン=もくれんの会’の賛同募金をお願いします!》, 2017.05.13

兵庫県 河川課, 《昭36, 実施 武庫川不法占據關係》, 1961

兵庫県, 《武庫川水系河川整備基本方針 流域及び河川の概要に関する資料》, 2009.03

兵庫県 社會課, 『朝鮮人の生活状態』, 兵庫縣, 1937

宝塚民族まつり実行委員会, 《実行委員会レジュメ》, 2018.05.10

宝塚市, 《西田川地区環境整備事業報告書》, 1984

\_\_\_\_\_, 「宝塚市の人権関連の年表から振り返りを」, 『先生と市民のための人権教育・啓発パンフレット』, 2017

\_\_\_\_\_, 「外国人」, 『第2次宝塚市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基本方針』, 宝塚市, 2006

\_\_\_\_\_, 『宝塚市統計書』

宝塚市上下水道局, 《第28回宝塚市上下水道事業審議会議事概要》, 2014.07.29

宝塚市外国人市民文化交流協會, 『地球人・宝塚』, 宝塚市外国人市民文化交流協會, 2010~2017

宝塚市人権審議會, 《平成26年度(2014年度)第2回宝塚市人権審議會 議事録》, 2014.10.29

宝塚韓國小學校, 〈實態報告ならびに進學年度特別豫算報告〉, 1958.02.10

西谷村役場, 〈(部外秘)朝鮮人 中華民國人 其他調査書類 - 昭和21年 勅令第107號外國人登録令別冊〉, 昭和21年3月18日

在日大韓民國居留民團 兵庫県宝塚支部, 《定期支部大会》 자료집

全日本自治団体労働組合 兵庫県本部, 《兵庫県下の国籍条項撤廢について》, 2000

中央協和會, 『協和事業』 제2권 제5호, 쇼와15년 6월

\_\_\_\_\_, 『協和事業彙報』 제1권 제2호, 쇼와14년 10월

\_\_\_\_\_, 『協和事業彙報』 제1권 제3호, 쇼와14년 11월

總務廳統計局, 〈總人口(大正9年~平成12年), 日本人人口(昭和25年~平成12年)〉, 2000

## 2. 저서(단행본)

- Richard Hanks Mitchell/金容權 譯, 『在日朝鮮人の歴史』, 彩流社, 1981  
ソニア・リャン, 『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在日朝鮮人とアイデンティティ』, 明石書店, 2005.
- 姜在彦, 『朝鮮月報』 별책, 1975.
- 姜在彦·金東勳, 『在日韓國·朝鮮人歴史と展望』, 労働經濟社, 1989
- 高野昭雄, 『近代都市の形成と在日朝鮮人』, 仏教大学, 2009
- 管野忠郎 編, 『鹿島組資料』, 鹿島建設株式會社, 1963
- 堀内稔, 『兵庫朝鮮人労働運動史 8·15解放前』, むくげ叢書, 1998  
\_\_\_\_\_, 『兵庫朝鮮人労働運動史 八·一五解放前』, 木原印刷, 1998
- 金慶海 編, 『四·二四阪神教育闘争を中心に 在日朝鮮人民族教育擁護闘争資料集』 1, 明石書店, 1988
- 金慶海/정희선 외 譯, 『1948년 한신교육투쟁』, 경인문화사, 2006
- 宝塚市外國人市民文化交流協會, 『わが宝塚わが同胞』, あさひ高速印刷, 1998
- 金英達, 『(金英達著作集Ⅲ)在日朝鮮人の歴史』, 明石書店, 2003.
- 김인덕, 『일제시대 민족해방운동가 연구』, 국학자료원, 2002  
\_\_\_\_\_,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연구』, 국학자료원, 2016
- 金贊汀, 『韓国併合百年と‘在日’』, 新潮選書, 2010
- 김현, 『오사카아리랑』, 어울누리, 2012
- 大阪国際理解教育研究センター, 『우리고장 たからづか』, 宝塚市市民部同和對策課, 1999
- 李羅英, 『朝鮮民族解放闘争史』, 新日本出版社 1960
- 李清一, 『在日大韓基督教会宣教100年史:1908-2008』, かんよう出版, 2015
- 文道平, 『在日朝鮮人の歴史と展望-近現代の朝鮮と日本の關係史』, 大板經濟法科大学出版部, 1998
- 미즈노나오키·문경수/한승동 譯, 『재일조선인-역사, 그 너머의 역사』, 삼천리, 2016
- 民族まつり研究会編, 『民族まつり/マダン 全國交流シンポジウム資料集』, 2012
- 朴慶植, 『日本帝国主義の朝鮮支配』 上下, 青木書店, 1973  
\_\_\_\_\_, 『在日朝鮮人運動史』, 三一書房, 1979  
\_\_\_\_\_,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來事, 1965
- 朴慶植·姜在彦, 『朝鮮の歴史』, 三一書房, 1957
- 朴一, 『<在日>という生き方』, 講談社, 1999

- 飯沼二郎 編著, 『在日韓国・朝鮮人-その日本社会における存在価値』, 海風社, 1988
- 飯田剛史, 『民族まつりの創造と展開(下) 資料編』, 研究成果報告書, 2010
- 兵庫部落解放研究所編, 『記録阪神・淡路大震災と被差別部落』, 解放出版社, 1996
- 兵庫朝鮮関係研究会, 『在日朝鮮人90年の軌跡』, 神戸學生・青年センター出版部, 1993
- 宝塚市, 『宝塚大事典』, 2005
- 宝塚市制三十年史執筆編輯, 『宝塚市制三十年史』, 河北印刷, 1975
- 宝塚市篇, 『宝塚市史 III.近現代』, 宝塚市, 1977
- 宝塚朝鮮初級學校, 『대를이어 빛내리라 40년의 발자국-學校創立40周年記念集』, ツツジ印刷, 1986
- 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在日朝鮮人の生活と住民自治研究会 編著, 『在日外国人の住民自治-川崎と京都から考える』, 新幹社, 2007
- 杉原薫, 『越境する民; 近代大阪の朝鮮人史』, 新幹社, 1998
- 森田芳夫, 『数字が語る在日韓国・朝鮮人の歴史』, 明石書店, 1996
- \_\_\_\_\_, 『在日朝鮮人の推移と現状』, 法務研究所, 1952
- 서경식/형진의 역,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 반비, 2012
- 西谷村役場, 『(部外秘)朝鮮人 中華民國人 其他調査書類 - 昭和21年 勅令第107號外國人登録令別冊(昭和21年3月18日)』, 1946
- 星野修美, 『自治体の變革と在日コリアン - 共生の施策づくりとその苦悩』, 明石書店, 2005
- 小熊英二・高賛侑・高秀美, 『在日二世の記憶』, 集英社新書, 2016
- 水野直樹・文京洙, 『在日朝鮮人-歴史と現在』, 岩波書店, 2015
- 吳圭祥, 『ドキュメント在日本朝鮮人連盟1945-1949』, 岩波書店, 2009
- 外村大, 『在日朝鮮人社会の歴史学的研究-形成・構造・変容』, 緑蔭書房, 2009.
- 原尻英樹, 『「在日」としてのコリアン』, 講談社, 1998
- \_\_\_\_\_, 『日本定住コリアンの日常と生活』, 明石書店, 1997
- 尹健次, 『「在日」の精神史1~3』, 岩波書店, 2015.
- 윤건차/박진우 외 譯, 『자이니치의 정신사』, 한겨레출판, 2015
- 윤택림,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2004
- 李進熙 編, 『‘在日’はいま、在日韓国・朝鮮人の戦後五〇年』, 青丘文化社, 1996.
- 在日大韓基督教會歴史編纂委員會, 『宣教90周年記念誌:1908-1998』, 在日大韓基督教會, 2002
- 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編輯委員會, 『民團50年史』, 서울新聞社 出版事業局, 1997
- 田中廣, 『在日外国人 新版 - 法の壁, 心の溝』, 岩波新書, 1995
- 田中伸尚, 『行動する預言者 崔昌華-ある在日韩国人牧師の生涯』, 岩波書店, 2014
- 田中義岳, 『市民自治のコミュニティをつくろう』, ぎょうせい, 2003
- 정혜경,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 경인문화사, 2003

- \_\_\_\_\_, 『일제시대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연구』, 국학자료원, 2001
- \_\_\_\_\_, 『징용 공출 강제연행 강제동원』, 선인, 2013
- 鄭鴻永, 『歌劇の町のもうひとつの歴史-宝塚と朝鮮人』, 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出版部, 1997
- 정희선,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운동』, 선인, 2014
- 際高麗學會日本地部在日コリアン辭典編纂委員會, 『在日コリアン辭典』, 明石書店, 2010
- 朝鮮歴史編纂委員会, 『朝鮮民族解放闘争史』, 三一書房, 1952
- 조선총독부 편저/김문학 譯,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 북타임, 2010
- 佐藤明·山田照美 編, 『在日朝鮮人-歴史と現状』, 明石書店, 1986
-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연구소 편,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형성 - 이주와 정주를 중심으로』, 선인, 2013
- \_\_\_\_\_, 『재일코리안의 생활문화와 변용』, 선인, 2014
- 樋口雄一, 『協和會, 戦時下朝鮮人統制組織の研究』, 社會評論社, 1986
- \_\_\_\_\_, 『協和會關係資料集 : 戦時下における在日朝鮮人統制と皇民化政策の實態史料4』, 高麗書林, 1992
- 한국구술사연구회, 『구술사 방법과 사례』, 선인, 2005
- 韓國民團宝塚支部, 『宝塚韓國小學校同窓會(2013年11月30日)』, simaura, 2013

### 3. 논문

- 강정훈,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사회의 ‘공익’옹호운동(1945~1947)-재일본조선인연맹의 재산세투쟁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32
- 磯田三津子, 「在日外国人教育方針・指針と外国人児童生徒教育の課題」, 『埼玉大学紀要』 65(2), 2016
- 金慶海, 「1948년 阪神教育闘争은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闘争」, 『한일민족문제연구』, 2008
- 김광열, 「전후 일본의 재일조선인 법적지위에 대한 정책-1991년 “특별영주”제도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7, 2004
- 김명희, 『재일조선인 교육에서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7
- 김인덕, 「신간회 동경지회와 재일조선인 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7, 1997
- \_\_\_\_\_,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운동에 대한 연구 - 재일본조선인연맹 제 4,5회 전체대회와 한신(阪神)교육투쟁을 중심으로」, 『사림』 26, 2006
- \_\_\_\_\_, 「해방 후 재일본조선인연맹의 민족교육과 정체성」, 『歴史教育』 121, 2012

- \_\_\_\_\_, 「해방 후 조련과 재일조선인의 귀환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 2003
- 김태기, 「GHQ/SCAP의 對 재일한국인정책」, 『國際政治論叢』 38(3), 1999
- \_\_\_\_\_, 「GHQ의 반공정책과 재일한인의 민족교육 : 제2차 조선인학교 폐쇄조치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1, 2009
- \_\_\_\_\_, 「미국무성의 대일점령정책안과 재일조선인 정책-일본통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33, 2004
- 김현선, 「재일 코리안의 축제와 민족 정체성」, 『일본연구논총』 26, 2007
- 남경희, 「일본의 다문화공생 추진과 거점으로서 지역 및 학교」, 『한국초등교육』 25(4), 2014
- 大和 裕美子, 「日本市民による植民地支配の記憶の試み - ‘在日筑豊コリア強制連行犠牲者納骨式追悼碑建立實行委員會’を事例に」, 『HOMO MIGRANS』 13, 2015
- 渡辺正恵, 「다카라즈카 한국소학교 사료」, 『追手門學院大學 經濟·經營論集』 9, 追手門學院大學偏執, 2012
- \_\_\_\_\_, 『在日コリアンの定着-宝塚地域を中心に』, 追手門学院大学 経営学研究科 経営学専攻 博士論文, 2013
- 藤室玲治, 『ムラの政治』の戦後事 - 西宮市生瀬地區を中心に』, 神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8
- 木村健二, 「‘협화회(協和會)’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일민족문제연구』 34, 2018
- 문정애,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지역사회 다문화교육 고찰」,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6(2), 2012
- 문채원·박수경, 「‘이카이노(猪飼野)’의 재현을 통해 본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공간의 로컬리티」, 『로컬리티인문학』 5, 2011
- 박지환, 「현대 일본사회에서 부락문화의 형성 - 중졸 부락 남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145, 2011
- 飛田雄一, 「‘申京煥君を支える会’の記録 - 協定永住取得者初めの‘強制送還’との闘い」, 『むくげ通信』 265, 2014
- 徐龍達, 「在日韓國·朝鮮人の地方自治體參政權」, 『일본학』 8, 1989
- \_\_\_\_\_, 「在日韓國·朝鮮人の現狀と課題」, 『일본학』 3, 1984
- 선봉규,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문화변용 연구 -중국조선족과 재일코리안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56, 2014
- 신기영, 「디아스포라론과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안」, 『일본비평』 14, 2016
- 신두섭,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향 - 일본의 시정촌합병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3(3), 2011
- 魚塘, 「解放後初期の在日朝鮮人組織と朝連の教科書編纂」, 『在日朝鮮人史研究』 28,



1998

- 余田博通, 「農業村落社會の倫理構造」, 『関西学院大学社会学部紀要』 47, 1983
- 外國人住民基本法の制定を求める全國キリスト教連絡協議會, 「沿革(2012年1月作成)」, 『全國キリスト者1・30集會』 (30), 2016
- 外村大, 「在日朝鮮人の歴史を地域から見る-可能性と意義」,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 2011(2), 2011
- 이상봉, 「디아스포라와 로컬리티 연구 - 재일코리안을 보는 새로운 시각」, 『한일민족문제연구』 18, 2010
- \_\_\_\_\_, 「디아스포라적 空間으로서의 大阪 코리안타운의 로컬리티」, 『한일민족문제연구』 22, 2012
- 이신철, 「재일동포사회의 통일운동 흐름과 새로운 모색 -원코리아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사림』 52, 2015
- 이정은, 「경계의 균열, 공생(共生)의 문화변용 - 민족축제 ‘마당’을 통해본 교토(京都) 히가시쿠조(東九条)의 역사성과 장소성」, 『사회와 역사』 97, 2013
- 이진원, 「전후 일본 지방자치제도 개정의 쟁점과 의미 - 1946년 지방제도 개정과 1947년 지방자치제도 제정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105, 2015
- 이희숙, 「재일한인축제를 통해서 본 장소의 정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 2003
- 임채완·선봉규, 「디아스포라적 문화접변과 동반성장에 관한 연구 -일본 오사카지역 재일코리안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연구논집』 60, 2014
- 전기호, 「일제하 재일조선인의 차가난(借家難)에 대한 연구:1920~30년대를 중심으로」, 『경제연구』 12, 1996
- 전진호, 「원코리아(One Korea) 운동과 한인 디아스포라」, 『일본연구』 30, 2018
- 정갑수, 「정상회담 이후 재일동포사회의 화해·협력」, 『통일문제연구』 12(1), 2000
- 정진성, 「‘재일동포’의 호칭의 역사성과 현재성」, 『일본비평』 7, 2012
- \_\_\_\_\_, 「조총련조직연구」, 『국제지역연구』 14(4), 2005
- 정혜준, 「1920년대 일본지역 조선인노동동맹회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8, 1998
- 조경희, 「관동대지진 전후 제국일본의 조선인 대책과 사회사업 사상 -‘내선융화’ 사업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128, 2017
- 조경희, 「전후 일본 ‘대중’의 안과 밖 - 암시장담론과 재일조선인의 생활세계」, 『현대문학의 연구』 50, 2013
- 진희관, 『조총련 연구 : 역사와 성격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 박사논문, 1999, 50~53쪽
- 채영국, 「해방 직후 미귀환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37, 2006
- \_\_\_\_\_, 「해방 후 재일한인의 지위와 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25, 2003

- 최영호, 「日本の 敗戦과 釜關連絡船 : 釜關航路의 歸還者들」, 『한일민족문제연구』 11, 2006
- \_\_\_\_\_, 「재일교포사회의 형성과 민족 정체성 변화의 역사」, 『한국사연구』 140, 2008
- 한종완·임영언, 「오사카지역 코리안 커뮤니티의 형성과 문화적 변용 연구」, 『일어일문학』 64, 2014
- 허영란, 「구술과 문헌의 경계를 넘어서」, 『(한국사연구지원보고자료집8)현황과 방법 : 구술·구술자료·구술사』, 국사편찬위원회, 2004
- \_\_\_\_\_, 「지방사를 넘어, 지역사로의 전환-한국 근대 징거사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 20(2), 2017
- \_\_\_\_\_, 「한국근대사연구의 ‘문화사적 전환’ -역사대중화, 식민지 근대성, 경험세계의 역사화」, 『민족문화연구』 53, 2010
- 홍인숙, 「第2次世界大戰直後, GHQ의 在日朝鮮人政策」, 『한일민족문제연구』 1, 2001
- 황익구, 「일본의 ‘다문화공생’ 담론과 재일코리안의 사회운동」, 『日本文化研究』 66, 2018

[부록1] 구술자 기본 정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다카라즈카를 비롯하여 인근의 고베, 오사카, 이타미 지역의 재일조선인과 구술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했다. 구술자 35명의 이름, 성별, 출생연도 등 기본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에 표로 정리했다.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일본식 이름은 가명을 만들 때에도 일본식으로 만들었다. 한국식 본명 외에도 통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구술자 본인이 생각하는 대표 이름만을 표기했다. 본문에서 인용한 구술생애사 인터뷰는 모두 이 명단에 있는 구술자로부터 나온 것이다.

|   | 이름<br>(가명) | 성<br>별 | 출생<br>연도 | 출생지       | 거주지       | 국적 | 주요경력  | 인터뷰<br>날짜      | 차<br>수 | 인터뷰<br>장소 | 비고 |
|---|------------|--------|----------|-----------|-----------|----|---|----------------|--------|-----------|----|
| 1 | 안종구        | 남      | 1941     | 다카라<br>즈카 | 다카라<br>즈카 | 한국 | 한국소학교 출신,<br>토목업 종사   | 2015.<br>05.05 | 1차     | 민단<br>사무실 |    |
| 2 | 모리<br>신이치  | 남      | 1950     | 아오야<br>마  | 다카라<br>즈카 | 일본 | 중학교 교원<br>출신, 민족마츠리<br>실행위원회 대표,<br>추도비건립추진회<br>대표                              | 2015.<br>05.02 | 1차     | 지인<br>자택  |    |
|   |            |        |          |           |           |    |   | 2017.<br>08.28 | 2차     | 자택        |    |
|   |            |        |          |           |           |    |   | 2018.<br>05.02 | 3차     | 키사텐       |    |
| 3 | 김두함        | 남      | 1934     | 대구        | 다카라<br>즈카 | 조선 | 전총련지부<br>나마제 분회<br>회장, 트럭 운전  | 2015.<br>05.02 | 1차     | 자택        |    |
| 4 | 조종우        | 남      | 1943     | 교토        | 다카라<br>즈카 | 한국 | 전총련지부전임활<br>동, 자영업  | 2015.<br>06.18 | 1차     | 가게        |    |
|   |            |        |          |           |           |    |   | 2016.<br>08.05 | 2차     | 자택        |    |
| 5 | 심숙정        | 여      | 1954     | 다카즈<br>키  | 다카라<br>즈카 | 조선 | 총련지부<br>여맹위원장,<br>자영업   | 2018.<br>04.18 | 1차     | 자택        |    |
| 6 | 김우석        | 남      | 1933     | 다카라<br>즈카 | 다카라<br>즈카 | 한국 | 다카라즈카<br>조선학교 출신,<br>조선대학교 교수,<br>경영자<br>외국인시민문화교<br>류협회 고문,<br>추도비건립운동<br>공동대표 | 2017.<br>09.08 | 1차     | 키사텐       |    |
|   |            |        |          |           |           |    |   | 2018.<br>04.09 | 2차     | 회사        |    |
|   |            |        |          |           |           |    |   | 2018.<br>05.16 | 3차     | 회사        |    |
|   |            |        |          |           |           |    |   | 2018.<br>05.18 | 4차     | 회사        |    |
|   |            |        |          |           |           |    |   | 2018.<br>05.22 | 5차     | 회사        |    |
|   |            |        |          |           |           |    |   | 2018.<br>06.27 | 6차     | 회사        |    |

|    |           |   |      |           |           |    |   |                |    |           |           |
|----|-----------|---|------|-----------|-----------|----|---|----------------|----|-----------|-----------|
| 7  | 김민철       | 남 | 1946 | 오카야<br>마  | 다카라<br>즈카 | 한국 | 다카라즈카<br>조선학교 출신,<br>총련 다카라즈카<br>지부 선전부장,<br>문예동 효고지부<br>부위원장 등 | 2016.<br>08.04 | 1차 | 자택        | 전동원<br>사촌 |
|    |           |   |      |           |           |    |   | 2018.<br>11.04 | 2차 | 료겐<br>소학교 |           |
| 8  | 강화자       | 여 | 1951 | 대구        | 다카라<br>즈카 | 한국 | 민단지부 사무원,<br>시아버지가 민단<br>지부 단장                                  | 2018.<br>06.26 | 1차 | 민단<br>사무실 | 뉴커머       |
| 9  | 김정숙       | 여 | 1953 | 다카라<br>즈카 | 고베        | 조선 | 총련 고베지부<br>관련 활동  | 2018.<br>01.21 | 1차 | 자택        |           |
| 10 | 김수희       | 여 | 1959 | 고베        | 고베        | 조선 | 고베조선학교,<br>고베조고 출신,<br>아버지가 4.24<br>투쟁 참여                       | 2017.<br>12.28 | 1차 | 자택        |           |
| 11 | 오타<br>마리코 | 여 | 1949 | 다카라<br>즈카 | 다카라<br>즈카 | 일본 | 한국소학교<br>출신, 민단 지부<br>사무원,<br>민족마츠리실행위<br>원회 소속                 | 2015.<br>05.03 | 1차 | 민단<br>사무실 |           |
|    |           |   |      |           |           |    |   | 2018.<br>05.10 | 2차 | 민단<br>사무실 |           |
|    |           |   |      |           |           |    |   | 2018.<br>06.26 | 3차 | 민단<br>사무실 |           |
| 12 | 최명술       | 여 | 1948 | 다카라<br>즈카 | 다카라<br>즈카 | 한국 | 민단 부인회<br>회장  | 2018.<br>04.13 | 1차 | 민단<br>사무실 |           |
| 13 | 김재술       | 남 | 1950 | 아마가<br>사키 | 아마가<br>사키 | 조선 | 효고조선문제연구<br>회 대표  | 2017.<br>06.13 | 1차 | 자택        |           |
| 14 | 최홍례       | 여 | 1985 | 다카라<br>즈카 | 다카라<br>즈카 | 한국 | 다카라즈카<br>조선학교 출신,<br>현재 가정주부                                    | 2018.<br>04.08 | 1차 | 행사장       |           |
| 15 | 손현자       | 여 | 2000 | 다카라<br>즈카 | 다카라<br>즈카 | 조선 | 고베조고 졸업,<br>조선대학교 진학  | 2018.<br>01.06 | 1차 | 행사장       |           |
| 16 | 서대진       | 남 | 1954 | 니시노<br>미야 | 다카라<br>즈카 | 한국 | 총련 지부 단장<br>출신  | 2015.<br>05.04 | 1차 | 어머니<br>집  |           |
|    |           |   |      |           |           |    |   | 2015.<br>06.17 | 2차 | 자택        |           |
| 17 | 홍순자       | 여 | 1963 | 부산        | 다카라<br>즈카 | 한국 | 결혼 후 이주,<br>전기회사 근무   | 2018.<br>06.27 | 1차 | 민단<br>사무실 | 뉴커머       |
| 18 | 전옥자       | 여 | 1950 | 다카라<br>즈카 | 다카라<br>즈카 | 한국 | 총련지부 사무실<br>근무  | 2016.<br>08.03 | 1차 | 자택        |           |
| 19 | 최동진       | 남 | 1941 | 다카라<br>즈카 | 다카라<br>즈카 | 한국 | 다카라즈카<br>한국학원 이사장,<br>아버지가<br>민단지부 단장                           | 2018.<br>05.11 | 1차 | 민단<br>사무실 |           |

|    |            |   |      |           |           |    |   |                |    |           |                         |
|----|------------|---|------|-----------|-----------|----|---|----------------|----|-----------|-------------------------|
| 20 | 송미진        | 여 | 1937 | 의성        | 다카라즈카     | 조선 | 나마제 주민,<br>4.24한신교육투쟁<br>경험                         | 2015.<br>05.02 | 1차 | 자택        |                         |
| 21 | 신유진        | 여 | 1950 | 다카라<br>즈카 | 카와니<br>시  | 한국 | 한국소학교 출신,<br>민단 지부 부인회<br>부회장,<br>다카라즈카<br>한국어교실 강사 | 2015.<br>05.06 | 1차 | 민단<br>사무실 |                         |
|    |            |   |      |           |           |    |   | 2017.<br>06.26 | 2차 | 민단<br>사무실 |                         |
| 22 | 이시다<br>마츠에 | 여 | 1955 | 다카라<br>즈카 | 도쿄        | 일본 | 다카라즈카<br>재일조선인 관련<br>연구 및 논문                        | 2016.<br>08.06 | 1차 | 민단<br>사무실 |                         |
| 23 | 황인자        | 여 | 1962 | 대구        | 다카라<br>즈카 | 한국 | 결혼 후 이주,<br>보험회사 근무                                 | 2018.<br>06.27 | 1차 | 민단<br>사무실 | 뉴커머                     |
| 24 | 정기자        | 여 | 1946 | 시모노<br>세키 | 다카라<br>즈카 | 조선 | 나마제 분회 여맹<br>위원장                                    | 2017.<br>12.14 | 1차 | 분회<br>사무실 |                         |
| 25 | 전동원        | 남 | 1959 | 다카라<br>즈카 | 다카라<br>즈카 | 한국 | 다카라즈카<br>조선학교 출신,<br>현재<br>자판기판매업                   | 2016.<br>08.04 | 1차 | 키사텐       | 김민철<br>사촌               |
| 26 | 정양식        | 남 | 1959 | 다카라<br>즈카 | 이타미       | 한국 | 다카라즈카<br>조선학교 출신,<br>현재 사진관련 일                      | 2017.<br>08.27 | 1차 | 키사텐       | 정미자<br>조카               |
|    |            |   |      |           |           |    |   | 2017.<br>10.24 | 2차 | 자택        |                         |
| 27 | 조옥진        | 여 | 1954 | 서울        | 다카라<br>즈카 | 한국 | 민단 지부<br>한국학원의 강사,<br>다카라즈카<br>시민대학 강사              | 2017.<br>12.12 | 1차 | 자택        | 뉴커머                     |
| 28 | 정미자        | 여 | 1928 | 상주        | 다카라<br>즈카 | 한국 | 전 민단지부<br>부인회 회장,<br>야키니쿠 가게<br>운영                  | 2015.<br>05.03 | 1차 | 병원        | 정양식<br>고모               |
| 29 | 조말순        | 여 | 1940 | 다카라<br>즈카 | 다카라<br>즈카 | 한국 | 야학, 아버지가<br>총련지부 단장                                 | 2015.<br>06.18 | 1차 | 분회<br>사무실 | 한성수<br>부인,<br>조용수<br>누나 |
|    |            |   |      |           |           |    |   | 2017.<br>12.14 | 2차 | 분회<br>사무실 |                         |
| 30 | 최영만        | 남 | 1925 | 창원        | 다카라<br>즈카 | 한국 | 창원군청 근무,<br>모래채취 회사<br>경영                           | 2015.<br>05.05 | 1차 | 회사        |                         |
| 31 | 조용수        | 남 | 1949 | 다카라<br>즈카 | 다카라<br>즈카 | 한국 | 민단 지부<br>부단장, 토목관련<br>회사 운영                         | 2018.<br>05.11 | 1차 | 민단<br>사무실 | 조말순<br>남동생              |

|    |     |   |      |           |           |    |  |                |    |           |           |
|----|-----|---|------|-----------|-----------|----|--|----------------|----|-----------|-----------|
| 32 | 김선희 | 여 | 1958 | 다카라즈카     | 이타미       | 한국 | 가정주부,<br>자식을 모두<br>조선학교에 보냄            | 2016.<br>08.04 | 1차 | 자택        |           |
| 33 | 최근효 | 남 | 1954 | 니시노<br>미야 | 다카라<br>즈카 | 한국 | 조선학교 교원,<br>동시 작가,<br>탁구 강사            | 2017.<br>09.05 | 1차 | 키사텐       |           |
|    |     |   |      |           |           |    |  | 2017.<br>11.03 | 2차 | 자택        |           |
| 34 | 한성수 | 남 | 1932 | 부산        | 다카라<br>즈카 | 한국 | 전 총련지부<br>나마제 분회장,<br>오사카 채석 근무        | 2015.<br>06.18 | 1차 | 분회<br>사무실 | 조말순<br>남편 |
| 35 | 이재호 | 남 | 1951 | 고베        | 이타미       | 한국 | 미나토가와고교<br>한국어교사,<br>이타미민족마츠리<br>실행위원회 | 2018.<br>04.24 | 1차 | 지인집       |           |

어느 구술인터뷰나 마찬가지로이겠지만, 재일조선인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연구를 하러 지역에 들어갔지만 연구자 자체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다카라즈카의 여러 분들과 얼굴을 익히고 관계를 만드는데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 게다가 미묘한 정치적인 문제도 자리하고 있었다. 남북관계, 한일관계, 북일관계 등 국제정세가 재일조선인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재일조선인 조직의 세력이 이전보다 약화된 상태라고는 해도 지역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네트워크의 하나였다. 지역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상대방에게 실례가 되는 질문을 할 때도 있었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과 답을 하면서 분위기가 어색해 진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자신의 현재 지위를 거론하며 끝내 인터뷰를 거절했던 분도 있었다. 총련지부에서 활동했던 분들 중에는 일본정부나 한국정부로부터 감시를 받거나 여러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어서 인터뷰에 대한 경계심이 특히 높았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만남의 횟수가 반복되면서 경계심이 많이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연구에 공감을 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인터뷰 중에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계속 유지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일조선인 조직의 관계자들이 지역의 재일조선인을 소개해 주었고, 그들이 다시 자신의 친구와 친척 등을 소개해주면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구술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한 분들은 총 35분이지만, 구술생애사 인터뷰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재일조선인, 일본인 등을 만나서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대부분 구술자의 자택이나 회사에서 진행했고, 사진이나 일기, 스크랩한 신문기사 등 개인적인 기록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했고, 그렇게 수집한 자료들은 재일조선인의 생활세계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부록2] 다카라즈카 한국소학교 교칙

### 제1장 총칙

제1조 본교는 대한민국 교육법 및 학교교육 시행령에 준거한다. 재일본인 대한민국 아동에게 양육교육과정과 초등보통학교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교는 다카라즈카 한국소학교라고 부른다.

제3조 본교의 수업연한은 6개년으로 한다. 학년은 다음과 같이 나눠서 3학기로 한다.

### 제2장 학년학기 및 휴교일

제4조 학년은 매년 4월 1일에 시작해서 3월 31일에 마친다.

제5조 제1학기 시작 4월 1일 종료 8월 31일

제2학기 시작 9월 1일 종료 12월 31일

제3학기 시작 1월 1일 종료 3월 31일

제6조 휴교일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경일
2. 일요일
3. 본교창립기념일
4. 하기휴학(여름방학) 시작 8월 1일 종료 8월 31일
5. 동기휴학(겨울방학) 시작 12월 25일 종료 1월 10일
6. 학년말휴가 시작 3월 25일 종료 3월 31일
7. 기타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 비상변재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교장은 임시로 수업을 중지할 수 있다.

### 제3장 교육과정 및 수업시수

제8조 본교의 교육과정은 별표와 같다. (별표 제1호)

### 제4장 성적평가

제9조 학습결과의 성적평가는 정기고사(定期考査)와 평소 수업중 수시고사(隨時考査)로 학년말에 그 성적을 평가한다.

제10조 제8조의 교육과정을 수료할 때는 졸업이라고 한다.

## 제5장 아동정원 및 직원조직

제11조 본교의 학급수는 3학급으로서 정원 120명인데, 학교의 확충에 따라서 변경한다.

제12조 본교의 직원조직은 다음과 같다.

교장 1명

## 제6장 입학·퇴학·전학·휴학과 졸업

제13조 아동입학시기는 매년 4월 1일로 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입학을 인정한다.

제14조 본교입학을 희망하는 아동은 만 6세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입학지원서 수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선발고사를 치를 수 있다.

제15조 아동이 질환(疾患) 그 외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유로 퇴학을 희망할 때는 보호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6조 학교장은 아동이 질환 및 그 외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유에 의해 3개월 이상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는 아동을 휴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제17조 학교장은 전염병 혹은 유사질환의 아동을 타아동의 교육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자에게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타교에서 전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전형의 결과 해당하는 학년에 입학할 수 있다.

제19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 제7장 상벌

제20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보상을 할 수 있다.

제21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정지 및 퇴학을 보호자에게 명할 수 있다.

## 제8장 수업료

제22조 본교의 수업료는 1인당 연액수 1200엔으로 하고, 그것을 12회에 분납한다.

제23조 학년 도중에 입학할 때는 월부[月割] 징수한다.



제24조 입학고시료는 징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가사사정에 의해 수업료르 납부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것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1호에 2인이상의 아동을 교육시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은 연액 600엔으로 한다.

제27조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친회의 찬동(贊同)을 얻어 다소액을 임시징수할 수 있다.

## 제9장 부칙

제28조 본교의 운영은 다카라즈카 한국소학교 운영이사회가 그것을 진행한다.

제29조 본교측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학교장이 별도로 그것을 정한다.

제30조 본교는 단기4281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3] 다카라즈카 한국소학교 사진

※ 한국소학교 교문



※ 한국소학교 폐교 직후의 교실 안 풍경



[부록4] 다카라즈카 조선초급학교 사진

※ 구교사(舊校舍)의 아침조례



※ 신교사(新校舍)의 운동회



※ 신교사 건축 후 수업 풍경



<ABSTRACT>

The change in the Commun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local  
resettlement movement in Takaratuka

Jung, Gyehyang

After the signing of the Korea-Japan unequal Treaty in 1910, some Koreans who moved to Japan on their own or by other means stayed in Japan without returning to their homeland even after liberation. These people and their descendants are now called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 histor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s now more than 100 years old, starting with the colonial migration. Korean residents in Japan were considered a minority in residential district of Japan and a member of the Korean community in their home country, but they have long been excluded from the official history of the two countries, becoming an existing but invisible presence. Many researchers identified Korean residents in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being "a minority who is discriminated against and at the same time resistance." As a result, big cities such as Tokyo, Osaka and Kyoto, where many Korean residents in Japan lived, were likely to create a story of discrimination and resistance. However, the history of such Koreans in Japan could not be a common memory or experiences for ordinary Japanese. This is because the "region" where Korean residents in Japan lived has created so many variables in their lives. That's why the study focused on "region" in the process of finding answers to the question what is the resettlement histor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his is a study on The change in the Commun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local resettlement movement in Takaratuka. Koreans who moved to Takaratuka during the colonial period had different perceptions of their location and role in the community as the conditions surrounding them changed. Korean residents in Japan have made history in tangible and intangible by becoming the main body of historical records while responding to various pending issues occurring in their communities. In this study, we try to make history of the living world and network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memory and practice, and pluralistic experience.

After the liberation, Koreans who moved to Takaratuka in 1920 after Mukogawa's renovation became the origin of Takaratuka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y were on the border of the Empire and the colonies, but they also had the will of the lord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settlement in Japan. Takaratuka Koreans lived close to construction sites such as Yonkova, the Kohama and Namaje. The group residence

was maintained because it was a mass eviction even when it was evicted from the residence. Colonial migration was in the form of chainism, and there was already a human network among Koreans, but the network was very tight because there were many people from the east in the case. However, Takaratuka Koreans were not able to form a group only after receiving administrative guidance from Japan, such as the Inner Line thawing group, because their social movement was weak, and the organization of labor unions or business partners could not be created naturally. Such a pattern has affected the formation of a society for Takaratuka Japanese after liberation.

After liberation, Korean residents in Japan gained an advantage from pending issues in the community as they became foreigners in Japanese society, and were temporarily cut off from their home country and isolated like an island. Takaratuka's Korean residents in Japan were living in the village, which was form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y formed a training branch (Chongryon branch) and a private complex, and established and operated shipbuilding schools and Korean elementary schools as ethnic schools of their respective organizations. The two organizations had different experiences, cutting off from each other. The Ministry of Civil Affairs considered preventing communist education to be a national education, while the Chongryon branch defended national education by protecting Joseon schools against discrimination by Japan. The history of each organization and school has been unshakable.

In Takaratuka in the 1970s and 1980s, pending issues related to Koreans in Japan, including the Shin Kyung-hwan incident, the issue of compensating Nishidaga and flood damage, and the payment of special payments to elderly pensioners. In response to this, some people have accumulated capacity for social movements personally, and at the organization level, they have worked together with Japanese social groups in Takaratuka to create new networks. Various civic groups in Takaratuka mediated the pro-Pyongyang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Takaratuka, as well as linking them to the organizations of Takaratuka pro-Pyongyang Koreans in Japan. In the case of the Ministry of Civil Complexes and the Chongryon branch, the exchange relationship between the organization level was crea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ake of the exchange, Takaratuka National Matsuri was held, and a national festival organized by Korean residents in Japan was held by Takaratuka Won Korea. The festival was able to actively reveal the existenc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Takaratuka communities, but in the process of eliminating differences within the Japanese people, the imag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as also created.

Since the mid-1990s, the multicultural symbiotic policy created by Takaratuka City has been largely centered on Newcomer foreigners, while the old-comer Koreans in

Japan were feeling a sense of crisis that their history might disappear. Against this backdrop, Japanese and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Takaratuka and Osaka took the center stage to form an association for the exchange of foreign citizens' cultures, and to promote the history and cultur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Takaratuka to the community. It also pushed for a campaign to build memorials for Koreans killed in the Takaratuka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memorial is an attempt to redefine their history and identity as well as defend the existence of Takaratuka Korean residents in Japan. Takaratuka, a Korean resident of Japan who has led regional development with Japanese people, is entitled to live by enjoying equal rights as a local resident. The exclusion of Newcomers who fail to participate in the regional development process presents a characteristic of the community that has been newly formed in the region. Takaratuka's ethnic Koreans in Japan and Japanese were creating a new community that shared the community's historical culture, and this is all the result of the resettlement movement.

Takaratuka, a Korean resident in Japan, has been sidelined from official history, but he has carved his own history into the community by forming relationships with various entities in the community, responding to pending issues and practicing them. Depending on the issues of the community, the aspects of the relationship are diverse and complex, with each subject confronting, cooperating, conflicting and interacting with each other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 and pos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residents in Japan was the sam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Japanese citizens was the same. Given this multilayered and pluralistic relationship in the region, it is not enough to define Korean residents in Japan only as a few who are discriminated against and resisted.

As a minority in Japanese society, Koreans in Japan, who used to place themselves in history as an ethnic Korean, are now attempting to record their own history anew as "Dakarazuka pro-Pyongyang Korean residents in Japan." Activities aimed at maintaining a more stable life in a residential area while preserving its ethnic identity could be named as a resettlement campaign. It does not naturalize itself or maintain a national community, but rather actively reveals its presence in the community and practices practical actions. Recently, there have been attempts to play a diplomatic and cultural bridge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 and Japan, beyond the level of the community.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who did not belong anywhere, are embracing themselves as a mixed-race, establishing their place in the community and reshaping the history of Takaratuka.

keyword : Korean residents in Japan, Takaratuka, Local community, Ethnic community, Resettlement movement